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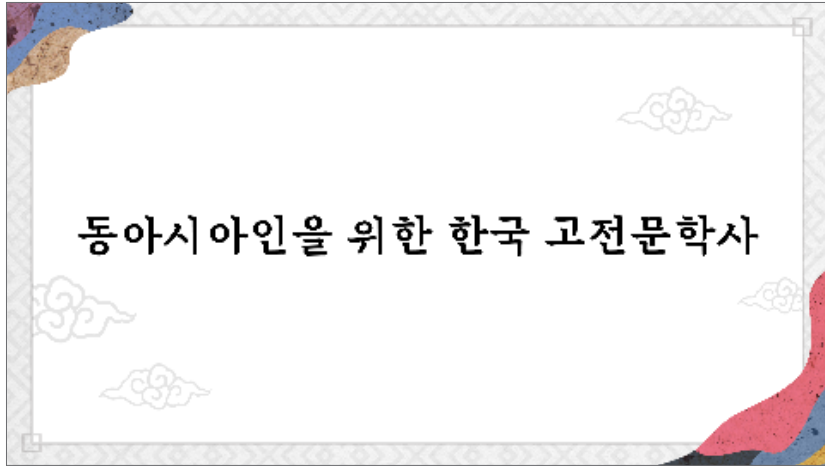
한국어문학의 심화와 확산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가이드북

동아시아인을 위한 한국 고전문학사

김대중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이 영상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AKS-2021-KDA-1250006)



강의 계획서

과목명: 동아시아인을 위한 한국 고전문학사
 분과: 고전문학 수준: 넓게 보기(고급)

강사명: 김대중
 특징: 권역형, 학제간

구성: 총 10강
 수업 방식: 강의형

강의 목표

1. 한국 고전문학의 역사적 전개상을 조망합니다.
2. 자유와 평등에의 지향,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연대의식 등의 가치를 한국 고전문학이 어떻게 지켜왔는지 살펴봅니다.
3. 비교문학적 · 문명교류사적 시각을 도입함으로써 일국적 차원을 넘어서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한국 고전문학사를 파악합니다.

강의 계획

순서	강의 제목	강의 내용
제1강	옛노래의 서정 주제 - 향가와 고려가요	제1차시: 향가 이전의 고대 시가 제2차시: 향가의 범위와 형식적 특징 제3차시: 향가의 역사적 전개상 제4차시: 향가의 현실적 효과와 정서적 표현 제5차시: 고려가요의 세계 제6차시: 더 생각해볼 문제
제2강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본 전기소설 - 『금오신화』, 『전등신화』, 『전기만록』	제1차시: 자료 개관 제2차시: 애정 전기소설의 인간형 제3차시: 주제의식 제4차시: 결말구조 제5차시: 공간구성과 시간의식 제6차시: 더 생각해볼 문제

제3강	전란의 동아시아 - 「최척전」과 「김영철전」	제1차시: 전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 제2차시: 「최척전」의 특징 제3차시: 「최척전」의 소설사적 의의 제4차시: 「김영철전」의 특징 제5차시: 「김영철전」의 소설사적 의의 제6차시: 더 생각해볼 문제
제4강	시적 평등 선언 - 김려의 「방주가」	제1차시: 작가 소개 제2차시: 「방주가」 개관 제3차시: 「방주가」의 인물 형상화 제4차시: 「방주가」의 평등의식 제5차시: 「방주가」에 반영된 민중의 생활 현실 제6차시: 더 생각해볼 문제
제5강	체제 모순에 대한 시적 대응 - 정약용의 현실비판시	제1차시: 작가 소개 제2차시: 조선시대 현실비판시 개관 제3차시: 정약용의 문예관과 현실인식 제4차시: 시를 통한 현실 고발 제5차시: 여성의 처지에 대한 증언 제6차시: 더 생각해볼 문제
제6강	고통의 공유와 여성의 연대 - 「텐둥어미화전가」	제1차시: 「텐둥어미화전가」의 장르적 특징 제2차시: 「텐둥어미화전가」의 형식적 특징 제3차시: 화전놀이의 준비 제4차시: 텐둥어미의 인생유전 제5차시: 고통을 통과한 뒤의 달관 제6차시: 더 생각해볼 문제
제7강	민의 욕망과 행위 전략 - 야담의 세계	제1차시: 야담 개관 제2차시: 치부담 제3차시: 신분상승담 제4차시: 군도담 제5차시: 더 생각해볼 문제
제8강	일본에의 시선 - 「해유록」과 「일동장유가」	제1차시: 조일 관계와 통신사 제2차시: 「해유록」과 「일동장유가」의 작가 제3차시: 「해유록」 내 일본 및 일본 문화에 대한 관찰 제4차시: 「해유록」 내 일본 사회에 대한 분석 제5차시: 「해유록」에 나타난 외교 현장 제6차시: 「일동장유가」의 일본 인식 제7차시: 더 생각해볼 문제
제9강	대청제국에 대한 변방지식인의 시선 - 『열하일기』	제1차시: 『열하일기』를 보는 시각 제2차시: 『열하일기』의 성립 배경 제3차시: 청나라에 대한 관찰 제4차시: 복합적인 자타인식과 문명의식 제5차시: 변방지식인의 면모 제6차시: 더 생각해볼 문제
제10강	동서 문명의 충돌과 융합 - 한국 고전 문학과 서학	제1차시: 한역 서학서 개관 제2차시: 서양 문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제3차시: 기하학을 탐닉한 지식인의 초상 제4차시: 『교우론』과 조선후기 우정론 제5차시: 서구적 인간중심주의 비판 제6차시: 더 생각해볼 문제

수강생 유의사항

1. 학습활동으로 제시된 퀴즈, 토론, 보고서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 강의 내용 및 학습 과정과 관련해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 K-MOOC 강의 게시판 또는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제1강〉

옛노래의 서정주체 향가와 고려가요

학습 목표

1. 고대 시가의 기원과 개념을 이해하고 「구지가」와 「황조가」의 배경과 특징을 파악한다.
2. 향가의 개념과 형식, 역사적 전개상, 현실적 효과와 정서적 표현에 대해 이해하고 몇몇 주요 작품을 감상한다.
3. 고려가요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가시리」와 「정음사」를 감상한다.

강의 핵심 요약

‘옛노래의 서정 주체’라는 제목으로 향가와 고려가요를 살펴보았다. 먼저 향가 이전의 고대 시가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의 중요한 작품으로는 「구지가」와 「황조가」가 있다. 「구지가」는 육가야의 건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신군가(迎神君歌)로, 신에게 임금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황조가」는 고구려 유리왕의 두 아내인 화희와 치희의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황조가」는 유리왕의 개인적 불행과 관련지어 해석되기도 하고, 고구려 초기의 부족 통합 시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당시 민간과 임금 사이에 있었던 공감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고려사』 악지 「삼국속악」에서 삼국 시대에 불린 노래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향가는 향찰로 표기된 신라의 시가를 일컫는 말로, 신라 중엽에서 고려 초까지 창작되었다. 향가는 행수에 따라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분류되며, 향가의 형식적 특징으로는 ‘차사 사녀격’과 ‘삼구육명’이 지목되어 왔다. 향가는 주술성, 종교성, 정치성 등 현실적인 효용을 위해 창작되기도 했고, 소중한 사람의 부재에 대한 슬픔이나 쇠락과 소멸에 대한 슬픔 등을 표현하는 서정시로서 창작되기도 했다. 주술성을 지닌 향가로는 「혜성가」, 「서동요」, 「원가」, 「도솔가」 등을 들 수 있고, 종교

성을 지닌 향가로는 「풍요」와 「원왕생가」를 들 수 있으며, 정치성이 나타난 향가로는 「안민가」를 들 수 있다. 한편 정서적 표현이 두드러진 향가로는 「모죽지랑가」와 「제망매가」를 들 수 있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의 노래로, 조선시대까지 향유된 고려의 궁중악을 통해 전승되었다. 고려가요의 기원은 다양하지만, 주제상으로는 상당수가 고려 시대 서민들의 생활고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가시리」와 「정읍사」를 살펴보았다. 「가시리」는 여성의 목소리로 이별의 슬픔과 재회에 대한 바람을 노래하고 있다. 「정읍사」는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 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두 작품은 여성 화자를 내세워 사랑과 소망의 감정을 소박하면서도 곡진하게 표현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강의 내용 전문 ◆

강의 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은 동아시아인을 위한 한국 고전문학사 첫 시간인데요. 고전문학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옛 노래, 시가, 향가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고려가요, 이 두 가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고전문학사를 시작할 때는 구비문학까지를 포함하면 건국 신화, 창세 신화 그리고 무속 신화 이런 것들을 더 시원적인 것으로 먼저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문헌으로 된, 문자로 기록된 작품을 위주로 하고 그래서 향가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건국 신화 등의 구비문학이나 신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전문적인 수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서 이 수업에서 굳이 다루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우선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향가를 다루기에 앞서서 향가 이전에도 고대 시가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흔적들을 더듬어가면서 향가 이전의 고대 시가가 어떤 식으로 존재해왔는가 이거를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수업에서 주인공인 향가를 본격적으로 다룰 건데요. 먼저 향가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전반적인 형식적인 특징을 옛 기록에서 어떤 식으로 언급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예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향가 주요 작품을 읽어보기에 앞서서 향가 작품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전개상을 한번 거시적으로 살펴보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작품으로 파고들어서 향가의 작품을 볼 건데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보려고 합니다. 노래가 갖는 현실적인 효과, 즉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어떻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향가를 전승해온 점에 주목을 하는 게 한 가지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라고 할 때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 본연의 서정성, 어떤 정서적인 표현력, 이런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즉 향가의 현실적 효과 그리고 정서적 표현, 이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향가 작품을 보게 될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향가에 이어서 또 중요한 고대 시가인 고려가요 주요 작품을 몇 가지 검토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번 수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더 생각해볼 거리가 뭐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강의 순서

1. 향가 이전의 고대 시가
2. 향가의 범위와 형식적 특징
3. 향가의 역사적 전개상
4. 향가의 현실적 효과와 정서적 표현
5. 고려가요의 세계
6. 더 생각해볼 문제
7.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1. 향가 이전의 고대 시가

• 노래의 구성 요소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가 이전의 고대 시가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시가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 이 시가의 구성 요소 중에 가사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생각하면 이 노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종합적이죠. 일단 음악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 보면 노래인데 음악을 제거하고 가사만 감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반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의 노래는 우리가 음악을 알 수 있지만 고대 시가의 경우에는 음악적 특징이나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노랫말은 언어로 구성이 된 것이고 이것은 문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래는 대체로 그냥 되지는 않았고요. 대체로 고대 시대에서는 제의의 어떤 하나로 향유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춤도 같이 추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 이런 것들이 사실 개입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또한 지금은 문헌을 통해서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 춤을 춘다, 이런 것들은 또 육체 행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이 시가는 원초적인 모습을 더듬어 가면 이 육체성을 갖는, 신체성을 갖는 그런 예술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부르는 사람이 일단 있어야 되죠. 그러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노래에 뭔가 감응을 느껴서 따라 부르는 사람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노래가 퍼지게 되는 것이어서요. 어떤 상호작용, 서로 간의 감응력이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은 역시 몸의 작용을 매개로 하는 거죠, 노래라고 하는. 그리고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현실적인 작용력이라든가 서정성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저에 깔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 제의에서의 춤과 노래

이렇게 해서 노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떠올려봤고요. 방금 설명에서 나왔다고 고대 시가가 어떤 환경에서 불러졌을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면 제의에서의 춤과 노래가 중요합니다. 고대에는 여러 가지 제천 행사가 있었다는 것이 문헌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역사 기록들에 따르면 부여의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고구려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또 예맥 지역이라고 할 때 그 예라고 하는 곳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 행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보이고 또 “밤낮으로 먹고 마신다”, 이런 서술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편적인 기록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이런 제천 행사가 노래와 춤이 재현되는 장이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또 “밤낮으로 먹고 마신다”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카니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행사였다는 것 또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고대 시가들은 대체로 이런 배경에서 산생이 되고 문헌으로 정착이 돼서 지금까지 전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제의라고 하는 이 환경이 중요한 게 고전 시가 중의 대표적인 작품인 「구지가」를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어떤 주술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고대 시가에서 중요하고 이 주술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실에서의 작용력 같은 거를 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시가를 향가를 공부할 때 어떤 현실의 작용력 쪽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 「구지가」

자, 이렇게 해서 제의와 연관되는 노래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고전문학사에서 상당히 앞자리에 놓여 있는 이 「구지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지가」는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서 많이들 알고 있는 작품인데요. 달리는 제목을 <영신군가>, 신령한 임금님을 맞이하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뜻인데요. 이 노래는 그냥 가사만 봐서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배경이 되는 설화를 같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지가」라고 하는 노래는 육가야의 건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삼국유사』 중에 「가락국기」에 자세하게 관련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요약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가야국이 있었던 그 지역이 아직 나라가 없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름도 당연히 없고 임금, 신하 이런 구분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시다.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건데요. 구지봉 부근에서 어떤 신비한 목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목소리에 따르면 이 하늘의 명으로 자신, 그러니까 목소리의 주인이죠. 자신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너희들이 이 노래 즉 「구지가」를 불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이 「구지가」는 육가야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는 어떤 신비한 존재가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부르라고 가

르쳐준 노래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간, 그러니까 부족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느렸던 한 300여 명의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구지봉 봉우리의 흙을 파면서 「구지가」를 부르고 춤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의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이렇게 드리워졌답니다. 그래서 그 줄의 끝을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빛 상자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해같이 둥근 황금알이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이틀이 지나고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봤더니 이 상자를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6개의 알이 변해서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용모도 출중해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이 느껴지는 그런 동자 아이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막 자라는데 10여 일이 지나고 나니까 신장이 구 척이나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알에서 생겨난 아이들이 커갔는데 그래서 그달 보름에 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처음으로 나온 애, 애를 처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머리 수 자, 머리 수 자는 여기서 처음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노출하다, 드러나다라는 노 자, 흔히 이슬 노 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처음 나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수로왕이 나라의 이름을 대가락, 가야국 이렇게 국호를 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섯 아이 중에 다섯 아이가 남죠. 나머지 5명도 각각 돌아가면서 나머지 오가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 이 『삼국유사』에서 전해주는 「구지가」의 배경 설화입니다. 이렇게 배경 설화를 한번 더듬어 봤고요.

「구지가」는 실제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소박한 노래입니다. 원문은 지금 한문으로 전술되어 있지만은 한글 번역으로만 일단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노래라고 할까 시라고 하는 것과는 좀 많이 느낌이 다르죠. 보면 이렇게입니다. “거북아 거북아”, 상대방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다음 “머리를 내라”, 명령을 그다음에 하고요. 그다음 맨 끝에 “구워 먹겠다” 하고 위협을 하는 노래입니다. 그다음 위협을 하기 전에 어떤 조건을 내뱉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세우냐면 “내놓지 않으면”, 머리를 내지 않으면 구워먹겠다, 즉 그러니 머리를 내어라. 이런 식의 호칭, 명령, 조건, 위협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북이는 우리가 배경 설화를 살펴보면서 확인했다시피 사실상 신군 즉 신적인 존재를 부르는 것이어서 거북이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적인 장소가 구지봉이기 때문에 거북이가 된 것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만 보진 않고 이 거북이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의 모양이 풍요와 다산을 가능케 하는 인체의 특성과 닮아 있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는 거북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어떤 점을 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주술적인 힘, 이런 것도 아마 배경에 깔려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 고대에서도 점을 칠 때 거북이 등껍질을 태워가지고 그때 생기는 무늬, 문자 비슷한 그런 걸 가지고 점을 쳤었거든요. 거북이가 일종의 예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신화적인 상상력을 반영한 것인데요. 그런 어떤 주술적인 힘에 대한, 거북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북이가 만일 신적인 존재를 사실상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거북이를 구워 먹겠다는 협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신은 인간보다 높고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보다 힘이 강하고 인간이 신에게 간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협박을 하다니 이거는 뭐가 좀 맞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일단 구워 먹겠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자 그대로 구워 먹겠다는 것을 위협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걸 어떤 비유적인 거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선 두 번째부터 먼저 보면 이 노래가 아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다라고 서술이 됐었잖아요. 그런 데서 짐작을 할 수 있다시피 어떤 고대의 제의의 하나로 이 노래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그런 퍼포먼스의 하나로 재현이 됐었던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를 희생으로 삼아서 공양으로 드리는 것, 이거를 거북이를 구워 먹는다고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이죠. 단순히 거북이를 위협한다기보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고요.

또다시 첫 번째 측면으로 돌아가서 정말 신과 인간의 관계인데 위협 조의 이 말하기 방식이라는 게 왜 성립이 되는가, 이거는 고대 시대의 신 관념하고 지금의 신 관념의 차이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에게 어떤 조건을 걸고 위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신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협박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신 관념과 다른 고대인의 신 관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대에서의 인간과 신의 관계는 지금의 인간과 신의 관계보다 굉장히 상호 교환 관계가 더 투철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신 관념은 고등 종교에서 발전하고 정립된 신 관념인데요. 고등 종교에서는 대체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좀 일방적인 복종 관계에 가깝습니다. 인간이 신을 절대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의심을 하면 안 되고. 근데 고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나도 신을 믿을 이유가 없고 신에게 뭔가 요구 사항이 있으면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협박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인간과 신의 관계가 좀 더 인간적이라고 할까요. 좀 더 평등하다고 할까요. 좀 더 상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을 부르면서 “나오지 않으면 구워먹겠다”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구지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구지가」의 경우는 흥미롭게도 고고학적인

또 성과를 통해서 좀 새롭게 고찰할 만한 지점이 생깁니다. 최근 2019년 3월에 경북 고령에 고분군이 있는데요. 여기 대가야의 석관이 있습니다. 이게 출토가 됐는데요. 여기에 출토를 해서 흙으로 된 방울을 여러 개를 출토를 했습니다. 이 방울은 지름이 5cm였다고 해요. 여기에 재미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남성의 성기가 새겨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구지가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된 이유가 그런 연상 작용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딱 매치가 되는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이 방울에 그것과 더불어 거북이 등쪽 꺾테기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지가」 바로 떠오르시죠? 그다음에 갓을 쓴 남자하고 춤을 추는 여성 이런 게 이제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 또한 「구지가」를 부르면서 춤을 췄다고 하는 제의의 장면을 새겨 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또 하늘에서 줄이 매달려서 내려오는 자루, 이런 것들이 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2019년 경북 고령에서 출토된 대가야 석관에서 출토된 이 방울에 새겨진 것들을 보면 「구지가」의 노래 내용 그리고 「구지가」가 불러졌던 그 장면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황조가」

이렇게 해서 「구지가」의 면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런 「구지가」는 노래 중에서 좀 주술성이 강한, 즉 현실에 대한 작용력을 중시하는 그런 계열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향가 이전 고대 시가 중에는 서정성을 또 내세운 그런 작품도 확인이 됩니다. 「황조가」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일단 이 「황조가」의 경우는 가사만 볼 때랑 배경 설화를 두고 같이 볼 때랑 좀 느낌이 많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경 설화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화는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데요. 화희와 치희라고 하는 두 여인의 갈등을 배경으로 한다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려왕 유리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주몽의 아들이죠. 원래 유리왕에게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죽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옛날 관념으로는 아내 없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국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두 여성과 재혼을 합니다. 그 한 여성은 골천 사람인 화희이구요. 나머지 한 여성은 한나라 사람인 치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사이가 좋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이 두 여인보고 각각 다른 방향에 살도록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따로 살게 합니다. 가정불화 상태를 해결을 못 한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유리왕은 기산에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이때 사냥은 단순히 레포트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요. 국가 지도자의 군사 훈련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냥을 하는데요. 그러느라고 귀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잠재돼 있던 갈등이 폭발을 하게 돼요. 두 여인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화희가 치희를 이렇게 비난을 해요. “저 천한 한나라 것이 위아래도 모르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말에 치희는 치욕감과 굴욕감을 느껴서 고구려를 떠나버림

니다. 근데 유리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가서 치회를 만류합니다. 근데 치회는 마음을 돌리지 않고 결국은 떠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다음 유리왕이 어느 날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피꼬리가 모여 있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자기 아내가 둘이었었는데 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떠난 거, 그에 대한 어떤 느낌이 들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게 바로 「황조가」입니다. 그래서 유리왕이라고 하는 국가 지도자의 가정불화를 배경으로 한 노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배경 설화부터 먼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유리왕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유리왕은 원래 고주몽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다가 나중에 고구려로 돌아오게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아들로서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 뻘냐 하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배경 설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외교 분쟁으로 자기 아들을 죽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버지로서 불행한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다시피 첫 아내를 사별하고 나서 둘째 아내들의 불화를 해결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즉 남편으로서 불행한 존재이죠. 세 가지 측면에서 아들, 아버지, 남편으로서 다 불행합니다. 국가 지도자지만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걸 어떤 것을 암시하나면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전능하게 자기 마음대로 다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존재, 뭔가 자기가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떠안는 존재가 등장하는 걸 보여줍니다. 즉 신화의 시대가 종말이 되고 인간의 역사의 시대가 펼쳐지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요. 바로 이렇게 신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인간의 시대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에서 이 서정성이 있는 노래가 발생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회하고 화회라고 하는 이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화회하고 치회는요. 한자를 보시면 화는 벼 화자고요. 치는 꿩 치자입니다. 회는 여성을 뜻하는 글자고요. 그래서 화회는 벼농사 농경 부족을 대표하는 명명이고 치회는 수렵을 하는 부족을 대표하는 명명입니다. 그러니까 치회와 화회를 동시에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은 이 유리왕이 결혼을 통해서 서로 다른 부족을 이 고구려의 틀 안으로 통합하고자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적이 다른 게 주목이 되는 거죠. 화회는 고구려 출신인데 치회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질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불화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화회가 치회에 대해서 한나라 천한 것이라고 비난한 데서 드러나죠.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외국인 혐오 발언 비슷한 것이 있었던 것이고 이 결혼을 통한 부족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부족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치회를 결국은 떠나보내고 나서 나중에 외로움을 느끼고 불렀다는 이 「황조가」는 어떤 노래인가? 이것도 가사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한글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펼 펼 나는 저 피꼬리
암수 서로 정겨운데
외로운 이 내 몸은
넋과 함께 돌아갈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지가」랑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암수가 정겹게 있는 피꼬리와 외로운 자신이 대비가 되는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자족적이고 무결점의 자연의 세계와 그에 비해서 결여가 있는 인간의 마음이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피꼬리를 통해서 어떤 짝, 암수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민간 가요에서 많이 나왔던 모티브인 일종의 짝짓기 모티브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유리왕이 이 노래를 통해서 개인적인 외로움을 일단 토로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서 이 노래의 서정성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경 설화를 같이 염두에 두면 이 노래는 단순히 개인의 서정을 토로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유리왕의 고독은 즉 정치적인 좌절을 또 토로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유리왕의 고독은 개인의 고독이라기보다는 국가 지도자의 고독인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노래라도 어떤 맥락에 놓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잊어진 노래의 흔적들

–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 「삼국속악」(三國俗樂)

자, 이렇게 향가 이전의 고대 시가의 흔적들을 살펴봤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고려사』 「악지」라고 하는 파트 중에 「삼국속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은 잊혀진 삼국 시대의 노래의 흔적들을 우리가 더듬어 갈 수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구려의 노래로 언급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원성」이라고 노래가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외국의 미개인들이 귀순한다는 내용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연양」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불에 타 없어지는 나무의 마음으로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노래한 작품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명주」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의 강릉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난 남성을 기다리는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노래라고 해요. 이 중에 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설정은 고구려 사회랑은 맞지가 않아서 이것도 고구

려 당시의 노래는 아닐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그다음 백제의 노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노래 제목을 보면 「선운산」, 「지리산」, 「방등산」, 「무등산」, 「정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고구려 노래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무슨 무슨 산 그리고 정읍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 이렇게 해서 좀 각각의 지역성을 좀 대변하는 좀 더 지역 밀착적인 이런 느낌을 자아내는데요. 이 「선운산」이라고 하는 노래는 부역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내용의 노래라고 합니다. 민중의 생활 실상을 반영한 노래인 것이죠. 「지리산」의 경우는 백제왕의 겁박에도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여성의 노래라고 합니다. 즉 요즘으로 말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수호한 여성의 어떤 의지 이런 거를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등산」은 도적에게 납치된 자신을 구출해주지 않은 남편을 여성이 원망하는 내용의 노래라고 해요. 그다음 「무등산」의 경우는 산성 축조를 백성이 기뻐하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 세 노래와는 달리 좀 지배층에 좀 잘 맞는 이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정읍」은 나중에 고려속요의 「정읍사」를 떠올리게 하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행상을 떠난 남편을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내용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등산」을 제외하고는 일반 서민의 생활고를 노래로 많이 반영을 한 것이고 또 보시면 여성 화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백제 문화권에 여성 화자의 전통이 있는데 이런 전통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향가의 범위와 형식적 특징

그럼 지금부터 향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가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향가는 주로 신라의 시가를 일컫는 말인데요. 신라 중엽에서 고려 초까지 산생된 노래인데 향찰로 표기된 것입니다. 향찰, 향가라고 할 때 향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는 시골 향이라고 흔히 하는데 시골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중국 한시와 구별되는 우리 시가라는 뜻이어서 요즘으로 치면 로컬 개념에 좀 더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향가는 향찰이라고 하는 표기에 착안을 한 명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향가를 수록한 문헌은 『삼국유사』입니다. 현재는 『삼국유사』에만 실려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가의 성격을 파악할 때 그 전승 자료인 『삼국유사』의 문헌적 성격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기본적으로는 주술, 종교 이런 거를 중시하는 계열의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국유사』에 포함된 향가들도 그런 비슷한 성격을 갖는 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가 전체가 다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삼국유사』에 포함된 향가가 『삼국유사』라고 하는 문헌의 성격에 맞는 것만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향가가 또 달리 있었을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좀 단정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현존 향가의 경우는 애정 주제가 별로 없거든요. 여성 화자도 잘 보이지 않고요. 또 경주의

지역 문화의 모습도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향가 자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혹시 『삼국유사』라고 하는 문헌의 문헌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향가의 표기 문자인데요. 이걸 향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향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독이 굉장히 어렵고 이 해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에는 주로 향가 해독 중에 김완진 선생님의 해독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현대어로 재가공을 한 그런 번역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향가의 하부 갈래하고 형식적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향가는 대체로 4구체 향가, 8구체 향가, 10구체 향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은 연구자들이 말하는 특징보다는 여기서 고전 문헌에서 이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을 어떻게 말했는가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삼국유사』에 보면 ‘차사 사녀격’이라고 하는 말이 보여요. 이게 어디에도 보이냐면 신라 3대의 유리 이사금이 유리 이사금 시절에 나온 「도솔가」라고 하는 노래가 ‘차사 사녀격’을 갖추었다라고 단편적으로 『삼국유사』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 「도솔가」라고 하는 노래는 삼국사기에서는 가악의 시조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그래서 ‘차사 사녀격’의 실체가 뭐냐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차사’의 경우는 이해하기가 쉽지만 ‘사녀격’은 사실 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현재로서는 밝혀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사’는 감탄구를 뜻하는 것인데요. 10구체 향가의 경우를 보면 9행 첫 부분에 “아야” 뭐 이런 식의 감탄 어구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를 ‘차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녀격’이에요. ‘사녀’라고 하는 뜻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은 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향가의 어떤 장르적인 요건을 ‘사녀격’이라고 옛날에 명명을 했구나, 이렇게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균여전』이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요. 「보현시원가」를 번역하면서 “한시는 중국어를 엮어서 오언칠자로 짓는데 향가는 우리말을 배치해서 삼구육명으로 다듬는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향가의 경우는 ‘삼구육명’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특징이 보이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즉 10구체 향가를 4행, 4행, 2행 이런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이 셋으로 나눠서 이 셋을 ‘삼구’라고 하고 또 이 삼구를 각각 또 둘로 나눠서 즉 4행은 2행 · 2행, 2행은 1행 · 1행 이렇게 삼구 각각을 둘로 나누면 ‘육명’이 된다, 이것이 ‘삼구육명’이다, 라고 많이 해석을 해옵니다. 이 해석에도 난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달리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해석이 학계에서 많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여기 시조의 ‘삼장육구’라고 하는 형식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향가의 ‘삼구육명’이라고 하는 형식이 나중에 조선시대 시조에까지 이어지는 어떤 우리 고전 시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형식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서 삼구육명을 이렇게 10구체 향가를 분해해서 보는 설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3. 향가의 역사적 전개상

이렇게 해서 향가의 하위 갈래하고 형식적인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향가의 역사적인 전개상을 간단히 더듬어보겠습니다. 우선 7세기에 진평왕 때 「혜성가」, 「서동요」 이런 게 나왔고요. 선덕왕 때 「풍요」가 나왔고 그다음에 문무왕 때 「원왕생가」, 효소왕 때 「모죽지랑가」 이런 게 나왔는데요. 7세기 후반은 백제와 신라의 갈등이 심화된 시대인데 통일에 이르는 전쟁의 어떤 움직임이 있던 시기에 이런 작품들이 탄생을 한 거고요. 8세기에는 성덕왕 때 「헌화가」, 「월가」 이런 게 나왔고요. 경덕왕 때 「제망매가」, 「도솔가」, 「찬기파랑가」, 「안민가」 이런 등등이 나왔습니다. 경덕왕 때 5편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경덕왕 때는 어떤 시대나면 정치적으로는 격동기입니다만 역설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굉장한 창조적인 시기였습니다.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불국사, 석굴암 이런 거를 이제 창건했거든요. 지금도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꼽히고 있죠. 그다음에 에밀레종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문화적으로 아주 활발했던 이 시기에 향가도 지금 5편이나 남아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 9세기 이후를 보면 좀 다소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적가」, 「처용가」, 「보현시원가」, 「도이장가」 이런 것들이 향가의 명맥을 쭉 이어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4. 향가의 현실적 효과와 정서적 표현

이렇게 향가의 사적 전개에 대한 개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향가 작품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가는 다른 시가들과 좀 달리 배경 설화가 붙어 있어서 이야기와 노래를 같이 교차해서 결합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향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불렸고 현실적으로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좀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향가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현실적인 효용인데 이것은 몇 번 말씀드렸던 ‘주술성’, ‘종교성’, ‘정치성’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효과는 정서적인 표현 효과인데요. 우리가 흔히 시에서 기대하는 ‘서정성’, 이런 것들입니다. 향가에서는 주로 소중한 존재의 부재 그리고 쇠락과 소멸에 대한 슬픔, 이런 정서들을 표현할 때 서정성이 발생을 합니다.

• 향가의 현실적 효과

먼저 향가의 주술성과 관련된 건데요.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언어 자체가 갖는 주술적인 힘에 착안을 한 겁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혜성가」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노래는 애초에 혜성이라고 하는 기상 이변을 배경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애초에 혜성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국은 혜성을 없애는 효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노래의 주술성이죠.

자, 그다음 보시면 또 이 향가의 주술성을 잘 보여주는 게 「서동요」라고 하는 노래예요. 일단 노래부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분 나서
서동 서방을,
밤에 그 씨알을 안고 간대요.

이렇게 이제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씨알의 경우는 이게 남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양주동 선생님 풀이에서는 “몰래 간다”라고 풀이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인 큰 뜻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이 「서동요」의 경우는 전승담이 이렇게 돼요. 이 주인공인 서동은 훗날 백제 무강왕이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 사료에는 무강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백제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왕일 것이다라고 많이 보는데요. 어쨌든 이 서동이 연못의 용과 과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흠여미니 밑에서 자란 불우한 존재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존재가 서동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미인인데 그 미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면 백제하고 신라는 그때 적대적인 관계였거든요. 근데 다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스님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동이 피를 내서 머리를 깎고 스님으로 위장을 해서 신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서동이 굉장히 지능적인 존재라고 하는, 피가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신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돼지감자를 아이들에게 줘요. 그래서 꼬드키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 너 이 노래들 불러, 하면서 「서동요」를 가르쳐줘서 널리 퍼뜨리게 한답니다. 이 노랫말 내용을 보니까 이 선화공주가 남자가 있는 거잖아요, 결혼도 하기 전에. 그래서 이 노래 때문에 이 선화공주는 자기 아버지의 분노를 사서 귀양을 가게 됩니다. 이런 선화공주에게 서동이 나타나서 이 「서동요」가 효험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딸에 대해서 엄하게 굴었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죠. 자기 딸인 선화공주

가 걱정이 돼서 황금을 들려 줍니다. 선화공주가 자기 어머니가 준 황금을 서동에게 보여주니까 서동이 본인이 돼지감자 캐는 곳에서 이거 아주 많이 봤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서동의 캐릭터가 좀 바뀝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피가 많고 영악한 존재였는데 여기선 황금을 모르는 존재 즉 세상 물정도 모르고 욕심도 없고 이런 순진한 존재인 것처럼 또 그려지게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서동의 황금을 신라에게 보내줘서 뭔가 환심을 사서 그 덕분에 서동이 왕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왕이 된 서동은 왕비의 요청에 따라서 미륵사라고 하는 절을 짓는데 왕비의 친정아버지인 진평왕이 기술자를 보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즉 백제의 사찰을 짓는데 신라 쪽에서 기술자를 파견해서 도와준, 신라 백제 합작으로 미륵사를 지었다라는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죠. 그리고 또한 사찰의 연기 설화를 또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서동은 지략가의 면모를 갖다가 황금이 뭘지 모르는 순진한 면이 있는 것으로 전환이 되는데 또 선화공주는 그 반대로 전환이 돼요. 서동에게 당하는데도 영문도 모르고 그런 좀 나이브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즉 공주님으로 아주 편하게 자라서 세상 험한 걸 잘 모르는 이런 존재로 그려졌다가 서동을 도와줘서 왕으로 만들죠. 그다음에 동양 최대 규모인 미륵사의 창건을 주도하죠. 이렇게 뭔가 굉장히 주도적인 존재로 전환이 됩니다. 이 점에서는 바보 온달과 결혼한 평강공주와 좀 비슷한 이미지를 갖게 돼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서동요」를 서동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선화공주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가 또 눈에 들어오나면 선화공주의 주도로 신라 · 백제 합작의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이 점과 관련해서 「구지가」가 그랬듯이 또 고고학적인 성과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미륵사 석탑의 복원 과정에서 사리 봉안 기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미륵사를 창건한 왕후가 선화공주가 아니고 백제 귀족의 딸로 나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는 미륵사는 선화공주의 주도로 만들어진 게 아닌 것이죠. 따라서 선화공주는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점이 더 중요한 건데요, 그럼 이 노래가 가치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백제와 신라는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우리 문학의 영역에서 우리 상상의 영역에서는 그와 반대로 백제와 신라 사이의 화기에애한 장면을 연출한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종식하고 상상 속에서 ‘화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학이 갖고 있는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평화에 대한 비전을 문학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작품을 보면요. 「원가」의 경우는 또 재미있는데요. 효성왕 즉위를 위해서 신충이라고 하는 인물이 애를 썼는데 효성왕이 즉위를 하고 나서는 등용되지 못했대요. 버려진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원망하면서 지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효성왕하고 신충이 뭔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을 도모할 때 잣나무를 걸고 서로의 마음을 다짐했대요. 우리 변치 말고 서로를 아끼자 이런 식의 다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신충이 그 잣나무에다가 「원가」를 적은 종이를 붙였대요. 그러자 잣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효성왕이 놀라가지고 신충에게 벼슬을 주었더니 그 잣나무가 다시 살아났대요. 여기서도 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우리가 따지는 게 중요하진 않고 이 노래가 현실에 작용하는 신비한 주술

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술성을 또 너무나 잘 보여주는 노래 중에 「처용가」가 있습니다. 이 「처용가」는 우리 고전문학사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작품인데요. 무속 본연의 병을 다스리는 기능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노래예요. 일단 노래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서라벌 밝은 달에
밤새껏 놀이 다니다가

여기서 놀러 다니다가는 그냥 논다기보다 이 무속의 제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다.

즉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들은 내 아내의 것이겠지만
들은 누구의 것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처용이 분노를 하고 적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디 내 사람이었지만
내 탓에 빼앗긴 걸 어찌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용의 아내는 지금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승담을 보면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태평성대의 헌강왕이 동쪽 울산에 가서 그곳에 사는 동해 용왕을 만났대요. 용왕에게 일곱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처용이라고 하는 인물을 헌강왕이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처용이 벼슬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정착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처용의 아내를 짝사랑했던 전염병의 신이 아내와 동침을 했대요. 처용이 「처용가」를 불러서 역신을 용서했대요. 역신은 이후에 처용의 얼굴을 그린 그림만 봐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승담을 고려해서 보면 이 아내의 불륜 현장으로 노래된 것은 사실은 아내가 전염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것을 좀 상징적인 장치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역병을 처용이 결국은 물러나게 한 것인데 그걸 물러나게 한 것은 너 사라져라라는 식으로 적대적으로 막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체념을 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오히려 역병의 감화력을 마음을 사서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용은 여기 천연두를 의인화한 역신에게도 화를 내지 않은 것인데요.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처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단 우리가 그 정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을 해 왔어요. 지금 전승되고 있는 처용탈을 보면 얼굴이 검고 코와 턱이 크고 해서 이것은 외국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많이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처용은 신라에 정착한 아랍 상인이다라고 본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달리 보면 아까 말한 그 얼굴이 검거나 코 같은 게 큰 것은 그냥 신화적인 상징성을 갖는 인물이 또 갖는 외형적인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신화적 상상력의 소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현재 처용은 무당의 원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경주 지역에 인질로 잡혀온 울산 지역의 유력자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헌강왕이 용왕을 만나서 용왕의 아들을 데려왔다고 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그것을 헌강왕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일종의 멘토를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조언을 받고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서 데리고 왔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자신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유력자들을 찾아서 그 아들들을 인질로 데려왔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분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해석을 토대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처용의 정체보다는 처용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거든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현장을 보고도 체념을 한 거 그리고 역병의 신에 대해서 몰아내려고 하고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한 게 아니라 관용과 포용을 베풀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신라 시대의 어떤 새로운 시대정신의 방향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즉 뭔가 적대적이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는 시대를 끌고 갈 수가 없고 어떤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것이 새로운 시대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을 처용의 형상을 통해서 제시한 것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향가의 주술성에 이어서 향가의 종교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의 종교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일단 「풍요」가 먼저 있는데 이 「풍요」는 7세기 후반에 아주 뛰어난 조각가

인 양지라고 하는 인물이 영묘사에 어떤 불상을 만들 때 백성들이 그 재료가 되는 진흙을 나르면서 부른 노래라고 해요. 이 양지는 그 당시의 수준을 뛰어넘는 미술가여서 혹시 인도인이 아닐까 아니면 인도 유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재료가 되는 흙을 나르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소박하지만 불교의 공덕이라고 하는 관념이 이 노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원왕생가」가 또 있는데 「원왕생가」는 달에게 아미타불 앞에 가서 자신의 영혼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기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교적인 종교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가의 종교성에 이어서 향가의 정치성을 보면요. 정치성을 잘 보여주는 건 「안민가」인데 「안민가」는 주로 유교적인 덕목을 노래로 부른 거에 가까우니까 「안민가」라는 작품이 있다는 거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향가의 정서적 표현

그다음에는 향가의 정서적 표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작품으로 「모죽지랑가」가 있는데요. 「모죽지랑가」를 보시면 작품은 일일이 읽는 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먼저 1행을 보시면 과거의 봄 그리고 흘러갔지만 아름다웠던 과거,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근데 2행을 보면 시름스러운 것 그다음에 과거와 달라진 현재, 이런 것이 대비가 되고요. 3행에는 좋았던 과거의 모습 그다음에 봄 무렵의 죽지랑,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다음 4행에는 늙어가는 현재의 모습 그다음에 현재의 죽지랑, 이게 대비가 되고요. 5행에는 눈을 돌리는 나 그다음에 화자의 시선의 이동,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고요. 6행에서는 만날 수 있는지 내면에서의 의문 그리고 또는 확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요. 7행에서는 그리워하며 가는 길이 나와서 화자의 이동이 나오고, 8행에는 거칠고 험한 곳에서 잘 밤이 나와서 내면의 신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죽 시상의 전개를 보시면 시제가 시간성이 변화가 있어요. 1행의 경우는 이제 과거가 중시되고 2행은 현재, 그다음에 3행은 다시 과거, 4행은 현재, 5행 현재, 그다음에 6행의 경우는 미래, 그리고 8행의 경우는 미래, 이렇게 해서 시상의 전개에 따라서 시간성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술의 톤도 바뀝니다. 1·2행의 경우는 일반적인 서술, 그다음에 3·4행의 경우는 주로 묘사, 그다음에 5행에서는 그런 서술과 묘사를 한 화자의 시선을 등장시키면서 뭔가 이 전체적인 시선의 이동이 나오게 되는, 그러면서 화자의 마음을 좀 더 전면화시키는 이런 전환이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서 6행에는 또 화자의 내면세계가 드러나고 그다음에 7행에는 화자의 행동이 나오고 다시 8행의 마지막은 화자의 내면세계가 다시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행은 과거의 봄, 8행에는 미래에 찾아올 밤으로 시작과 끝이 되면서 그 중간에 있는 5행은 화자인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요. 죽지랑의 과거와 현재의 대

비가 전반부의 큰 축을 이루게 돼서 죽지랑의 아름다움이 쇠락한 과거 그래서 쇠락해서 과거와 현재가 대비가 되는데 후반부는 화자 자신의 어떤 현재와 미래 이런 것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떤 정서의 전환과 굴곡, 시선의 이동, 시선의 의식 이런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입체적으로 드러나서 아주 본격적인 서정시가 정립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향가의 서정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또 「제망매가」를 들 수 있어요. 우선 이거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사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다니.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그래서 먼저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는 건데요. 생사길의 갈림으로 시작하죠. 이것은 누이는 먼저 죽고 자신은 살아 있는 걸 얘기합니다. 머뭇거림이라고 하는 게 참 마음이 많이 가는 말인데요. 불교에서는 당연히 생사를 초월해서 해탈하는 것을 중시하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소중한 인연에 대한 미련, 소중한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인간적인 것인데 그런 인연에 대한 마음을 머뭇거림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이 갑니다. 자, 그다음 바람에 지는 잎, 이런 건 인간의 삶의 무상함 이런 것들도 보여주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에서 난다는 것은 본인이 본인과 누이가 사실은 한 가지에서 난 한 핏줄이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가는 곳도 모른다는 것은 생사가 갈린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생사길을 갈린 것으로 시작했는데 미타찰이라고 하는 미래의 상상의 공간이죠. 여기에서 이제 훗날 만나자는 기원으로 시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생사의 갈림으로 시작해서 미타찰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누이가 먼저 죽었는데요. 그래서 미타찰이라고 하는 누이와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미래의 어느 시공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누이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성립되

지 않는 것이 아닌가 누이가 기다린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일단 이런 해석이 있어요. 누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으로 되기 위해서 윤희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불교 교리상으로는. 그러니까 남성인 화자가 먼저 기다리게 되는 거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불교 교리를 철저히 대입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좀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누이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해탈을 할 만한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보다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심리가 지금 기다리는 쪽이, 그리워하는 쪽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즉 여기서도 화자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잊지 못하니까 당연히 화자가 죽은 누이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 죽은 누이를 기다리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심리를 우리가 고려하면 미타찰에서 화자가 죽은 누이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쩡하고 감동적인 말이지언정 우리가 논리적으로 앞뒤를 따져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적으로 보면 누이하고 화자의 인연은 죽음으로 끝난 거죠. 하지만 그 생전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겠다고 여기에 바로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씀씀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망매가」는 참 어떤 소중한 존재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서정성을 아주 감동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고려가요의 세계

자, 이렇게 해서 향가의 이모저모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고려가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요는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가요는 문헌상으로는 조선시대까지 향유된 고려의 궁중악을 통해서 전승된 건데요. 민요를 개작한 거, 개인이 창작한 거, 그다음에 가극이나 무가, 그다음에 불교 찬양 노래 이런 등등의 다양한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활 정서를 담은 민요 풍의 노래도 많고 서민의 생활고와 사랑을 주제로 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이어서 고려가요의 대표 작품을 몇 가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중요한 작품은 「가시리」가 있습니다. 『악장가사』와 같은 문헌에 수록되어 있고요. 『시용향악보』에는 「귀호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절이 지금 전합니다. 보시면 이렇게요.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태평성대

날리는 엇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태평성대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히면 아니 올세라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오쇼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에서 ‘가시리잇고’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이런 거고요, ‘나는’은 조음구입니다. 이게 조음구여서 큰 뜻은 없고요.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위 증즐가 태평성대”에서 ‘위’는 감탄사이고요. ‘증즐가’는 아마 악기 소리를 따라 하는 의성어가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고 있고요. ‘태평성대’라고 하는 말은 이 민요가 궁중악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말일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날리는 엇디 살라 하고”는 날 더러는 어찌 살라고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는 식으로 쪽 나오고요. “선히면 아니 올세라”는 눈에 선하면 스스로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도로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해석의 학설은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이거는 슬픈 님을 보내옵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가시는 듯 돌아오십시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보시면 이별의 슬픔 그리고 나를 떠난 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지금도 이 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아주 진솔하면서 소박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곡진하게 표현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읍사」를 살펴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고려사』 「악지」에 유래와 연행 방식이 기록되어 있고요. 『악학궤범』에서 보다 상세한 기록이 있고 또 『대악후보』에는 악보가 또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핵심이 남편이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를 걱정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고된 일을 하면서 뭔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 남편의 무사 귀환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랑, 정성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이 배경 설화부터 보면요. 망부석 설화와 연관이 되는데요. 이 정읍이라고 하는 지역이 망부석 설화가 많이 분포했던 곳이고요. 망부석 설화가 있다는 것은 이 노래가 기다림의 정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 배경 설화는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이 정읍이라고 하는 곳에 정읍현의 사람이 남편이 행상을 나갔대요. 그래서 아내는 혼자 있는 것이죠. 워낙 가난하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장사를 떠난 겁니다. 홀로 있는 아내가 자기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바라보면서 남편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망부석 모티브가 있는 거고요. 노래

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술 저재 너러신고요

이렇게 되고 쪽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풀이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들하 노피곰 도드샤”는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세요 이런 식의 뜻입니다. ‘노피곰’의 ‘곰’이 강세를 주는 말인데 참 우리말로써 정취가 있는 표현입니다. ‘어기야’라고 하는 말은 조음구고요. 그래서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는 감탄사로만 이루어진 후렴구입니다. 이게 노래로서의 특징인데요. 아무 뜻이 없고 어떤 노래의 후렴구 같은 것이 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시에는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 재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술 저재 너러신고요” 이거는 모든 시장을 두루두루 다니시겠지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기야 즈 디를 드 디올세라” 이거는 진 곳을 디달까 두렵습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 곳은 1차적으로는 진흙탕 같은 곳을 뜻하고요. 2차적으로는 뭔가 험한 위험 이런 걸 비유하겠죠. 아까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떠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까. 걱정이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아무 생산 기반이 없어서 택배라든가 대리운전을 나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들겠죠. 여러 가지 봉변도 당할 수 있고 걱정이 되겠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 가는 데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것도 걱정의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달빛을 받으면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달빛을 보면서 남편을 떠올리기도 하고 한편으로 달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6. 더 생각해볼 문제

이렇게 해서 고려가요 중에 주로 여성 화자가 등장하면서 상대방의 부재와 관련된 정서를 노래한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이제까지 이상으로 공부를 한 고대 가요, 향가, 고려가요와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해볼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가는 이게 어떻게 해독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

고 또 해석에 따라서 역으로 해독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향가 작품 중에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들거나 호기심이 생긴 작품이 있으면 한번 그 해독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독에 대해서도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향가에 비해서 고려가요에는 여성 화자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여성 화자의 목소리는 여성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남성의 관점에 의해서 여성적인 것이 왜곡이 되거나 구성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용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가요 내에 여성 화자가 등장한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어떤 미감과 정서적 효과를 가져오고 또 젠더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더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전 문학사의 첫 장면을 여는 향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고려가요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오늘 강의에서는 ‘옛노래의 서정 주체’라는 제목으로 향가와 고려가요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향가 이전의 고대 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의 중요한 작품으로는 「구지가」와 「황조가」가 있습니다. 「구지가」는 육가야의 건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신군가(迎神君歌)로, 신에게 임금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황조가」는 고구려 유리왕의 두 아내인 화희와 치희의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조가」는 유리왕의 개인적 불행과 관련지어 해석되기도 하고, 고구려 초기의 부족 통합 시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당시 민간과 임금 사이에 있었던 공감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고려사 악지』 「삼국속악」에서 삼국 시대에 불린 노래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향가는 향찰로 표기된 신라의 시가를 일컫는 말로, 신라 중엽에서 고려 초까지 창작되었습니다. 향가는 행수에 따라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분류되며, 향가의 형식적 특징으로는 ‘차사 사뇌격’과 ‘삼구 육명’이 지목되어 왔습니다. 향가는 주술성, 종교성, 정치성 등 현실적인 효용을 위해 창작되기도 했고, 소중한 사람의 부재에 대한 슬픔이나 쇠락과 소멸에 대한 슬픔 등을 표현하는 서정시로서 창작되기도 했습니다. 주술성을 지닌 향가로는 「혜성가」, 「서동요」, 「원가」, 「도술가」 등을 들 수 있고, 종교성을 지닌 향가로는 「풍요」와 「원왕생가」를 들 수 있으며, 정치성이 나타난 향가로는 「안민가」를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정서적 표현이 두드러진 향가로는 「모죽지랑가」와 「제망매가」를 들 수 있습니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의 노래로, 조선시대까지 향유된 고려의 궁중악을 통해 전승되었습니다. 고려가요의 기원은 다양하지만, 주제상으로는 상당수가 고려 시대 서민들의 생활고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가시리」와 「정읍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시리」는 여성의 목소리로 이별의 슬픔과 재회에 대한 바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읍사」는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 설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작품은 여성 화자를 내세워 사랑과 소망의 감정을 소박하면서도 곡진하게 표현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황조가」의 배경 설화에는 화희가 치희 때문에 굴욕감과 울분을 느껴 고구려를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O/X)

정답: X

2. 「제망매가」의 '미타찰'은 화자가 누이와 미래에 재회하기를 기원하는 공간이다. (O/X)

정답: O

3. 「혜성가」와 「서동요」는 주술성을 잘 보여주는 향가 작품들이다. (O/X)

정답: O

4. 「서동요」의 주인공인 서동은 선화공주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O/X)

정답: X

5. 「보현십원가」는 10구체 향가 작품으로,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다. (O/X)

정답: X

선택형(5분)

1. 다음 중 「구지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실려 있다.
- ② 「구지가」의 배경 설화에는 수로가 오가야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③ 「구지가」에 나오는 거북이는 신적인 존재 또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2. 다음 중 「가시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다.
- ② 이별의 슬픔과 재회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 ③ ‘태평성대’라는 말은 민요가 궁중악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①

3. 다음 중 「정읍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제목의 ‘정읍’은 시적 화자의 이름이다.
- ② 망부석 설화와 관련이 없다.
- ③ 화자는 달에게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다.

정답: ③

4. 다음 중 향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고려가요와 달리 배경 설화가 없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 ② 신라 중엽에서 고려 초까지 창작되었다.
- ③ 애정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 여성적인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답: ②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황조가」의 배경 설화는 『○○○○』에 실려 있다.

정답: 삼국사기

2. 현재까지 전해지는 향가 작품들은 『○○○○』에 수록되어 있다.

정답: 삼국유사

3. 향가는 ○○(이)라는 표기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답: 향찰

나. 토의(45분)

1) 향가는 어떻게 해독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에 따라 해독이 달라지기도 한다. 오늘 공부한 향가 작품 중에 마음에 들거나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이 있으면 그 해독에 대한 학설을 조사하여 비교 검토하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작품을 한 편 선정하여 연구자들이 해당 작품을 어떻게 해독했고 그 해독을 토대로 어떻게 작품을 분석했는지 비교 검토한다. 이를 통해 향가 해독과 작품 분석의 상관관계에 대해 파악한다.)

2) 향가에 비해 고려가요에는 여성 화자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여성화자의 목소리는 여성적 정서를 반영한 듯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목소리는 남성적인 관점에서 재현되거나 구성된 것일 수도 있다. 고려가요 내 여성화자의 목소리는 어떤 미감과 정서적 효과를 가져오며, 젠더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고려가요에서 ‘여성화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단지 여성화자가 등장한다고 현상적으로 파악하지 말고 여성화자가 여성의 정감을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지, 혹시 여성화자에 의한 재현에 남성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에 유의한다.

- 관련 연구로 박혜숙,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한국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 같은 글을 참조할 수 있다.)

3) 향가와 고려가요는 기본적으로 노래이다. 이 ‘노래’의 측면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현대의 독자는 고전시가의 노래적 측면을 파악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현대적 재해석 및 재창조를 할 수 있다. 현대 가요 중에는 고전시가 작품을 가사로 삼은 것도 있고 고전시가의 모티브나 표현을 차용한 것도 있다. 그리고 시야를 더 넓히면 다양한 나라에서 고전 시가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이런 사례를 조사하면서 어떻게 고전을 현대와 연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

다. 과제(45분)

오늘 수업에서 다룬 향가와 고려가요 중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 감상을 간단히 서술해 보십시오.

(향가와 고려가요를 다룬 연구서나 논문 등을 통해 작품을 실제로 접하면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하고, 그 작품이 수록된 문헌을 직접 찾아보고 작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숙지한 뒤에 관련 연구를 조사 섭렵한다. 조사 작업을 토대로 본인 나름의 관점을 잡아서 작품 분석을 수행한다. 배경설화가 있는 작품의 경우, 작품 그 자체를 볼 때와 배경설화와의 연관 속에서 작품을 볼 때 작품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고려한다. 한 작품에 집중하는 것도 가능하고, 주제나 모티브를 정하여 몇몇 작품을 함께 다루는 것도 가능하며, 두 작품 이상을 선정하여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혹은 다른 나라의 고대시가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강〉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본 전기소설

『금오신화』, 『전등신화』, 『전기만록』

학습 목표

1. 전기소설이 동아시아 보편의 소설 양식으로 자리잡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애정 전기소설의 인간형과 서사 문법에 대해 이해한다.
2. 『금오신화』, 『전등신화』, 『전기만록』의 주제의식, 결말구조, 공간구성, 시간의식이 서로 어떻게 같고 다른지 살펴본다. 그리고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왜 발생했는지 이해한다.
3. 중국과 베트남의 전기소설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한국 고전소설을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한층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한다.

강의 핵심 요약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본 전기소설’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의 『금오신화』, 중국 명나라의 『전등신화』, 베트남의 『전기만록』을 살펴보았다. 전기소설은 한문으로 쓰인 동아시아의 보편적 소설 양식이다. 먼저 애정 전기소설의 인간형과 서사문법을 살펴보고, 이어서 『금오신화』, 『전등신화』, 『전기만록』의 주제의식을 비교하였다. 세 작품에서는 모두 ‘현실에 대한 비판’과 ‘권력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 확인된다. 단, 현실 제시의 구체성이나 권력 비판의 사상적 연관에는 차이가 있다. 난리나 병란을 서사전개의 주요 계기로 삼는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하지만 『전등신화』가 반전문학적 성격을 갖는 반면 『전기만록』은 침략주의에 대한 저항적 면모가 강하다. 『전기만록』과 『금오신화』는 왕위 찬탈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단, 『전기만록』의 비판이 노골적인 편인 데 비해 『금오신화』의 비판은 은근한 편이다.

이어 세 작품의 결말구조를 비교하였다. 세 작품 중 『금오신화』가 비극성이 가장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금오신화』의 비극적 결말은 현존하는 세계를 부정하면서 그것을 초월할 것을 희구하는 심리감정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전기만록』과 『금오신화』는 『전등신화』에 비해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고 있다. 『금오신화』 속 여성의 정절은 절의의 상징으로, 여성의 죽음은 작품의 비극적 결말을 고양시킨다. 반면 『전기만록』 속 여주인공의 죽음은 작품 말미에서 반침략주의적 메시지와 결합하며, 따라서 비극적 감정에만 매몰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 작품의 공간구성과 시간의식을 비교하였다. 주인공이 별세계를 방문하는 이야기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등신화』와 『전기만록』은 보다 현세적이고 『금오신화』는 보다 초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오신화』의 결말에는 현존하는 세계에 대한 강한 부정과 염세적 전망이 반영되어 있다. 세 작품 모두 운명론에 침잠되어 있는 것도 공통점이다. 단, 세 작품이 운명을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다르다. 『전등신화』에서 인간 존재의 무력함에 대한 탐구에 주된 관심을 쏟는 반면, 『전기만록』은 운명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운명을 피해가거나 운명에 저항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금오신화』는 운명을 받아들여 인간 주체적 결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 강의 내용 전문 ◆

학습 목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전소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장르로 꼽히는 전기소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전기소설의 명작으로 꼽히는 것은 우리 한국 고전문학사에서는 단연 『금오신화』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오신화』 하나만 공부하지는 말고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 한국 고전문학의 외연을 넓히는 차원에서 중국 그리고 베트남의 전기소설을 함께 공부하고 같은 이 전기소설을 동아시아 사회가 공유하면서 어떤 서사적인 공통의 문제를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각국의 어떤 다른 차이점들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중국의 작품 중에서는 『전등신화』를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쪽 작품 중에서는 『전기만록』이라는 전기소설집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즉 이번 시간은 『금오신화』를 중심으로 하되 『전등신화』, 『전기만록』을 포함해서 한국 고전소설을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 넓혀서 공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의 개요

전반적인 수업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개관을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소설의 간단한 특징이라든가 뭐 작가 소개 이런 등등을 간단하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비교 검토를 하기에 앞서서 전기소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미학적인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하는데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기소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특히 주목할 것은 애정 전기소설인데요. 주로 『금오신화』라든가 『금오신화』 전에 우리 한국 고전 문학사에서 전개되어 왔던 전기소설을 토대로 전기소설이 어떤 인간형을 구현하고 있고 어떤 서사 문법 위에 서사가 직조가 되는가 이런 거를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비교 검토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주제의식이라고 할까, 작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작가의 이 세계에 대한 감정과 생각 이런 것들을 먼저 각 작품별로 검토를 하고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 서사에서 중요한 게 결국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는가예요. 그래서 결말 구조가 그 작품의 미감, 성격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좌

우하는데 결말 구조를 좀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범주에서 작품에서의 공간구성하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시간 의식을 좀 살펴보면서 세 작품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이상의 공부 내용을 토대로 더 생각해 볼 거리가 뭔가, 이런 거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강의 순서

1. 자료 개관
2. 애정 전기소설의 인간형
3. 주제의식
4. 결말구조
5. 공간구성과 시간의식
6. 더 생각해볼 문제
7.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1. 자료 개관

• 전기소설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자, 그럼 지금부터 방금 설명드린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개관부터 한번 해볼까요. 전기소설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소설이라고 말로만 하면 여러분 흔히 한 사람의 일생을 정리한 전기, 누구누구 전기 누구누구 전기 하는 그 전기랑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자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혼동 없기를 바라고요.

전기소설이라고 하면 우리 고전문학사에서는 대체로는 애정 전기소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대체로는 인간과 귀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초현실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또 판타지적인 환상적인 그런 또 면모를 많이 갖고 또 사랑 이야기다 보니까 낭만적인 성격 또한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애정 전기소설에서 잘 드러나는 특징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기소설만의 특징이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좀 주저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환상성이다 초현실성이다 낭만성이다 하는 것들이 전기소설 외에 다른 장르에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체의 유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환상성, 초현실성, 낭만성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방식, 서사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방식이 전기소설이나 영웅 소설이나 이런 등등이 좀 다르다라고 해야지 좀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애정 전기소설이 전기소설의 또 전부만은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 전기소설이라고 하는 게 중국 당나라 때 발생을 해서 동아시아 사회가 공유를 하게 된 소설 장르인데요. 중국의 경우를 보면 애정 전기소설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하위 장르들이 관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소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신괴소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좀 더 역사적인 거를 정면에 다룬 역사소설 또 이런 게 있어서 애정 전기소설 외에도 다양한 하위 장르가 관찰이 되고 양적으로도 애정 전기소설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는 전기소설 중에 특히 애정 전기소설이 큰 비중을 차지해서 이 점이 문학사적으로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변함은 없습니다.

전기소설은 중국 당나라 때 성립을 했는데요. 당나라 때에도 애정 전기소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조선에서 예를 들면 나온 『금오신화』 같은 것과 달리 당 전기의 경우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고 대체로는 현실적인 서사 문법에 의해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당나라 중기에 전기소설이 많이 흥행을 하고요. 당나라 이후에는 점차 점차 전기소설이 쇠퇴한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명나라 초기에 오늘 이제 공부할 구우의 『전등신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이창기의 『전등여화』 등의 등장과 더불어 명나라 초기에 전기소설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성기를 회복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중국 내에서는 전기소설이 약간 부침이 있는 것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 조선의 경우는 『금오신화』 전까지 전기소설이 쭉 있다가 『금오신화』에 이르러서 애정 전기소설이 정점을 찍는 것으로, 그리고 그 뒤에 뭐 약간 계승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기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쓰여진 것이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소설 양식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전등신화』

그다음 좀 각각에 대해서 좀 개관적인 설명을 그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등신화』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등신화』는 명나라 초 구우라고 하는 인물이 1378년 작가 나이 서른 살 때 창작한 작품들을 모은 것입니다. 구우라고 하는 인물은 원말명초 즉 원나라와 명나라의 전환기 때, 굉장한 혼란기입니다. 이 혼란기 때의 인물입니다. 인물 자체는 이런 문학사를 빛내는 소설집을 남겼을 정도의 사람이니까 아주 다재다능했겠죠. 하지만 또 문학사를 보면 이렇게 문학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좀 불우한 삶을 산 사람이 많아요. 구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인 자신은 다재다능했지만 좀 기구하고 불우한 인생을 좀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런 곡진 섬세한 소설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등신화』에는 모두 스물한 편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이죠. 중국의 경우 『전등신화』 같은 소설은 이제 문언소설이라고 하는데요. 백화소설하고 짝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문언소설의 경우는 당나라 때 이미 성숙을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송대, 원대를 거치면서는 문언소설이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명나라 초에 등장한 『전등신화』가 이 문언소설이 부흥을 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전등신화』 이후로 문언소설이 청말에 이르기까지 명맥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 대표적인 『요재지이』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소설사에서 백화소설 그리고 문언소설 이 두 가지가 소설의 양대 산맥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렇게 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또 『전등신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었다면 문언소설이 부흥할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백화소설이 좀 더 독주를 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역시 문학사적으로 『전등신화』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등신화』가 중요한 것이 조선·일본·베트남에서 즉 동아시아 사회에서 이게 두루 읽히고 영향을 미치고 했다는 것입니다. 『금오신화』의 경우가 단적인 예입니다만 좀 다른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요, 16세기에 조선에 어떤 책이 나오냐 하면요, 『전등신화구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제목에서 나오다시피 이 책은 『전등신화』라고 하는 명나라 소설집에 조선 사람이 자기 나름의 아주 체계적인 주석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조선에서는 『전등신화』를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자기화하고 자기의 그 발전의 자양분으로 섭취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전등신화구해』가 중요한 것은 이 소설에 대한 아주 학술적인 주석서라고 하는 것 외에도 임진왜란 후에 일본에서도 간행이 됐다는 것, 즉 확산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게 전란이고 전란은 되게 다양한 방식의 임팩트가 있었는데요. 문학사적으로는 좀 전쟁의 역설입니다만 학술이나 서적 이런 것들이 조선 밖으로 유출되면서 확산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등신화구해』가 일본에서도 간행이 돼서 읽혔다는 것도 주목이 되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전등신화』가 다른 소설의 창작에 미친 영향은 방금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조선의 『금오신화』가 있고 또 오늘 같이 검토할 베트남의 『전기만록』 이런 것들이 다 『전등신화』를 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다 『전등신화』에서 나왔다는 주장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금오신화』하고 『전기만록』의 경우는 또 당연히 『전등신화』와 차별화되는 변화되는 면모들이 많이 있고 『전등신화』로 환원되지 않는 또 성취들을 이룬 면이 많기 때문에 『전등신화』의 영향을 언급한다는 것이 그 영향을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금오신화』

그럼 이어서 『금오신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신화』의 경우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전등신화』나 『전기만록』에 비해서는 약간 더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만 우선 김시습이 1470년 전후해서 『금오신화』를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오신화』의 제목에서 ‘금오’는 금오산을 뜻하는데요, 지금의 경주 남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남산에서 지은 새로운 이야기라는 뜻이 될 텐데요, 『금오신화』라고 하는 제목은, 이 김시습이 금오산에 그러면 언제 머물렀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겠죠, 작품 창작 연도와 관련해서, 지금 문헌을 보면 김시습이 1465년부터 6년간 금오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면 70년 전후 이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습은 우리에게선 워낙에 잘 알려져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면 호는 매월당, 그래서 매월당 김시습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리고 생육신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대해서 통분을 하고 이 세상에 진출하기를 거부한 비타협적인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육신하고 이제 짝을 이루는 말이죠. 그래서 김시습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로 인해서 세상의 도가 떨어졌다, 이 세상은 암흑기다, 이런 세상에 진출해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평생을 방랑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런 방랑을 하는 존재 즉 세상의 주류 체계에 들어가기 를 거부한 존재를 학계에서는 이제 방외인이라고 합니다. 방외인은 좁게 말하면 유교 이외의 불교도나 뭐 도사들을 방외인이라고 부릅니다만 김시습의 경우는 꼭 그런 측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해서 이 세상의 시스템 내에 들어오기를 거부했다는 점 이거를 특별히 강조해서 방외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김시습은 그렇게 세상에 들어가기 를 거부하기 때문에 방랑을 하면서 승려가 되기도 했고 그러다가 다시 환속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불교에 침윤한 면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컨대 김시습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 김시습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상과 불화한 존재 라는 것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평생 거부한 존재라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의 불화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소설미학적으로 잘 구현된 작품이 바로 『금오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김시습은 평생 방랑을 하면서 불교 쪽으로도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유교 · 불교 · 도교를 모두 섭렵한 그런 인물로 또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으로는 애민사상을 견지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애민사상 또한 『금오신화』에 들어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곧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오신화』는 총 5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용궁부연록」 「남염부주지」 이 다섯 편입니다. 여러분들 스토리를 얼핏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5편 각 편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복사저포기」입니다. 이 제목은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한 일을 기록했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저포놀이는 지금으로 치면 윷놀이 비슷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양생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양생이 부처님하고 내기를

합니다. 윗놀이로 이 저포놀이로. 그래서 내기를 해서 어떤 여인을 배필로 맞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부처님하고 저포놀이로 내기를 해서 여인을 만나게 된다는 설정이 상당히 재미가 있죠, 서사적으로. 그래서 작품 제목도 이 점에 착안을 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양생이 어떤 여인을 배필로 맞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3년 전에 전쟁터에서 절개를 지키려다가 죽은 원혼이었습니다. 즉 사람이 아닌 존재였던 것이죠.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이 점에서 판타지스러움이 있는 건데요. 이 여인이 이제 함께 세상을 등진 또 네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네 명의 여인을 초대해서 양생과 시문을 서로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제사를 지내러 오는 부모하고 자신을 다시 찾아줄 것을 부탁해서 양생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양생하고 이 여인이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른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생은 그 후로 약속대로 여인의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여인의 넋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양생은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즉 여인을 만나기 전하고 여인을 만난 후가 어떤 내면의 변화가 생긴 것인데요. 이 변화의 속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기소설의 미학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이생규장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규장전」은 ‘이생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담장 너머를 엿본 이야기를 적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뉘는데요. 이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개성의 국학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국학을 오고 가다가 늘 최씨 집안의 딸의 거처와 가까이 있는 담장에서 쉬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씨 집안의 딸이 여주인공인데요. 이 여주인공 최씨는 어떤 여성이냐면요, 수동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생이 이제 담장 안을 엿보는데 최씨 여성이 이생에게 시를 읊어가지고 의중을 떠뵙니다. 시를 통해서 서로 간의 호감 이런 것들을 재면서 뭔가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뭔가 사랑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이생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생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자꾸 뭐 외출을 하고 하니까는 뭔가 아들이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농장에 감독을 하라고 저 멀리 영남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창 서로 간에 사랑이 싹트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최씨녀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리고 뒤에 최씨녀하고 이생의 관계가 부모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최씨는 자신의 사랑의 의지를 굽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씨의 부모가 세 번이나 매과를 보냅니다. 이생 집으로. 그래가지고 이생의 부모를 설득을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최씨가 사랑의 의지를 굽히지 않아서 그 상대편 남자 집을 설득을 하는 것 또한 최씨가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설득 끝에 최씨녀는 이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랑을 성취한 이야기로 전개가 된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뒤로 흥건적의 난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흥건적의 난리 때문에 최씨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가부장제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여성의 강인한 또 자기 결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강고함, 확고함 뭐 이런 거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씨가 죽었는데요. 그래서 죽은 이 최씨의 원혼이 현실에서 못다 한 부부의 삶을 영위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인간과 비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생규장전」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다음 「취유부벽정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술에 취해서 부벽정에서 노닐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위만에게 나라를 뺏긴 준왕의 딸, 공주죠. 이 공주는 신선이 된 기자왕의 도움으로 신선 세계에서 노닐면서 옛 고국산천을 굽어보다가 감상에 젖어가지고 잠깐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장사 차 평양에 왔다가 부벽정에 오른 홍생의 시편에 이렇게 마음이 끌립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시라고 하는 것이 남녀의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두셨다가 나중에 떠올리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시편에 이제 마음이 끌려서 홍생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쪽 진행이 되는 게 「취유부벽정기」이고요.

그럼 이어서 그다음으로는 「용궁부연록」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궁부연록」은 용궁의 잔치 혹은 연회에 참여하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는 제목이고요. 어떤 내용이나면 개성의 문사인 한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한생이 박연폭포 아래의 용궁을 방문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용궁의 딸의 혼인을 위해서 가회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가회각의 상량문을 부탁하고자 이제 용궁에서 이 한생을 초빙을 한 겁니다. 이곳에는 한생 말고도 한강의 낙하신, 조강의 조강신, 벽란도의 벽란신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궁의 잔치는 한생의 상량문부터 시작을 해서 시종들 신하들의 춤과 노래로 이제 이어지고 성대한 잔치를 기린 한생의 화답시로 끝을 맺습니다. 그다음에 잔치에서 돌아온 한생은 용왕에게 선물로 받은 야광주를 숨겨두고 세상에 부귀영달을 버린 채 삶을 마칩니다. 한생이 용궁의 잔치에서 있을 때까지의 서술은 비교적 『금오신화』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좀 밝은 편입니다만 한생이 잔치에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의 삶을 보면 또 야광주를 숨기고 부귀영달을 버린 채 삶을 마쳤다고 하는 점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 「남염부주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염부주지」는 남쪽의 염부주에 다녀온 이야기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고요. 다른 작품들과 달리 좀 사상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상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경주의 유생 박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박생은 세상의 이치를 깨우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박생이 우연히 염부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부주에서 염마왕과 세상의 이치를 논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논하는 부분이 굉장히 내용이 길고 여기에서 좀 사상적으로 음미해야 될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생이 돌아온 뒤에 곧 죽음을 맞이해서 이 박생이 바로 염부주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박생과 염부주왕의 대화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전기만록」

이렇게 해서 『금오신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은 베트남 전기소설집인 『전기만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만록』은 16세기 전반 베트남의 문인인 완서라고 하는 인물이 창작을 했습니다. 이 완서는 어떤 사람이나면요, 오늘날 하이즈엉성 타인미엔현 출신입니다.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현 벼슬을 잠시 했는데 이 벼슬 생활은 짧고 은거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은거를 해서 다시는 도성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궁정에도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이 점에서 약간 비타협적인 측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존야에 은거하면서 지은 것이 바로 『전기만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쪽 보면 권력자의 횡포와 무능력 그리고 사치풍조, 타락상을 고발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동시에 은둔한 선비들의 생각, 그런 선비들의 소망, 이런 것들을 또 담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전기만록』에는 총 20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과응보나 복선화음을 강조한 작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현세에는 선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 재앙을 안 받는다고 해도, 사실 이거는 우리 현세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고 참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절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하늘의 도는 어김없이 실현이 된다, 그래서 사후에라도 합당한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서사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실비판의식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렸다고 지배 권력의 타락과 횡포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하고요. 또 종교의 타락 또 가치관의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또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작가 당대에 발생한 구체적인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사건은 뭐냐 하면 왕위 찬탈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김시습을 절망케 한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하고 대응되는 어떤 상처가 이 작품에서도 개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베트남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1527년에 막등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위 찬탈을 해버립니다. 이에 대한 비판의식이 작품 속에 들어있고요. 이거는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거는 또 베트남 사회의 아주 특별한 면모인데 베트남에 대한 중국 침략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406년에 명나라가 베트남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년에 걸쳐서 베트남 민족 입장에서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저항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또 저항 운동도 굉장히 가열차게 이어져 왔습니다. 베트남 사람 특유의 저항 의식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쪽 전개가 된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전기만록』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전기만록』의 중요한 특징은 여성 형상이 굉장히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성 인물을 상층과 하층 모두를 망라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기녀, 첩 이런 존재들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를 등장시켜서 여성이 자신의 정감을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가진 존재로 그리면서 여성 문제를 문학의 핵심으로 부각을 시킨 공로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만록』은 베트남 내에서의 학술사라고 할까요, 문학사에서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그 의미를 갖는 것은 이게 또 주석 작업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완세의라고 하는 인물이 쓰놈문자로

『전기만록』의 주석을 달아서 『신편 전기만록 증보해음집주』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이 『전기만록』은 한문으로 지어진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석을 쓰놈문자로 한 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조선에도 없는 현상입니다. 조선의 경우는 그 『전등신화』에 대한 주석은 나왔지만 뭐 『금오신화』를 한글로 주석을 달았거나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은 조선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완세의의 이 저작은 오래된 쓰놈 산문 작품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만록』 이후에 18세기에 들어가면 또 베트남에서는 『전기신보』라고 하는 전기소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전기신보』는 여섯 편의 작품을 수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자료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애정 전기소설의 인간형

그럼 이어서는 애정 전기소설의 인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전기소설의 인간형에서 제일 눈에 띄는 특징은 고독감입니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 전기 주인공의 어떤 세계 내의 조건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뚜렷합니다. 이 고독감은 일단 어디서 발생하냐면 짝을 갈구해도 짝을 얻지 못하거나 실의해서 세상을 떠들거나 하는 데서부터 고독감이 생기는데요. 이 애정 전기소설의 주인공이 대체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짝도 없고 실의해서 세상을 떠들다 보니까 하릴없이 주변을 배회하고 서성이는 존재입니다. 부유하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뭔가 안정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김시습의 생애가 여러분 연상이 되죠? 대표적인 예로 「이생규장전」의 이생, 최씨녀, 「취유부벽정기」의 홍생, 이런 존재들이 다 이런 고독 속에 떠도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을 우리 전기적 인간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이런 전기적 인간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역으로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서로가 느낌이 오면 정말 저 사람이 내 짝이다 싶으면 바로 곧바로 서로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대번에 깊은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애정 전기소설의 특징이 확인이 되는 건데요. 이 사랑은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소원에 따른 것이고 순간적인 영혼의 교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서로 사랑을 하게 된 것이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고지순하고 순도 높고 아주 돈독하고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1 대 1의 만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어서 주로 제3자가 매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3자가 조정을 해준다든가 소개를 해준다든가 이렇지가 않고 단둘이서의 1 대 1의 서로 상호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방을 깊이 아끼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데요.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랑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성격을 갖게 됐는데요. 이렇게 순도 높고 진한 사랑이 왜 오래가지 못할까요? 주인공들의 변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이 변함은 없는데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 현실적인 장애물이 생깁니다. 즉 그래서 강고한 현실의 어떤 장애, 우리 인간 삶에 던지는 인간 삶에 늘 개입하는 이 현실의 강고함, 폭력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성찰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해서 남녀 주인공들은 결국은 서로 사랑하지만 헤어지게 되고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그리움 속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지 않으면 세상에 또 정착하지 못하고 또 세상을 벗어나서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또 이것도 아니면은 죽은 상대방을 잊지 못하다가 결국은 요절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결론이 대체로는 비극적인 결말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설정이 문제적이고 우리 독자들에게 화두를 던져주는 것이죠.

이런 고독성과 또 짝을 이루는 중요한 특징은 내면성입니다. 고독한 존재는 당연히 외향적이지가 않겠죠. 내면에 침잠한, 아주 섬세하고 내면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맞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는데요. 그 깊은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이 이 내면성에 걸맞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시, 편지와 같은 문학적인 것들입니다. 이 문학적인 것은 아주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대체로 전기적 인간들을 보면 최초의 만남에서 서로 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세계와 애정 감정을 시를 통해서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좀 과하게 흐르다 보면은 내면성의 과잉으로 이제 치달아서 일종의 센티멘털리즘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풍부한 감정을 가지다 보니까 아주 비탄과 탄식에 사로잡히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습니다. 감정이 너무 여리고 세세하고요, 상처도 잘 받고 그렇죠. 감성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넘치기 때문에 아주 충동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연애 과정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연애 대상을 향해서는 아주 건잡을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고 연애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충동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충동성은 그런데 어떤 사회적인 또 함의를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충동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당시의 사회적인 관행, 제도, 윤리를 벗어나거나 넘어서게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위반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욕망의 분출을 통해서 금기에 도전을 하는 뭐 이런 면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전기소설의 주인공들의 내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사회적인 함의를 갖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애정 전기의 경우 좀 반예교적인 성향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애정에 대한 욕망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다한 내면성 그리고 어떤 충동적인 면모는 낭만적인 성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정이 풍부하고 내면성이 강하고 이런 존재는 역시 또 아주 역으로 소극적이고 나약한 면을 또 같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섬세하고 여리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거든요. 이런 점에서 나약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주인공들을 보면은 마음의 병을 얻어서 뭔가 위중해지거나 죽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극성은 아까 사랑을 쟁취하는 과정에서의 적극성하고는 좀 대비가 되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사랑을 성취한 뒤에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사랑을 성취하기까지

의 과정은 아주 충동적이고 아주 강한 추진력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사랑과 더불어 행복을 느끼지만 이 행복은 잠시고 현실의 장애요인이 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강력하게 대응을 못 합니다. 현실적인 장애 요인의 직면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성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건데요. 대체로는 인간과 귀신이 서로 구별된다는 것 아니면 신분 차이가 있다는 것,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 아니면 전쟁이 터져가지고 여성이 죽게 된다는 것, 이런 등등 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장애물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처를 입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현실의 힘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서사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세계 내에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고한 힘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인간의 어떤 좌절감, 회한, 그런 인간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 이런 것들을 이런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비극이 더 고조되는 것은 이 강고한 세계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지언정 또 순응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이것을 또 저항하고 넘어서려는 노력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거부하거나 뭔가에 의해 죽거나 다른 세상을 찾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소설은 비장한 정조를 또 띠게 됩니다.

그다음 전기소설의 주인공들이 만남의 과정에서 시를 주고받은 데에서 이제 알 수 있다시피 문예 취향 또한 중요한 특징입니다. 전기적 인간들은 아주 강한 문예 취향을 갖고 있고 이게 또 지식인의 취향에 맞는 전기소설의 면모인데요. 흔히 시, 편지를 교환을 하고 문예 취향을 공유함으로써 정서적인 유대와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 주인공은 연인이나 부부이면서 흡사 지음처럼 보입니다.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한 벗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유대 때문에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들은 일단 사랑에 빠지고 나면 죽을 때까지 신의와 정절을 지킵니다. 이 신의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어떤 것이라고 전기소설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 전기소설은 생의 방식에 대한 가치 태도 그리고 생의 조건에 대한 관점을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깔고 있는 아주 문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애정 전기소설의 인간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다음에는 이런 인간형에 상응하는 서사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애정 전기소설의 서사문법

일단 『금오신화』 이전까지의 한국 고전소설을 토대로 한번 이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 간의 만남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신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같은 신분의 남녀가 만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신분의 남녀가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나는 방식을 보면 어떤 제3자의 매

개는 없고 다 직접적으로 만납니다.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만남은 사람과 사람 아닌 존재인데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경우에는 좀 사실적인 지향이 이제 강한 것이고 사람과 사람 아닌 존재가 만나는 경우에는 좀 판타지적인 지향이 강한 것인데요. 사람 아닌 존재는 귀신이 있기도 하고 호랑이가 있기도 하고요. 관음보살이 있기도 하고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소설을 보면 사실적 지향과 초현실적인 지향이 동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지향과 사실적 지향 두 가지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애정 전기소설의 중요한 서사문법의 하나는 만남과 이별이라고 하는 이항대립으로 서사가 축조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됩니다. 만남과 이별 그리고 만남, 이별 그다음에 또 하나의 만남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패턴이 많이 보이는데요. 만남과 이별의 구조를 갖는 경우에는 만남은 짧고 이별은 영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짝한 설정인데요. 이런 축조법은 아주 전기소설만의 독특한 정서와 심미적인 효과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그 전기소설 특유의 미감인 애절함, 슬픔, 비극성을 서사문법적으로 구현을 하게 되고요. 또 만남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주인공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항대립하고 표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대체로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여주인공이 불행하게 죽거나 남주인공이 불행하게 죽거나 남자가 죽은 여인하고 관계를 맺은 뒤에 죽은 여인은 저승으로 가고 남자는 홀로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경우 대체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만남-이별-만남의 구조를 보면요, 이게 단순한 원점 회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서의 만남은 막 설레고 불확실함도 있었다면 종결부의 만남은 굉장히 확고하고 인물들 사이에 고양된 연대감으로 충만을 하게 되는 어떤 시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애정 전기소설의 중요한 서사문법은 현실과 환상을 구조적으로 안배한다는 것입니다. 환상 체험을 하고요, 주인공이 그 후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데 그러고 나서 현실 환상 체험을 하기 전과 한 후에 이 주인공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로 온 뒤로는 초현실 세계에서의 의미를 반추하고 그럼으로써 현실 세계에 대해서도 반추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정 전기소설의 서사문법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전등신화』, 『금오신화』, 『전기만록』 이 세 작품을 비교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제의식

• 「전등신화」

먼저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작품 모두 어떤 깊은 우의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등신화』입니다.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이 『전등신화』에 수록된 작품은 대부분 원나라 말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원나라 말기는 난세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말기의 난세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세계의 횡포, 전란이라고 하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사태라든가 이런 세계의 횡포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력한가를 서사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향정기」라고 하는 작품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상생과 채채, 이게 남녀 주인공들인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하지만 전란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 채채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고 맙니다. 이런 설정이 전란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운명이 얼마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가를 보여주지요.

자, 그 다음에 「취취전」과 「애경전」이라고 하는 작품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 작품의 남녀 주인공은 모두 병란으로 인해서 그 삶이 아주 갈가리 찢겨진 채 비극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이 또한 이 세계의 폭력성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이 『전등신화』의 가장 깊은 차원에 담겨져 있는 주제의식이라고 그럴까, 이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취취전」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김정과 취취라고 하는 이제 남녀 주인공이 등장해요. 이 두 사람은 이제 동학으로 만나서 진작에 이제 부부가 되기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두 집 안에 차이가 있어서 혼사장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도 취취라고 하는 여성이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장사성의 난으로 인해서 김정과 취취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취는 이장군에게 거두어지고요. 그런데 김정은 군인을 찾아가서 오누이로 속여서 취취와 드디어 해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만남에 도달한 이 남녀,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려지는데요. 그런데 이장군의 위엄 아래에서 김정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취취도 따라 죽습니다. 여기서도 만남은 짧고 결국 비극성이 강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랑을 충분히 나누지 못한 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 환생을 해서 옛 하인에게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들 부모를 오게 해요. 그래서 취취가 자기 아버지 앞에서 억울한 마음을 토로한 뒤에 저승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내용이구요.

또 살펴볼 중요한 작품으로 「태허사법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아주 그로테스크한 서술이 눈에 띄는데요. 아주 지극히 황량하고 처량한 세계의 상황을 포착한 겁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세계는 곧 지옥에 다름없고 이것이 바로 작가의 세계 인식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목도한 그 시대의 모습은 아주 참혹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태허사법전」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작품은 「수문사인전」입니다. 이 작품은 불의와 부정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등신화』의 주제의식을 간단히 살펴봤구요.

• 『전기만록』

자, 그럼 이어서는 『전기만록』의 면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만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왕위 찬탈에 대한 비판의식, 막등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위 찬탈을 한 후에 창작이 된 작품들이 있어서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아까는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으니까 이 시점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시다. 이제 베트남의 여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요. 창업한 지 백 년쯤 된 시점이 된 1527년에 여조의 신하 막등용이 왕위를 찬탈한 겁니다. 이 여조라고 하는 왕조는 어떻게 성립이 된 거냐면 20년간 이제 베트남이 명나라 지배하에 있었는데 베트남 인민들이 끈질긴 저항 운동을 전개해서 결국은 명나라 군대를 축출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거든요. 바로 이때 성립이 된 왕조가 여조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진행이 되다가 그 신하 막등용이 왕위 찬탈을 해버린 것이죠. 이런 왕위 찬탈을 비판한 작품이 『전기만록』 중에 수록된 「나산초대록」하고 「타강야음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작품과 더불어 눈여겨볼 작품으로는 「항왕사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약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중국의 인물 항우를 내세워서 항우를 비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우를 결국은 막등용에 비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항우를 비난함으로써 막등용의 권력 찬탈을 비판한 작품이 「항왕사기」가 되습시다.

그다음 이어서 또 살펴볼 것은 『전기만록』에는 중국의 베트남 침략에 대한 비판의식이 아주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1406년에 명나라가 이제 베트남을 침략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 당연히 명나라의 일방적인 침략입니다. 그 당시 황제였던 영락제가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침략을 일으킨 것인데 그래서 베트남을 중국의 군현으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여조 앞에 베트남 왕조였던 진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요. 이 진조의 재상이었던 호계리가 왕위를 찬탈하고 호조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드디어 어떤 꼬투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명나라 측에서는 호계리의 왕위 찬탈을 트집 삼아가지고 20여만 군대를 거느리고 베트남을 침략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년간 중국의 지배가 이어지는데 그와 동시에 명나라에 대한 해방 전쟁이 이어지고요. 그래서 1418년에 기병을 한 여리라고 하는 존재가 10년간의 항전 끝에 결국은 베트남 독립을 쟁취하고 이 여리가 여조의 창업자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전기만록』을 보시면 이민족의 침략에 반대 입장을 보여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량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주 주목이 되는 작품인데요. 여량은 이생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여량이 명나라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이송될 운명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여량이 어떤 저항을 하나면요, 자결을 함으로써 절개를 지킵니다. 일종의 저항 행위인 것이죠. 목숨을 건 저항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

지가 않고요 그래서 여랑을 찾아 나선 이생은 여랑의 무덤 앞에서 오열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날 밤에 여랑의 혼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생은 여랑의 혼령과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생은 무덤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다시는 장가를 들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다음에 침략에 반대하는 또 다른 작품으로는 「쾌주의부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주목이 됩니다. 여기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준규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준규가 노름으로 아내 예경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경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과 살아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인데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경이 죽자 상제님이 그 죽음을 불쌍하게 여겨서 징왕사라고 하는 사당에서 일을 보게 하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징왕사라고 하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이 징왕사에 모신 이 징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냐, 어떤 인물이나 하면요, 중국에 항쟁을 해서 베트남의 독립을 쟁취한 영웅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미 침략 전쟁에 대한 비판의식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기만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의식은 무능하거나 불의한 신하에 대한 비판의식입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은 「범자허유천조록」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거는 주인공인 범자허라고 하는 인물이 저승에서 벼슬하고 있는 자기 스승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무능하거나 불의한 신하에 대한 비판 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주목되는 작품은 「이장군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또한 무능하고 부정한 위장자에 대한 비판의식을 굉장히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작중 인물의 말을 빌어서 하고 있습니다.

• 「금오신화」

이렇게 『전기만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는 『금오신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신화』는 이제 김시습이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한 일에 대한 큰 충격을 받게 돼서 지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대한 비판이 『금오신화』에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염부주지」「취유부벽정기」에 이제 들어 있는데요. 「남염부주지」를 보면 남염부주를 다스리는 이제 염라왕의 말에 어떤 말이 보이냐면 ‘시역’ 바로 이게 이제 수양대군이 한 것이죠. “시역과 간혹을 자행한 무리가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시역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겨냥한 말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염부주지」는 수양대군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하는 것이 됩니다. 그다음에 「취유부벽정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천상에 올라 선녀가 된 기씨의 딸이 수천 년 뒤의 인물인 홍생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부분에서 기씨녀의 입을 빌려가지고 왕위 찬탈을 비판을 하는 게 또 보입니다.

또 그 밖에도 「남염부주지」의 경우는 이 권력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 이제 있어서 왕위 찬탈에 대한 비판과 권력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 이제 동전의 양면을 이루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리고 백성에 대한 폭압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유교 정치사상인 민본주의, 애민주의 이런 거를 소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비교 논의

이상으로 세 작품을 검토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비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 작품 모두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죠. 다만 『전등신화』와 『전기만록』 쪽이 현실 세계의 부조리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같고요. 『금오신화』의 경우는 좀 구체성이 좀 다소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세 작품 모두 권력의 횡포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게 또 공통점입니다. 다만 『금오신화』의 경우는 좀 더 주목이 되는 것은 그런 비판의식이 좀 더 구체적인 애민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적인 구체성을 갖게 되는 게 또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세 작품 모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난리, 병란 이런 것들을 서사 전기의 주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큰 차이 또한 있습니다. 『전등신화』의 경우에는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서사 장치에 머물지 않고 전쟁이라고 하는 사태 자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에서 검토한 이야기들에서 다 드러났죠. 『전기만록』의 경우에는 전쟁이 또 『전등신화』와는 달리 이민족의 침략에 대한 어떤 민족적 저항 의식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등신화』의 경우에는 좀 반전 문학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전기만록』의 경우에는 침략주의에 대한 저항의 면모가 강하다는 것이 또 서로 다릅니다. 또 이 두 작품과 달리 『금오신화』의 경우에는 전란 자체가 『전등신화』처럼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대체로는 서사 전개의 한 계기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큰 차이가 또 보이고요.

또 세 작품과 달리 좀 더 『전기만록』과 『금오신화』의 공통점에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작품은 『전등신화』와는 달리 왕위 찬탈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비판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 좀 특징은 약간 다른데요. 『전기만록』의 경우는 그 비판이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편이고 『금오신화』는 약간 우의적으로 약간 은근하게 드러내는 편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4. 결말구조

그다음에는 주제의식을 살펴봤으니까 결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비극적인 결말이냐 아니면 해피엔딩이냐 이런 거는 이 세계를 보는 작가의 태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대단히 서사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전등신화』 21편 중에 비극적인 결말을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

품은 한 5편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애정전」이나 「취취전」이나 「녹의인전」이나 이런 등등이 있는 것 같고 해피엔딩이 좀 뚜렷한 것은 한 3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나머지는 해피엔딩이 아니냐 여부가 그렇게 작품 내에서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전기만록』의 경우는 이제 20편 중에 아주 뚜렷하게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준다 싶은 것은 한 5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쾌주의부전」이나 뭐 이런 등등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해피엔딩이 좀 뚜렷하다 싶은 것은 한 2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취초전」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역시 꼭 해피엔딩이냐 비극적이냐 이런 게 그렇게 핵심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금오신화』는 5편인데 그중에 아주 뚜렷한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거는 「만복사저포기」·「이생규장전」·「취유부벽정기」 세 편 이고요, 나머지 두 편은 좀 애매합니다.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나머지 두 편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비극적인 결말로 보는 연구자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나머지 두 편까지 비극적인 결말로 보면 『금오신화』는 다섯 편 전부가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금오신화』가 가장 비극성이 현저한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작품은 비극적인 결말하고 해피엔딩이 혼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금오신화』를 지은 김시습의 세계 인식이 얼마나 비극적인 면이 강한가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금오신화』의 비극적인 결말은 현존하는 세계를 부정하고 그와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심리감정을 서사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 인물과 관련된 이제 어떤 비극성은 좀 따로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오신화』, 『전기만록』, 『전등신화』 모두 여성의 정절이 강조가 됩니다. 여성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금오신화』 속의 여성의 정절은 말 그대로 절의의 상징입니다. 여성의 죽음은 작품의 비극적인 결말을 고양시킵니다. 『전기만록』의 경우는 여주인공의 죽음이 그것 플러스 반침략주의적인 저항의 메시지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금오신화』와는 달리 비극적인 감정에 매몰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전기만록』하고 『금오신화』를 비교했으니까 『전등신화』하고 『전기만록』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전등신화』의 경우에는 「취취전」이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전기만록』에 「취취전」을 패러디한 작품이 있어요. 이게 「취초전」인데 이 「취초전」은 「취취전」과 반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취취전」의 경우는 전란을 소재로 한 소설인데 이런 세계의 강포한 힘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스러져가는 이 존재의 슬픈 운명,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이와 달리 「취초전」의 경우는 그 등장인물이 강포한 세계에 저항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의 기지를 부려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즉 세계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끝내 희망을 접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취초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문사, 이제 여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희인 취초를 아내로 맞아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그게 이 여생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제 가는데요. 취초하고 잠시도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갑니다. 그런데 여생과 취초

는 서울에 도착해서 강어귀에 있는 집에 유숙하는데요. 취초가 이제 예불을 드리러 절에 가는데 당시 권세가였던 신주국이 그 미모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취초를 납치해서 자기 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권력에 의한 횡포죠. 그런데 여생은 나라에까지 하소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해서 과거 시험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후에 여생은 어느 날 꽃구경을 하다가 먼발치에 취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생은 앵무새를 이용해서 취초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취초는 이 편지를 받고 이 여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병이 들고 맙니다. 신주국은 취초에게 아직도 남편을 그리워하나 이렇게 물으니까 취초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는 자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주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남편을 불러주겠다 그래서 옛 인연을 다시 이어주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마음에도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주국은 여생을 불러왔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가 취초는 정월 대보름 밤에 연등 행사가 있으니 그 틈을 이용해서 달아나자라는 말을 자기 남편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남편은 여생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여생이 하인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취초를 데리고 도망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생은 취초가 피를 내서 감시의 눈을 피해서 시골에 숨어 살자라고 해서 여생이 그 말을 따라가지고 시골에 숨어 살아서 화를 피합니다. 그 뒤에 신주국이라고 하는 인물도 권력이 영원하지가 않죠. 지나친 사치가 문제가 돼서 결국 처벌을 받고 그 뒤에 여생은 상경해서 진사시험에 합격을 하고 취초와 백년해로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은 어떤 권력의 횡포는 있지만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고 피를 부려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주인공들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서 결국 행복을 성취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공간구성과 시간의식

그다음 끝으로 공간구성과 시간 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작품 모두 현실과 초현실, 인간 세계와 인간이 아닌 이계를 넘나드는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특히 별세계 방문이 주목이 됩니다. 별세계의 방문은 이제 용궁이나 신선세계나 천상이나 저승 이런 것들인데요. 별세계 방문 이야기의 기본 구도는 이제 인간세계-별세계-인간 세계,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되고 인간 세계로 돌아온 주인공의 태도는 이제 둘로 나뉘는데, 다시 원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등신화』하고 『전기만록』의 경우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종적을 감추는 것은 소수입니다. 반면에 『금오신화』에서는 종적을 감추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인데요. 여기에 상응하는 이야기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오신화』의 경우 「남염부주지」하고 「취유부벽정기」의 경우는 이제 인간세계, 그다음 별세계, 인간세계, 별세계, 이제 이런 공간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용궁부

연륙』의 경우는 인간세계-별세계-인간세계 이런 구조를 취하는데, 즉 『금오신화』에서는 인간 세계에서 출발해서 마침내 별세계로 떠나는 구조가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등신화』와 『전기만록』은 이것보다는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금오신화』는 좀 더 초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작가 의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금오신화』 쪽이 현전하는 세계를 더 강하게 부정을 하고 염세적인 시각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성이 더 고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시간 의식과 연결되는 면으로 세 작품 모두 운명론이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과 세계의 운명은 모두 다 하늘의 뜻에 따라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운명론의 기본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시간 의식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전생이 먼저 나오고, 운명론이기 때문에 그다음 현생 그다음에 내생 이 세 가지가 계기적으로 서로 연관이 되는 것으로 표상이 되고 이 점에서 이제 운명론은 일종의 결정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등신화』의 경우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거나 운명의 어떤 거대한 힘에 짓눌려서 스러져가는 인간 존재의 무력함에 대한 탐구가 주된 관심사인데요. 이제 이런 것이 운명론적인 시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등신화』에 보면 「녹의인전」의 여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물 또한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가 봐요.” 이거 단적인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전기만록』하고 좀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운명의 거역할 수 없는 힘을 인정하는데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운명을 피하거나 운명에 저항하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방금 설명드린 「취초전」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여량전」도 남자 주인공은 운명에 이제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작품 모두 운명론에 침잠되어 있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금오신화』의 경우도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의 주체적인 결단의 가능성은 또 인정을 하고 그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절의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종적을 감추는 것도 일종의 결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오신화』의 비극성은 등장인물들의 어떤 운명에 대한 태도와 연관이 됩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고수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가치만큼은 추호도 훼손당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 이런 것에서 어떤 강한 결단력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오신화』의 비극성이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겠죠. 이렇게 전기소설의 비극적인 사랑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어떤 비극적인 설정을 통해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데요.

6. 더 생각해볼 문제

이상의 공부 내용을 토대로 더 생각해 볼 거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소설의 비극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큰 화두를 던져주죠.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어떤 고민거리를 자꾸 줍니다. 이 세계는 뭔가, 이 강고한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소설이 인간학적으로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했으니깐요, 『전등신화』, 『금오신화』, 『전기만록』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죠. 이런 차이점이 중국, 한국, 베트남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차이를 넘어서 어떤 동아시아적인 동질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문학 연구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동아시아적인 연대의 가능성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타진해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비교문학적인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비교문학적인 연구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비교가 좀 자의적으로 될 수도 있고 비교를 한다면서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비교문학 연구에서 주의할 점이 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 전기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오늘 수업에서는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본 전기소설’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의 『금오신화』, 중국 명나라의 『전등신화』, 베트남의 『전기만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기소설은 한문으로 쓰인 동아시아의 보편적 소설 양식입니다. 먼저 애정 전기소설의 인간형과 서사문법을 살펴보고, 이어서 『금오신화』, 『전등신화』, 『전기만록』의 주제의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 작품에서는 모두 ‘현실에 대한 비판’과 ‘권력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 확인됩니다. 단, 현실 제시의 구체성이나 권력 비판의 사상적 연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난리나 병란을 서사전개의 주요 계기로 삼는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전등신화』가 반전문학적 성격을 갖는 반면 『전기만록』은 침략주의에 대한 저항적 면모가 강합니다. 『전기만록』과 『금

오신화』는 왕위 찬탈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단, 『전기만록』의 비판이 노골적인 편인 데 비해 『금오신화』의 비판은 은근한 편입니다.

이어 세 작품의 결말구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 작품 중 『금오신화』가 비극성이 가장 현저합니다. 『금오신화』의 비극적 결말은 현존하는 세계를 부정하면서 그것을 초월할 것을 희구하는 심리감정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기만록』과 『금오신화』는 『전등신화』에 비해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오신화』 속 여성의 정절은 절의의 상징으로, 여성의 죽음은 작품의 비극적 결말을 고양시킵니다. 반면 『전기만록』 속 여주인공의 죽음은 작품 말미에서 반침략주의적 메시지와 결합하며, 따라서 비극적 감정에만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작품의 공간구성과 시간의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주인공이 별세계를 방문하는 이야기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등신화』와 『전기만록』은 보다 현세적이고 『금오신화』는 보다 초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오신화』의 결말에는 현존하는 세계에 대한 강한 부정과 염세적 전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 작품 모두 운명론에 침잠되어 있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단, 세 작품이 운명을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다릅니다. 『전등신화』에서 인간 존재의 무력함에 대한 탐구에 주된 관심을 쏟는 반면, 『전기만록』은 운명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운명을 피해가거나 운명에 저항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오신화』는 운명을 받아들여 인간 주체적 결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전기소설은 당나라 중기에 흥행했다. (O/X)

정답: O

2. 『전등신화』에 수록된 작품은 대부분 당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O/X)

정답: X

3. 『용궁부연록』에서 주인공은 용왕의 딸과 혼인해서 세상의 부귀영달을 버린 채 삶을 마친다. (O/X)

정답: X

4. 『전기만록』에는 인과응보와 복선화음을 강조한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다. (O/X)

정답: O

5. 『전기만록』과 『금오신화』는 『전등신화』에 비해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고 있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금오신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인간과 비인간의 사랑을 주요 모티브로 하고 있다.
- ② 「취유부벽정기」는 위만의 딸이 신선이 되어 홍생과 만나는 이야기이다.
- ③ 「남염부주지」와 「취유부벽정기」는 인간세계와 별세계를 넘나드는 공간 구성을 취하고 있다.

정답: ②

2. 다음 중 애정 전기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녀 주인공은 결국 현실적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하는 경우가 많다.
- ② 주인공들은 첫 만남에서 시를 주고받음으로써 내면세계와 연애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③ 애정 전기소설의 중요한 서사문법 중 하나는 만남과 이별의 이항대립으로 서사가 축조된다는 것이다.

정답: ①

3. 다음 중 『전등신화』·『금오신화』·『전기만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오신화』와 『전기만록』은 왕위 찬탈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 ② 『금오신화』는 『전등신화』와 『전기만록』에 비해 현실세계의 부조리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세 작품 모두 현실과 초현실, 인간세상과 이계(異界)를 넘나드는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정답: ②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금오신화』는 ○○○이 창작한 한국 전기소설이다.

정답: 김시습

2. 완세의(阮世義)는 ○○문자로 『전기만록』에 주석을 달아서 『신편 전기만록 증보해음집주』를 출간했다.

정답: 쓰놈

3. 『전등신화』에 실린 「○○○○○」은 그로테스크한 서술로 지극히 황량하고 처참한 세계상을 포착하고 있다.

정답: 태허사법전

나. 토의(45분)

1) 전기소설의 비극적인 사랑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 어떤 통찰력을 보여주고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가.

(전기소설에서 보이는 ‘변치 않는 사랑’, ‘짧은 만남과 긴 이별’, ‘세상의 강고한 힘과 인간의 무력함’ 등에 유의하여, 이런 면면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음을 던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전기소설의 인간형 및 서사 문법이 갖는 특징을 걸어로 드러난 현상적인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역사철학적·사상적 심층을 탐구하도록 한다.)

2) 『전등신화』, 『금오신화』, 『전기만록』의 차이점은 중국, 한국, 베트남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그리고 그런 차이를 넘어선 동아시아적 동질성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전등신화』, 『금오신화』, 『전기만록』의 수록 작품들을 찾아서 읽어보고, 해제 및 관련 연구들을 섭렵한다. 주제의식, 인물 형상, 공간 구성, 결말구조 등에 유의하여 작품들을 비교 검토해본다. 비교 검토를 통해 작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 뒤에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초래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생각해 본다.)

3) 비교문학적 시각이 갖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비교문학 연구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비교문학적 연구가 일국적(一國的)인 제약에서 벗어나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점에 유의한다. 그와 동시에 비교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될 우려는 없는지, 비교를 통해 상호 존중의 태도를 키워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자국 중심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흐를 위험은 없는지를 함께 고민해 본다. 비교문학적 연구가 그 장점은 잘 살리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 본다.)

다. 과제(45분)

『전등신화』, 『금오신화』, 『전기만록』은 모두 운명론에 침잠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러한 공통점 속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히 서술해 보십시오.

(소설 작품에서 운명론적 사고 내지 세계관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생각해 본다. 서사를 통해 구현된 시간의식, 거대한 운명의 힘에 대한 등장 인물들의 대응 방식 등에 유의해 본다. 그런 토대 위에 『전등신화』, 『금오신화』, 『전기만록』에서 운명적 사고 및 세계관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점검하면서 상호 비교해본다.)

〈제3강〉

전란의 동아시아 「최척전」과 「김영철전」

학습 목표

1. 동아시아의 전란이 한국 고전소설에 미친 영향을 이해한다.
2. 「최척전」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를 이해한다.
3. 「김영철전」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를 이해한다.

강의 핵심 요약

‘전란의 동아시아’라는 제목으로 조위한의 「최척전」과 홍세태의 「김영철전」을 살펴보았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전반기까지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조선은 여러 차례 전란에 휩싸였다. 그 결과 전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다수 창작되었다. 이 중 많은 작품에서 중편화 경향이 나타나며, 전대 소설에 비해 현실을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경향 또한 드러난다.

「최척전」은 남주인공 최척과 여주인공 이옥영의 만남과 결연, 전쟁으로 인한 이산과 상봉, 또 한번의 전쟁으로 인한 재이산과 재상봉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조선, 일본, 베트남, 중국에 걸친 광대한 지역을 무대로 삼아, 평범한 사람들이 전란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 여주인공 옥영의 성격 창조가 돋보이며 변함없는 가족애에 의해 가족이 마침내 재회하게 되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다. 「최척전」은 서사적 갈등의 불충분함, 서사적 편폭의 협소함, 환경과 사건 창조의 추상성과 비현실성 등 전대 소설의 한계를 극복한 작품이다. 그리고 구체적 현실과 대결하는 인물 형상을 창조하고 심각한 서사적 갈등을 구축하며 서사적 반영의 편폭을 크게 넓힘으로써 리얼리즘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당대 일반 백성

이 겪은 전쟁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역사의 위와 아래를 모두 보면서 서사적 총체성을 확보했다.

「김영철전」의 줄거리는 주인공 김영철이 후금과의 전쟁에 나가 적의 포로가 되었다가 천신만고 끝에 조선으로 돌아오지만, 그 뒤에도 가난과 고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영철전」은 조선후기의 전계소설 중 앞서는 작품으로, 전계소설답게 사실적 필치로 서술되어 있다. 가족의 이산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최척전」과 연결되지만, 초현실적인 요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최척전」과 달리 시종일관 사실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서술된다. 그리고 「최척전」과 달리 「김영철전」에서는 주인공의 귀환 이후에도 또 다른 고난이 이어진다. 이로써 「김영철전」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손쉽게 서사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문제 그 자체를 직시하도록 한다. 후금과 명나라 인물들을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전란으로 인한 가족 이산의 비극을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통찰하고 있다는 점 또한 「김영철전」의 의의이다.

◆ 강의 내용 전문 ◆

학습 목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란의 동아시아라는 제목하에 두 편의 소설 「최척전」 그리고 「김영철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전란의 동아시아라고 하는 타이틀은 우리 한국 문학사를 빛내는 이 두 편의 소설이 그 무대가 배경이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전쟁을 배경으로 하면서 소설적인 무대가 동아시아 세계로 확장이 되고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목을 해서 제목 타이틀을 전란의 동아시아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 우리 문학사를 좀 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순서

1. 전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
2. 「최척전」의 특징
3. 「최척전」의 소설사적 의의
4. 「김영철전」의 특징
5. 「김영철전」의 소설사적 의의
6. 더 생각해볼 문제
7.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강의 개요

일단 강의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공부할 두 편 외에도 전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좀 있는데요. 전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오늘 공부할 「최척전」「김영철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하는데

요. 순서대로 먼저 「최척전」을 공부하는데 두 측면에서 일단 살펴볼 겁니다. 우선은 「최척전」의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서 중요한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런 「최척전」이 소설사적으로는 어떤 의의가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엔 이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김영철전」을 공부를 해서 먼저 「김영철전」의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서 어떤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철전」은 소설사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 이런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전란이 우리 소설사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공부를 토대로 좀 더 생각해볼 만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또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 전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

그럼 지금부터 방금 설명드린 개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란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는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었나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주로 16~17세기의 일인데요. 이때가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 과정에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명청 교체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 내의 일종의 요충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전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극이라고 하면 비극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전쟁의 서막을 연 것은 임진왜란입니다. 2차 침입인 정유재란을 포함해서 기간을 산정하면 1592년에서 1598년에 이르는 긴 기간의 전쟁입니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이고 이것 때문에 조선이 아주 큰 고난을 겪은 것은 물론 동아시아 사회의 아주 큰 지각 변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정묘호란 · 병자호란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모두 명청교체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정묘호란은 1627년 조선의 국왕이 인조였는데요. 이때 후금과 조선 사이에서의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 여파로 이제 조선은 원래 명나라와의 관계를 중시했지만 명나라와의 관계는 별도로 후금과는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더 큰 전쟁이 이제 1636년에 이어지는데 병자호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1636년 12월에서부터 1637년 1월에까지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주 당시 청나라 측의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로 조선이 완전히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지만 후금이 이제 대청이라고 국호를 바꾸고 나서 바로 이제 병자호란을 일으키게, 일방적으로 이것도 일으키게 돼서 우리 조선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그 결과 이제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좀 더 사대 관계에 가깝게 되는 쪽으로 외교 관계가 재편이 되고요.

그 뒤로 결국은 청나라 쪽이 중원을 차지하면서 청나라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이 되게 됩니다.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것들이 오늘 공부할 소설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전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이제 우리 문학사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필의 「주생전」을 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작자 미상의 작품 중에 이제 「위생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가가 성로라는 학설이 제기되어 있고요. 이제 성로라는 학설이 아직 정착이 될지 여부는 아직 학계 차원에서의 검증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조위한의 「최척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계선의 「달천몽유록」, 그다음에 황중윤의 「달천몽유록」, 제목은 같지만 작가가 다른 또 두 계열의 작품이 있습니다. 모두 이제 몽유록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게 특징이고요. 권척의 「강로전」이 나오고 또 오늘 공부할 홍세태의 「김영철전」이 이제 또 기념비적인 작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철전」이랑 제목은 같지만 또 다른 작품으로 작자 미상의 「김영철전」이 또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역시 작가 미상의 작품들이 쭉 이어지는 데요. 이제 「임진록」이 있고 「박씨전」이 있고 「강도몽유록」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의 작품들은 이제 어떤 경향을 보여주냐면요. 대체로는 이제 중편 소설이 많이 나와서 중편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전에 비해서는 분량이 좀 확장이 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 만큼 이제 전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서사의 편폭이 어느 정도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내적인 요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이제 몽유록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게 또 특징이고요. 그래서 또 전란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전대에 좀 초현실적인 설정이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더 현실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최척전」의 특징

• 작가 소개

이렇게 해서 전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 작품들에 대한 개관을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최척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가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면요. 작가는 조위한입니다. 1567년에 태어나서 1649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16~17세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는 현곡이라는 호도 썼고 또 소옹이라는 호도 썼다고 합니다. 광해군 때 그리고 인조 때의 문신입니다. 사헌부 집의, 공조 참판 이런 등등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우관계인데요. 조위한이 친하게 지냈던 인물들이 허균, 권필 이런 사람들입니다. 허균과 권필은 이번 수업에는 다루지 않지만 모두 빼어난 소설을 남긴 작가들이고 우리 문학사에서 아주 중시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권필도 중

요한 소설을 쓰고 허균도 쓰고 또 조위한도 「최척전」 같은 소설을 썼다는 거, 이게 이제 문학사적으로는 주목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조위한 어떤 계기로 이 「최척전」을 짓게 됐을까 이런 창작의 계기가 되는 생애사를 좀 더 짚어봅시다. 중요한 게 계축옥사라는 건데요. 계축옥사는 복잡한 정치사적인 사건이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 대북파가 영창대군 및 서인 남인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옥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계축옥사로 인해서 조위한이 파직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남원에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최척전」의 주인공 최척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위한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최척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란으로 인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이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가족의 이산과 상봉, 다시 만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해요. 이렇게 들려주고 나서 이 최척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의 이야기가 세상에 사라지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으로 인해서 이 조위한이 1621년에 이 조위한이 이때 나이가 64세였는데요. 이때 이제 「최척전」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척전」은 그러니까 실존 인물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리얼리티가 높다는 것입니다.

• 「최척전」의 줄거리

「최척전」은 그럼 어떤 줄거리로 되어 있는가, 줄거리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머리에 넣어두기 위해서 일단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주인공 최척이 이옥영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이제 첫 만남을 하는 것부터 해서 결혼에 골인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쭉 서사가 전개가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정말 참 멋진 애정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고 정유재란이 닥칩니다.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척하고 이옥영이 모두 해외에서 막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부부가 해외에서 극적인 상봉을 하는데요. 바로 어디냐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 이 부부가 극적으로 상봉을 하고 그다음에 부부가 다시 만나서 중국에서 일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또 끝이 아닙니다. 이제 부부가 만났으니까 살 만하다 싶으니까 최척이 또다시 전투에 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이산이 두 번째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걸 재이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다가 결국 또 이제 어찌어찌한 사연이 흘러서, 이 사연을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드디어 이제 이옥영이 고향 남원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남원에서 최척의 모든 가족이 다시 상봉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전체 구성을 보시면요, 결연, 그다음에 이산 그다음에 부분적인 재회 그다음에 재이산 그다음에 전체적인 재회 이런 5단 구성으로 작품이 짜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척전」의 특징

그럼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이것도 일단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체적인 줄거리 설명드리는 데서도 여러분이 이제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이 작품이 제일 중요한 특징은 가족의 이산, 재회라는 문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다루는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고전 소설사에서 이제 등장하지 않았던 유형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의 무대가 아주 스케일이 커졌다는 거예요. 조선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동아시아 4개국을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이 4개국을 무대로 삼으면서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한 가족이 두 번씩이나 전란을 겪으면서 각 나라에 뿔뿔이 막 흩어져 있다가 천신만고 끝에 재회하는 과정을 아주 이제 흥미롭게 그렸다는 것이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전반부는 이제 최척과 이옥영이 이제 혼인에 이르는 과정을 쪽 소설적으로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요. 이 자체로 아주 훌륭한 애정소설입니다. 후반부에서는 해외에서 고생하다가 가족들이 전체가 다 모이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돋보이는 것은 이제 이옥영이라고 하는 여성 캐릭터의 활약 그리고 그런 활약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여성 캐릭터의 어떤 면모들 그런 게 상당히 돋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좀 더 구체적인 작품의 특징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남녀 주인공의 결연 과정부터 살펴봅시다. 이 결연은 이제 남자 주인공 최척 그리고 여자 주인공 옥영의 결연인데요. 이 결연 과정에서 두 주인공의 캐릭터 묘사가 아주 뚜렷합니다. 아주 정취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옥영의 성격 창조가 인상적입니다. 이옥영이라고 하는 여성이 두 남녀의 결연 과정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고난 속에서도 그렇고 가족들이 다 모이는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여정에서도 그렇고 참 중요한 면모들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결연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일단 결연 과정에서 이제 이옥영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아주 정감이 풍부하고 그러면서 신의가 아주 굳고 또 그러면서 지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이런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얼마나 적극적이냐면요, 이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먼저 스스로 최척에게 사랑을 고백할 정도로 이 여성이 대담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두 남녀가 바로 결혼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혼사장애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도 있다는 뜻이겠죠. 일단 첫 번째 혼사장애는 뭐냐, 이 옥영의 어머니가 결혼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최척이 가난한 집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너 가난한 집 결혼시키기 싫다 이렇게 이제 결혼을 반대하는 겁니다. 옥영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어머니의 반응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 어머니 알겠어요” 이게 아니라 옥영이가 어머니를 막 설득을 합니다. 재물 외에 더 중요한 게 많다. 인간을 볼 때. 그런 인간 외적인 요인에 좌우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애정에 따라서 배필을 택하는 그런 논리를 어머니에게 막 제시를 합니다. 즉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적극적인 태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외적인 조건에 기대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인간 자세, 적극성 이런 게 아주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영이가 하는 말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사윗감을 고르면서 저를 위해 반드시 부잣집 자제를 구하려 하시니 그 마음은 참으로 고맙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머니의 그런 마음도 인정해 주면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 사전 포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집도 부유하고 사람도 똑똑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집이 잘살더라도 사람이 똑똑하지 않으면 가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재물은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만일 제가 몹쓸 사람을 남편으로 맞는다면 집에 쌀이 있다 해도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즉 재물에만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얽매이면 안 된다, 사람을 봐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요. 중략하고 이제 뒷부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말이 좀 이게 길거든요. 중간은 생략하고요.

제가 직접 나서서 말할 일이 아닌 줄 알지만

이건 이제 전통적인 관념에서 애초에 부모님이 혼처를 정해주면 그에 따르는 게 관행이고 당사자가 막 나서서 법은 잘 없거든요. 특히 여성이 결혼 상대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말을 한다, 이거는 그 당시 통념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말할 일이 아닌 줄 알지만 워낙 중대한 문제이다 보니 부끄러워하며 말을 삼가는 태도를 보일 수 없었어요.

즉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손에 맡겨두고 방치할 수는 없다, 내가. 공손하고 완곡하면서도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묵묵히 입 다물고 있다가 끝내 용렬한 사람에게 시집가서 일생을 망친다면 어찌겠어요.

여기에서 어떤 이 여성의 당찬 모습, 강인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말을 이어가는데요.

깨진 시루는 다시 붙일 수 없고 한번 물들인 실은 다시 하얗게 만들 수 없으니,

결혼 한 번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데 이거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보면요.

울어봐야 소용없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요.

그 다음 또 중락을 하구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 모녀의 몸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괜찮아야지 우리도 의지하고 살 수 있다. 돈만 많은 거 아무 소용 없다. 그 얘기 또 반복을

하고요,

그러니 저는 시집가기를 청하면서 스스로 배필 고르는 일을 피하지 않으렵니다.

이거 아주 결연한 자기 의지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는 기꺼이 내 배필을 스스로 고르겠다. 이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어지는 말을 또 보면요,

깊은 규방에 숨어 남의 입이나 바라보고 있다가 제 몸을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참 똑똑한 말이죠. 이런 옥영의 노력으로 이 두 사람은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날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가 두 번째 혼사장애가 등장을 합니다. 참 이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참 운명이라고 하는 게 알맞은 건데 이 두 번째 혼사장애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최척이 호남의 의병장인 변사정이라고 하는 인물의 막하로 차출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란이라고 하는 게 이 두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최척은 또 의리를 잘 지키고 신의를 중시하는 인물이어서 이 변사정이라고 하는 인물의 막하로 가는 것을 또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혼례를 치르기 전에 일종의 이제 전쟁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한 그 날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최척은 이제 옥영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군대 안에서 병이 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두 사람의 최초의 이별입니다. 이 최초의 이별은 바로 전란으로 인한 것이죠. 임진왜란이 닥쳤는데 그것이 평범한 인간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최척만 앓아눕는 게 아닙니다. 혼인하기로 약속한 날에 최척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옥영이도 이제 근심 걱정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이제 혼사장애가 개입을 하는 건데요. 바로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양생이라고 하는 또 이제 부잣집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사 장애를 가중시키는데요. 애초에 최척이하고 옥영이의 혼약을 주선하는 인물이 이제 정상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인물이 양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뇌물을 받아서 매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양생과의 혼약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옥영의 어머니도 정상사의 말에 혹해가지고 그래 부자라고 하니 내 딸을 이제 여기다 결혼시켜버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 결혼시키자 하고 결혼을 허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인간 심리가 얼마나 표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리얼하게 이제 보여준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혼사장애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혼사장애도 옥영이의 어떤 결단력으로 그리고 극적인 행동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이제 너무나 강력한 극적인 행동인데요. 옥영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살까지 시도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깜짝 놀라서 옥영의 어머니도 양생과의 혼인을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옥영이가 저항을 하고 있는 사이에 드디어 이제 최척도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두 번의 장애가 있었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약간의 이제 좀 행복한 결혼 생활 중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또 생깁니다.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단 하나 아쉬운 점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관념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옛날의 감각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매달 초하루에 만복사에 가서 부처님에게 기도합니다. 아이를 점지해 달라고. 이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민간적인 심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나중에도 서사적으로도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을 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좀 우연적인 요소, 환상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민중의 심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다양한 평가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나중에는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중요성을 환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좀 더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러면서도 부부의 금슬을 아주 잘 보여주는 또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도 중요하게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척이 통소를 잘 불었다고 그래요. 어느 늦은 봄 아주 맑은 밤, 아주 정취가 있죠, 봄에 맑은 달밤이라니. 최척이 통소를 탁 불니다. 참 멋있죠. 그 통소 곡조를 듣고 아내인 옥영이가 시를 한 편을 탁 읍습니다. 최척은 자기 아내가 이렇게 시를 잘 짓는 줄도 몰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즉석에서 자기 아내의 시에 호응하는 창화시를 또 지어서 화답을 합니다. 즉 부부가 굉장히 예술적인 상호 교감을 하고 지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 점에서는 일종의 전기소설적인 면모가 또 확인이 됩니다. 어떤 시를 통한 상호 유대의 형성, 어떤 문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기소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정이 더욱 깊어지고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지음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통소, 시의 수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고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요, 여러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애정 소설로 참 좋고 훈훈하죠. 현실의 어떤 거듭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남녀가 결국은 이 장애를 다 넘고 자신의 애정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행복한 결합을 성취시킨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이 자체로 좋은데 이야기가 이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이것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에 우리가 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산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의 이산이 서사화되는 부분을 보시면요, 일단 앞부분에서는 외적의 노략질로 인해서 가족이 이산하게 되는 상황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런 묘사도 이제 그전의 소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면모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옥영은 일단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돈우라고 하는 이제 일본 상인이 있는데요, 그 상인의 노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우라고 하는 상인을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옥영이가 그때 남자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죠. 여성이라고 하는 게 노출이 되면 어떤 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옥영이가 남자로 위장을 해서 돈우라고 하는 상인의 노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옥영이의 기지, 명민함 또 이런 거를 이제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옥영의 기지는 또 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옥영이는 배를 타고 중국, 베트남 등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서사적인 설정 때문에 이제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이 확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참고로 역사적인 사실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임진왜란으로 인해 일본에 붙잡혀간 조선 사람들이 수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일본,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이제 많이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카오, 인도까지 팔려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정말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선 민중들을 얼마나 괴롭게 만든 것인지 얼마나 대규모의 이산을 초래한 것인지 실감할 수가 있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최척전」에 이런 이야기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그런 한편 이 가족들이 모두 일본에 잡혀간 것이라고 최척은 오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알고 있는 최척은 아주 실의 끝에 어찌하다가 명나라 장수를 따라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을 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최척은 그러는 중에 도사를 찾아가서 신선술을 또 배우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신선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나 혼자 불로장생을 누리고 싶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에 대한 어떤 무상감을 느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전란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신선술, 도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조선에서도 도가 취향의 소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창작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최척과 최척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리다가 이 부분적인 재회를 하게 돼요. 이제 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지 4년째 되는 해의 일인데요. 이때가 연도로는 1600년이라고 합니다. 1600년 봄에 옥영하고 최척은 각각, 떨어져 있으니까, 각각 장사 일로 베트남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두 주인공이 재회하기까지의 과정이 쪽 서술이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재회하는 장면이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정채를 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최척하고 옥영이는 베트남의 포구에 정박한 배에 각각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서로는 서로가 와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전 행복했던 시절에 최척이 연주했던 그 통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옥영이 통소 소리를 듣고 남편이 근처에 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아니 이런 일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면요, 옥영이 그때 옛날에 최척이 통소를 부니까 옥영이 시를 짓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최척이 시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는 부부 둘만 알고 있잖아요. 그 남편과 자기만 알고 있는 시를 다시 읊습니다. 여기에서 또 옥영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여자인지 드러나죠. 그래서 이 시가 또 들려오니까는 최척이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구나, 그것도 베트남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만날 줄이야. 도저히 현실적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최척이 묘사가 되는데요, “명하니 뉘이 나간 듯하더니 우두커니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 통소 소리가 계기가 돼서 부부가 재회한다 이런 설정이 참 문학적으로 묘미도 있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앞에서 이 부부가 행복했던 시절과 서사적으로 결합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참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일 정말 한 편의 영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딱 클로즈업하기에도 참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만난 최척 부부는 중국 항주에 일단 정착을 합니다. 최척 부부는 원래 이 전란에 휩싸여서 서로 떨어지기 전에 부처님한테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아들을 일단 낳았어요. 몽석이 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아들 말고 또 중국의 항주에서 살면서 또 두 번째로 아들을 또 얻어요. 둘째 아들을 낳아서 1618년까지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혼인도 시켜요. 홍도라고 하는 중국 여인이 이제 그 아내입니다. 혼인을 시켰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중국에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홍도라고 하는 중국 여인도 등장할 하게 되는데 이 여인도 사연이 있고 꽤 나름 중요한 비중을 갖습니다.

홍도는 이제 그 아버지의 사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홍도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나면은 정유재란, 이제 또 이게 동아시아 전쟁이 개입을 하는데요. 정유재란 때 출정을 한 인물이에요. 조선으로 이제 왔겠죠. 전쟁이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에 가서 전쟁통에 죽었는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홍도가 이제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조선에서 돌아가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터여서 소원이 뭐냐 하면은 조선 땅을 밟아서 이 조선에 가서 자기 아버지의 곡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홍도의 소원입니다.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홍도는 최척의 아들과 결혼을 하는 데 아주 적극적이에요. 최척이 조선 사람이고 최척의 아들은 바로 그런 조선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 아버지를 언젠가는 곡을 할 수 있을 거다, 조선에 찾아가서.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 사람에게만 어떤 가공할 임팩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 인민에게도 큰 고통을 주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조선과 중국이 고통을 공유하는 나라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소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또 끝이 아니고요. 방금 이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또 홍도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는 또 이런 여성상을 보여줍니다. 옥영이도 그랬고 또 중국의 홍도도 그런 겁니다. 이 또한 국경을 뛰어넘어 중국 조선 모두 적극적인 여성상을 이제 소설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옥영이하고 홍도는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국경을 뛰어넘는 여성 간의 연대, 이런 걸 또 서사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분적인 재회를 하게 됐는데 참 운명이 얽긔어서 다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1619년이 됐는데요. 이때는 이제 만주의 누르하치, 나중에 청나라로 이어지는 바로 그 누르하치가 요양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요동 정벌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 최척이 서기로 차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동 정벌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동아시아 전쟁이 최척의 가족에게 개입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재이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최척은 이 전쟁통에 후금군의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강홍립이 이제 이끄는 조선 군대의 병사로 이때 최척의 큰아들이 참전을 하게 돼요.

같은 전쟁통에 최척의 큰아들과 최척이 있는 건데 또 서로의 존재를 모릅니다. 베트남에서 최척과 옥영이가 서로의 존재를 몰랐듯이 최척은 중국에서 이제 차출이 돼서 전쟁통에 갔고 최척의 큰아들은 조선에서 차출돼서 이 전쟁통에 온 것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최척과 큰아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만나게 되는 과정에 대한 묘사가 또 뛰어납니다. 아주 극적인 긴박감도 있고 또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최척과 그 첫째 아들 몽석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름이. 이 몽석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몽석이는 최척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위험하니까 낯선 존재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게 돼 있죠. 최척도 마찬가지로요. 최척도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보고 이 몽석이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이 두 사람이 같이 포로로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친해져요. 그래서 의심도 풀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마음도 주고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관계가 차츰차츰 바뀌는 과정에 이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어떤 게 이제 있냐면요, 최척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죽은 아들 이야기를 해요. 죽은 아들은 첫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몽석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죽었다는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으면서 내가 바로 그 아들이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아주 극적인 만남이죠. 그리고 이 극적인 만남뿐 아니라 처음에 의심에서 시작해서 서로 친해졌다가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이 과정도 굉장히 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최척이 자기 아들과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수용돼 있잖아요. 이제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최척과 몽석은 결국은 포로 감시 책임자의 호의로 수용소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최척은 일단 몽석과 조선으로 들어온 거죠. 최척의 아내, 최척의 둘째 아들, 둘째 아들과 결혼한 최척의 며느리, 이 세 사람은 명나라에 남아있는 것이 되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최척과 몽석이가 포로 감시 책임자의 호의로 결국 수용소 탈출에 성공했다고 했는데요. 이 포로 감시자도 주목이 됩니다. 부수적인 캐릭터이면서도 상당히 이제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있고 이 또한 「최척전」의 소설적 미덕입니다. 포로 감시자도 사실은 조선 사람입니다. 자신이 평안도 삭주의 병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삭주의 병사였는데 왜 후금군으로 들어갔는가, 이 조선의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하여서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로 감시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오랑캐, 그 당시 이 후금이죠. 이 오랑캐의 성격도 강직하고 또 학정을 일삼지 않는다는 겁

니다. 즉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오랑캐의 밑으로 갔더니 살 만하고 좋다. 그리고 누르하치가 자신을 이렇게 80명의 정예병을 거느리도록 했고 그래서 조선의 포로를 감시하도록 했다. 내가 조선에 있었다면 맨날 침탈이나 당하고 뜯기고 산 존재였을 텐데 누르하치 밑으로 가니까 내가 출세도 하고 학정도 당하지도 않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조선 북쪽 변방에서는 학정을 못 견뎌서 국경을 넘는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위한이라고 하는 이 작가의 비판적인 현실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최척과 몽석은 결국은 도망에 성공해서 조선으로 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명 나라에 남아있는 나머지 세 명의 가족은 어떻게 해서 또 조선으로 와서 결국은 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척과 몽석이 조선으로 돌아온 뒤부터 이제 가족의 전체적인 재회에 대한 서술이 쪽 이제 이어지는데요. 중국에 남은 옥영이 그리고 아들 내외는 이제 배를 마련해서 조선으로 가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한 서술에서 각 인물의 개성이 뚜렷하게 부각이 돼요. 배를 타고 가려고 하면 이제 배를 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조선행을 감행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옥영이, 옥영의 아들 그리고 옥영의 며느리인 홍도 세 사람의 의견이 다 달라요. 옥영의 경우는 남편만 만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아주 결의에 차 있습니다. 모든 위험도 나는 다 감수하고 뚫고 나가겠다, 이런 것이 입장이고요. 옥영이의 아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들로써 어머니의 안전을 걱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걱정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이 좀 소심한 거죠. 홍도는 적극적입니다. 자기 아버지 때문에 조선 땅을 밟고 싶어 하거든요. 조선 땅을 밟을 날만 고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옥영이의 입장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특히 옥영과 홍도 두 여성이 강한 가족애를 갖고 아주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옥영의 캐릭터와 관련해서는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조선으로 가는 서사에서 끝부분인데요.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면은 험난한 항해를 이제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항해가 험난할 것을 예상해서 대비하는 것 자체가 옥영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똑똑하고 세상의 경험을 얼마나 잘 쌓았는지가 잘 드러나는데, 어떤 식으로 대비하냐면요,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조선말 일본말을 모두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가 휩쓸려서 일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조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선말 일본말을 모두 가르칩니다. 옥영이는 오랫동안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말을 할 줄 알고 본인 가족들은 다 중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는 또 할 줄 알겠죠. 그다음에 조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해적의 습격도 당할 수도 있고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또 이런 일에 대비해 가지고 또 이제 중국 일본 조선 이 세 나라의 옷을 다 준비합니다. 이걸 왜냐하면 조선 쪽 사람을 만나게 되면 조선 옷을 입고 조선 사람으로 대하고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 옷을 입고 일본 사람으로 대하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옷을 세 가지를 다 준비를 시킵니다. 이거 얼마나 옥영이 지혜롭고 용의주도하고 주도면밀합니까? 그리고 옥영은 자신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해서 배를 부리고 항해를 준비

하고 향해 중에 온갖 어려움을 다 해결합니다. 이런 데에서 여성으로서의 용기 의지 결단력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이 아주 리얼하게 그려지고요. 요컨대 고난과 역경으로 단련된 여성의 모습, 산전수전 다 겪은 여성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옥영은 젊었을 때 최척에게 대시해서 결혼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뭐 귀환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까지 아주 일관되게 그리고 각 단계별로는 또 다른 뉘앙스를 부여하면서 강고한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아주 멋지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 작품을 다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전란으로 인한 가족 이산의 고통 그리고 강한 가족애에 의한 재회의 달성 이것들이 중요하고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최척전」의 소설사적 의의

이렇게 해서 「최척전」의 특징을 스토리 전개에 따라서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그럼 이 「최척전」은 소설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대 소설의 한계를 극복한 점이 중요한데요. 전대 소설 한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좀 서사적인 갈등이 불충분하다든가 서사의 편폭이 협소하다든가 환경과 사건 창조의 추상성과 비현실성이 좀 남아 있다든가 하는 이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척전」에 이제 이런 아쉬운 점을 다 해결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현실과 대결하는 인물 형상을 창조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서사적인 갈등의 양상도 매우 심각한 서사적인 밀도와 무게감이 있는 정도의 심각성을 담지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당대 사회 현실을 아주 본격적으로 잘 반영을 하고 그 결과 서사적인 반영의 편폭이 좀 넓어진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최척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한국 고전소설사적인 맥락에서의 리얼리즘의 어떤 새로운 진전 이런 것을 「최척전」의 성과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점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서사적인 총체성을 확보한 것, 이게 이제 또 「최척전」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란을 배경으로 한 다른 소설들을 짚어보면요, 「임진록」이나 「박씨전」 「임경업전」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여전히 환상적인 요소를 청산하지 못했고 이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거는 대체로 민족적인 영웅을 내세워요. 그리고 이민족에 대한 적개심을 자극해서 민족적인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서사 전략을 구사한 작품들이 이제 「임진록」, 「박씨전」, 「임경업전」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최척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노선이죠. 「최척전」은 민족 영웅을 내세운 게 아니라 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어떤 식으로 개척하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잖아요. 이민족에 대한 적개심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척하고 첫째 아들을 도와준 그 캐릭터의 경우는 오히려 조선의 정치

사회적인 부조리 때문에 후금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점까지도 반영을 하는 게 「최척전」의 리얼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자민족의 어떤 자긍심에 호소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좀 칭찬한 것 또한 이 「최척전」의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컨대 「최척전」은 당대 일반 백성이 겪은 전쟁의 피해에 초점을 맞췄고 전쟁이 보통 백성에게 끼친 영향을 다뤘고 그러면서 역사의 저층 상층부가 아니라 저층에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역사의 위와 아래를 모두 다 보면서 서사적 총체성을 확보한 거 이것이 바로 「최척전」의 성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김영철전」의 특징

이렇게 해서 「최척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어서 지금부터는 「김영철전」에 대한 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영철전」은 또 「최척전」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작가 소개

먼저 「김영철전」의 작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전」의 작가는 홍세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653년에 태어나서 172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호는 유하라는 호를 썼고 『유하집』이라는 문집도 남겼고요, 한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인, 한문학 작가로 꼽힙니다. 신분은 중인입니다. 중인층 작가고요. 중인층이라고 하는 측면이, 즉 신분적으로 불우했다는 점이 「김영철전」의 작가의식의 기저부에도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서사를 남긴 것 자체는 홍세태가 당연히 최초는 아닙니다. 홍세태에 앞서서 김응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김응원이 이 김영철을 실제로 만났어요. 「최척전」도 이제 최척의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했듯이 「김영철전」도 김영철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실제 일을 토대로 이제 형성이 된 소설인데 김영철을 김응원이 만나서 김영철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김응원이 만난 김영철은 나이가 이미 여든 무렵이었던 아주 만년의 김영철이에요. 그 당시 자모산성에서 성을 지키는 일을 맡았을 때입니다, 김영철이. 이걸 나중에 이제 「김영철전」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나올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김응원이 김영철의 이야기를 본인의 육성으로 듣고 나서 「김영철 유사」라는 기록물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김영철을 주인공으로 하는 우리 고전문학사에 등장하는 소설들의 어떤 소스가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김영철 유사」라고 하는 원자

료는 지금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흥세태라고 하는 이 작가는 1717년 무렵에 그러니까 작가는 한 65세 쯤 됐을 텐데요. 「김영철 유사」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철 유사」를 축약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김영철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 「김영철전」은 같은 제목의 여러 가지 버전이 현재 존재하게 됩니다.

• 「김영철전」의 줄거리

이렇게 작가 소개를 간단히 마치기로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김영철전」의 간단한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1618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후금을 치기 위해서 강홍립 부대가 출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원으로 김영철이 전투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금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또 개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김영철이 후금의 건주 지역에서 포로가 됩니다. 그러다가 탈출에 성공을 하는데요. 명나라로 탈출해서 명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그래서 명나라 등주 지역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고향을 잊지 못해서 결국은 조선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결국은 조선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조선에 돌아오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깁니다. 1630년에서 1641년까지 군역을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자모산성 그 성의 보초를 서는 일로 결국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결말이 되게 문제적인데요. 후금과 명나라에 있을 때 각각 처자식을 두고 삽니다. 김영철이. 그러면 이제 고향을 잊지 못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국에 돌아오고 보니까 본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가난과 한숨뿐입니다. 이게 이제 김영철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문제적인 설정입니다. 간단한 줄거리 요약은 이 정도로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줄거리와 그 특징은 곧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김영철전」의 특징

그다음에 「김영철전」의 전반적인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민중의 삶이 당대 역사와 맺는 깊은 관련 이런 걸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필치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총체성을 구현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김영철전」의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서 중요한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것은 1618년 출정입니다. 김영철은 무과에 급제한 집안 출신인데요.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되냐면 1618년 후금과의 전쟁에 동원되는 것으로 설정이 되는데 문제는 김영철이 그 당시 열아홉 살로서 그 집안의 2대 독자였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관념에서는 이 집안의 대를 이어 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2대 독자가 전쟁통에 끌려가게 된다, 이거 상당한 집안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김영철의 할아버지가 김영철을 붙들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

는 것으로 나와요.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 집안은 대가 끊어진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영철이 네, 꼭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작품의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 작품 전체를 통관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복선이에요. 김영철의 모든 행동은 결국은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살아남고 결국 조선으로 어떻게든 돌아오려고 하고 이런 게 가장 강력한 행동의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두에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귀한 김씨 집안 2대 독자 김영철이 전쟁통에 끌려가게 됐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건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전쟁 중에 강홍립이 광해군의 밑지에 따라서 투항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게 광해군의 지금 밑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역사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서사에서는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광해군 밑지에 따라서 강홍립이 투항해 버리니까 김영철은 어떻게 됐겠어요, 후금에 이제 포로로 잡혔겠죠. 이제 후금의 포로가 됐는데 이제 여기 이제 위기가 옵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그 탈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후금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면 포로 중에서 용모하고 입은 옷 이게 좋은 사람을 한 400명 정도 골라서 죽이려고 해요.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을. 김영철은 딱 보고 이게 제외가 돼서 다행히 요행히 목숨을 건집니다. 정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한끗 차이인데 정말 참 우연의 어떤 소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김영철은 요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후금의 장수 중에 아라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아라나라고 하는 인물이 누르하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보니까 김영철의 얼굴이 전쟁 중에 죽은 내 동생 얼굴하고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하인으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르하치가 김영철을 아라나에게 하사합니다. 그래서 김영철이 아라나라고 하는 사람의 하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인으로 사는데 김영철은 자기 할아버지의 말을 자꾸 떠올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제 하면서 지내요. 그래서 탈출을 감행을 하죠. 내가 여기 있을 수는 없고 조선으로 돌아가서 대를 이어야 돼. 탈출을 했는데 이게 붙잡힙니다. 탈출이 쉽습니까, 탈출하다 붙잡히면 월형을 당합니다. 월형은 뭐냐면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이에요. 한쪽 발꿈치를 이제 잘랐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있지 말고 또 탈출을 시도합니다. 또 붙잡혀요. 나머지 또 한쪽 발꿈치를 자르는 월형을 당합니다. 이런 데에서 김영철의 강한 집념과 의지가 드러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후금의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세 번째 월형을 받게 되면은 사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발꿈치 두 개는 다 잘랐기 때문에 그다음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아라나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동생 얼굴을 닮은 사람인데 그래서 데려왔는데 사형을 당하게 시키기는 참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라나가 어떻게 하나면요, 영철을 자기 제수씨하고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면 도망갈 생각을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영철은 후금에 가정을 꾸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1621년에 이 후금이 요양을 함락시키고 도읍을 그곳으로 이제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라나가 그리로 이사를 가야 되게 생겼어요. 이제 영철은 이제 건주

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건주라는 곳에 남아서 아라나의 전담을 돌봐줍니다. 그런 사이에 영철에게는 이제 아들도 둘이 생겨요. 이제 후금 지역에서 정착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아라나는 영철에게 앞으로 전쟁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탈 말 세 필을 주고 잘 키우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라나가 영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이제 우리와 한 가족이 됐으니 나는 너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떻게 보면 참 아라나는 영철에게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연한 일이 자기 동생과 닮았다고 하는 그런 우연한 이유지만 어쨌든 자신을 포로로 놔두지 않고 노비로 데려왔고 그냥 노비로 그냥 일을 부려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가족을 형성하도록 도와줬잖아요. 게다가 신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김영철이 이제 어떻게 하나면은 처음에 이제 그 신뢰에 호응하게 건주의 목장에서 말을 잘 키워요. 하지만 고향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주 애타게 원해서 결국은 탈출을 감행합니다. 아라나에 대해서 일종의 인간적인 빛은 있지만 그것을 저버리고 고향행을 택한 것이죠. 해서 아주 온갖 천신만고 끝에 결국 후금의 땅을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그때 이제 이 영철이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몇 명이서 같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전유년이라고 하는 인물과 같이 도망갔는데요. 그런데 전유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나라 등주 지역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영철이 전유년과 함께 등주 지역에 가서 이 전유년 집에 이제 붙어삽니다. 이렇게 해서 또 스토리가 전환이 돼서 김영철의 등주에서의 생활 그리고 또 고국행 이어가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등주에서 사는데도 여전히 김영철은 고향을 잊지 못하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아주 우울해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고 또 전유년은 자신의 여동생과 김영철을 결혼시킵니다. 김영철은 어떻게 보면 참 조선 밖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호의의 손을 내민 그 사람들이 늘 있었던 것이죠. 전유년이 자기 동생까지 쥐가면서 결혼을 시켜서 너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명나라에 정착해서 살아라, 이런 제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철은 또 이역에서 두 번째 아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아내 사이에서 또 아들 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서 정착하고 사나 싶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조선의 사신을 태운 배가 등주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선의 사신들이 명나라로 파견이 될 때 대체로 육로로 많이 갔는데요. 명청교체기에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전쟁이 격화됐을 때는 전장을 뚫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해로로 사신을 파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신단을 태운 배가 등주에 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겠죠. 이 배의 뱃사공이 이연생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김영철과 같은 마을 친구예요, 하필이면. 고향 생각 간절해지겠죠. 김영철이 이연생에게 자기 부모님 안부를 막 묻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나를 좀 조선으로 데려가 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김영철은 이제 배가 출발한 전날이 딱 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고국에는 아마 영영 돌아가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곁에 있는 처자를 또 딱 보니까 차마 버리고 가지는 못하는 이런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김영철의 인간적인 갈

등, 고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김영철이 고민 끝에 결국 조선으로 돌아갈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연생이 이 배의 널빤지를 다 뜯어내요. 그래서 그 바닥에다가 김영철을 숨기고 다시 못질을 해서 딱 위장을 합니다. 김영철의 아내는, 이제 명나라 아내죠, 김영철이 또 이제 조선을 잊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이라고 딱 알아차리고 배를 막 살살이 뒤져요. 사람을 대동해서. 그런데 김영철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김영철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3일 동안 배를 타고 와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감동의 가족의 재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서사가 또 전환이 되는 데요. 그럼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어땠느냐. 참 딱합니다. 옛집을 찾아갔더니 부모님은 살지 않고 딴 사람들이 막 살고 있어요. 고향이 바뀌어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고향이 아닌 겁니다. 전란의 소용돌이의 여파로 어떻게 됐나면은 김영철의 아버지는 정묘호란 때 전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젊은 김영철에게 신신당부했던 네가 죽으면 집안의 대가 끊긴다 하면서 울면서 얘기했던 그 할아버지는 친척 집에 빌붙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김영철의 어머니는 또 자기 외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친정집이죠. 빌붙어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바로 전란의 여파를 보여주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의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철은 이제 왔으니까 본인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나면은 각각 이제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를 모셔오고 또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를 모셔오고 이렇게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모이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최적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결국 고향에서 전부 다 재회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김영철은 그렇지 않아요. 김영철의 경우는 가족과의 상봉으로 문제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무슨 문제가 남아있나면은 김영철이 지금 후금과 명나라에서 각각 가족을 형성했잖아요. 아내도 있고 아들 둘도 있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얻은 가족과의 이별 이 문제가 이제 남아 있고요. 또 그에 대한 죄책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1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이 이후에도 계속 김영철에게 어떤 고난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요. 다시 재출정을 가게 되는 건데요. 조선에 돌아와도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1637년에 조선은 청나라에 항복을 했는데요. 청나라는 가도 정벌을 하기 위해서 일부 병력이 평안도 영유현에 주둔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영유현의 현령이 이제 만주어를 잘하는 김영철을 청나라 진영으로 보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나라 장수 중에 아라나의 조카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김영철은 아라나의 하인으로 있다가 도망친 거잖아요. 아라나의 조카가 김영철을 보고 자기의 숙부집의 도망간 중이라면서 붙잡아서 만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입장에서는 그 나름의 정당성이 있죠. 자, 그런데 이 현령이 이것을 무마해줍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위기를 겨우 벗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1640년에 이 청나라는 명나라 개주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선의 파병을 요구합니다. 이게 조선으로서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난감한 문제를 이제 부과한 건데요. 이때 이제 임정업이 최고 장수였는데요. 중국어하고 만주어 두 가지를 다 잘하고 또 중국과 만주족 두 나라에 대해서 사정이 밝은 김영철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김영철이 다시 전쟁통에 동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참 안정적인 삶이 이렇게 힘들니다. 자, 그 뒤에 1년이 지나서 1641년에 청나라가 또 이제 금주 공격을 감행할 때 또 조선의 파병을 요구합니다. 이때에도 김영철이 동원이 돼요. 통역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이면 또 청나라에서는 아라나를 보내가지고 일을 논의하게 해요. 그래서 아라나가 김영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이제 아라나는 김영철을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참살을 해버리겠다고 부하들에게 포박을 시켜 포박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선의 장수가 무마해줍니다. 그래서 김영철이 이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데요. 이 무마의 대가로 이제 뇌물을 바쳐요, 아라나에게. 그런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선 장수가 김영철에게 그 뇌물 값을 물어내라고 해요. 김영철은 이제 굉장한 경제적인 곤란함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도 이제 몇 가지 일을 겪은 다음에 김영철은 결국은 조선으로 귀환하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김영철의 앞곳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적인 인연을 일단 만들어 냈죠. 아까 아라나와도 참 처음에는 원수 관계가 되고 후금 쪽에 가족을 만들었는데 헤어지게 되고 만주 쪽에 명나라 등주 쪽에도 은혜를 입었는데 또 배신하게 되고 그 가족도 저버리게 되고 다 참 비극적인 인연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다 원치 않았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인연과 다 인연이 다 어긋나고 다 이산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잠시 또 악연으로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영영 헤어지게 되고 이게 다 김영철이 원해서 된 겁니까? 아니죠. 모두 전쟁에 의해서 원치 않은 방식으로 빚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전쟁의 비극성을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고난 끝에 김영철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다음에 그러면 삶은 편했느냐, 전혀 아닙니다. 1658년에 조정에서는 평안도에 자모산성을 수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축 즉 산성을 지키는 병졸을 모집하는데요. 그때 김영철은 59세의 노령이었지만 아들 넷과 함께 그 산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늘그막까지 고생이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요, 매양 성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건주를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등주를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처자식은 나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처자식을 버렸다. 건주와 등주의 처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나를 원망할 테니 지금 나의 곤궁한 신세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어찌 천벌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외국에 있다가 끝내 부모의 나라에 들어왔으니 또한 무슨 한이 있겠느냐.” 참 착잡한 말이죠. 여기에서 김영철의 인간적인 고뇌를 일단 느낄 수 있어요. 외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해서 김영철이 아주 평생에 걸친 죄책감에 시달린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와 동시에 고향에 대한 의식, 가문에 대한 의식을 또 떨치지 못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양립이 안 되죠.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어느 한쪽을 저버려야 되는 이런 것

이기 때문에 평생에 걸친 죄책감과 더불어 가문 의식, 이게 아주 이런 고난에 찬 방식으로 동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천벌을 받는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한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짝하죠.

그래서 수성을 한 이 여생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이제 병치가 되는데요. 오랑캐 땅에서 탈출해서 고국에 귀환해서 부모님과 상봉하고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이 가문 의식 그리고 또 당시 전란과 관련해서 민중이 겪는 이 종군의 괴로움 군역의 가혹함 이런 두 가지가 다 느껴집니다. 김영철의 인생을 보면요, 전쟁에 동원되는 것으로 아주 점철돼 있어요. 하지만 국가로부터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작가의 비판 의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또 보면요, 이 배경이 되는 공간이 조선 만주 명나라로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데요. 또 등장인물들도 굉장히 상하에 걸쳐서 다양합니다. 위로는 청나라 태종까지 등장을 하고요. 밑으로는 여러 가지 민중층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해요. 즉 김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양한 국적 다양한 출신의 상하층의 인간들과 얽히는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전란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 민중의 삶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김영철전」의 소설사적 의의

그럼 이상의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김영철전」의 소설사적인 의의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영철전」은 이제 전이라고 하는 전계 소설인데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역사 기록물의 하나로 성립을 한 겁니다. 한 인간의 삶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 전을 소설화한 것이 전계 소설입니다. 전기소설하고는 약간 다른 계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기록으로부터 출발한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필치가 농후합니다. 그리고 전계소설이 조선 후기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김영철전」이 좀 시기적으로 앞선 작품이라고 하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란을 본격적으로 다뤘었다는 점이 또 이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최척전」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의 이산 문제를 다룬 것은 「최척전」하고 연결되는 지점인데 최척전은 사실주의적인 필치는 있지만 여전히 초현실적인 요소를 유지하고는 있어요. 부처님이 막 등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반면에 「김영철전」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사실주의적인 방식으로 서사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민중적인 삶을 다루는 것도 「최척전」보다는 「김영철전」이 좀 더 민중적인 삶을 더 풍부하게 다루고 있어요. 「최척전」의 최척이나 옥영의 경우는 좀 더 문인 취향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런

데 「김영철전」은 아주 처절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짝 펼쳐지니까 민중적인 삶이 더 리얼하게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최척전」과 달리 「김영철전」에서는 주인공의 귀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제기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국에서 남겨진 처자가 있고 김영철은 계속 좌절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계속 전쟁으로 동원되고 아무런 보상을 못 받고 결국 곤궁하게 삶을 마쳐야 되고 이게 계속 문제적인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김영철전」은 뭐냐하면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손쉽게 서사적으로 해결해 주는 대신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을 탁 던져줌으로써 더 리얼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철전」은 또 중요한 특징은 김영철뿐 아니라 후금과 명나라의 인물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이라고 하는 비극을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통찰하게 만듭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특징이고 그 과정에서 후금과 명나라 사람이 김영철에게 베풀었던 호의적인 태도, 이것 또한 국경을 뛰어넘는 동아시아적인 연대의 가능성 이런 거를 또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철전」의 소설사적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6. 더 생각해볼 문제

이렇게 동아시아 차원의 전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영향을 어떤 식으로 소설화했는지를 공부했는데요.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생각해볼 만한 점이 뭔지를 짚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척전」과 「김영철전」은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 확인했죠. 그렇다면 이 두 작품이 그런 공통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비교할 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최척전」하고 「김영철전」 모두 한국 고전 소설사에서는 사실주의적으로 빼어난 성취를 남긴 작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최척전」에는 좀 더 초현실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고 「김영철전」에는 초현실적인 요소는 많이 청산이 됐지만 서사 전개에 있어서 우연성이 자꾸 개입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우연한 계기에 뭔가 죽음을 모면했다든가 우연한 기회에 뭔가 어떻게 했다든가, 자 이렇게 두 가지 초현실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거, 우연성이 자꾸 개입되는 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단순히 어떤 좀 단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런 단점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나름의 또 필연성이 있는 것이냐 유의미한 것이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최척전」과 「김영철전」 이제 모두 공간적으로 조선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적으로 짝확장이 되는 스케일을 보여주는데요. 전란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국경을 뛰어넘는 동아시아 사람들 간의 유대 협력 또 그 반대로 상호 긴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양상으로 작품 내에서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적인 평화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런 작품의 특징들은 또 어떤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동아시아 전란의 문제 「최척전」과 「김영철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오늘 강의에서는 ‘전란의 동아시아’라는 제목으로 조위한의 「최척전」과 홍세태의 「김영철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전반기까지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조선은 여러 차례 전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결과 전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다수 창작되었습니다. 이 중 많은 작품에서 중편화 경향이 나타나며, 전대 소설에 비해 현실을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경향 또한 드러납니다.

「최척전」은 남주인공 최척과 여주인공 이옥영의 만남과 결연, 전쟁으로 인한 이산과 상봉, 또 한 번의 전쟁으로 인한 재이산과 재상봉을 줄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 일본, 베트남, 중국에 걸친 광대한 지역을 무대로 삼아, 평범한 사람들이 전란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 여주인공 옥영의 성격 창조가 돋보이며 변함없는 가족에 의해 가족이 마침내 재회하게 되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최척전」은 서사적 갈등의 불충분함, 서사적 편쪽의 협소함, 환경과 사건 창조의 추상성과 비현실성 등 전대 소설의 한계를 극복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현실과 대결하는 인물 형상을 창조하고 심각한 서사적 갈등을 구축하며 서사적 반영의 편쪽을 크게 넓힘으로써 리얼리즘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당대 일반 백성이 겪은 전쟁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역사의 위와 아래를 모두 보면서 서사적 총체성을 확보했습니다.

「김영철전」의 줄거리는 주인공 김영철이 후금과의 전쟁에 나가 적의 포로가 되었다가 천신만고 끝에 조선으로 돌아오지만, 그 뒤에도 가난과 고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철전」은 조선 후기의 전계소설 중 앞서서 작품으로, 전계소설답게 사실적 필치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이산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최척전」과 연결되지만, 초현실적인 요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최척전」과 달리 시종일관 사실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서술됩니다. 그리고 「최척전」과 달리 「김영철전」에서는 주인공의 귀환 이후에도 또 다른 고난이 이어집니다. 이로써 「김영철전」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손쉽게 서사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문제 그 자체를 직시하도록 합니다. 후금과 명나라 인물들을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전란으로 인한 가족 이산의 비극을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통찰하고 있다는 점 또한 「김영철전」의 의의입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전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 중에는 대체로 중편 소설이 많다. (O/X)

정답: O

2. 최척과 김영철은 둘 다 전란으로 인해 가족 이산을 겪는다. (O/X)

정답: O

3. 최척 부부가 시를 읊음으로써 재회한 곳은 중국이다. (O/X)

정답: X

4. 김영철은 죄책감 없이 처자를 이국에 남겨두고 조선으로 귀환했다. (O/X)

정답: X

5. 「최척전」은 사회의 상층과 하층을 모두 보면서 서사적 총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최척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4개국을 무대로 삼고 있다.
- ② 작품의 후반부에서 옥영의 활약이 돋보인다.
- ③ 포로 감시자의 말을 통해 후금을 비판하고 있다.

정답: ③

2. 다음 중 「김영철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김영철은 조선의 사신에게 부탁하여 함께 수레를 타고 조선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 ② 가족이 고향에서 재회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 ③ 김영철이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가 정묘호란 때 전사하였다.

정답: ③

3. 다음 중 「최척전」과 「김영철전」의 소설사적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영철전」보다 「최척전」이 민중적 삶을 더 풍부하게 다루고 있다.
- ② 「김영철전」과 달리 「최척전」에는 초현실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
- ③ 「김영철전」은 전란으로 인한 가족 이산의 비극을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통찰하고 있다.

정답: ①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최척전」에서는 ○○ 소리로 부부가 재회한다는 설정이 문학적 묘미가 있다.

정답: 통소

2. 역사 기록물인 ‘전’을 소설화한 것이 ○○○○이다.

정답: 전계소설

3. 흥세태는 「○○○ ○○」를 읽고 그것을 축약하여 「김영철전」을 지었다.

정답: 김영철 유사

나. 토의(45분)

- 1) 「최척전」과 「김영철전」이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라는 문제를 다루는 공통점을 갖지만, 이 공통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본다.

(「최척전」과 「김영철전」은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라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구체적인 사회역사적 체험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얼마나 사실주의적 서사 원리에 입각해 있는가가 비교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인물 형상, 서사 문법, 결말 구조 등을 비교할 수 있다.)

- 2) 「최척전」과 「김영철전」은 모두 한국 고전소설사에서 사실주의적으로 빼어난 성취를 남긴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척전」에는 초현실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고 「김영철전」에는 서사적 전개에 우연성이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초현실적 요소’와 ‘우연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최척전」과 「김영철전」은 전란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만, 작품에서 보이는 초현실적 요소와 서사 전개의 우연성은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그런 단점만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최척전」에서 왜 초현실적인 설정이 여전히 반복될 수 밖에 없는가, 「김영철전」에서 왜 우연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가를 작품 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불교 신앙에 투영된 서민들의 심성,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전개 등에 유의할 만하다.)

- 3) 「최척전」과 「김영철전」 모두 공간적으로 조선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적으로 확장되는데, 전란의 체험을 통해 국경을 뛰어넘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유대와 협력, 그리고 그와 반대로 상호 긴장이 어떤 양상으로 작품 내에서 드러나는가.

(「최척전」에서는 일본인 상인 돈우, 명나라 장수 여유문, 최척의 중국인 벗 송우, 최척의 둘째 아들과 혼인한 중국

여인 흥도, 최척 부자를 도와준 포로 감시 책임자, 최척을 치료해준 어떤 중국인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영철전」에서는 김영철을 노비로 하사받은 아라나, 아라나의 제수이자 김영철전의 첫 번째 부인이 된 후금 여인, 김영철과 함께 탈출을 감행한 명나라 사람 전유년, 전유년의 누이동생이자 김영철의 두 번째 부인이 된 명나라 여인, 아라나의 조카, 흥타이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척전」에서는 전란의 참상이 묘사되는 동시에 국경을 뛰어넘은 인간적 유대가 주로 서술되는 편이지만 「김영철전」에서는 그런 인간적 유대뿐 아니라 김영철의 배신으로 인한 분노와 적개심 또한 서술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과제(45분)

「최척전」과 「김영철전」에 나타난 현실 비판에 주목하여 두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십시오.

(「최척전」과 「김영철전」은 전란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므로 그에 대한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워 비교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리얼리티’의 견지에서 보면 「김영철전」이 「최척전」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와 다른 평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4강〉

시적 평등 선언

김려의 「방주가」

학습 목표

1. 「방주가」의 인물 형상화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이 주제의식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살펴본다.
2. 「방주가」에서 평등의식이 어떻게 개진되고 있으며, 그런 평등의식이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인물의 대화와 행동 등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본다.
3. 「방주가」에 반영된 민중의 생활현실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 핵심 요약

‘시적 평등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김려의 장편 고시 「방주가」를 살펴보았다. 김려는 천주교와 관련된 유언비어 사건에 연루되어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작품을 여럿 남겼다. 김려는 젊은 시절부터 소설과 여성 취향 시문, 패사소품을 애호했고 격렬한 감정이 대담하게 표현된 시문을 많이 창작했다. 또한 사회 주변부에 주목하여 민중의 삶과 미덕을 그려냈고 여성의 처지에 대해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부패한 권력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강렬하게 표현했다.

「방주가」의 서두에서는 백정의 딸인 심방주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이 암시되고 이어 방주의 출생과 성장 과정이 서술된다. 다음으로 장과총과 심방주가 조우하고, 그 기품과 덕성에 감탄한 장과총이 심방주의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방주와 혼인시킬 것을 청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이어 이렇게 신분 격차를 뛰어넘는 과격성을 보여준 장과총이 어떤 인물인지를 탐색하는데, 그 서술 중에 장과총이 생선 장수를 하면서 목도한 어민의 삶이 묘사된다.

「방주가」는 양반 자제와 백정 딸의 혼사라는 과격적인 설정을 통해 인간 평등의 문제를 제기하

고 있으며 등장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생동하는 인물 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심방주와 장파총이 조우하는 장면에는 한 인간이 훌륭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신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나타나 있다. 장파총이 심방주의 집을 방문하고 방주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사해가 모두 동포이고 하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평등하며 계급을 나누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 「방주가」에서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고 대화, 서사, 묘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감과 정서적인 밀도를 부여받고 있다. 나아가 「방주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등을 사유할 뿐 아니라, 인간의 자연 착취와 자연의 반격을 묘사함으로써 평등에 대한 사유를 사물 인식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또한 「방주가」에서는 백정의 노동 현장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며, 어민이 관가의 수탈로 인해 겪는 고통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이렇게 민중의 생활 현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민중의 생활 어휘와 민간 지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역시 「방주가」의 중요한 특징이다.

◆ 강의 내용 전문 ◆

강의 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려라고 하는 작가의 「방주가」라고 하는 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로서는 이례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높은 평등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학계에서 계속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럼 오늘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수업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 「방주가」라고 하는 작품 전반에 대해서 한번 개관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 「방주가」라고 하는 작품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를 잡아서 작품을 실제로 읽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 작품의 인물 형상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이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평등의식을 어떤 식으로 개진하고 있는가, 그다음에는 이 작품의 일반 서민들의 생활 현실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는 오늘 수업을 토대로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뭔가를 짚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 순서

1. 작가 소개
2. 「방주가」 개관
3. 「방주가」의 인물 형상화
4. 「방주가」의 평등의식
5. 「방주가」에 반영된 민중의 생활 현실
6. 더 생각해볼 문제
7.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1. 작가 소개

그러면 먼저 작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김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766년에 태어나서 1821년에 세상을 떠났고요. 호는 담정입니다. 그래서 흔히 담정 김려, 이렇게 부르구요. 이 작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1797년 한창나이 때 천주교 관련된 유언비어 사건에 연루가 돼서요, 함경도로 유배에 처해집니다. 함경도는 굉장히 먼 곳이고 유배형 중에서도 좀 강도가 높은 것에 속합니다. 그래가지고 1797년부터 1801년까지 이 부령이라고 하는 험한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요. 유배지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 부사였던 유상량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반목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득권에 대한 저항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일인데요. 관기, 기녀쪼, 관기는 연희, 노심홍, 관옥, 영산옥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 기녀들의 처지를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뭔가 정서적인 유대감 같은 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를 짓게 되고요. 그 결과 1799년에 필화 사건 같은 거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고 이 김려라고 하는 작가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또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고 또 그 뒤에 1801년부터 1806년에는 또 강이천이라고 하는 인물의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강이천은 사형에 처하게 되고 김려는 천주교도랑 교우했다라는 혐의를 입어가지고 다시 또 진해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좀 멀리 다시 유배지를 옮기게 되는데요. 유배 생활이 끝나고 나서는 1812년부터는 다시 관직 생활에 복귀를 해가지고 다시 평온한 생활을 되찾게 되는데 함양군수로 재직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간단한 생애였고요. 자, 그다음에는 김려라고 하는 작가의 문학 창작, 저술, 총서의 편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공부할 시를 포함하여 시 작품, 산문 작품들을 모아놓은 문집으로는 『담정유고』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사유악부』라고 하는 290수 연작시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 『사유악부』가 방금 설명드렸던 부령 유배 시절을 추억하면서 지은 작품인데 특이하게도 부령에 있을 때 지은 게 아니라 진해 유배기에 있으면서 진해에서 부령에서의 유배 생활을 추억하면서 지은 작품입니다. 이 ‘사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게 생각 사 자인데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유’는 창문이어서 그리움의 창문,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학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시문집이 있는 한편 일종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저서를 하나 남겼는데요. 『우해이어보』라고 일종의 물고기 백과사전입니다. 이거는 진해 유배기의 저작이고요. 굉장히 보기 드문, 조선시대의 학술사로서는 보기 드문 저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외에 김려는 시문의 총서를 만들었는데요. 이 시문의 총서는 자신의 시문은 물론 자신 주위의 문인들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문을 총 집대성을 한 그런 것들을 『담정총서』라고 해서 꽤 분량이 많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지금 문학 연구에서 많이 참고하는 글이고요. 그다음에 김려는 야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야사를 집성하는 데 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

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시하고 있는 『한고관외사』라든가 『창가루외사』 같은, 아주 분량이 많은 그런 야사 총집류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려의 문학 창작이나 저술, 총서 편집 등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는 김려가 문예적으로 어떤 지향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려는 젊은 시절부터 정통 문학 쪽보다는 좀 정통 문학에서 약간 벗어난 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설이라든가 좀 여성적인 정감이 많은 문학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패사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애호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여성의 처지에 대한 어떤 예민한 감수성과 연관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김려의 문학 작품은 어떤 격렬한 감정 표현을 아주 대담하게 하거나 직설적으로 하거나 하는 면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필화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다시피 이 주변부를 향한 시선이 강합니다. 상층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밑쪽에 있는 사람들의 애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한 어떤 감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확장이 돼서 민중층의 삶이라든가 또 민중층의 어떤 미덕을 발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이 확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까지 설명에서 드러나다시피 여성 인식이 주목이 되고요. 이 점은 이제 오늘 공부할 「방주가」에서 특히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민중의 삶에 대한 관심과 표리를 이루는 게 부패한 권력에 대한 어떤 분노와 증오심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민중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기득권층에 대한 어떤 분노가 표리를 이루게 되는 게 또 중요한 문예적인 지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려의 문예적 지향까지를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한 작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방주가」 개관

그럼 지금부터는 이 「방주가」라고 하는 작품 전반에 대해서 한번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가」는 일단 원제목을 줄여서 말씀드린 건데요. 원제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제목은 먼저 “고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고시는 시체입니다. 근체시랑 대비가 되는 시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체로 편폭이 깁니다. 오늘 공부할 「방주가」도 굉장히 긴 작품이고요. 고시 다음에 더 자세하게 붙은 제목이 있는데요. “장원경의 아내 심씨를 위해 지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즉 풀이하면 “장원경의 아내 심씨라고 하는 인물을 위해 지은 장편 고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래서 이 작품 주인공은 심씨라고 아까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심방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품 제목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주인공의 이름 심방주에 착안을 해서 「방주가」 아니면 「방주의 노래」, 이렇게 약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에 따라서 우리 수업에서도 이 작품을 「방주가」라고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형식은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장편 고시입니다. 심방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

하게 시적으로 형상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서사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편 고시라고 하는 형식이 적합하다고 김려가 판단을 해서 이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안타깝게도 굉장히 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후반부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작품이 완성된 작품의 후반부가 없어졌다기보다는 미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작품의 구성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서사의 흐름인데요. 일단 서두는 이 심방주라고 하는 주인공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암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무대가 되는 것은 전라도 장계입니다. 여기에 백정 집에 심방주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서 자라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심방주가 다 자랐는데요. 삼복 무더위 한여름으로 시간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인 장파총이라고 하는 남성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심방주와 조우를 하게 됩니다. 무더위에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느냐라고 장파총이 심방주에게 청하면서 둘이 조우를 하고 장파총이 심방주에 대해서 뭔가 느낌이 있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그런 어떤 실마리가 여기서부터 풀리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장파총이 이 심방주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백정 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서 하룻밤 묵었으면 좋겠다고 청하면서 저녁 식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이 장파총이 심방주의 부친에게 대화를 청하면서 자신의 아들 즉 장파총의 아들과 심방주를 혼인을 시키자고 청합니다. 혼담을 직접 넣는 것이죠. 그래서 장파총이라고 하는 인물은 무관 출신이어서 양반층에 속하고요. 심방주의 아버지는 백정이기 때문에 신분 격차가 현격하게 납니다. 그래서 혼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설정이 되는 건데요. 그것도 양반층에 속하는 장파총 자신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일을 하는 장파총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이 독자 입장에서는 궁금해지고 이 작가도 이 점을 자각해서 아 이제 그러면 장파총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하는 장파총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한 서술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술로 중간에 끝이 났기 때문에 미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파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출생 그리고 인생 경력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서술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장파총이 조실부모하고 생선 장수를 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요. 이 생선 장수를 하면서 어민의 노동 현장을 목도를 하고 어민들의 생활 실상을 목도하고 한 것들을 또 실감나게 서술을 합니다. 이상이 이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 및 구성이었습니다.

작품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주제의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단연 돋보이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반집 자제하고 백정 집 딸의 혼사라고 하는 대단히 파격적인 설정을 통해서 인간의 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조선 시대 문제작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주제의식에 걸맞게 생동하는 인물 형상을 보여주는 게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등장인물들의 모습,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사성을 갖게 되고요. 또 등장인물 간에 대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살아

숨 쉬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 장파총이 어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목도한 데에서 드러나듯이 민중들의 생활 실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또 돋보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일반 백성들의 생활 어휘나 민간의 지식들 이런 것들 또한 시적으로 많이 수렴이 되는 것 또한 주목이 되는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3. 「방주가」의 인물 형상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방주가」의 전반적인 특징을 개관해 봤고요. 그럼 실제로 작품을 검토해 가면서 이 작품의 특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방주가」의 인물 형상화의 특징입니다. 우선 이 작품의 주인공인 심방주의 출생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부분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는 성질이 순하며
거무튀튀한 얼굴에 수염이 더부룩한데
늘그막에 딸아이 혹처럼 생겨나니
너를 일러 꼬마 방주라
방주 겨우 젖이 떨어질 무렵
어미는 저승 가고
아비 혼자 방주를 기를 적에
눈물을 얼마나 쏟았던가.

(중략)

아비는 진정에서 나온 말로
입만 열면 우리 방주 부르고
방주도 진정에서 나온 말로
입만 열면 우리 아버지 찾더라.

이게 이제 심방주의 출생과 관련된 묘사인데요. 일단 이 아버지에 대한 서술을 보시면 성질이 순하다, 거무튀튀하다, 더부룩하다 하면서 늘그막에 얻은 딸을 자기 아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랑으로 정성껏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백정층의 어떤 인간적인 미덕 이런 것들을 편

견 없이 아주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정성에 감응해서 이 방주라고 하는 인물도 사랑을 받고 잘 크고 자기 아버지를 따르고 하는, 서로 호응하는, 사랑받고 크면서 또 그런 사랑을 이렇게 내면화하고 이렇게 같이 주고받는, 이렇게 커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보시면 심방주가 그러면 어린 시절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됩니다.

세 살 적에 말소리 똑똑했고
네 살에 방향과 셈을 알았고
(중략)
여섯 살에 실 자을 줄 알고
일곱 살에 언문을 깨치고
여덟 살에 윤기 흐르는 까만 머리
언니 본떠서 혼자 빗질 하고
밝은 호롱불 아래 앉아
「사씨전」(謝氏傳) 낭랑히 읽으면
선들바람에 귀여운 목소리 실려
뽕그렁 구슬 깨지는 소리로다.

이렇게 어린 시절이 묘사가 됩니다. 「사씨전」 낭랑히 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알려져 있는 김만중의 「사씨남정기」를 읽었다는 건데요.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똑똑하고 글자도 깨치고 지식도 있고 아주 행실도 조신하고 목소리도 아름답고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방주가 백정 집에서 컸지만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자질이 있고 그런 훌륭한 자질을 스스로 잘 이렇게 발휘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몇 살 몇 살 몇 살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어떤 행동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 지식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주목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심방주가 훌륭한 자질을 갖고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는데요. 좀 더 이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홉 살에 천자문 알고
열 살 되어서는 가사(歌詞)를 배워
산유화 짧은 자락

목을 뽑아 부르는 양 참으로 애처로워
발 가는 농군 앉아서 수업을 쓰다듬고
짐을 진 인부 갈림길에 멈추더라.

어렸을 때는 한글을 깨쳤고 9살에는 한자 지식도 알고 전근대 시대 여성에게 또 중요한 능력이었던 가사, 가창 능력 이런 것들을, 가사를 잘 불러가지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일종의 사람들에게 감화력까지 있는 것이죠. 정서적인 감응력까지 있는 것인데요.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심방주가 과연 어렸을 땐 이랬는데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궁금해지죠. 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장한 심방주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주의 자태가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어느덧 열서너 살이 되니
그윽한 자태 음전도 하여
단정한 몸가짐 칭찬이 자자하니
고운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듯
바느질 솜씨 얌전하기 그지없고
길쌈은 더욱 견줄 짝이 없으니
새벽에 베틀에 올라앉으면
해거름에 한 필을 짜니
빛나는 저 은하수 흐르는데
감돌아 하늘의 무늬 펼친 듯.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드디어 심방주가 아주 어여쁜 자태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으로서의 일도 아주 잘하고 칭찬도 자자하고 아주 행동거지도 바르고 얌전하고 뭔가 기품이 약간 있는 듯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고귀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심방주가 신분상으로는 백정 집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훌륭한 여성으로 잘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는 심방주와 더불어 중요한 인물인 이 장파총이 등장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요.

파총이 북녘에서 오는데
의기가 푸른 하늘로 솟아
금안장에 수놓은 말다래
좋은 말 청월아 타고
네 발굽에 우레소리 울려
(중략)
신장은 구척이 넘고
안광도 시원스레 양양하며
사람됨이 깨끗하고 훤칠한데
구레나룻은 희끗희끗.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장파총이 등장합니다. 이 파총은 이제 균영의 어떤 종4품 무관직이고요. 방금 나온 말 이름 중에 청월아는 청흑색의 얼룩진 말로서 좋은 말을 뜻합니다. 이 장파총의 묘사를 보시면 굉장히 사람이 늙름하고 풍채가 있고 역시 기품이 넘쳐흐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녘에서 오는데”라고 해서 인물의 등장을 제시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의기가 하늘로 솟는다는, 아주 이 사람의 어떤 일종의 지금 말로 하면 카리스마 같은 것들을 느껴지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그것과 매치가 되게 그 사람이 탄 말들에서 어떤 늙름한 기품 이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발굽 소리도 우레 소리가 울리듯이 아주 장중하고, 이것도 뭔가 힘이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장도 아주 키가 9척이 되니까 아주 크고 눈빛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탁 트였다는 거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호감형이기도 하고 뭔가 내면에 쌓인 어떤 능력들이 외면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약되는 말이 사람됨이 깨끗하다, 훤칠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구레나룻이 희끗희끗하다는 것은 노쇠하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뭔가 연륜까지 겸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인생 경험도 쌓이면서 그속에서 뭔가 기품이 있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의기가 있고 늙름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앞에서 살펴봤던 여성으로서의 어떤 미덕이 있었던 훌륭한 자태를 갖춘 심방주하고 이런 늙름한 기상을 갖춘 장파총의 만남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우리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독자로서는.

그럼 이 조우하는 장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장파총이 삼복더위에 무더위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게 정중히 예를 표하고
“남자 평안하신지?”

여기부터 직접 화법입니다.

“긴 노정에 피약별이 쪼이고
구름도 이글이글 끓어
길 가는 이 사람이
더위 먹어 남 보기 부끄럽구려.
남자에게 부탁하노니
물 한 그릇 떠서 목을 축이게 해주오.”

이렇게 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중하죠. 길가에 지나가다 만난 여성이니까, 특히 조선시대 내외법도 있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를 차려서, 목이 마르니까 사실은 좀 다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의를 차릴 심적인 여유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더위 먹으니까 남 보기 부끄럽다는 식으로 굉장히 또 자신을 겸손하게 또 얘기하면서 청하는 이런 모습에서 장파총이 앞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외면의 묘사와 상응하게 어떤 도덕성, 어떤 덕성,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위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 훌륭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이 이 묘사에서부터 암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장파총의 이 청에 심방주는 어떻게 대꾸를 하는가 한번 봅시다.

방주 이 말 듣고
몸 굽혀 얌전히 인사하고
왼손으로 하던 빨래 걸어서
잔디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에 표주박 들고
물가에서 깨끗이 행구고
(중략)
맑은 물 떠가지고 돌아와
무릎 꿇고 받들어올리니

파총은 공손한 그 거동에
선뜻 받아들지 못하고
멈칫멈칫 마주 무릎 꿇고
읍하며 하는 대로 기다린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보시면 이 심방주가 장파총의 말을 듣고 보니까 빨래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빨래를 멈추고 물을 떠다서 주는데요. 어떻게 하나면 먼저 암전히 인사를 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허겁지겁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 웬 남성이 뭐 달라고 하니까는 동요를 한다든가 당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행동이 보면 굉장히 침착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할 일을 다 정돈을 한 다음에 물을 딱 따라주는데 그거를 보면 무릎을 꿇고 받들어서 굉장히 공손한 행동을 취합니다.

이 공손한 행동은 우리는 지금 심방주가 백정 집안 출신이고 장파총이 무인이라는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 신분 격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장파총은 심방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거든요. 인간 대 인간으로 조우를 한 겁니다. 이 장파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이 잘 모르는 여성에 대해서 청하면서 예의를 차리니까 그에 대한 호응으로 심방주도 공손하게 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조선시대로서 남녀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긴 한 것이지만서도 그걸로 다 끝나지 않는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면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이렇게 하니까 장파총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 이 여성을 내가 정말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정말 나도 같이 존중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느낌이 단순히 우리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런 의식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거의 직감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대해서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느낌 속에서 그에 호응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장파총과 심방주의 조우는 인간 대 인간의 조우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심에 의한 것이고 그런 존중심이 서로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점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장파총이 심방주의 공손한 거동에 의해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도 멈칫멈칫하고 무릎을 꿇고 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방주의 행동에 대해서 본인도 뭔가 존중심이 생기고 예의를 차려야 되겠다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런 데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 심방주가 얼마나 이 내면에 꼭 찬 어떤 덕성을 갖고 있는가가 또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우가 상당히 아름답고 참 기억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조우가 결국은 이 작품의 전체적인 서사를 계속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장파총과 심방주가 아주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조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파총이 이렇게 읊을 하고 아주 공손하게 또 대하니까 심방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방주 그 뜻을 알아차리고
두려움에 눈을 내리깔고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스럽다기보다는 어떤 존경심 같은 걸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지체 높은 어른이
잠깐이나마 체모 잃어 되오리까.
들판에서 창졸간의 예절이
어떻게 법도대로 되겠습니까.
자잘한 예절은 접어두고
어르신 편의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파총이 반응을 합니다.

파총은 표주박 받아들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나네.
누가 알았으랴, 고미 갈대 사이에서
이런 훌륭한 여인을 만날 줄.

이렇게 되는데요. 이 장파총이 이렇게 자신이 물 떠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를 많이 차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르신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지금 실내도 아니고 들판이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이런 식의 말을 이 여성, 어린 여성이 먼저 하는 겁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라고 할까, 있는 거죠. 오

히려 어떻게 보면 상위에 놓였다고 할 수 있는 더 연륜이 있는 남성이 이 어린 여성에게 배려를 받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만큼 심방주가 사려 깊고 뭔가 동요되지 않고 마음이 딱 차 있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장파총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마음에서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한 겁니다. 이 마음의 큰 기쁨은 뭐냐 하면은 나를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다니 예뻐, 이런 식의 기쁨이 아니고 내가 이런 훌륭한 사람을 만나다니 하는 어떤 인간적인 조우에서 느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말 이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 “누가 알았으랴, 이런 훌륭한 여인을 만날 줄을”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점이 단적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의 조우가 아주 멋지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파총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아낙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장파총의 눈에 비친 심방주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히히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아리따운 딸을 낳았던고.
정신이 문득 황홀하여
온몸을 가누기 어렵다.
빼어난 자태 사방에 비쳐
산수마저 맑은 빛에 더욱 곱구나.
아름다운 얼굴이야 천하에 흔하지만
덕스러운 모습은 세상에 드물레라.
(중략)
그윽한 꽃다움에 난향이 스미고
밝은 기상에 영롱함을 띠었으니
(중략)
얼핏 보면 바람에 움직이는 꽃이요
뜬어보면 어른거리는 물결 속의 달이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궁금증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정신이 황홀해지면서 이제 자꾸 보니까 고운 자태가 눈에 들어옵니다. 단순한 외모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 점은 아름다운 얼굴은 천하에 흔하다라고 하는 데서도 드러나는데요. 물론 흔하진 않지만 강조하는 것이 이 덕스러운 모습 즉 내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흔치 않은 덕스러운 모습에 주목을 하게 되고 이 점을 여러 가지 비유로 방금 살펴봤다시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난초의 향이니 밝은 기상이니 영롱함이니 바람이니 물결 속의 달이니 하는 등등으로요. 모두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고 담담하면서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이런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방주의 자태에 대한 묘사 중에 이런 심방주의 어떤 외모와 덕스러운 모습 즉 내면의 모습만으로는 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점에서 이 작품의 중요한 주제의식인 평등의식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방주가」의 평등의식

지체의 귀하고 천함으로
어질고 어리석음 단정하지 말라.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어나고
용은 개천에서 나오느니
고기를 먹음에 하필 방어며
명문가 딸도 형편없는 경우가 있지.
영지(靈芝)는 애초에 뿌리가 없거니와
예천(醴泉)이 어찌 따로 근원이 있으랴.
하늘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법이 없나니
지당하다 성인의 말씀이여.
어여쁘다 규방에서 찾아도 빼어날손
필경 하늘에서 내려보냈다.
가문이 비천함을 원망하지 않고
천지가 비좁음을 한하였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까지 주로 묘사나 대화로 많이 인물 형상화가 이루어졌던 거에 비해서 방금 읽은 부분에서는 시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주제의식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맨 앞에 나왔던 지체의 귀하고 천함으로 어질고 어리석음을 단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신분적인 선입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차적인 것이고 인간은 인간으로 볼 때 그 인간의 덕성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것이 근데 백정 여성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평등의식의 구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자신의 평등의식

을 좀 더 비유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 연꽃이니 용이니 하는 비유들입니다. 연꽃은 고귀한 인간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고 연꽃이 피어난 진흙탕 이것은 바로 신분적인 제약을 뜻하는 것이죠. 용 개천도 마찬가지로 비유고요. 또 인상적인 것은 명문가 딸도 형편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층에 대한 비판의식과 하층에 대한 어떤 평등의식이 표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영지 예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지는 당연히 사람들이 누구나 선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뿌리가 없다. 즉 명문가 자체가 아니어도 신분이 비천해도 훌륭한 인간이 나올 수 있다는 비유고요. 예천도 단물이 나오는 생물인데요. 굳이 따로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집안이 좋고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나빠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하늘은 치우치는 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인간의 평등의 문제를 하늘이라고 하는 이 높은 심급에서부터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암시가 되는 것은 인간 간의 불평등, 신분 격차 이런 것들은 다 인위적인 것이고 하늘의 뜻,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은 평등하고 인간은 누구나 훌륭하고 신분 격차와 무관하게 어떤 훌륭한 인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 심방주라고 하는 인물이 가문의 비천함을 원망하지 않고 천지가 비좁음을 한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훌륭한 덕성을 가졌는데 신분적인 제약이 있으면 불우 의식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러면서 물론 그런 마음이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심방주의 경우는 그런 원한 의식 같은 것은 없고 어떤 자신을 천지가 비좁다고 하는 자신의 포부의 문제로 이거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요. 자, 그다음 장파총이 그래서 이런 심방주를 보고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아서 심방주 집을 같이 찾아가서 하룻밤 묵었으면 합니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심방주 집을 찾아가서 이런 장파총이 심방주 부친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평등의식들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등의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찾아온 낯선 손님에 놀라

이거는 장파총이 아무 예고 없이 백정 집을 찾아왔으니까 일하고 있던 백정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무관 출신 사람이 자기 집을 찾아오다니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찾아온 낯선 손님에 놀라
노구솔에 물 끓듯 야단법석
(중략)
주인은

이제 주인이 심방주의 부친입니다.

주인은 손발이 바쁘거늘
어느 겨를에 옷과 신발 챙기리오.
뜰에 내려가 굽신굽신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더라.

그리고 이제 말문을 엽니다, 이 심방주의 부친이.

“자고로 저희 도가(屠家)에
양반 나리 오신 적이 어찌 있겠습니까.
간밤에 꾸 꿈이 좋고
새벽에 까치가 울더니
귀한 손님이 정녕 오셨으니
조상이 큰 복을 내리셨나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장파총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심방주의 아버지를 포함한 이 백정 집에 있던 심방주의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야단법석이 나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요. 경황이 없습니다. 그만큼 장파총의 방문이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심방주랑은 다르죠. 심방주는 장파총이랑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장파총을 배려하는 이 마음의 여유까지 있었는데요. 그것과도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심방주의 아버지의 모습은 전형적인 어떤 민중층의 모습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말을 보면 이 장파총의 이 방문을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이다, 이건 집안의 영광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에 대해서 장파총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봐봅시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파총은 그 말을 듣고
달려가 부축해 일으키며 말하기를
“이 늙은이 세상사 많이 겪어본 사람이라
범사에 요모조모 다 안다오.
사해가 모두 동포인데
겸손이 너무 지나치구먼.
늙은이 기왕 여기 왔는데
무어 다시 꺼릴 게 있겠소?
(중략)
더위에 먼 길을 걸느라
사람과 말 모두 주리고 지쳤으니
땀감 약간 마련하여
저녁밥을 겸하여 지어주시겠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것은 말을 장파총의 말도 주목할 수 있겠지만 장파총이 처음 말문을 열고 하는 말하기 전에 하는 행동입니다. 심방주 아버지가 “우릴 찾아오시다니 참 영광입니다”라는 식의 말을 하니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면 허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부축을 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 장파총이 어떤 평등의식이 나 이런 것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의식의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내면화가 됐고 완전히 체질화가 됐다는 것, 그래서 생각을 하기 전에 바로 행동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부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중요한 겁니다. 이 장파총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큼 평등의식을 체질화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장파총이 하는 말을 그럼 봅시다. 자신이 이제 세상일을 별 걸 다 겪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사해가 모두 동포다, 즉 당신과 나나 결국은 다 격의 없이 동등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자신에게 예의를 차린 상대방이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동포입니다, 우리 거리낌 없이 격의 없이 지내봅시다, 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하는 것이 바로 저녁밥을 지어주십시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녁밥을 지어달라는 게 민폐를 끼치거나 내가 지체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사람을 부러먹거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백정들의 생활 현장에 녹아들어서 같이 뭔가 격의 없이 지내보자는 태

도로 이해가 되게 지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해가 모두 동포인데 겸손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모티브가 뒤에 가면 약간 또 변형이 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참고로 사해가 모두 동포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아주 특이한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옛날에 앞서서 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서명』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 작품에 보면 사해동포주의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랑 내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는 말은 문면은 사해가 동포라고 하지만 양반과 백정이 동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아시아적인 전통을 계승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양반과 백정이 사해 동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주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인이 굽신하고 아뢰기를
“분부를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신네 비록 가난하오나
다행히 주림은 면하고 사웁지요.
뒤주에는 양식 말이나 있고
가축도 제법 살이 올랐습니다만
꼭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그릇가지 갖추기 어렵습니다.
평생 처음 뵈는 어른께
송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파총은 격의 없이 대하고 있는데 심방주의 아버지는 여전히 지금 뭔가 좀 마음이 편치 않고 계속 예의를 차리고 공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약간 좀 더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그릇이 좀 부족한데요라고 하면서 역시 예의를 차리는 것과 관련된 걱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또 주목이 되는데요. 장파총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파총은 꺾꺾 웃으며
“주인은 참으로 답답하구먼.
시속엔 촌스러움이 좋고
수수한 때깔 숨길 것 있겠소?”

우리 모두 하늘을 이고 사는 부류이니
하늘이 부여하심이 돈독하다오.
사발이고 대접이고 가릴 것 없네
다 같이 먹는 그릇 꺼릴 게 뭐 있소?”
주인은 이 말 듣고
기쁜 빛이 눈썹에 떠오르네.

여기서 보면 장파총이 확실히 참 훌륭한 인간이라고 한 게 드러나죠. 껄껄 웃는다는 것도 굉장히 격의 없는 반응인데요. 이 사람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걱정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런 느낌을 주는 반응이고요. 그래서 보면 아이 참 주인도 답답하셔 촌스러운 게 좋지 오히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수수한 거 숨길 거 없다, 좋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생활 방식을 긍정해 주고 받아들여 주고 같이 그거를 공유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또 정면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 하늘을 이고 사는 부류라는 겁니다. 즉 하늘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늘이 부여하신 어떤 인간의 모습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늘의 눈으로 신분의 격차나 이런 것들은 다 무화되는 것이고 하는 그런 구분은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자꾸 안심시켜주는 그러면서 자신의 진심을 자꾸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진심이 100%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파총은 심방주와도 인격적인 어떤 대화를 했지만 이 심방주의 부친과도 굉장히 인격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장파총의 소탈한 태도 그리고 그다음에 앞에서 살펴봤듯 혼담을 넣게 되는데요. 이 혼담에서도 중요한 평등의식이 또 잘 드러납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부분은 이제 장파총이 아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좀 대화를 했으면 하고 청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파총은 주인을 간곡히 대하여
“방안에 들어가 이야기나 나누세.
잠시 주인과 손님의 정의(情誼)에
어찌 거리낌을 두겠는가.
자고로 사람을 사귀는 마당에
한번 만나도 서로 친해진다네.
인생은 하루살이 같으니

좋은 밥을 또 만나기란 쉽지 않지.”

식사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화를 나누자고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잠깐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 소중한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오지 않는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 한 번 줌 격의 없이 이야기 두런두런 나누면서 지내보자, 일종의 동등한 대화의 대상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훌륭하죠. 단순히 저녁밥 정도 신세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인격체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즉 심방주의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인이 이 말을 듣자
머리 숙여 절하고 꿇어앉아
“한술밥은 먹을 수 있지만
같이 자리에 앉다니요 죽을 벌을 받게요
신령의 눈이 환히 밝은데
어찌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파총이 꺾꺾 웃으며 말하기를
“공손도 지나치면 예가 아니라
뜻이 맞으면 모두 벗이요
정이 깊으면 곧 형제라.
누가 말했던가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 부분이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사까지는 어떻게 같이 했는데 사실 겸상도 신분 격차가 나면 같이 하는 게 예법에 어긋납니다만 파격적으로 식사를 같이 했는데 더 나아가서 대화를 같이 하자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다시 한번 뭔가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관행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령이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천벌 받을까 저는 무섭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신분 질서를 위배하는 행동에 대한 어떤 반응인데요. 여기에 대해 장파총은 꺾꺾 웃습니다, 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이런 어떤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한 말과 비슷하게 공손도 지나치면 예가 아니네, 즉 우리 편하게 서로 같이 지냅시다, 그렇게 어려워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뜻만 맞으면 벗이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분 격차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우리 서로 뜻이 맞으면 곧 벗이 되는 거다.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결 감동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또 정이 깊으면 곧 형제다, 우리 정이 깊고 뜻이 맞고 그러면 괜찮다, 당신이 백정이고 내가 양반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누가 말했든가, 계급을 나누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이 부분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몇 번 변주가 됐었던 것이죠. 신분 차별은 인위적인 것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늘의 뜻이 아니다, 하늘의 뜻은 계급을 나누지 않는 것이다, 거의 신분 해방, 신분 차별을 넘어서는 이런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장파총과 심방주의 관계, 장파총과 심방주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대화, 서사, 묘사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 지점에서 얘기가 탁 터지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공허한 얘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실감과 어떤 정서적인 밀도 속에서 굉장히 공감력 있게 감동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런데 이 평등의식이라고 하는 건 흔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틀에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렇죠. 인간과 인간 내에서 평등을 사고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일입니다. 쉽지가 않고. 하지만 「방주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면모는 이 관계의 평등성을 인간과 인간 이상으로 확장을 하는데 있습니다. 즉 인간과 사물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어떤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좀 물론 인격적인 관계가 자연에 꼭 맞진 않습디만 다른 달리 정확한 말은 없으니까 일단 인격적이라는 말을 써보지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인격적이고 자연을 존중하고 그러면 자연도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연도 인간에 대해서 적대적인 방식으로 되갚음을 하는 이런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인간과 사물 사이의 평등의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인간과 인간의 평등의식에 대응되는 어떤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살피볼 부분은 장파총이 어민의 생활상을 잘 알게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어민의 생활을 목도하면서 이 어민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어획에 성공하는데 이 어획을 대량으로 성공하면 어민 입장에서는 되게 기쁘잖아요. 이걸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물고기의 입장에서 한번 묘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김려의 예민한 아주 남다른 감수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막 잡히니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불쌍한 물고기들
혼이 속 빠지고
비늘이 가지런히 은빛 지방 이루어
행여 도망칠 길 없이 잡혔으니
작은 놈은 숨이 깔딱깔딱하고
큰 놈은 아직도 펄떡펄떡하며

구물구물하는 건 진흙탕 같고
풀떡풀떡하는 건 물이 끓는 듯하네.
쓱쓱 쌀을 인 듯
퍼덕퍼덕 새 날개 치듯 하는데
사방에서 갈고리창으로 찌고 찢러 먹을 따니
너랑 나랑 꺼릴 게 뭘가
순식간에 산더미처럼 쌓이네.

이 묘사를 보시면 이 어획을 물고기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뭔가 어획을 당한 입장에서의 묘사입니다. 그래서 불쌍하다라고 하고 뭔가 창으로 팍팍 찌르는, 일종의 물고기 입장에서는 이게 생사를 가르 는 전쟁터 같은 것이고 이런 느낌을 자아내는 묘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이 물고기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지를 아주 실감나게 일종의 대형 참사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다음 계속 보시면요. 이렇게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채취를 하다 보면 인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텐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럼 자연 또한 그에 대해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준다고 하는 묘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씨를 말려
좋고 나쁨 가리지도 않나니
재앙은 포희(庖犧) 때 시작되어

포희씨는 처음으로 그물을 만들었다고 상상하던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현원(軒轅) 때 가장 심했으니

현원도 상상의 인물인데요. 활, 화살 같은 사냥 도구를 처음 만든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사냥과 고기잡이 가르친 게
도리어 생명에 해가 되었구나.
하늘이 낳은 것을 마구 몰살하면
욕망이 너무 지나친 일이라
(중략)
듣자 하니 을유년 바람은
바다의 신령이 크게 노하신 까닭이라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걱정 수준의 어획을 넘어선 남획이라고 하는 것, 씨를 말릴 정도의 남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에 대한 폭력인지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소급해 들어가나면 이 사냥법을 처음으로 개발한 그 시점까지 소급해 들어가서 반성을 합니다. 이 점에서 이 「방주가」는 어떻게 보면 문명 비판적인 시각 이런 거를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과 고기잡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적으로 자연의 밸런스를 깨는 좀 면이 있지 않은가,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어떤 생물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자행해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입니다. 그래서 그 반성을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이 낳은 것을 마구 몰살하면 욕망이 지나친 것이다”라고 해서 그 하늘이 주어진 하늘이 준 물건, 예를 들어서 생선이니 물고기 고기니 나무니 하는 등등 자연 재료들, 이런 것들을 인간이 쓰지만 걱정선이 있는데 그 걱정선을 넘어선 이 욕망의 추구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 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눈으로 보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신분 차별은 인위적인 것이고 하늘의 뜻이 아니다, 하늘의 뜻은 신분 차별을 없애는 거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다루고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고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늘의, 자연의 반격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인간이 그렇게 자연물을 함부로 해치니까 자연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유년 바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을유년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따져봐야 되지만 이 당시 바람의 신령이 노했다고 해서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고 어민들이 큰 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생태 위기에 의해서 기상재해나 여러 가지 기상 이변들이 생기는 거 비슷한 일인 거고요. 그런 어떤 자연과 인간의 순환 관계에 대한 직관이 조선 후기 지식인에게 있었던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방주가」에 반영된 민중의 생활 현실

자, 이렇게 해서 「방주가」의 평등의식이 사물 인식으로 확장되는 면모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는 「방주가」에 반영이 된 민중의 생활 현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주가」의 경우는 장파총이 심방주의 집에 찾아가서 심방주의 아버지에 혼담을 넣는 게 제일 중요한 모티프이기 때문에 이 백정 집안의 묘사가 주목이 되고요. 그래서 백정의 노동 현상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부분은 이 장파총이 심방주 집을 찾아가기 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숨씨 좋은 장인들 빙 둘러앉았으니
어떤 사람은 쑥대머리 어지럽고
어떤 사람은 쇠코잠방이 걸치고
어떤 사람은 무두질한 가죽을 비비고
어떤 사람은 버들가지를 짜고
어떤 사람은 서서 난도(鸞刀)를 울리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양위(羊胃)를 손질하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백정의 집에서 온갖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쪽 나열식으로 묘사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장파총이 이제 생선 장수를 하는 시절이 그려진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생선 장수를 하면서 온갖 어촌을 다니면서 어민들의 생활 현실을 목도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어민의 고통을 이제 시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모래사장에 어떤 어부의 아낙
해를 보고 절하며 울부짖는다.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봐보면요. 이게 굉장히 서사성을 잘 살리는 부분인데요. 어부의 아낙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왜 등장하고 어떤 사람이지, 뭘 하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겁니다. 해를 보고 절

을 하며 울부짖는데 왜 절을 하면서 울부짖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의문을 자아내게 하면서 이제 어부의 아낙의 육성에 따라 이 사람의 사연을 우리가 하나하나 접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어떤 서사 구조를 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울부짖는 아낙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들어봅시다.

“우리 아이 전복을 따러 가서
열흘이 가도 돌아오지 않아요.
재작년엔 애 아비가 목숨 잃고
작년엔 형이 뒤를 이었으니
정녕 물귀신의 먹이가 되었거늘
관가의 재촉은 아랑곳없답니다.”

이게 울부짖는 이유입니다. 해를 보고 절하는 것은 기원을 하는 거고 울부짖는 것은 너무나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연인즉슨 관아에 바치기 위한 전복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전복 채취를 갔다가 변을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죽은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집안의 아들, 남자들, 자기 남편, 두 아들 모두 전복 채취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변을 당한 겁니다. 한 집안에 관아의 재촉으로 인해서 관아에 전복을 바쳐야 되는 일 때문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이죠. 이 비참함을 피해 당사자의 육성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좀 이어서 보면요. 그 여인의 진술이 계속 이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복을 따는 자에게 전복 한 개는
가난한 자의 천 속(束) 곡식인데
전복 자시는 분에게 전복 천 개
부자의 한 톨 곡식에 불과하다오.
실어다 바쳐 날마다 쌓이니
주방이 그득히 넘치는 터
꾸역꾸역 먹다가 내버리고
종놈들 배불뚝이 되지요.”

이 부분에서는 대조의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죠. 전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채취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처절하고 귀한 것인가, 하지만 이거를 편하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흔하고 이 고

생하는 사람의 노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낭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전복 한 개와 곡식 천 속, 그리고 가진 자에게 전복 천 개와 곡식 한 톨, 이런 천과 1의 대비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대비 속에서 극명하게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더 가난한 자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은 부자 집안의 종놈들도 배불리 먹는다는 이것이죠. 같이 부잣집은 종조차도 자기들보다 배불리 먹는다고 하는 이 대비 속에서 이 가난한 어민들의 비참함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다음 이 어민에 대한 관아의 침탈이 묘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전복을 관아에 바쳐야 되는 것 자체가 관아의 침탈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정면으로 이제 증언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밤중에 뭇 개들이 짖어대나
관차(官差)가 나와 마을을 들쭉시더니
연자(蜒子)를 모두 몰아대고
매질하며 아우성치는데
사또님 다담상에
전복이 두 번이나 빠졌다.
저 고얀 연자것들
미련하기 소새끼로고,
독촉은 성화같이 급하여
몽둥이가 비 쏟아지듯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부의 아낙 가슴 치며 통곡하니
곡성이 하늘을 찌르더라.
“전복이 원수로고
우리 아이 어이 돌아오지 못하는가. (하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사또에게 올릴 전복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독촉 그런 관아의 침탈이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이것을 증언을 한 다음에 이 여성은 전복이 원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왜 돌아오지 못하는가라고 하면서 전복 채취와

관련된 고통을 하소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주가」에 반영된 민중의 생활 현실들을 살펴봤고요.

6. 더 생각해볼 문제

그럼 끝으로 오늘 수업의 내용을 토대로 더 고민해 봐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가」에서 확인되는 이 평등의식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토대 위에 형성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문예론적인 토대도 있을 수 있고 사회 현실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사상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김려의 개인사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조사해서 더 공부를 심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평등의식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평등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꼭 문학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사상의 차원에서 평등의식을 고취할 수가 있고요. 이걸 문학을 통해 드러낸 것과는 다를 텐데요. 자, 그럼 어떤 사상적인 차원에서 평등의식을 표명하는 거하고 문학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이성의 차원과 감성의 차원이라고 해볼까요, 도식적으로 얘기해 보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평등을 그리고 제고하는 데 이 문학이 기여할 수 있다면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 어떤 문학의 본질과 관련된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등의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식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역시 문학 내에서는 시보다는 산문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문을 통해서 평등의식을 드러내는 거하고 시를 통해서 평등의식을 드러내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따져가면서 이 「방주가」라고 하는 작품이 또 평등의식을 고취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또 반면에 또 어떤 한계가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새롭게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후에 한번 이 문제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 이 「방주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방주가」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오늘 강의에서는 ‘시적 평등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김려의 장편 고시 「방주가」를 공부했습니다. 김려는 천주교와 관련된 유언비어 사건에 연루되어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작품을 여럿 남겼습니다. 김려는 젊은 시절부터 소설과 여성 취향 시문, 패사소품을 애호했고 격렬한 감정이 대담하게 표현된 시문을 많이 지었습니다. 또한 사회 주변부에 주목하여 민중의 삶과 미덕을 그려냈고 여성의 처지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부패한 권력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방주가」의 서두에서는 백정의 딸인 심방주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이 암시되고 이어 방주의 출생과 성장 과정이 서술됩니다. 다음으로 장파총과 심방주가 조우하고, 그 기품과 덕성에 감탄한 장파총이 심방주의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방주와 혼인시킬 것을 청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이어 이렇게 신분 격차를 뛰어넘는 과격성을 보여준 장파총이 어떤 인물인지를 탐색하는데, 그 서술 중에 장파총이 생선 장수를 하면서 목도한 어민의 삶이 묘사됩니다.

「방주가」는 양반 자제와 백정 딸의 혼사라는 파격적인 설정을 통해 인간 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등장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생동하는 인물 형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심방주와 장파총이 조우하는 장면에는 한 인간이 훌륭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신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장파총이 심방주의 집을 방문하고 방주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사해가 모두 동포이고 하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평등하며 계급을 나누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방주가」에서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고 대화, 서사, 묘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감과 정서적인 밀도를 부여받게 됩니다. 나아가 「방주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등을 사유할 뿐 아니라, 인간의 자연 착취와 자연의 반격을 묘사함으로써 평등에 관한 사유를 사물 인식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주가」에서는 백정의 노동 현장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며, 어민이 관가의 수탈로 인해 겪는 고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민중의 생활 현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민중의 생활 어휘와 민간 지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역시 「방주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김려는 천주교와 관련된 유언비어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O/X)

정답: O

2. 김려의 문학에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O/X)

정답: O

3. 「방주가」는 완성작 장편 고시이다. (O/X)

정답: X

4. 장파총은 방주에게 물을 대접받고 감탄했다. (O/X)

정답: O

5. 심방주는 홀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었다. (O/X)

정답: X

선택형(5분)

1. 다음 중 「방주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파총은 방주의 기품과 덕성에 감탄하여 방주와 혼인하고 싶어 했다.
- ② 인물 간의 신분 격차를 설정함으로써 인간 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③ 민중의 생활 어휘와 민간 지식이 반영되어 있다.

정답: ①

2. 다음 중 「방주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파총이 혼인을 제안하자 방주의 아버지는 기뻐하며 즉시 동의하였다.
- ② 노동 현장을 묘사함으로써 민중의 생활 현실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혼담에 대한 장파총의 말에는 평등의식이 드러나 있다.

정답: ①

3. 다음 중 이 작품에서 민중의 생활 현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백정의 노동 현장
- ② 어민에 대한 관아의 침탈
- ③ 심방주가 장사를 하면서 겪은 고생

정답: ③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김려의 「○○○○」는 부령에서의 유배 생활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정답: 사유악부

2. 「방주가」의 원제는 「장원경의 아내 ○○를 위해 지음」이다.

정답: 심씨

3. 「방주가」는 ○○의 딸인 방주와 장파총 아들의 혼담을 다루고 있다.

정답: 백정

나. 토의(45분)

1. 「방주가」에서 확인되는 평등 의식은 어떤 토대 위에 형성되었을까.

(「방주가」에서 나타난 평등 의식의 형성 토대를 살피기 위해서는 일단 작가 김려의 문학 창작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령 유배기 때의 체험을 담은 「사유약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김려의 문예관, 인물 전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 사상사의 동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평등의 사상’을 모색한 조선후기 지식인에 대해 조사하면서 그 사상사적 흐름이 「방주가」와 어떤 연관을 맺는지 생각해 본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 ‘평등의 사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평등 의식’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은 꼭 문학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사상의 차원에서 평등 의식을 드러내는 것과 문학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회적 차원에서 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데 문학이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평등’은 정치사회적 문제이므로 평등의 문제는 일단 사회사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신분제에 대한 조선후기 담론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평등의 문제를 다룬 사회사상과 비교하면 「방주가」는 사회사상과 같이 신분제 문제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방주가」는 문학 작품이므로 사회사상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작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보다는 사회사상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문학의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감정’ 혹은 ‘정서’이다. ‘평등’은 정치사회적 문제이지만 구체적으로 눈 앞의 사람을 대하는 인간 대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사회과학적 인식뿐 아니라 감정과 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주가」는 ‘평등’의 문제를 이런 구체적인 ‘인간 대 인간’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3. 문학 내에서도 시보다는 산문 쪽이 ‘평등 의식’을 표명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하다. 산문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평등 의식’을 다룸에 있어서 시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는가. 이런 견지에서 「방주가」의 성취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일단 한국 고전문학사에서 ‘평등’의 문제를 다룬 시와 산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사 작업을 토대로, 일단 김려라는 동일한 작가의 작품 내에서 비교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려를 포함하여 조선 후기 작가들의 작품들을 비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꼭 시대와 지역에 구애되지 않고 폭넓은 비교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흔히 시보다는 산문 쪽이 사상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도, ‘감정’과 ‘인식’ 혹은 ‘정서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이 어떻게 매개되는가를 실제 작품에 즉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과제(45분)

「방주가」 등장인물들의 대화에 유의하면서 이 작품에 나타난 평등의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 보십시오.

(「방주가」는 평등의식을 추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물 간의 대화 및 인물의 행동 등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등장인물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고, 등장인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등장인물의 대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등장인물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등을 짚어가면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5강〉

체제 모순에 대한 시적 대응

정약용의 현실비판시

학습 목표

1. 정약용의 삶과 학문, 조선시대 현실비판시의 전통 그리고 조선후기의 체제 모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2. 정약용의 문예관과 현실인식 가운데 현실비판시와 관련된 면모들을 알아봄으로써 정약용의 현실비판시가 어떠한 가치관과 문제의식을 토대로 형성되었는지 이해한다.
3. 구체적인 작품을 읽으면서 정약용 현실비판시의 주제의식과 문예적 특징을 이해한다.

강의 핵심 요약

‘체제 모순에 대한 시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를 살펴보았다. 정약용은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문학, 경학, 경제학, 과학기술 및 의학, 지리 등 많은 분야에 걸쳐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현실비판시’란 민의 생활 현실과 체제 모순 등을 포착한 현실주의적 시를 말한다. 조선시대의 현실비판시는 동아시아적으로 볼 때는 『시경』부터 이어지는 시적 현실반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사상적으로는 유교적 애민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역사적으로는 조선왕조의 체제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조선 전기부터 여러 작가들이 문제의식이 뚜렷하고 문학성이 높은 현실비판시를 남겼다.

이어 정약용의 문예관과 현실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약용의 문예관에서 현실비판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으로는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지향, 비판 의식, 문학의 현실반영에 대한 중시, 타인

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강조, 윤리적 자기 정립의 중시 등을 들 수 있다. 현실인식 면에서는 도탄에 빠진 백성의 처지를 매우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시급하게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어 구체적인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정약용은 백성에 대한 수탈을 고발한 작품을 여러 편 썼다. 「애절양」은 군포의 폐단을 고발한 작품으로, 한 백성이 자신의 갓난아이에게까지 군포를 거두는 일을 겪고 스스로 양경을 자른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소나무를 뽑아내는 중」은 금송의 폐단을 고발한 작품으로, 착취를 피하기 위해 소나무를 뽑아내는 승려들을 소재로 하여 수탈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용산 마을의 아전」, 「과지방의 아전」, 「해남 고을의 아전」은 검독의 폐단을 고발한 작품으로, 세금을 못 낸 집의 소를 빼앗거나 백성을 끌어가기도 하고 온 마을이 황폐해지기까지 하는 실태를 폭로하고 있다. 한편 정약용은 시를 통해 여성의 처지를 증언하기도 했다. 「소경에게 시집간 여자」는 나이든 소경에게 시집간 젊은 여성이 기출했다가 강제로 돌려보내진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극적인 전개와 대립되는 인물 형상을 통해 여성의 저항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와 비극적인 처지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다.

◆ 강의 내용 전문 ◆

강의 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의 시 중에 현실비판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타이틀은 체제 모순에 대한 시적 대응,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수업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은 워낙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작가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는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를 공부하기에 앞서 조선시대에 현실비판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를 간단하게 개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정약용으로 넘어가서요. 정약용의 현실비판시의 기반이 되는 문예관과 현실인식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를 작품을 하나하나 좀 검토해 가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현실을 고발하는가, 이걸 하나 볼 거고요. 그다음에는 조선시대에 특히 소수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이 여성의 처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적으로 증언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를 쭉 공부한 다음에는 이런 수업의 내용을 토대로 더 생각해볼 만한 점이 뭔가 이런 걸 짚어가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

1. 작가 소개
2. 조선시대 현실비판시 개관
3. 정약용의 문예관과 현실인식
4. 시를 통한 현실 고발
5. 여성의 처지에 대한 증언
6. 더 생각해볼 문제
7.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1. 작가 소개

자, 그럼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정약용,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생을 마쳤습니다. 조선 후기의 인물이고요. 호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다산, 근데 이거 외에도 사암이라는 호도 말년에 썼고요. 당호는 여유당이라고 하는 당호를 썼고 이게 지금 정약용의 저술들을 총정리한 거를 『여유당 전서』라고 할 때 여유당이라고 하는 당호를 중심에 두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출생지는 그 당시로서는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아현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마재 마을입니다. 지금도 여유당이라고 하는 정약용 생가가 남아 있고 많이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실학자 정약용, 어떤 학자 정약용, 시대적 양심으로서의 지식인으로서의 정약용, 이런 면모들은 다 유배기를 토대로 한 것들인데요. 유배기는 꽤 깁니다. 1801년부터 18년까지에 걸쳐 있는 시대에 유배형에 처해졌는데요. 정조 사후에 정국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 1801년 2월에 이른바 ‘책룡 사건’이라고 하는 거, 천주교 문헌이 발각이 되는 건데요.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이 정약용도 여기에 연루가 돼서 처음에 경상도 포항 장기에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셋째 형님인 정약중은 천주교 신앙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참수형에 처해졌고요. 둘째 형님 정약전은 전라도 신지도에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또 더 큰 사건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조선조 지배층에게 굉장히 예민했던 사건인데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여기서는 힘들겠지만 천주교 관련 사건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 다시 연루가 돼가지고 채투옥이 됩니다. 정약용이 그래서 저 멀리 강진에 유배형에 처해지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옮겨집니다. 강진이나 흑산도는 모두 다 좁 먼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 강도가 높은 유배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 여러분 가시면 다산초당이라고 해서 정약용이 유배기에 머물렀던 곳이 보존되어 있고 지금은 관광지화까지 되어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정약용의 흔적을 더듬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긴 유배의 시간을 뒤로하고 드디어 유배형에서 풀려나게 됐는데요. 그 말년의 기간이 1819년부터 30년 정도까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학문 활동에 매진하고 또 생애를 정리하고 비교적 평온하게 삶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약용은 결국 정계에 복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약용 자신으로서는 평생에 걸친 가장 큰 아쉬운 점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경륜을 스스로 좀 펼쳐 보이고 싶어 했던 인물이어서 늘 그거에 대한 학문적인 준비를 했던 인물인데 결국은 복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해배 이후에 자신의 삶을 총정리한 게 자찬 묘지명, 원래 묘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죽은 사람의 생애를 쪽 정리하는 글인데요. 대체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어주는 건데 정약용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직접 정리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자신의 묘지명을 지었습니다. 그게 자찬 묘지명이고요.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소책자 분량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싶어 했던 욕구가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갑을 맞이해서 자신의 삶, 학문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서술을 한 게 자찬 묘지명이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당시 신작이라고 하는 인물, 김매순이라고 하는 인물, 홍석주라고 하는 인물, 다 그 당시 문학과 학계를 주름잡았던 중요한 지식인들이네요. 이 사람들하고 본격적인 학술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학문 세계를 더 넓힙니다. 이렇게 보내다가 회혼일, 회혼일은 사람으로 치면 회갑 비슷하게 결혼 60주년입니다. 결혼의 환갑이라는 뜻이네요. 회혼일에 가족들과 가족들을 좀 모아서 본 다음에 평온하게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정약용의 생애는 이렇고요.

정약용 하면 불굴의 의지로 학문 세계를 개척한 실학자이니까 생애보다는 역시 또 저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술은 유배기 기간 동안에 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경서 관련된 연구가 총 232권 그리고 문집 시문 모아놓은 거, 이게 267권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좀 분류를 해서 좀 보면요. 우선 시문집 시와 산문을 모아놓은 것들이 『여유당전서』 중에 시집과 문집으로 수습이 되어 있습니다. 양이 꽤 되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현실비판시는 이 『여유당전서』 시집에 들어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 빠져 있고 나중에 발굴된 작품이 하나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약용은 기본적으로 유학자니까 유교 경전에 대한 연구가 또 중요합니다. 주요 유교 경전에 대한 연구서를 거의 다 남겼고 양도 꽤 됩니다. 『논어』에 대한 연구서인 『논어고금주』, 그다음에 『맹자』에 대해서는 『맹자』 전체를 다 주석을 달진 않고 발췌를 해서 중요한 부분만 자신 나름대로 생각을 피력한 게 있는데 그게 『맹자요의』고요. 그 밖에도 『대학공의』, 『중용자잠』 등등 해서 경전 관련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전과 짝을 이루는 게 경제학 연구이네요. 경제학 연구는 쉽게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조선 지배층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연구한 것, 이게 경제학입니다. 정약용 하면 떠올리게 되는 저서들이 다 경제학 연구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학 연구와 표리를 이루는 게 경제학 연구이네요. 경제학은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입니다. 정치학, 경제학 이런 등등이네요. 행정학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정약용 하면 떠올리게 되는 학문 세계가 대체로 경제학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민심서』, 지방 행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집대성한 책이고 우리가 정약용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책이기도 하죠. 『흙흙신서』, 이거는 법과 관련된 책이고요. 사법 행정 책입니다. 『경세유표』는 국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해 놓은 책이고요. 이 『목민심서』, 『흙흙신서』, 『경세유표』를 흔히 1표 2서라고도 하고 정법 3서라고도 합니다. 정약용 자신은 자신의 학문을 경학과 경제학의 통일, 즉 경학을 통해서 선비가 자신의 윤리적인 수양을 하고 그런 윤리적으로 수양한 주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륜을 펼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백성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구도로 자신의 학문 세계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학과 경제학은 정약용의 학문 체계에서는 표리를 이룬 것이구요.

그다음에 또 과학기술, 의학 이런 등등의 연구서들이 있습니다. 『마과회통』이니 하는 것들이 쪽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 연구도 있습니다. 『대동수경』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아방강역고』라는 것도 있

고요. 그 밖에도 좀 쪽 있습니다. 이렇게 개관해 봐도 정약용의 저술의 범위 포괄하는 범위도 넓고 양도 많고 이게 한 인간이 도대체 한평생 할 수 있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경이로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여유당전서』에 집대성이 됩니다. 지금 문헌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번역도 상당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정약용의 문학 세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좀 간단하게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실학자적인 면모를 우리가 먼저 떠올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현실비판시 혹은 애민시라고도 하는데요. 용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이 시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요. 또 그다음에 최근에 좀 새롭게 연구가 된 분야인데 노년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거나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더 깊어진다는가 또 더 날카로워진다는가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가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노년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서 새롭게 최근에 연구가 된 게 있고요. 또 역시 정약용 하면 또 유배지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요. 이 유배지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많이 보내는데요. 이런 유배지에서의 편지,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사실은 정약용 문학이 초기에 소개될 때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 편역서, 박석무 선생님께서 하신 게 또 굉장히 또 많이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고요. 또 아까 경제학이 중요하다고 했고 정약용은 당연히 현실 비판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 있었으니까 이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논설, 이게 정약용 산문에서는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이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 유학자들은 현실 자체를 보기도 했지만 이 역사를 경유해서 보기도 했어요. 유학자들 특유의 역사의식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역사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평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역사에 대한 논설문들이 또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또 역시 학자다 보니까 학술사적인 문제, 학술사적인 쟁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또 남겼고 여기에 또 중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약용은 이제 정파적으로 남인에 속하는데요. 이게 탕평책에 의해서 일부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자신의 재주를 펼치지 못하고 뭔가 재야에 있어야 되거나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서 꽃 피우지 못한 이런 존재들이 꽤 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물에 많이 또 공감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억울한 삶을 증언하는 기록들 이런 증언의 성격을 갖는 묘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약용의 문학 세계 또한 저술 세계만큼이나 다양하게 다양한 영역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한국학 내에서 다산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약용은 여느 작가랑은 달리 우리 한국학 내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간단하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다산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약용의 학문, 정약용에 대한 연구,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한국학 내에서 따로 다산학이라고 부를 정도로 뚜렷하고 위치가 있는 것인데요. 이 다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한국의 현실 문제와 조우하면서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열망이 고전 연구에 이렇게 투영이 되는 보조를 함께하는 그러면서 그런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일제 때 보시면 1936년이 다산 서거 10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는 일제에 의해

서 민족 말살 정책이 또 자행되던 시대인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저항으로 이 다산 서거 100주년 기념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즉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학술적 저항으로서 다산학이 정립이 되는 건데요. 이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연구자들이 많이 참고했던 이 『여유당전서』를 최초로 간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1934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36년에 마무리 짓지는 못하고 좀 시간이 약간 지나서 1938년에 완간이 됩니다. 이게 신조선사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 주로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게 얼마 전에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여유당전서』 전체를 정본화 사업을 했는데요. 그거 정본화한 『여유당전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구자들이 제일 많이 참고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면은 이 『목민심서』의 역주 작업입니다. 아까 『목민심서』 하면, 『목민심서』는 정약용 하면 바로 떠오르는 요즘 말로 연관 검색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역주 작업이 1978년부터 1985년에 걸쳐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나 하면요. 유신독재기부터 시작해서 신군부독재기까지에 걸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목민심서』 역주 작업은 우리 지식사회학적으로 보면 민주화 운동과 공명을 한 학술 운동의 성격을 갖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두 가지가 이 다산학이 어떤 것인지를 제일 인상 깊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한국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옛날 것을 골동품처럼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현재적인 문제의식과 교감하면서 미래의 전망을 열어가는 이런 것이라고 할 때 그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다산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산학이라고 하는 게 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소중하다, 굉장히 중요한 문화자산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되새길 수 있습니다.

2. 조선시대 현실비판시 개관

그러면 이어서 조선시대 현실비판시 전반을 좀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실비판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연구자에 따라선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옛날에 천태산인 김태준 같은 초기 연구자는 민원시라는 말을 썼고요. 백성의 원망을 토로한 시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식의 발로이기 때문에 애민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시들이 대체로는 서사성을 갖기 때문에 서사한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는데 저는 현실 비판적인 태도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현실비판시라고 하는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한시의 경우는 이게 서사시라고 하는 말하고 좀 혼동이 있기 때문에 장르 규정으로서는 약간 좀 문제가 없지는 않고요. 애민시나 민원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피지배 계급인 민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현대적인 감각에서는 약간 좀 기왕이면 좀 다른 대안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비판시라고 한다면 이것은 민의

생활 현실과 체제의 모순 등을 포착한 현실주의적인 시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에는 이런 현실비판시를 정약용만 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약용 말고도 이제 여러 작가들이 썼고 그런 흐름 속에서 정약용이 등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시들이 등장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조선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동아시아의 지적인 전통에서 시를 통해서 이 민의 어떤 생활 현실이라든가 체제 모순을 고발하거나 드러내거나 하는 전통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시경에서부터 그런 시들이 있고요. 특히 당나라 때 보면 두보, 백거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현실 반영의 시들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정약용도 당연히 이런 시적 전통에 아주 밝았고요. 그다음에 사상적인 배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적인 애민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은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사대부 계급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배계급의 사상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배계급의 사상도 여러 측면이 있고 그렇게만 단정해서 볼 필요는 없는 중요한 미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한 게 애민사상입니다. 백성의 삶을 제일 최고로 중시하고 백성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이 헌신하고 정치의 우선은 백성을 위한 거고 뭐 이런 생각, 이런 거는 애민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민사상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애민사상이 있기 때문에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예민한 관심을 갖고 이것을 고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그러는 것이죠. 사회 역사적인 배경이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지적인 배경이 결국은 왜 나오는가. 현실적인 배경 때문인 것이죠. 즉 왕조 체제의 모순으로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그런 백성의 고통들이 잘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현실을 담아내기 위해서 문학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도 필요하고 사상도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회현실적, 사회역사적인 배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조선왕조도 당연히 체제 모순이 심화가 되고 정약용이 활동했던 조선 후기 사회는 특히나 그런 체제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었던 시대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못한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시들이 있어 왔는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시들은 『이조시대 서사시』라고 하는 선집에 다 번역도 되어 있고 해설도 붙어 있으니깐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를 보시면 제일 좀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것은 김시습, 현실 아주 비판적인 지식인이죠. 김시습의 시 중에 어느 「농부 이야기」라고 하는 시가 있고요. 원래는 자영농이었다가 재해로 인해서 유랑민으로 몰락하게 된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직접 증언하는 형식의 시입니다. 이희보의 「시골 할아버지의 노래」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비해서 양이 많지는 않지만 꽤 중요한 작품들이 이미 조선 전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좀 있는데요. 몇 가지 한번 예시를 해보면요. 송순의 「농가의 원성」, 벌써 제목에서부터 현실 비판적인 느낌이 들고요. 윤현의 「영남탄」, 이런 등등의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창작이 되어 왔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작품들이 꽤 많은데요. 일단 임상덕이라고 하는 인물의 「무안 백성」, 신광수의 「나무하는 소녀」, 이광려의

「양정의 어머니」, 홍양호의 「유민의 원성」 이런 등등이 정약용 이전의 중요한 현실비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다들 편폭이 길고 서사성이 있고 뭔가 문제적인 설정이 있고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3. 정약용의 문예관과 현실인식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약용이 등장하기 이전에 조선시대의 현실비판시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는 정약용이 그러면 어떤 문예관과 현실인식을 갖고 있었는가. 어떤 문예관과 현실인식 속에서 이런 현실비판시를 쓰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의 문예관은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현실비판시와 관련해서는 주목해야 될 점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문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수사적으로 그런 수사적인 기교를 뽐내고 문학적인 재능을 자랑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가 않고 문학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어떤 지향,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게 더 핵심이다. 이런 게 정약용의 문예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것과 연관되는 건데 단순히 자기만족적이고 음풍농월이나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반영하고 타인의 고통, 구체적으로는 백성들, 기층민, 이런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쪽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왜 하느냐, 그렇다고 이런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하고 현실에 관심을 갖는 나 자신도 그러면은 윤리적인 자기 정립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지향, 비판의식, 현실 반영, 타인에 대한 고통, 윤리적인 자기 정립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문학에서 핵심적인 것이라라고 정약용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예관을 잘 보여주는 글이 유배지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의 아들 학연이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이 보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가 아니다.

여기서 임금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선시대 왕조 국가니까 그런 관념이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나라를 근심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즉 현실에 대한 관심, 경세 의식, 우국 의식, 굉장히 현실 참여적인 면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에 분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가 아니다.

굉장히 현실 참여적이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고 미운 것을 밋다고 하지 않으며, 선(善)을 권장하고 악(惡)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가 아니다.

즉 어떤 인물의 악행, 선행 그리고 이 사회 현실 중에 바람직한 면, 바람직하지 않은 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드러내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문학의 역할 그것도 바로 시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뜻이 서 있지 않고, 학문이 익지 않으며,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군주를 잘 보좌하여 백성을 잘살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시를 지을 수 없다.

즉 윤리적인 자기 정립이 돼야 되고 윤리적인 자기 정립을 하기 위한 학문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또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시다운 시를 지을 수 있다라고 정약용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약용의 문예관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약용의 현실 인식의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두 가지 측면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정약용이 도탄에 빠진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 점을 여러 가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김이재라고 하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에 이게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유랑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고 부르짖는 소리가 수없이 들리고, 길가에 버려진 어린아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참담하고 마음 아파 차마 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탄에 빠진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나오구요. 그다음에 이런 구

체성이 있는 것과 동시에 거시적인 사고 또한 있는데요. 그래서 대대적인 국가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던 1포 2서의 하나인 『경세유표』의 원래 제목이 ‘방례초본’인데요. 이 방례초본에 붙인 서문격인 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터럭 하나 머리털 하나도 병통 아닌 게 없다.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기필코 나라가 망한 뒤에야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긴급한 위기의식 속에서 국가적인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 인식을 두 측면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시를 통한 현실 고발

자, 그러면 이제까지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를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개관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 시를 통한 현실 고발의 측면입니다. 정약용이 주목한 백성을 힘들게 하는 현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군포의 폐단입니다. 군포는 조선시대에 군역 의무자가 군 복무 대신에 세금으로 바친 베를 얘기하는 건데요. 백성에 대한 이게 수탈의 수단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황구침정이니 백골징포니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황구침정은 군역에 아직 편입돼 있지도 않은 갓난아기를 군역 의무자로 집어넣는 겁니다.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해서. 백골징포는 이미 죽은 사람 그래서 군역에 의미가 없는 사람조차도 다시 죽은 사람으로 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군역에 포함시켜서 착취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이게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건데요.

이 공포의 폐단을 시로 고발한 작품이 바로 「애절양」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설정의 시인데요. 우선 이 작품의 창작 경위에 대한 정약용 자신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는 가경(嘉慶) 기해년(1803) 가을에 내가 강진에 있을 적에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당시 노전(蘆田)의 백성이 아이를 낳았는데 생후 3일 만에 군보(軍保)에 편입되었다.

방금 설명드린 황구침정입니다. 그래서 “이정이 소를 빼앗아가서 그 백성은 칼을 뽑아서 자신의 양경을 자르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군포를 못 내니까 소를 빼앗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분에 자신의 양경을 잘랐다는 아주 충격적인 일인데요. 이렇게 “내가 이 물건 때문에 이 곤액을 당했다.” 즉 애를 낳는 바람에 이 애 때문에 결국은 빌미가 돼서 착취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그 양경을 들고 관아의 문으로 나가니 피가 여전히 뚝뚝 떨어졌다. 울면서 하소연했지만 문지기가 막았다.

이렇게 처절하게 백성이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려고 하는데 문지기는 아예 관아로 들여보내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런 처절한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연을 듣고 정약용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정약용 자신이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면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읍내 관문 앞에서 통곡을 하는 이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 장면 제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도대체 왜 그런가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육성을 따라가면서 그 여인의 처지를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하소연을 하고요. 그 하소연에 대해서 시인, 여기 정약용이죠. 시인의 반응으로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크게 보면 3단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앞부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애절양의 시작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한 여인의 통곡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극적 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노전(蘆田)의 젊은 아낙 통곡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로 작품이 시작을 합니다.

관문 앞 달려가 통곡하다 하늘 보고 울부짖네.

얼마나 억울하면 하늘을 보고 울부짖겠습니까, 그렇죠?

출정 나간 지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 일은 그래도 있을 법하지만

이것도 참 처절한 말입니다. 출정 나간 지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 일은 당연히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하지만 이것도 있을 법하다고 할 정도로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내가 자기 양경을 잘랐단 말은 자고로 들어보지 못했네.

서두에서부터 아주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딱 던져줍니다. 아니 이런 일이, 조선 후기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병적인 일까지, 엽기적인 일까지 생긴다는 것인가, 이런 느낌을 자아냅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장면 제시가 된 다음에 여인이 자신이 하소연을 하는데요. 그런 하소연을 하는 「애절양」의 중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아버지 삼년상 벌써 지났고 갓난아이는 배냇물도 안 말랐거든
삼대(三代)의 이름이 모두 군적에 실렸구나.

즉 시아버지, 자기 남편, 자기 아이, 이 중에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군적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백골징포입니다. 그다음에 갓난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황구침정입니다. 억울하니까

관아에 가서 하소연하려 해도 범 같은 문지기가 버티고 섰고

이것도 참 부조리한 일이죠. 당연히 이 관아에 가서 억울한 일을 백성이 하소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문지기도 다 차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완전히 지배층도 아니고 양반층도 아닙니다. 이 하소연하려는 백성들과 생활 접점이 더 많은 사람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을과 을의 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이정(里正)은 으르렁거리며 외양간의 소마저 끌고 갔다오.

여기에서 “으르렁거리며” 굉장히 사납고 흉포하고 백성에게 공포스럽고 폭력적이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남편의 저항은 어떤 저항이냐면, 자해,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칼을 갈아 방으로 들어가더니 피가 자리에 흥건해졌는데

이게 바로 서사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런 장면이죠. 칼을 갈고 들어가는 장면, 그다음에 피가 흥건한 장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으로 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장면을 처리하는 법이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스스로 한(恨)하기를 “자식을 낳는 바람에 곤액을 당했다!”

이게 얼마나 참 역설적인 일입니까. 자식을 낳는 일은 당연히 기쁜 일이어야 되고 축복받는 일이어야 되고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자식을 낳는 것이 너무나 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해 행위를 해야 될 정도까지 몰리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증언같이 보이지만은 이렇게 곱씹어 보면 참 너무나 이 체제 모순이 실감나게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충격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애절양」이라고 하는 작품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 시인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蠶室)에서 궁형(宮刑)을 받는 게 어찌 꼭 죄가 있어서라

궁형이라고 하는, 이 남성의 양경을 제거하는 형벌이 있죠. ‘이게 죄 없이 궁형 받는 거나 다를 바가 뭐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閔) 땅에서 어린애 거세하던 풍속은 참으로 가여운 일이었네.

이렇게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생겨나 살아가는 이치”, 이게 제일 중요한 이치죠. 이 세상의 이치는 다 태어나고 생명이 부여돼 살아가게 되어 있고 정치는 뭘니까? 결국 사람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겠죠. 이걸 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물이 생겨나 살아가는 이치는 하늘이 주신 것이니
건도(乾道)는 남자를 이루고 곤도(坤道)는 여자를 이루지.

이거는 전근대 시대에 그냥 남녀 구분의 어떤 관념이고요.

말과 돼지 거세하는 것도 슬프다 하겠거늘
하물며 백성은 대를 이어가고 싶어하지 않던가.

백성은 계속 살고 싶어 하는데 짐승만도 못한 이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 백성이 짐승만도 못하는 처지가 되는 게 백성 스스로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비

참한 일이죠.

부잣집에선 일년 내내 풍악 잡고 흥청망청이건만
쌀 한 톨 배 한 치 바치는 일이 없다네.
다 같이 우리 백성인데 어쩔 이리도 불공평한가
객창에 기대어 「시구편」(鳴鳩篇)을 거듭 읊네.

「시구편」은 『시경』의 한 편명인데요. 요즘 말로 치면 사회 불평등을 고발한 시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부잣집과의 비교 속에서 대조 속에서 이 사회 불평등, 불공평, 불공정,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다 같은 백성인데, 우리 유교의 통치 이념은 다 백성을 다 돌봐줘야 되고 다 잘 살게 해야 되는데, 비유하자면 자식 같은 존재들인데 부자는 흥청망청 잘 살고 똑같은 백성인데 이 지금 시에서 등장한 백성들은 이렇게 처절하고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통치자의 각성을 촉구하고 그런 잘못된 현실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정약용의 현실 인식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절양」이라고 하는 시를 살펴봤고요. 그다음 정약용이 고발하고자 한 또 폐단 중에 하나가 금송의 폐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금송은 소나무의 벌채를 금한 것인데요. 조선 시대의 산림 정책입니다. 배를 만든다든가 관아에 여러 가지 목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소나무 벌채를 금지한 건데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백성에게 또 폐단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다룬 게 「소나무를 뽑아내는 중」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중, 승려입니다. 승려들도 이런 문제에 예외가 아니라는 건데요. 제목부터가 좀 주목이 됩니다. 소나무를 뽑아내다니 그것도 승려가, 승려가 소나무를 왜 뽑아내지?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제목입니다.

이게 금송의 폐단을 고발한 시인데요. 이 작품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전라도 수영에서 병선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병선 제작에 필요한 소나무를 조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전라도 강진의 만덕산이라고 하는 산을 특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놓습니다. 이곳의 소나무는 함부로 베면 벌을 받습니다. 수영의 관리가 금송의 법규를 내세워서 백련사 스님들을 닦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물을 뜯어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착취의 수단으로 변질이 되는 건데요. 그러는 동시에 또 병선 제조를 한다는 명목으로 소나무를 또 벌채를 해서 이 관리들이 빼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 관리에 어떤 부담을 가지게 되는 만덕사 승려들은 이중의 착취를 당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승려들 입장에서 소나무가 화근이 되는 것이니까 이 어린 소나무들을 막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시로 형상화하는 건데요. 이 장면이 너무나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승려는 기본적으로 성직자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게다가 불교는 살생계가 있어서 살생을 금하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살

아 있는 걸 뽑아내는 건 불교와 완전히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인데 스님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 체제 모순 이거를 정약용이 포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시의 서두는 승려가 소나무를 뽑아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애절양」이랑 비슷하게 극적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시가 전개가 됩니다.

백련사 서쪽 석림봉에

어떤 중이 이리저리 다니며 소나무를 뽑고 있네.
어린 소나무 싹이 터서 땅 위로 두어 자 자라
어린 줄기에 파릇한 잎사귀 어찌 그리 탐스러운지.

참 이 묘사를 보면 우리가 누구나 생명에 대해서는 아끼고 싶어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어린 줄기 파릇파릇한 잎사귀 이거 해치고 싶지 않잖아요. 이거를 애써 해쳐야 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아끼고 싶어 하는 마음, 인간의 본연의 마음을 억지로 외면하면서까지 이걸 뽑아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설정입니다.

어린 생명을 모름지기 깊이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거니와
하물며 다 자라고 나면 용이 틀어오르듯 되겠거늘
어찌서 저 중은 눈에 띄는 대로 모두 뽑아버려
그 싹을 아주 말려서 멸종시키려 든단 말인가.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스님이 소나무를 뽑는 모습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면요. 이게 잡초를 뽑는 농부, 뭐 잡목을 베어서 길을 닦는 아전, 독사를 잡는 아이, 더벅머리 귀신 이런 등등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의 역설적인 성격,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할 짓이 못되고 좀 괴이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마치 부지런한 농부가 호미 팽이 들고 밭에 나가
가라지 잡초를 뽑아서 부지런히 농사 짓듯이
또 마치 향정(鄕亭)의 아전이 관도(官道)를 닦느라
잡목과 가시덤불 베서 사람들 다니게 하듯이
또 마치 손숙오가 어린 시절 음덕을 쌓느라
길에서 독사를 만나자 때려 잡아 해악을 제거하듯이
또 마치 더벅머리 귀신이 붉은 머리털 너풀너풀
나무 구천 그루 잡아 뽑으며 시끌시끌 떠들어대듯이.

특히 귀신에 대한 비유는 참 이상한 기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중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의 육성으로 수탈의 실상을 폭로하는 것인데요. 해당 장면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중을 불러와서 나무 뽑는 연유를 물어보니
중은 울먹이며 말 못하고 눈물 뚝뚝 흘리네.

하면서 쪽 사연이 얘기됩니다.

“이 산에서 소나무 기르느라 전부터 고생스러웠으니 (하략)”

등등등등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간단하게 눈으로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상황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벌목을 하게 해서 항구로 모두 운반했는데
말인즉 왜구를 대비하여 병선을 만든다 했으되
조각배 한 척도 당초에 만들지 않았으니

속절없이 우리 산만 옛 모습 잃고 벌거숭이 되었지요.
이 잔술 지금은 어리지만 그대로 두면 크게 자랄 터라
화근을 뽑아버리는 일 어찌 게을리하오리까.
이제부터 소나무 뽑아내기 소나무 심듯 할 일이니, (하락)”

이 표현 너무나 역설적이죠. 소나무 뽑기를 심듯이 하겠다는 겁니다.

“(상략) 잡목이나 남겨두면 거울에 화목으로 쓰겠지요.
오늘 아침 공문이 내려와 비자(櫃子)를 급히 바치라 하니
장차 이 나무도 뽑아버리고 절간 문을 봉해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절간의 스님까지도 이런 관아의 착취에 예외가 아니고 나무를 뽑아내야 되는 역설에 이르는 것을 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살펴볼 폐단은 검독의 폐단입니다. 이게 또 참 잔인한 건데요. 이 검독은 조세 독촉을 빌미로 수탈을 자행하는 겁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세금으로 내는 쌀을 거두는 일에 아전과 군교를 끌어들여서 민가를 수색해서 굶어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검독이라고 했다는 건데요. 검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백성에게는 승냥이와 범 같은 것이다 너무나 사납고 공포스럽다는 겁니다. 이 검독의 폐단을 고발한 시가 3편이 있는데요. 「용산 마을의 아전」이 있고 「파지방의 아전」, 「해남 고을의 아전」 다 수탈의 주체였던 아전들을 내세웠는데요. 「용산 마을의 아전」은 검독이 세금을 못 낸 집의 소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데요. 옛날에 소는 이게 농업 생산을 위한 기본이고요. 소 없이는 이게 농사짓기도 힘들고 소가 제일 큰 자산입니다. 농민에게는. 그다음 「파지방의 아전」은 검독이 세금을 못 낸 농민을 아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남 고을의 아전」은 검독으로 인해서 이웃 마을이 아예 피폐해지는 상황을 이야기한 시입니다.

자, 이 중에 「용산 마을의 아전」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전들이 용산마을 들이쳐
소를 빼앗아 관아로 끌고 가네.

벌써부터 이 소를 빼앗는 장면을 그냥 정면으로 클로즈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 몰고 멀리멀리 사라지는 걸
집집이 문밖에 서서 멍하니 바라만 보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도 못 합니다. 저항하면 또 매를 맞거나 피해를 받거나 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 상황을 보여주는 거 이것도 너무나 비참한 거죠. 자 그다음을 보면

사또 노여움 풀어드리기 급급하니
백성의 아픔이야 아랑곳하랴.

이 아전은 백성을 착취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위에 있는 고을 수령에게 아무만 잘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수탈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뺏긴 소 바라보며 눈물 글썽글썽
눈물이 줄줄 적삼 치마 다 적시네.
(하략)

어떻겠습니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게. 분하긴 하지만 저항도 못 하고 억울하고 소 뺏기고 나면 살길이 막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눈물이 펄펄 나는 거겠죠. 백성의, 피해 당사자의 이런 눈물 글썽글썽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참 감독의 폐단을 아주 있는 그대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지방의 아전」의 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전들이 과지방에 들이쳐
군대 점호하듯 고향쳐 부르는 소리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폭력적이고 단호하고 이 명령을 어기면 죽을 것 같고 공포스럽고 이런 걸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역질로 죽은 귀신에 굶어 죽은 시체들
마을에 장정이라곤 씨가 말랐구나.

완전히 마을이 초토화된 겁니다.

호령하며 과부 고아를 엮어매고

과부, 고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닦달하게 되는 겁니다.

채찍질 어서 가라 닦달해서
개 닦처럼 욱질하고 몰아대니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시키는 거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런 아전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파지방의 아전」을 좀 더 보시면요. 이 부분도 참 파격적인데요.

그 중에 가난한 선비 하나

이 가난한 선비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삐쩍 여위어 걸음도 비틀비틀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늘에 대고 억울하외다
부르짖는 그 원성 메아리치네.

자, 그다음,

가슴에 맺힌 사연 풀지 못하고
눈물만 비 오듯 쏟아지는데

자, 지금 중요한 게 아전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아전이 선비 보고 뺏세다고 화를 내면서 욕을 보인다는 겁니다.

욕을 보여 사람들을 겁주는데

어떻게 하나면,

높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아
머리카락 나무뿌리에 닿는구나.

일종의 고문 행위 같은 걸 한 겁니다, 함부로. 나뭇가지에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괴롭힌

거죠. 이런 정도까지 폭력을 자행했고 이게 이 시에서 정말 이 시대의 아전이 이렇게까지 했구나 하는 걸 아주 생생하게 지금 이 시대에까지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남 고을의 아전」을 한번 보면요. 「해남 고을의 아전」, 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웃 고을에서 나그네가 오는 건데요.

나그네 한 사람 해남땅에서 오는데
어휴 무서워라 하고
혈떡이는 숨 한동안 가누지 못하며
두려움에 질린 기색 아직도 역력하네.

이것도 굉장히 극적인 장면인데 웬 사람이 막 외지에서 오는데 막 공포에 막 사로잡혀 있고 막 겁에 질려 있다는 겁니다.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선이 잡히는 겁니다.

무서운 승냥이를 만난 게 아니면
아마도 흉악한 놈을 만난 것이렷다.

무서운 승냥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한테 시달렸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조세 독촉하러 아전 놈들이 마을로 나와
이리저리 싸다니며 때려부숩니다.
(중략)
나 이제 사나운 호랑이 피해 왔거니
가련한 이 신세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갈꼬!”

참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지를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을이 초토화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실이 지금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5. 여성의 처지에 대한 증언

이렇게 해서 기층민, 민의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들을 여러 편 살펴봤고요.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여성의 처지에 대한 증언을 정약용이 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의 시 중에 「소경에게 시집간 여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여유당전서』에는 누락되어 있고 나중에 발견된 시인데요. 굉장한 문제작입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죠. 소경에게 시집가다니 자발적으로 갔을 것 같지 않죠. 거의 팔려가다시피 해서 시집 간 사람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이 한 여성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린 시고 굉장히 편폭이 깊니다. 그래서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요약적으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18살 소녀, 한창 나이죠. 이 소녀가 49살, 그 당시로서는 나이도 많고 지금 보면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거의 30살 차이가 나는데요. 49살 소경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소경에게 매수가 된 중매쟁이가 나옵니다. 이 중매쟁이가 소경에게 매수가 돼가지고 소녀 아버지를 감언이설로 구워삶습니다. 딸만 시집 보내면 재산도 얻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감언이설에 넘어간 아버지는 또 딸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혼인 당일이 됐는데 소녀의 어머니가 신랑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신랑이 나오는데 뭐 이제 나중에 묘사 보시면 실감하시겠지만 이게 신랑이라니 충격을 받지만은 어머니도 어찌겠습니까? 이미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 어쩔거나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 남편을 잘 모시거라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딸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제 여인이 결혼을 했죠. 하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리가 없죠. 일단 남편이 학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소경도 이게 처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혼을 한 적이 있고 전처 사이에서 이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새엄마죠 여인이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새엄마를 온갖 구박을 해서 못살게 굶니다. 그래서 이 소경의 학대와 전처 소생 아이들의 구박에 이 여인이 견디지를 못해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여인으로서 저항을 하는 것이죠. 가출을 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실은 갈 데가 없는데 절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리 깎고 승려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남편 되는 소경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여자를 관아로 가서 고소를 해버립니다. “나랑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유지 안 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을 수령이 판결을 내립니다. “당연히 가정을 꾸려야지. 너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유지하도록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여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여인을 다시 가정의 울타리로 집어넣는, 강제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이런 스토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 시는 구성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보시면요. 이제까지 계속 반복되는 특징인데 극적인 전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 여인이 강제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 고을 원님의 판결로 이 여인이 다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에 복귀한 다음에 다시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다시 잡아다가 끌고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처참하고도 충격적이고 왜 이런 일이 어째서 이런 일이 이런 궁금증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어떤 여자 꽃다운 얼굴
어디로 가는지 갈림길에서 울고 섰네.

이것도 극명한 대비죠. 여성은 참 이렇게 꽃다워 보이는데 왜 길거리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울고 있나? 그다음에 중락을 해보구요.

종놈 들이 뒤따르며
매를 들고 으르렁
재촉하여 관가로 끌고 가는데
걸음걸음 슬픔이요 한숨이더라.

여인이 노비에게 끌려가는 거네요. 노비는 매를 들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다음에 끌려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비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슬픔이다, 걸음걸음 하나가 한숨이다, 여기에서 벌써 이 뭔가 끌려가는 사람의 어떤 무거운 마음, 슬픈 마음, 비참한 마음 어떻게든 끌려가고 싶지 않은 저항심 등등, 하지만 강제로 억지로 끌려가게 되는 이 폭력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암시가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이 작품은 또 하나의 특징이 인물 형상이 대립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소경, 매과를 매수해가지고 젊은 여자를 아내로 얻은 남편인 소경과 결혼한 여성이 대비가 되고, 이 여성을 결혼시킨 남편, 아버지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도 대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대립이 되면서 어떤 갈등이 그려지는지 이런 걸 보는 게 또 중요한데요. 젊은 여성과 늙은 소경의 대비, 재물에 유혹된 아버지와 딸의 처지를 서러워하는 어머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성의 저항적이고 주체적인 모습, 이거는 도망가는 딸이죠. 가출하는 딸. 그리고 순응하고 체념하는 모습 어머니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대비가 됩니다.

하나 보시면요. 결혼식 때 아까 충격적이라고 했는데요. 부모의 상반된 태도가 보이는 게 인상적이네요. 보면 이렇습니다.

신랑 행차 동구로 들어오는데
구경꾼들 놀라 술렁이네.

신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구경꾼의 반응부터 먼저 보이면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건데요.

신랑이라 생긴 모습 얼굴빛이 솟덩이요
험상궂기 어디다 견줄쏜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생략되고요.

어머니 눈물을 펴펴 쏟으며
“아이구 아이구 내 새끼!
무슨 죄로 이렇다냐, 무슨 재앙으로 이렇다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영감이 와서, 이 남편이죠.

영감이 와서 이치를 들어 타이른다.
“이미 그르친 일 성급히 굴지 마오.
어쨌거나 초례라도 치러서
모양이 꼴사납게 하지 말아야지. (하략)”

이렇게 하면서 남편은 자기 아내와는 달리 자기 딸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거나 애처롭게 여기거나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하기로 했으니 시키자, 나는 해서 결혼시키는 대신에 좀 재산이나 좀 생기고 하면 더 좋다, 이런 게 내심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딸을 보내는 건데 아버지와 어머니

가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다. 가부장제의 어떤 폭력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가부장제의 아버지, 가부장제의 같이 피해자인 어머니와 딸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딸과 어머니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느 부분이나면 딸이 시집간 다음에 어머니를 찾아와요. 나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엄마 하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주고받는 부분인데 어떤 여성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여성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 겁니다. 이제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상략) 저는 이제 마음을 정했으니
다시는 여자의 도리 돌보지 않으렵니다.

선언을 하는 거죠. 나 가정생활 같은 거 거부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건데요.

진작부터 깊은 물에 몸을 던지자 했으나
성질이 모질지 못해 어려워요.

이것도 보면 참 찡합니다. 처음에 여성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니까 자살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자살도 쉽습니까? 어렵죠. 겁나죠. 자살은 포기하고요.

들으니 보림사 북쪽 계곡에
조용한 승방이 있습니다.

드디어 도피처를 생각해낸 거예요.

저는 그리 가기로 작정했으니
제 발길 막으려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여성은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도망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를 보러 온 거예요. 가부장제 피해자인 여성, 두 여성, 어머니와 딸의 어떤 마지막 만남, 벌써 가슴이 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미는 목메어 울며 말하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냐? (하략)”

이렇게 하면서 쪽 반응을 보였어요. 말립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딸은 도망을 가는 거죠. 이 여성이 가장 그 당시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저항인데요. 도망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령이 사자의 고함처럼 울리는데
한마딘들 제 뜻을 아될 수 있었겠소.
시집이라고 다시 돌아가 방 안에 들어서니
소경의 기세 자못 펄펄하더라오.
우리 아이 한밤중에 또 몰래 빠져나와
도망질을 쳐서 험준한 산마루 넘고 넘어
다다른 곳이 개천사라는 절이라.
이 절에서 십여 일 묵었을 제
소경 수소문하여 찾아냈더라오.
우리 아이 단지 속에 자라처럼 꼼짝없이
이제 다시 붙잡혀 관가로 끌려가는 길
저 아이 죽일지 살릴지 모를 일이라오.

이 작품의 시작이 여인이 끌려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 여인이 도망갔다가 잡혀 와서 가정에 돌아갔다가 다시 도망갔다가 잡힌 건데요. 이 자기 딸의 처지를 어머니가 막 얘기하는 것을 시적 화자가 재연을 하는 겁니다. 시적 화자가 재연을 한다기보다는 증언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그 부분인데요. 보시면 딸은 도망에 도망을 거듭하고 순응을 할 생각, 의지가 없습니다. 일종의 저항심 같은 게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그 저항은 험준한 산을 막 넘고 넘는 이런 데서도 뭔가 의지가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여인은 결국은 도망에 실패하고 잡혔죠. 그 가정이라는 굴레에 갇혀야 되는 모습을 단지 속의 자라, 꼼짝없이 갇힌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두 번째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관아에 끌려가면 죽을지 살지에 대한 걱정을 어머니 입장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성의 어떤 처절한 비극적인 처지가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그치지 않는 또 딸의 모습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6. 더 생각해볼 문제

이렇게 해서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를 몇 작품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좀 더 고민하면 좋을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정약용의 현실비판시가 그의 실학사상과 어떤 연관을 맺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수업 중에는 정약용의 현실인식을 드러내는 글도 살펴보고 목민심서에서 검독의 폐단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실학사상과의 연관은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현실비판시, 이 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면 특히 정서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이성적인 사고에 비해서는 좀 객관성, 합리성, 과학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인 반응은 공감을 할 수 있지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시 그것을 넘어서는 좀 객관적인 인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타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력의 작용 없이는 안 되고 공감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없이는 타인의 고통의 실제 상태를 좀 근접해서 생각하기 어려워요. 사회 현실의 실상에 부합하는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공감의 능력, 상상력, 정서적인 능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시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인식의 어떤 중요성 감정이 결합된 사회 인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실비판시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 좀 기록 수단이 다른, 즉 현실을 노래 형식으로 고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한글로 쓴 것이 다른 것과의 비교인데요. 이 현실비판시는 한문으로 지어진 한문시인데요. 한시인데 그것과 달리 19세기 가면 또 민의 현실을 고발하고 이 통치자에 대한 백성의 반감을 드러내고 하는 가사 작품들이 있어요. 현실비판가사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연구자들이 지금 세분화되면서 현실비판가사를 연구하는 분은 주로 가사·시가 연구자, 현실비판시 연구하는 분들은 한문학 연구자, 애초에 따로따로 해왔는데 대체로 보면 이 두 가지가 통하니까 현실비판가사하고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를 비교하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 정약용의 또 성취와 한계를 어떤 식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세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 정약용의 문학과 더

나아가서는 문학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오늘 강의에서는 ‘체제 모순에 대한 시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문학, 경학, 경제학, 과학기술 및 의학, 지리 등 많은 분야에 걸쳐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현실비판시’란 민의 생활 현실과 체제 모순 등을 포착한 현실주의적 시를 말합니다. 조선시대의 현실비판시는 동아시아적으로 볼 때는 『시경』부터 이어지는 시적 현실반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사상적으로는 유교적 애민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역사적으로는 조선왕조의 체제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여러 작가들이 문제의식이 뚜렷하고 문학성이 높은 현실비판시를 남겼습니다.

이어 정약용의 문예관과 현실인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약용의 문예관에서 현실비판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으로는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지향, 비판 의식, 문학의 현실반영에 대한 중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강조, 윤리적 자기 정립의 중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실인식 면에서는 도탄에 빠진 백성의 처지를 매우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시급하게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어 구체적인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약용은 백성에 대한 수탈을 고발한 작품을 여러 편 썼습니다. 「애절양」은 군포의 폐단을 고발한 작품으로, 한 백성이 자신의 갓난아이에게까지 군포를 거두는 일을 겪고 스스로 양경을 자른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뽑아내는 중」은 금송의 폐단을 고발한 작품으로, 착취를 피하기 위해 소나무를 뽑아내는 승려들을 소재로 하여 수탈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용산 마을의 아전」, 「과지방의 아전」, 「해남 고을의 아전」은 검독의 폐단을 고발한 작품으로, 세금을 못 낸 집의 소를 빼앗거나 백성을 끌어가기도 하고 온 마을이 황폐해지기까지 하는 실태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약용은 시를 통해 여성의 처지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소경에게 시집간 여자」는 나이든 소경에게 시집간 젊은 여성이 가출했다가 강제로 돌려보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극적인 전개와 대립되는 인물 형상을 통해 여성의 저항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와 비극적인 처지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조선시대의 현실비판시에는 유교적 애민사상이 담겨 있다. (O/X)

정답: O

2. 조선 전기 현실비판시의 예로는 김시습의 「어느 농부 이야기」와 윤현의 「영남탄」을 들 수 있다. (O/X)

정답: X

3. 정약용은 대대적인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O/X)

정답: O

4. 「애절양」에서 한 백성이 자기 양경을 자르는 것과 「소나무를 뽑아내는 중」에서 승려들이 소나무를 뽑는 것은 둘 다 화근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이다. (O/X)

정답: O

5. 「소경에게 시집간 여자」의 결말은 여인이 가출한 후에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되는 것이다. (O/X)

정답: X

선택형(5분)

1. 다음 중 정약용의 군포의 폐단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약용은 시를 통해 황구침정·백골징포와 같은 군포의 폐단을 비판한다.
- ② 「애절양」은 스스로 자기 양경을 자른 사내의 목소리로 서술되어 있다.
- ③ 「애절양」의 마지막 부분에는 정약용의 현실인식이 드러나 있다.

정답: ②

2. 다음 중 정약용의 금송의 폐단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나무를 뽑아내는 중」은 어린 소나무를 뽑아내는 백련사 승려들을 강하게 비판한 작품이다.
- ② 「소나무를 뽑아내는 중」에서는 승려의 모습을 더벅머리 귀신 등으로 비유하여 상황의 역설적 성격과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소나무를 뽑아내는 중」에서는 승려의 하소연을 통해 피해 당사자의 육성으로 수탈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정답: ①

3. 다음 중 정약용의 현실비판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부분의 작품들은 극적인 수법을 통해 등장인물의 비극적 처지를 부각한다.
- ② 「소경에게 시집간 여자」에서, 젊은 여성이 시가에서 도망치는 장면에는 저항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과지방의 아전」에서는 세금을 못 낸 집의 소를 빼앗는 검독을 비판하고 있다.

정답: ③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목민심서』에서는 ○○이 가난한 백성에게는 승냥이와 범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였다.

정답: 검독

2. 『○○○○○』는 정약용의 시문을 집대성한 문집이다.

정답: 여유당전서

3. 『○○ ○○의 아전』은 검독으로 인해 이웃 고을이 피폐해진 상황을 다루고 있다.

정답: 해남 고을

나. 토의(45분)

1.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는 그의 실학 사상과 어떤 연관을 맺는가.

(정약용은 조선후기 실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의 현실비판시를 그의 실학 사상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의 실학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정약용의 글들도 이미 번역 소개되어 있으므로, 정약용의 글과 그에 대한 연구를 확인해 가며 정약용의 현실비판시와 실학 사상의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면 될 것이다. 다만 정약용의 실학 사상과 현실비판시의 관련성을 너무 단선적으로 파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현실비판시에 실학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선에서 멈추지 말고, 실학 사상이 현실비판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역으로 현실비판시에서는 확인되지만 실학 사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일견 ‘감정’ 내지 ‘정서적인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타인의 고통에 대한 상상력과 공감 능력 없이는 사회현실의 실상에 부합하는 비판적 사고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런 견지에서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는 어떤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가.

(정약용의 실학 사상은 현실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제도적 대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감성의 차원을 담지는 못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는 실학 사상의 감성적인 기반을 확인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흔히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야 객관적인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대한 공감 없이 실상에 맞는 객관적 인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감정과 인식의 상호관계에 착안하여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약용의 현실비판시에서 극적인 장면 제시를 하거나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수렴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극대화하는 문학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3. 19세기 현실비판가사와 비교하면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가.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한글로 기록된 국문시가 중에도 현실비판적인 성격을 갖는 것들이 있다. 이를 ‘현실비판가사’라고 한다. ‘현실비판가사’ 쪽이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기층민의 생활체험을 수렴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작품의 창작과 유통 및 형성배경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한시와 국문시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 과제(45분)

이 강의에서 살펴본 작품을 중심으로, 정약용의 문예관과 현실인식이 그의 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간단히 서술해 봅시다.

(정약용은 문학이 기층민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사회 공동체를 더 진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유형의 문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런 문예관은 현실 참여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다소 경직된 면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다. 정약용의 현실인식도 마찬가지로 다소 복합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약용은 조선후기 사회의 각종 병폐를 분석하고 그 구체적인 대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지만 그의 사상은 보수적인 면 또한 갖고 있다. 이렇듯 정약용의 문예관과 현실인식을 단순화하지 말고 그 복합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한 토대 위에 현실비판시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6강〉

고통의 공유와 여성의 연대 「덴동어미화전가」

학습 목표

1. 「덴동어미화전가」의 장르적 특징과 형식적 특징을 파악한다.
2. 「덴동어미화전가」를 읽으면서, 주인공의 인생유전이 어떻게 서술되며 여러 인물들의 삶이 어떻게 작품 내로 수렴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3. 「덴동어미화전가」를 통해 고통의 인문학적 의미와 고통을 공유한 자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성찰한다.

강의 핵심 요약

‘고통의 공유와 여성의 연대’라는 제목으로 작자 미상의 가사 「덴동어미화전가」를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장르상으로 화전가이면서 서민가사에 속한다. 「덴동어미화전가」는 화전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덴동어미’라는 여성의 인생유전을 통해 조선후기 서민의 생활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삶의 고통과 인간적 유대의 문제를 감동적으로 다루고 있다. 「덴동어미화전가」의 형식적 특징으로는 액자식 구성과 대화체의 폭넓은 도입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화전놀이 이야기 속에 덴동어미의 일생 이야기가 들어 있고 덴동어미의 이야기 속에 또 황도령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 속의 액자’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로써 하층민의 생활체험이 당사자의 목소리로 작품 내에 수렴된다. 또한 이 작품에는 대화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따라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된다. 이는 조선후기 ‘가사의 서사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덴동어미화전가」는 봄날의 화전놀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성들이 모여 즐기고 있는 자리에서 어느 청춘과부만 남편을 잃은 서러움을 토로하며 슬퍼한다. 이에 덴동어미는 자신의 인생유전

을 이야기함으로써 청춘과부를 위로하려고 한다. 덴동어미는 경북 순흥의 아전 집안 딸이었으나 거듭되는 불운으로 평생 고생한 인물이다. 네 번 결혼했지만 네 명의 남편을 모두 잃었고 어린 아들은 화재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인생유전을 들려준 뒤에 덴동어미는, 사람은 운명대로 살기 마련이니 팔자를 고치려 들지 말고 수절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운명론적 사고는 체념적이고 수동적인 부정적 함의를 가질 수도 있으나 고난의 삶 속의 깨달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덴동어미는 운명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통해 삶의 회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현재의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 말에 청춘과부는 크게 깨달아 근심과 슬픔을 모두 털어버린다. 그리고 다 함께 노래 부르며 자기 긍정과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한 채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이처럼 「덴동어미화전가」는 불행과 고통을 통해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도달한 한 여성의 모습을 증언해주며, 고통의 공유를 통한 여성의 연대를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 강의 내용 전문 ◆

학습 목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덴동어미화전기」라는 시가 작품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여성이 자신의 고통을 다른 여성들과 공유하면서 이 여성 간의 연대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증언해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 고전문학사에서 주목을 해왔고 시가 작품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일단 강의 전체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작품의 장르적인 특징 전반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은 이 작품이 형식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을 작품을 실제로 점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작품이 곧 설명드리겠지만 화전기 계열이어서 이 화전놀이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에는 이 작품의 중요한 주제의식과 관련된 거를 두 파트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 주인공인 덴동어미 자신의 인생유전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덴동어미가 조우한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되거나 이 사람들의 인물 양상이 어떻게 되거나 하는 것들 이런 걸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덴동어미라는 주인공이 인생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얻게 된 어떤 인생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작품 후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작품 검토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는 이런 공부를 토대로 더 생각해 볼 게 뭔가 이런 걸 함께 고민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

1. 「덴동어미화전기」의 장르적 특징
2. 「덴동어미화전기」의 형식적 특징
3. 화전놀이의 준비
4. 덴동어미의 인생유전
5. 고통을 통과한 뒤의 달관
6. 더 생각해볼 문제
7.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1. 「텐동어미화전가」의 장르적 특징

그럼 지금부터 방금 설명드린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장르적인 특징인데요. 「텐동어미화전가」는 제목에서 드러나다시피 화전가 계열입니다. 그래서 텐동어미는 이 주인공 여성 이름이고요. 텐동어미라고 하는 명명이 생기게 된 유래는 나중에 작품을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이 화전가는 주로 사대부 집안 여성이 창작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텐동어미화전가」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막연하게 아마 여성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정말 여성의 꾀진한 인생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여성이 지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다가 최근에 새로운 연구에서 이 작품이 남성 작가가 지었을 수 있다, 이런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전가는 봄날의 화전놀이를 배경으로 하는 놀이입니다. 화전놀이는 꽃피는 봄, 주로 음력 3월이 되는데요. 교외나 산에 가서 화전, 꽃으로 부쳐 먹는 전이죠. 화전을 지져 먹으면서 여성들이 노래와 춤을 즐기고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노는 것, 이게 화전놀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텐동어미화전가」는 경상북도 순흥 비봉산에서의 화전놀이를 배경으로 합니다. 정리하면 조선시대의 여성이 이 봄날 화전놀이에서 느끼는 즐거움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느낀 애환, 이런 것들을 노래한 것이 화전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화전가는 현재는 조선 후기에 널리 창작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내외법, 즉 여성은 주로 안쪽에 있고 바깥출입을 삼가야 된다는 것이고 대외 활동을 주로 남성들이 많이 하게 되는 이런 내외법에 따라서 여성이 주로 집안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집 안에만 있도록 계속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1년에 하루 한창 봄 날씨가 좋을 때 집 밖에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화전놀이인데요. 따라서 화전놀이는 여성이 내외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감을 느끼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 집에 있었던 여성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거죠. 함께 모이는 계기가 된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기 때문에 함께 즐기기도 하지만 또 서로 자신의 속내를 터놓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여성의 모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 형성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싹트는 것이죠. 이 모임을 통해서 함께 놀고 함께 즐기고 삶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공감하고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이 이 화전놀이 그리고 화전놀이를 배경으로 하는 화전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오늘 공부할 「텐동어미화전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하나 「텐동어미화전가」의 장르적 특징과 관련해서 염두에 둘 것은 이 가사가 서민 가사의 하나라는 겁니다. 서민 가사는 서민의 생활 현실을 반영한 가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적으로는 서민의식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텐동어미화전가」는 첫 번째는 화전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두 번째 텐동어미라는 여성의 인생 유전을 통해서 조선 후기 서민의 생활 현실을 아주 생

생하게 반영하고, 세 번째 이런 걸 통해서 삶의 고통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의 문제를 아주 감동적으로 다룬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인공 덴동어미는 하층민이자 여성이라는 이중의 소수성을 갖는 존재이고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덴동어미화전가」의 형식적 특징

그럼 이어서 「덴동어미화전가」의 형식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굉장히 길이가 길고 서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작품 구성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서사 단락으로 한번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은 여성들이 화전놀이를 가는 거, 이거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화전가처럼 보이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들이 산에 올라서 막 재미나게 노는 것으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그중에 한 청춘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때 자신의 서러운 사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 놀 기분이 아니니 집에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데 이 여성에게 덴동어미가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청춘과부를 만류하는,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춘과부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덴동어미가 자신의 삶의 내력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청춘과부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 기쁜 마음 또 봄 특유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이 감정을 봄 춘자 노래라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일종의 돌림 노래 비슷한 건데요 요즘으로 치면. 또 이 노래를 이어가지고 또 다른 여성이 꽃 화자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꽃 화자로 계속 이어지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이 노래들로 화전 이 당시 화전놀이의 아주 신명나는 분위기가 재현이 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이 같이 있었던 여성들이 화전놀이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에 대한 서술을 함으로써 이 작품이 완료가 됩니다.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좀 더 그럼 구체적인 형식적인 특징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방금 덴동어미가 한 청춘과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는 설정에서 알 수 있듯이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덴동어미가 자신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사 형식으로 포괄하면서 생기게 된 형식적인 특징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덴동어미화전가」는 덴동어미를 축으로 해서 덴동어미가 조우한 또 다른 하층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액자 속의 액자 구성이 또 생기게 됩니다. 덴동어미 이야기 속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황도령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황도령 이야기가 또 적지 않은 분량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액자 속의 액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형식의 형식적인 특징은 하층민의 생활 체험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증언을 하고 그 당사자의 목소리가 작품 내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액자식 구성과 표리를 이루는 중요한 특징이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작품은 대화체가 굉장히 길고 아주 확장된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가사 작품과는 좀 구별되는 점인데요. 대화 자체가 들어있다는 것이 차별된 특징이 아니라 대화가 굉장히 확장된 형태로 들어 있다는 점이 차별적인 특징입니다. 이거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 등장인물들 간의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뭔가 주제가 전달되거나 서민들의 생활 감각이 반영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게 된 겁니다.

이상 이 「텐동어미화전가」가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 그리고 대화체가 굉장히 발전된 형태로 들어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시가의 서사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시가가 서사화된다는 것은 시가 장르가 현실과의 접촉면이 굉장히 넓어진 것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현실과의 접촉면이 넓어지면서 그에 상응하게 형식적으로도 확장이 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화전놀이의 준비

자, 이렇게 해서 「텐동어미화전가」의 형식적인 특징까지를 개관해 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한번 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가세 가세 화전을 가세
꽃 지기 전에 화전 가세.
이때가 어느 땐가
때마다 삼월이라
봄의 산이 은택 퍼니
따뜻하여 때가 맞고
꽃바람이 화공(畫工) 되어
만화방창(萬化方暢) 단청 같네.
이런 때를 잃지 말고
화전놀이 하여 보세.
문밖출입 안 하다가
소풍도 하려니와

우리 비록 여자라도
흥취 있게 놀아 보세.
어떤 부인은 마음이 커서
가루 한 말 퍼 내놓고
어떤 부인은 마음이 작아
가루 반 되 떠 내주고
그령저령 주워 모으니
가루가 닷 말 가웃이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일단 방금 읽은 부분에서는 화전놀이에 대한 기대와 흥분감, 뭔가 들떠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때를 놓칠 수 없다는 거, 여성이 계속 문밖출입을 안 하다가 이때를 놓치지 말고 한번 잘 놀아보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아주 흥취 있게 이야기가 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화전을 부치는 데 필요한 찹쌀가루 이런 것들을 장만하는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노래가 되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찹쌀가루는 이 작품에서는 가루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생략된 부분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침개 부쳐 먹으려면 기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참기름이니 들기름이니 그리고 부침개에 담아야 담는 데 쓸 그릇, 이런 것들을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가하면요. 또 생략된 부분에서는 화전놀이 당일 아침에 여성들이 몸단장하는 모습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정말 놀이를 하는 당사자들이 이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설레고 또 즐거워하는지, 들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부가적으로는 화전놀이를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구나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 덴동어미의 인생유전

자, 이렇게 해서 화전놀이 준비와 관련된 부분을 봤고요. 그다음에 좀 더 본격적인 작품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전놀이를 한창 하는데 한 청춘과부가 자신의 서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놀 기분 아니다 집에 가고 싶더라고 얘기하니까 덴동어미가 만류하면서 자신의 인생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일단 이게 내용이 다 기니까 일단 간단한 요약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작품을 살펴보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화전을 부치기 전에 꽃을 따고요, 여성들이. 그래서 화전을 부쳐 먹는데 이 꽃을 따는 부분도 사실은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글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노래 가사가 정감이 있습니다. 꽃을 만지고 향도 맡고 유희적이고 이런 것들이 잘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화전을 부쳐 먹은 뒤에 막 흥이 나니까는 막 다양한 방식으로 놓습니다. 글을 외는 사람도 있고요.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성의 놀이 현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또 묘사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춘과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두 즐거워하는데 청춘과부 혼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근심 대단해서 눈물 한숨 웬일이오?” 이렇게 물어요. 이 청춘과부가 자기는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어서 그런 서러움이 있다면서 자신의 서러움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깐 덴동어미가 만류하면서 자신의 인생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부분이 이런 설정이 일단 중요한 것이 덴동어미가 자신의 슬픔, 자신의 고통 이런 것들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여성에게 꺼내 보임으로써 역시나 고통 받고 있는 젊은 여성을 위로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일단 고통의 공유를 통한 연대의식이 엿보이는 건데요. 덴동어미는 이 순흥의 아전 집 딸 출신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그래서 16세 때 예천의 아전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즉 같은 아전 집안끼리의 혼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이거는 조선시대에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전으로서 비교적 유복한 집안이었고 또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행복한 미래가 약속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신혼도 꽤 행복했구요. 그런데 이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인과응보라기보다 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닥쳐서 내 삶을 뒤흔들어놓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덴동어미의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덴동어미가 결혼한 그다음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단옷날인데요. 단옷날 하면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때 아니겠습니까. 덴동어미의 남편이 그네를 타다가 그넷줄이 끊어져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거죠, 놀다가. 근데 덴동어미는 이때 아직 어린 여성이었거든요. 새색시여가지고 이 일부종사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집안에서 개가를 해라, 즉 재혼이죠, 요즘 말로 하면. 개가를 하라는 의견을 내고 덴동어미는 그 집안의 의사에 따릅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경북 상주에 사는 이방 집입니다. 이방 집안의 후취로 개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삶이 비교적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묘사되는 걸 보면 시댁이 아주 부자였고 시부모님도 너그러웠던 것으로 작품에서는 그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포로 인해서 이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아전이 관가의 공금이나 곡식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축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발각되지 않고 넘어가면 다행인 건데 이게 발각이 되면 이 공금을 메워내야 되거나 장물죄로 처벌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이 조선 후기 지방 관아에 아주 만연했던 비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이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덴동어미가 결혼했던 이방 집도 이포를 함으로써 재물을 늘렸던 것입

니다. 근데 하필이면 새로 부임한 고을 수령이 이 사실을 발각해서 이포를 다 물어내라고 요구하면서 이 집안사람들을 엄벌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었던 전답이며 가옥이며 하는 주요 재산들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시부모님 들은 다 세상을 뜨고요. 이 시대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혈혈단신으로 남은 덴동어미와 그 남편 이 부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비극 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덴동어미 부부가 고향을 떠나서 흘러 흘러 경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객줏집살이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이 작품 내에서 좀 길게 서술이 됩니다. 덴동어미가 경주에 이르러서 객줏집살이를 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큰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 하면 원래 덴동어미는 아전 집안 출신이어서 신분적으로는 중인 이었는데요. 중인이면 양반 사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선시대 신분 사회에서는 꽤 괜찮게 사는 축에 속합니다. 게다가 집도 부자였어요. 그런 중인 신분 부잣집 며느리였다가 이제는 완전히 쇠락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최하층 빈민으로 전락을 하게 된 겁니다. 즉 계층 이동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여성인 동시에 하층민이라고 하는 이중의 소수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경주의 객줏집살이로 돌아가면요. 경주로 흘러 덴동어미 부부가 갔는데요. 경주에 큰 객줏집 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객줏집의 안주인이 덴동어미에게 우리 집에 더부살이를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더부살이를 권했는데 덴동어미는 그걸 받아들일려고 하는데 덴동어미 남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왜냐, 아전이었다가 남의 집에 일종의 노비 비슷하게 사환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 굴욕감을 견디지 못한 건데요. 그래서 덴동어미 남편은 차라리 빌어먹다 죽을지언정 내가 그럴 수 없다라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은 과거의 신분의식을 버리지 못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덴동어미가 자기 남편을 막 달래면서 우리는 재기해야 된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희망을 자꾸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남편을 달래서 자기와 함께 객줏집 더부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달래줍니다. 그래서 덴동어미는 부엌일을 도맡아 하고요. 요즘으로 치면 식모살이죠. 남편도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합니다. 이에 대한 한번 서술을 좀 작품 내에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행주치마 떨쳐입고
부엌으로 들이달아
사발 대접 종지 접시
몇 죽 몇 개 헤아려서
날마다 정돈하며
숨씨 나게 잘도 한다.

텐동어미가 부엌일하는 서술입니다. 자, 그다음 보면요.

우리 서방님 거동 보소
돈 이백 냥 받아 놓고
일수 월수 체계 놓아
제 손으로 기록하여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석자수건 머리에 두르고
마죽쭈기 소죽쭈기

말먹이, 소먹이 이런 거를 장만하고 또 자기가 마련한 돈은 또 요즘으로 치면 재테크 같은 걸 해서 돈을 늘리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나 계속 볼까요.

마당 쓸기 봉당 쓸기

온갖 허드렛일을 한다는 겁니다.

상 들이기 상 내기와
오면가면 걸어치운다.
평생에도 아니 하던 일

자, 이게 좀 짠한 일이죠. 원래 이런 일 안 하고 살던 사람인데 집안이 몰락하고 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처절하게 살아야 되다니. 이런 남편에 대해서 텐동어미가 좀 연민의 감정을 갖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시 읽어보면요.

평생에도 아니 하던 일
눈치 보아 잘도 하네.
삼 년을 지내고 보니
만여금 돈 되었구나.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우리 내외 마음 좋아
다섯 해까지 갈 것 없어
돈 추심을 알뜰히 하여
내년에는 돌아가리.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꿈에 부풀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읽은 부분을 보면 부부가 온갖 허드렛일을 하고 품삯으로 일수니 월수니 돈놀이를 하고요.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행복하게 살겠다는 굳은 결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덴동어미 부부가 더부살이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가적으로 또 조선 후기 서민 생활이 어땠는지 또 그 단면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일을 하고 참 힘들게 살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추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고생 끝이고 잘하면 돈을 모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잖아요. 처음에 이런 일을 못 하겠다 하는 거에서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이게 또 이번에도 행복이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일이 사건이 전개가 되냐면요. 3~4년 갖은 고생을 한 끝에 한밑천 마련을 했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목전에 두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불행이 닥칩니다. 이번에 어떤 불행이냐면 콜레라가 창궐을 하게 되고요. 이 콜레라로 인해가지고 남편이 죽습니다. 옛날에 콜레라 하면 아주 큰 재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덴동어미는 살아남았는데요. 남편이 병에 걸려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고향으로 돌아갈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뜻밖의 불행으로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해서 덴동어미가 이렇게 서럽게 노래를 합니다.

애고애고 어쩔거나
가엾고도 불쌍하다.

가엾고 불쌍한 건 당연히 죽었으니까 가엾고 불쌍한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고생 안 하던 사람이 고생 고생해서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기대감에 뭔가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이 됐는데 그 순간에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더 가엾고 불쌍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방님아 서방님아
아주 벌떡 일어나게.

여기에서도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죠.

천유여리 타관 객지
다만 내외 와서 있다
나만 하나 이곳 두고
죽단말이 웬 말인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지.

좀 생략하고요.

애고애고 서방님아
살뜰히도 불쌍하다.

여기서도 고생만 죽어라 하다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남편에 대한 연민의 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줄을 짐작하면
천한 일을 아니하지.

이런 또 후회감이 들겠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남편 고생시키지 말걸. 하지만 사실은 텐동어미로선 다른 선택의 여지는 또 없었던 것이죠. 참 착잡한 상황입니다.

일정지심(一定之心) 먹은 마음
한 번 살아 보겠더니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도 야속하다.

정말 본인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본인 뜻밖에 이런 불행을 당하니 이 귀신의 탓인지 조물주의 탓인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전생에 무슨 죄로
이생에 이러한가.

너무나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금도 돈도 내사 싫어
서방님만 일어나게.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죽은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텐동어미가 쏟아붓는 뉘두리였습니다. 타향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은 남편에 대한 연민의 정이 아주 강하고요. 그와 동시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 이런 것들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텐동어미가 다시 이 남편을 콜레라로 잃고 나서요. 완전히 전락을 하게 돼서 홀로 떠돌게 됩니다. 이렇게 떠돌다가 울산에 이르게 되는데요. 유랑민 신세가 되는 거죠. 울산에 이르러서 노총각인 황도령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인상적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해당 부분을 읽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집 가고 저 집 가나
임자 없는 사람이라.
울산 읍내 황도령이
날더러 하는 말이

떠돌아다니다 황도령을 만나서 황도령이 텐동어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보시오 저 마누라
어찌 그리 설워하오?”

자, 그다음 텐동어미 답이 이렇습니다.

“하도나 신세 곤궁키로
이내 마음 비참하오.”

그러니까 황도령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곤궁한들
나처럼이나 곤궁할까.”

이렇게 해서 황도령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또 짝 길게 늘어놓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요. 이렇게 황도령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서러운 사람이 서러운 사람을 역시 알아보는 법이죠. 황도령이 텐동어미를 알아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거를 떠올리게 되냐면 이 작품의 앞부분 즉 청상과부가 막 서러워하니까 텐동어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사실 동일한 구도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인연을 간직한 뭔가 힘들게 사는 하층민 사이의 연대, 혹은 고통을 공유하는 사람끼리의 연대라고 하는 이 작품의 중요한 주제의식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황도령은 조선 후기 가난한 평민 남성의 아주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도령이 들려주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여기서 다 보기는 힘들어서 일단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요.

황도령은 어려서 부모를 잃었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다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고아가 돼서 갈 데가 없으니까 남의 집 머슴살이를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참깨 장사를 해서 한밑천을 한번 잡아볼까 해서 참깨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참깨를 실어 나르려고 했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가 됩니다. 그래서 황도령도 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죽을 뻔한 거거든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대형 참사를 겪은 것이죠. 그래서 먹고살 길이 없어서 떠돌이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도부, 도부장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곧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것을 뜻합니다. 일종의 뜨내기 신세가 된 것이죠. 정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부장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텐동어미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작품에서 황도령이 자신의 도부장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령저령 삼 삭 만에
왕래선이 건너와서
고향이라 돌아오니

지금 난파 되고 나서 겨우 살아 돌아온 거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돈 두 냥이 남았구나.
사기점에 찾아가서
두 냥어치 사기 지고

“촌촌가가” 마을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녔다는 뜻이에요.

촌촌가가 도부하며
밥일량은 빌어먹고
삼사 삭을 하고 나니
돈 열닷냥 되었건만
삼십 넘은 노총각이
장가 밀천 가망 없네.

이 옛날 사람 감각에서는 서른 넘어서 결혼을 못 했다고 하는 거는 인생의 아주 큰 실패고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애고 답답 내 팔자야
언제 벌어 장가갈꼬.
머슴살이 사오백 냥
창해일속 부쳐두고
두냥 밀천 다시 번들
언제 벌어 장가갈까.

머슴살이하면서 번 돈으로 장사를 해서 좀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거는 배가 난파돼서 다 날리고 또 내기 신세가 되면서 다시 내가 재기할 기회가 도대체 있긴 할까라고 하는, 뭔가 좀 희망 없는 자신의 고단한 삶을 이렇게 황도령이 텐동어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황도령이 자신의 즉 기구한 인생사를 들려주고 나서 텐동어미를 위로하고 그다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함께 삽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돼서 이 부분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도 살았는데
설워 마오 울지 마오.

이렇게 힘들게 나도 살았는데 당신도 힘내라, 가진 것 없는 사람끼리의 어떤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런 부분이고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마누라도 싫다 하되
내 설움만 못하오리.
여보시오 말씀 듣소
우리 사정 생각해 보면
삼십 넘은 노총각과
삼십 넘은 홀과부라.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부분이죠.

총각의 신세도 가련하고
마누라 신세도 가련하니
가련한 사람 서로 만나
같이 늙으면 어떠하오.

이 부분에 특히 감동적인 구절은 “가련한 사람 서로 만나 / 같이 늙으면 어떠하오”라는 구절입니다. 좀 더 읽으면서 다시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덴동어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가만히 숨숨 생각하니
먼저 얻은 두 낭군은

번듯한 사대부요
큰 부자의 살림살이
패가망신하였으니
흥진비래(興盡悲來) 그러한가.
저 총각의 말 들으니
육대독자 내려오다가
죽을 목숨 살았으니
고진감래(苦盡甘來) 할까 보다.

정반대죠. 흥진비래는 좋은 일이 다 끝나고 슬픔이 닥친다는 거고요. 고진감래는 반대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까지는 오히려 좋은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불행으로 끝났으니 이번엔 반대로 불행에서 시작해서 행복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비추는 겁니다.

마지못해 허락하고
손잡고서 내가 한 말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
허물없이 살아 보세.

이 말도 되게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앞에서 황도령이 했던 말 다시 한 번 짚어보면요. 황도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련한 사람 서로 만나 / 같이 늙으면 어떠하오.” 여기에 호응하는 덴동어미의 말은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 / 허물없이 살아보세.”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황도령과 덴동어미의 만남과 결합에서 주목이 되는 것은 역시 이 고통의 공유 그리고 고통의 공유를 통해서 형성되는 이 연대감, 서로에 대한 연민의 감정,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러운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이 유대와 사랑 이런 것들을 소박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덴동어미로서는 여성으로서 혼자 생계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조선시대에는. 이 생계와 생활을 위해서 남편이 필요한 면도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고려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고 고난을 함께하게 된다는 것, 뭔가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합하게 되고 서로의 연민의 마음을 통해서 서로를 더 아껴주고 힘을 합치면서 고난을 함께 헤쳐 나가자, 이런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함께 살게 되는데요. 정식 혼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건데 이 같이 산다고 해서 이게 행복이 바로 찾아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힘든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힘든 노동의 나날이 이어집니다. 함께 장사를 다니면서 밥을 빌어먹는데 한 그릇을 둘이서 나눠 먹고 이런 이야기들이 작품에서 쭉 서술이 되고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모으면 그걸 가지고 더 큰일을 하면 좋겠는데 돈이 모일 때쯤 되면 돌아가면서 몸이 아픕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선량한 마음을 갖고 성실히 살아간 죄밖에 없는데 참 삶이 팍팍하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그런 서민의 생활 감각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10년을 아주 고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또 큰 불행이 닥칩니다. 이번에는 주막에서 자는데 뜻밖의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사태로 이 주막에 깔려서 황도령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즉 시신조차도 수습을 하지 못하고 산사태에 깔려가지고 황도령이 죽어버린 건데요. 덴동어미는 마침 그때 같이 있지 않아서 목숨을 건진 거였습니다. 이 또한 우연에 의한 불행인 것이죠. 덴동어미가 보면 결혼을 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불행은 늘 우연의 계기로 생깁니다. 누구 탓도 아니고 정말 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불행이 우연히 찾아왔다는 것과 관련된 거는 나중에 덴동어미가 도달하게 된 깨달음과 연관이 되는데요. 일단 운명적인 것이다, 이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황도령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이 덴동어미가 굉장한 절망을 하게 되는데 이 절망을 토로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합니다.

망측하고 기막힌다
이런 팔자 또 있는가.
남해수에 죽을 목숨
동해수에 죽는구나.

이거는 황도령이 원래 난파당했다가 살아남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막에나 있었더라면
같이 따라서 죽을 것을.

이 부분도 참 처절한 것이죠. 같이 죽지 못하고 본인은 모질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남은 게 기쁘다기보다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기도 하고 절망적이고 아주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집니다.

먼저 괴질에 죽었더라면

이거는 전에 콜레라로 죽은 전남편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아니 볼걸.

내가 살아서 이런 일을 다 겪는구나 죽느니만 못한 불행한 삶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금방 죽을 걸 모르고서
천년만년 살자 하고
도부가 다 무엇인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고생이 다 헛수고같이 느껴지는 거죠.

도부 광주리 내던지고
하염없이 앉았으니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산목숨이 못 죽을레라.

이렇게 해서 “산목숨이 못 죽을레라.”라고 해서 자신이 살아남았지만 사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막의 주인댁이 위로를 하는데요. 위로하는 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덴동어미가 이렇게 됩니다.

아니 먹고 굶어 죽으려 하니
그 집 댁네가 강권하네.
죽지 말고 밥을 먹게
죽은들 시원할까.
죽으면 쓸데 있나
사는 것만 못하니라.
저승을 누가 가 봤는가.
이승만은 못하리라.
고생이라도 살고 보지
죽고 나면 말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든 살아라, 그래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속담으로 치면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생활 현실에 있는 기층민의 생활 감각이라고 할까요. 인생 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고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덴동어미가 주인댁의 말에 자기의 팔자를 운운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아 그런 말 말고
이내 말을 자세 듣게.

팔자 너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하면서 주인댁이 다시 더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설한풍” 추운바람이죠, 겨울바람.

설한풍에도 꽃 피던가
춘풍이 불어야 꽃이 피지.

자, 이 얘기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좀 더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때 되기 전에 꽃 피던가
때를 만나야 꽃이 피지
꽃 아니 필 때 꽃 피던가
봄바람만 들이 불면
누가 시켜서 꽃 피던가.
제가 절로 꽃이 필 때
누가 막아서 못 필런가.
고운 꽃이 피고 보면
귀한 열매 또 여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꽃이 필 때 되면 다 피고 열매를 맺을 때 되면 다 맺는데 너는 아직 지금 다만 꽃이 피지 않을 때일 뿐이고 꽃이 필 때가 되면 다 핀다, 지금 너도 삶이 좋아질 때가 되면 다 좋아지니 어떻게든 살아서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름 주인덕으로서는 하층민의 생활 경험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인생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피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인, 주막집 주인덕이 자신이 터득한 지혜로 텐동어미를 위로한 것이고요. 그래서 비록 고생스러운 삶일지라도 삶은 그 자체로 아주 소중하다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한 방금 살펴봤다시피 불행하기만 한 삶은 없다. 슬프기도 하면 기쁜 일도 오고 고통이 왔으면 또 행복하기도 하다. 지금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속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에서 중요한 거는 뭔가 이런 인생 철학이라고 할까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현학적으로 심오하게 뭔가 어떤 글을 배운 입장에서 지식인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문자 지식이 없는 하층 여성이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를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상대방에게 공감 어린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주목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층 여성 간의 인간적인 유대, 상대방이 뭔가 힘들어지면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함께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못사는 사람들끼리 인간적인 유대가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막집 주인덕이 텐동어미를 위로하면서 어떻게 하나면 텐동어미에게 뒷집에 있는 조서방을 소개해줍니다. 이 조 서방은 어떤 인물이나 하면 옛장수인데요. 아내를 잃고 마침 혼자 있었습니다. 너도 지금 텐동어미 당신도 혼자가 됐고 마침 이 뒷집에 흠아비가 된 조 서방이 있으니 같이 서로 힘을 합해서 살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텐동어미는 주막집 주인덕의

권유로 옛장수 조 서방을 만나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만나는 바로 그날 살림을 합쳐서 함께 시작을 합니다.

황도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층 남성과 결혼식 없이 그냥 동거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덴동어미는 본인이 불행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불행은 대체로 남편의 죽음 뜻밖의 죽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불행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불행을 겪을 때마다 개가를 거듭을 하게 됩니다. 수절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남편을 찾게 되는 건데요. 이런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덴동어미 자신이 나이가 든 상황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한번 생각을 이 시점에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덴동어미의 선택이 불가피한 점이 크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는 남성 위주의 사회죠. 경제 활동도 남성들이 할 수 있고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는 게 극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출입도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전가라고 하는 것도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깥출입도 쉽지 않은 이 여성이 혼자서 생계 해결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본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덴동어미가 계속 개가를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왜 수절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도덕적인 비난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덴동어미가 거듭 개가를 택한 것은 하층 여성의 절박한 생활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덴동어미가 옛장수 조 서방하고 살림을 합쳤는데요. 조 서방하고 함께 옛도 고고 만들고 여러 가지 과자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 옛장수는 정말 아주 하층민의 하층민의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살림이 약간 안정이 되는 기미가 보입니다. 열심히 산 거죠. 정말. 그러는 사이에 덴동어미는 이제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유한 아전 집안으로서 아전 집안 여성으로서 처음 결혼할 때 10대였는데 정말 세월이 흐르고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 50줄에 들었는데 드디어 큰 행복이 찾아오는지 드디어 처음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이름이 덴동이가 되는 건데요. 왜 이름이 덴동이가 됐는지는 나중에 드러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이 아들을 낳은 거는 엄청난 기쁨인 거죠. 첫 남편과 결혼 신혼 생활을 한 이후로 생각을 해보면 30여년만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좀 살 만하다 싶었는데 행복이 또 잠시입니다. 또 불행이 닥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안동에서 수동 별신굿이 벌어진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요. 이때 사람들이 막 몰려서 구경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몰리면 엿을 팔기에는 딱 좋은 타이밍이죠. 많이 팔아서 한 밀천 잡으려고 엿을 엄청 많이 고습니다. 엿을 만들려고 하면 불을 때야 되니까 불을 많이 때다가 잘못 돼가지고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 홀라당 타버리는데요. 이 갓난아이가 집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출하려고 덴동어미가 불길에 들어가서 아이를 구출해내는데 남편은 이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고 결국은 화재로 사망을 해버립니다. 참 이것도 비참한 것이죠. 이 화재가 나가지고 뭔가 절망에 빠지는 부분에 대한 묘사를 한번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온 집안에 불붙어서
화광이 충천하니
인사불성 정신없어
그 옛물을 다 퍼 엮고
안방으로 들이달아
아들 안고 나오다가

제일 시급한 게 아들을 구출해내는 것이죠. 정말 본인의 안전이고 뭐고 아무 생각 없이 직감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불더미에 얹어져서
뒹굴면서 나와 보니

아주 극적으로 나온 겁니다. 애를 구출해내고요.

영감은 간 곳 없고
불만 자꾸 타는구나.

혼비백산으로 아들을 구출하고 봤더니 내 남편 어디 갔지 아이고 저기 못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텨동어미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이 탄식이 너무나 슬픈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런 년의 팔자 있나
깜짝 사이에 영감 죽어
삼혼구백(三魂九魄)이 불꽃 되어
불티와 같이 동행하여

아주 펄펄 날아가고
귀한 아들도 불에 데어서
엉아엉아 우는 소리
이내 창자가 끊어진다.

귀한 아들인데 불에 데었다고 했죠. 화상을 입은 건데요. 그래서 화상을 입어서 불에 데었다고 해서 텐둥이가 됩니다, 아이 이름이. 그리고 텐둥이라고 하는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텐둥어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텐둥어미라고 하는 명명은 화재로 인한 피해, 상처 이런 것들을 각인시키는 명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면요.

귀한 아들도 불에 데어서
엉아엉아 우는 소리
이내 창자가 끊어진다.

자,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텐둥어미가 일종의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삶의 의욕 자체를 잃어버리고 폭석 주저앉아버리는데요.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세상사가 귀찮아서
이웃집에 가 누웠으니

여기서 보면 육체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누웠다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사가 귀찮아서 이웃집에 가 누웠으니 텐둥이를 안고 와서 이웃집의 이 여성이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텐둥이를 안고 와서
가슴을 헤치고 젖 물리며
지성으로 하는 말이
“어린아이 젖 먹이게.

이 사람이 정신 차려
어린아이 젖 먹이게.
우는 거동 못 보겠네
일어나서 젖먹이게?”

즉 텐동어미가 삶의 의지를 잃고 완전히 쓰러져 있으니까 그 집에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젖을 물리게 하면서 이렇게 정신 차려라, 애를 돌봐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작품 한 번 살펴보면 일단 화재로 인해서 일가족의 비극이 생생하게 일단 느껴지죠. 그다음에 텐동어미는 슬픔으로 삶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웃집 여인이 위로의 손을 건넵니다. 여기 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즉 인간의 삶은 왜 이렇게 불행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연히 자꾸 찾아오는 걸까 하는 거 하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는 꼭 손을 내밀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어떻게든 내가 잘 살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나의 슬픔을 같이 공감해 주고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구나 그런 사람은 어딘가 꼭 있구나 그런 사람들의 힘으로 내가 결국 살아가는구나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느끼게 됩니다, 이 작품을 읽을 때마다.

이 이웃집의 여인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텐동이를 안고 와가지고 그 어미인 텐동어미의 가슴을 헤치면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주 지성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사실을 각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는 다른 여성도 있고 이런 위로해 주는 여성이 있으니까 힘을 내야 되는 면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돌봐야 될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텐동어미가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는 거동을 못 보겠다”, 이웃집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도 보면 우는 거동 못 보겠다고 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이 고통이 크게 느껴지고 그 고통의 무게를 본인도 같이 느끼기 때문인 거겠죠. 즉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여성의 어떤 연대의식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젖을 먹이는 행위도 중요한데요. 이것 역시 아이를 돌보는 이런 일을 했던 여성으로서의 또 면모가 잘 드러내는데 생명을 돌보는 행위, 가장 원초적인 일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미로서 삶의 의지를 회복하도록 호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타인을 돌보는 일이 자기 치유적인 면이 꽤 강합니다. 일종의 상호적인 것이죠. 생명을 돌봄으로써 그 생명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도 힘을 얻게 되는 이런 교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런 삶의 책임을 일깨우면서 삶에 희망을 가져라라고 자꾸 삶의 희망을 북돋아주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어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아주 죽으려네
그 어린 것이 살겠는가.
그 거동 어찌 보나
아주 죽어 모르려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에 덴다고 다 죽는가
불에 덴 이 허다하지.
그 어미라야 살려내지
다른 이는 못 살리네.
자네 한번 죽어 버리면
살아이라도 안 죽겠나.
자네 죽고 아이 죽으면
조침지는 아주 죽네.
살아날 아이가 죽게 되면
그도 또한 할 일인가?
조침지를 생각거든
일어나서 아이 살리게.
어린 것만 살게 되면
조침지 사뭇 안 죽었네.”

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데요. 이 텐동어미 입장에서는 불행이 감당이 되지가 않고 아이의 장래도 걱정이 되죠. 불에 데고 일종의 장애인처럼 된 거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얘가, 이런 걱정까지 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상대방이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고통을 겪는 사람은 당신 혼자가 아니다, 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렇게 힘들어도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아이는 당신 아이 엄마가 아니고서는 살릴 수가 없다, 당신까지 없어진다면 이 아이는 정말 살 수가 없고 당신이 있어야만 이 아이가 살 수가 있다. 다시 한 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가 살면 당신의 죽은 남편도 사실은 이 아이를 통해서 살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남편이 죽어서 너무 서럽고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

고 그런데 그러면 더더욱 이 아이를 키우는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왜? 아이를 통해서 당신 남편이 살아있는 셈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득을 합니다. 같은 여성으로서의 설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텐동어미는 뭔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살아야지 하고 의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녹록지가 않은 게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화상을 입은 아이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보다는 여전히 걱정스럽고 절망스러운 게 더 강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댁네 말을 옹계 듣고
마지못해 일어나 앉아
약치레하며 젓 먹이니

아까보다는 좋아졌죠. 아까는 의지를 잃고 완전히 누워 있었는데 애 정신 차려서 젓도 먹이고 조금 의지를 조금 되찾았지만 아직 100% 회복한 건 아닙니다. 계속 보면요.

삼사 삭 만에 나왔으나
살았다고 할 것 없네

살았다고 할 거 없다는 말이 좀 잔하죠.

갖은 병신이 되었구나.

자, 그다음에 자기 아이가 어떤 모습을 했는지 묘사를 봐볼게요.

한쪽 손은 오그라져서
조막손이 되었고

한쪽 다리 빠드리져서
장채다리되었으니
성한 이도 어렵거든
갖은 병신 어찌 살꼬.
불에 덴 자식 젓 물리고
걸어안고 생각하니
지난 일도 기막히고
이 앞일도 가련하다.
건널수록 물도 깊고
넘을수록 산도 높다.

자, 이 부분이 참 소박한 표현이지만 이 인생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가면 갈수록 고생스럽고 불행만 계속 닥치고 아이고 내 신세야라고 하는 말의 느낌을 잘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건널수록 물도 깊고 넘을수록 산도 높다고 하는 말이. 계속 보겠습니다.

어쩐 년의 고생 팔자
일평생을 고생인고.
이내 나이 육십이라
늙어지니 더욱 싫다.
자식이나 성했으면
저나 믿고 살지마는
나이는 점점 많아가고
몸은 점점 늙어가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다.

자, 이 마지막 말 “이렇게도 할 수 없고 / 저렇게도 할 수 없다.”에서 정말 앞길이 막막한, 나는 너무 늙었고 자식에게 의지할 수는 없고 내 자식을 돌봐야 되는데 나는 이제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막막함이 너무나 잘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5. 고통을 통과한 뒤의 달관

자,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이 텐동어미는 장애인이 된 아이를 들쳐업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40년 만에 귀향을 하는 건데요. 막다른 상황에서 고향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의지할 때는 이제 고향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고향을 갔는데 이게 참 불행한 사람은 계속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고향도 예전의 고향이 아닙니다. 갔더니 아는 사람도 다 없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텐동이를 들쳐 업고
본고향을 돌아오니
이전 강산 의구하나
인정 물정 다 변했네.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쑥대밭이 되었구나.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이로다.

이렇게 해서 고향이 고향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고향에 와서 잔디밭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착 돌아보니까 회한에 빠지겠죠. 그래서 회한에 빠져서 막 우는데 어떤 동네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밭에 멀거니 앉아
한바탕 실컷 우노라니
모르는 안노인 나오면서
“웬 사람이 썩게 우나.
울음 그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나 들어보세.”

텐동어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설음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우나이다.”

할머니가 또 얘기해요.

“무슨 설움인지 모르거니와
어찌 그리 설워하나?”

텐동어미가 말합니다.

“노인께선 들어가오.
내 설음 알아 쓸데없소.”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며 자꾸 우니
그 노인 민망하여
곁에 앉아 하는 말이
“간 곳마다 그러한가?
이곳 와서 더 쉼은가?”

텐동어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 곳마다 그러리까?
이곳에 오니 더 서럽소. (하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텐동어미는 간 곳마다 다 서러웠죠. 근데 고향에 오고 나니까 더 서럽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보면 이 텐동어미, 일단 여러 번 개가한 삶을 후회하고요.

수절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인용하지 않은 생략된 부분에서 좀 더 잘 드러나는데요. 수절하지 못한 여인으로 고향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고향에 왔으면 삶이 좀 번듯하고 내세울 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성공을 하지 못할망정 굉장히 영락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누가 날 알아볼까 무서운 마음도 들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결합이 돼서 막 평평 울었을 텐데요 고향에 와서. 혼자 우는 덴동어미에게 할머니가 다가왔죠. 이것은 낯선 존재이지만 여성의 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가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덴동어미의 이 고통의 연속도 삶을 보여주지만 이 고통을 겪고 고생할 때마다 누군가는 늘 다가오고 말을 건네고 공감을 표현해 주고 하는 사람이 꼭 있었다는 거 이것 또한 삶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진솔한 대화가 오고갑니다. 왜 이렇게 슬피 울어, 너 어떤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은 못하고 고향 오니까 더 서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에 왔기 때문에 자신이 더 부끄러워지게 느껴지고 삶의 회한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향에 돌아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쪽 자신의 인생 내력을 다 얘기해 주면서 청춘과부에게 자신의 어떤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을 구현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유전을 들려준 다음에 청춘과부에게 덴동어미는 과부가 됐으면 개가지 말고 수절하는 게 좋아, 내가 개가 해봤더니 별로 인생이 좋아지는 거 아닌 것 같아, 부끄럽기만 하고 안 좋아, 수절해서 떳떳하게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의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선 우리가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일단 덴동어미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덴동어미 입장에서 이런 거죠. 자신이 쓰러린 삶의 체험을 토대로 여성이 아무리 개가해도 행복한 삶을 살긴 어렵다는 생각을 피력하는 동시에 이거는 덴동어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좀 거리를 두고 보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덴동어미도 조선시대의 수절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구나.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가치를 내면 화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면,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토대로 진솔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에 좀 속박된 면이 있는 그런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청춘과부에게 얘기하면서 인상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나면 덴동어미는 “신명 도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 도망은 뭐냐 하면은 운명으로부터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즉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가는 건 어렵다, 나 잘 살아보려고 개가하면서 삶을 개척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운명적으로 불행이 닥치더라 이런 얘기에요. 이 말은 사람은 팔자대로 살기 마련이다 팔자를 고치려고 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아주 운명론적인 사고입니다. 아니 이렇게 삶의 내력을 자세하게 얘기한 다음에 이게 운명론으로 귀결이 되다니 이거 너무 체념적이고 순종적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차원의 운명론적 사고와는 좀 다른 삶의 애환과 섞이면서 좀 다른 뉘앙스가 첨가가 돼서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운명론적인 사고가 체념적이고 순종적이고 부정적인 함

의를 갖는 차원이 아니라 고난의 삶 속에서의 어떤 깨달음의 차원을 보여준다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작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덴동어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달는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린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이 왔거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여사로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이에
서로 웃고 놀아보소.

그다음 중간에 생략하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심(心)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여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거의 무슨 전문답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이게 단순히 체념적인 것이 아닌 게 화전놀이에서 마음껏 즐기자 이런 얘기가 같이 있거든요. 이 고난 속에서의 깨달음이 체념이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더 기뻐하는, 더 기쁨을 향유하는 쪽으로까지 나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운명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을 통해서 삶의 회한과 고통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나고 삶의 회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지를 지금 덴동어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 내 삶은 이러면

안 돼, 내 기대와 다르고, 내 삶을 자꾸 부정하면 그와 동시에 그런 삶이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오히려 더 패배적이라고 할까 부정적이라고 할까 이런 감정에 계속 얽매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덴둥어미는 그게 아니라 내 삶은 그래, 이것도 나의 삶이야, 뭐 어때, 내 삶은 원래 이런 것이야, 괜찮아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지나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또 그와 동시에 많은 것을 또 내려놓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잘 보이게 되고, 왜곡 없이, 그러니까 또 현생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덴둥어미의 말, 모든 것이 마음 심 자가 제일이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면 꽃은 절로 핀다, 새는 여사로 운다, 달은 매양 밝다, 바람은 일상 분다, 거의 이게 불교의 깨달음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의 말보다는 어렵지가 않고 소박하고 그렇죠. 즉 수도자의 수도와 정진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층민의 삶의 고난, 인생의 유전을 통해서 도달한 어떤 정신적인 깨달음을 하층민의 지식이 섞이지 않은 육성을 통해서 소박하면서도 진솔한 언어, 그리고 삶의 실감이 실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언어로 지금 개진하고 있다는 거, 이게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고통으로 막 눈물짓던 덴둥어미는 삶의 기쁨을 노래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기쁨을 노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덴둥어미의 이 말을 듣고 청춘과부도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슬픔을 모두 털어버리고 봄 춘자 노래를 아주 신명나게 부릅니다. 그래서 봄을 아주 만끽하게 되는데요. 이 봄을 만끽하게 된다는 것이 어디서도 느껴지나면 이 신명이 계속 신명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뒤를 이어서 또 젊은 남자가 꽃 화자 노래를 이어서 부릅니다. 신이 나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기쁨이 기쁨을 불러들이고 뭔가 봄의 충만한 이 에너지, 생명력, 기쁨 그리고 그런 것 속에 있는 또 자기 삶에 대한 긍정, 생명의 에너지 막 이런 것들이 작품에 막 가득 차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정말 이 고통, 그 고통의 어떤 공유, 그것의 고통의 공유를 통한 연대 그리고 어떤 인생의 깨달음, 그로 인한 어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이 아주 감동적으로 작품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더 생각해볼 문제

자, 이렇게 해서 「덴둥어미화전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오늘 수업의 내용을 토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면 「덴둥어미화전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런 겁니다. 덴둥어미는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었죠. 그때마다 거듭 개가를 택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어요. 덴둥어미의 이런 선택 즉 남편을 잃었을 때 계속 개가를 거듭한 거, 그리고 이 판단, 자신의 선택을 결국 후회한 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

겠는가, 아까 수업 중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토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텐동어미화전가」는 불행에 불행을 거듭했지만 결국은 그 고통을 통해서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도달을 한 한 여성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증언해 주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게 궁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고전문학 작품에서 어떤 삶의 불행, 고통 이런 것들이 한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것으로 그려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텐동어미와 「텐동어미화전가」와 비교도 해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나름의 통찰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불행은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망쳐버리고 사람을 더 악마화시킬 수도 있고요. 「텐동어미화전가」의 경우처럼 인간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도 있고 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체험을 하면서 통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국 고전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보자 이런 것이고요.

또 연장선에서 있는 건데요.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그를 통해서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 주고 이런 여성의 연대의식이 「텐동어미화전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 외에 어떤 고통의 공유를 통해 형성되는 연대감을 좀 잘 보여주는 고전 작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좀 작품들을 음미하면서 인간에게서 고통의 연대라고 하는 가치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텐동어미화전가」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오늘 강의에서는 ‘고통의 공유와 여성의 연대’라는 제목으로 작자 미상의 가사 「텐동어미화전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장르상으로 화전가이면서 서민가사에 속합니다. 「텐동어미화전가」는 화전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텐동어미’라는 여성의 인생유전을 통해 조선후기 서민의 생활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삶의 고통과 인간적 유대의 문제를 감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텐동어미화전가」의 형식적 특징으로는 액자식 구성과 대화체의 폭넓은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화전놀이 이야기 속에 텐동어미의 일생 이야기가 들어 있고 텐동어미의 이야기 속에 또 황도령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 속의 액자’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층민의 생활체험이 당사자의 목소리로 작품 내에 수렴됩니다. 또한 이 작품에는 대화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따라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는 조선후기 ‘가사의 서사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텐동어미화전가」는 봄날의 화전놀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모여 즐기고 있는 자리에서 어느 청춘과부만 남편을 잃은 서러움을 토로하며 슬퍼합니다. 이에 텐동어미는 자신의 인생유전을 이야기함으로써 청춘과부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텐동어미는 경북 순흥의 아전 집안 딸이었으나 거듭되는 불운으로 평생 고생한 인물입니다. 네 번 결혼했지만 네 명의 남편을 모두 잃었고 어린 아들은 화재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유전을 들려준 뒤에 텐동어미는, 사람은 운명대로 살기 마련이니 팔자를 고치려 들지 말고 수절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운명론적 사고는 체념적이고 수동적인 부정적 함의를 가질 수도 있으나 고난의 삶 속의 깨달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텐동어미는 운명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통해 삶의 회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현재의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에 청춘과부는 크게 깨달아 근심과 슬픔을 모두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함께 노래 부르며 자기 긍정과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한 채로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텐동어미화전가」는 불행과 고통을 통해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도달한 한 여성의 모습을 증언해주며, 고통의 공유를 통한 여성의 연대를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화전가는 화전놀이를 배경으로 주로 사대부 집안 여성들에 의하여 창작된 가사이다. (O/X)

정답: O

2. 텐동어미의 첫 남편은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죽었다. (O/X)

정답: X

3. 텐동어미는 황도령과 동거하게 되었으나 황도령도 콜레라에 걸려 죽었다. (O/X)

정답: X

4. 텐동어미는 조침지와 결혼하여 나이 오십에 첫아들을 낳았다. (O/X)

정답: O

5. 텐동어미는 여러 번 개가한 삶을 후회하고 수절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 했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텐동어미화전가」의 장르적 · 형식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텐동어미화전가」는 화전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서민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 ② 액자식 구성을 통해 하층민의 생활체험이 당사자의 목소리로 작품 내에 수렴되고 있다.
- ③ 다른 가사 작품에 비해 독백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정답: ③

2. 다음 중 텐동어미의 인생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텐동어미는 두 번째 남편과 객줏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산사태가 나서 남편이 죽었다.
- ② 주막집 주인택은 황도령의 죽음에 절망하는 텐동어미를 위로하면서 하층 여성 간의 인간적 유대를 보여주고 있다.
- ③ 조침지가 죽자 텐동어미는 슬픔으로 삶의 의지를 상실하지만 텐동이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삶의 의지를 회복한다.

정답: ①

3. 다음 중 텐동어미가 고통을 통과한 뒤에 얻은 깨달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텐동어미는 고난의 삶에 대한 체험을 토대로 청춘과부에게 조언을 주고 있다.
- ② 텐동어미는 개가를 통해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③ 화전놀이에 나온 여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긍정과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한 채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정답: ②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두 번째 남편의 집안은 ○○로 인해 풍비박산이 났다.

정답: 이포

2. 텐동어미는 울산에 이르러서 노총각인 ○○○을 만나게 되었다.

정답: 황도령

3. 텐동어미가 주막집 주인댁의 권유로 함께 살게 된 조침지는 ○○○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답: 엿장수

나. 토의(45분)

- 1) 텐동어미는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을 때 거둬 개가를 택했으면서 결국 그 선택을 후회했다. 텐동어미의 이런 선택과 이런 판단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텐동어미가 재가를 선택할 때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확인해본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홀로 된 여성이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사실을 고려한다. 그럼에도 텐동어미는 결국 자신이 수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한을 토로하게 되는데, 이렇게 텐동어미가 자신의 삶의 선택을 긍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본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점, 자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무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속박되느냐 그로부터 탈피하느냐의 이분법으로는 전근대 여성의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에 유의한다.)

- 2) 「텐동어미화전가」는 불행에 불행을 거듭했지만 결국 그 고통을 통해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도달한 한 여성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증언해준다. 한국 고전문학 작품에서 삶의 불행과 고통이 한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것으로 그려지는가. 「텐동어미화전가」와 비교하면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가.

(불행과 고통은 인간을 성숙하게 단련시킬 수도 있고 좌절시키거나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행과 고통 자체의 성격, 받아들이는 사람이 놓인 상황, 받아들이는 사람의 가치관과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작품 해석을 한다.)

3) 조선시대에 ‘고통의 공유를 통한 연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덴동어미화전가」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국문시가는 물론 구비문학, 한시, 한문산문, 고전소설 등을 폭넓게 조사한다. 고전 작품 뿐 아니라 현대 작품의 예도 조사해보면 공부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과제(45분)

「덴동어미화전가」에 나타난 운명론적 사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십시오.

(덴동어미가 피력한 운명론적 사고는 흡사 불교의 깨달음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수도자의 말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통과한 하층 여성이 자신의 삶의 경험에 입각하여 한 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그 운명론적 사고를 단지 체념적인 것, 남성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것으로만 보지 말고, 덴동어미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도록 한다. 운명론적 사고는 꼭 「덴동어미화전가」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고전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덴동어미화전가」의 운명론적 사고가 갖는 특징을 좀 더 예각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제7강〉

민의 욕망과 행위 전략

야담의 세계

학습 목표

1. 야담의 개념과 장르적 특징, 형성 과정, 주요 야담집, 주요 모티브와 주제, 가치지향을 알아본다.
2. 치부담과 신분상승담을 한 편씩 살펴보고 각 작품에 반영된 민의 의식과 욕망, 행위전략을 이해한다.
3. 군도담을 통해 지배질서에 대한 민중층의 반감과 민중 영웅에 대한 갈망을 살펴본다.

강의 핵심 요약

‘민의 욕망과 행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야담의 세계를 탐색했다. 야담은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한문으로 기록되어 정착된 단형서사이다. 야담은 부에 대한 관심, 서민의식의 성장, 몰락양반의 궁핍상과 삶의 전환, 사회구조의 재편과 계층갈등의 심화, 사랑과 성, 체제모순에 대한 저항 등 조선후기의 현실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치부담, 신분상승담, 군도담 등 야담의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다. 치부담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야기로, 당시 사회상과 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계서야담』에 수록된 「귀향」은 몰락양반 최생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최생이 윤리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를 타인과 나눔으로써 호혜적인 관계망을 구축하는 모습을 통해 치부행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분상승담은 노비가 도망가서 신분 세탁에 성공하는 이야기로, 조선후기 신분질서의 동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조선후기 피지배 계급의 욕망을 보여준다. 『청구야담』에 수록된 「옛 종 막동」은 노비 출신 막동이 용의주도하게 신분을 세탁하여 양반으로 행세하게 되는 과정과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려는 양반을 오히려 궁지에 몰아넣어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군도담은 도둑 이야기로, 조선 후기 군도의 발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청구야담』에 실려 있는 「월출도」에서, 군도는 도둑질에 대한 명분과 논리, 나름의 윤리성, 지능성을 보여주며 독자로 하여금 통쾌함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도적 이야기에는 지배질서에 대한 민중층의 반감과 민중 영웅에 대한 갈망이 투영되어 있다. 이처럼 야담은 지배질서에 순응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며, 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법에 구속되기도 하며, 속물적으로 행동하기도 하는 등 조선조 민의 다양한 행위 전략을 서사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 전략에 개입된 다양한 욕망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 강의 내용 전문 ◆

강의 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민의 욕망과 행위 전략’이라는 타이틀 하에 야담의 세계를 탐색하려고 합니다. 야담은 조선후기의 서사물인데요, 조선 후기 민중층의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과 욕구와 행위 전략들을 서사적으로 잘 구현한 것이고 서사물로서 상당한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강의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야담이 뭔지에 대한 개관을 전반적으로 하고요, 주제에 따라서 야담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보다 당연히 야담이 포괄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지만서도요, 네 가지 정도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치부담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신분상승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군도담, 도둑 이야기고요,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는 더 생각해 볼 거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개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

1. 야담 개관
2. 치부담
3. 신분상승담
4. 군도담
5. 더 생각해볼 문제
6.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1. 야담 개관

먼저 야담에 대한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야담은 보고 들은 내용에 따라서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이야기들을 한문으로 기록하여서 정착시킨 것, 그런 서사체를 야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에 있어서는 단형 서사이고요. 장르적으로 볼 때는 소설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전설, 일화, 민담 이런 등등의 성격을 갖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이 중에 소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의 경우는 이제 야담계 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한문단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밖에 필기, 패설의 성격을 갖는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듯 야담은 상당히 다양한 성격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야담이 방금 보고 들은 것에 따라서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기록으로 정착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형성이 되는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담은 이제 구연 단계와 기록 단계를 거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 밖에도 이게 기록으로 정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자의 어떤 생각이 가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일종의 자기 체험을 한 당사자의 자기 진술의 성격 또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기록으로 정착이 된 거기 때문에 갖게 되는 다면성이기도 하고 역동성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조선 후기에 보면 이야기책을 낭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낭독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낭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 존재를 강독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구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종의 창의 형식을 가미해서, 이렇게 노래로 이야기를 구현하는 사람을 강창사라고 부르고요. 이야기를 좀 숨쉴 있게 굉장히 재치 있게 재미있게 엮고 구연하는 사람을 또 강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독사, 강창사, 강담사들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수집되고 유포되고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야담의 형성 과정을 짚어봤으니까 그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이 야담을 모아놓은 야담집이 뭐가 있는가, 이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성립된 야담집은 편찬자 본인이 직접 들은 내용을 자신의 필치로 정리한 것입니다. 『삼교만록』이라고 안석경이라는 지식인이 남긴 건데, 그 외에도 『학산한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천예록』, 『동패낙송』, 다 대표적인 지금 야담집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야담집들은 다 작가들이 분명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2차적인 것은 다른 야담집이나 잡록집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 것을 옮겨 적은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계서야담』, 『청구야담』, 『동야회집』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3대 야담집으로 손꼽힙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야담집인 거죠.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굉장한 적층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한번 야담집의 분포를 살펴보면요. 제일 앞서서 게 당연 『어우야담』입니다. 17세기 자료고요. 『어우야담』과 더불어 이제 『천예록』이 이제 17세기 야담 자료로 지금 남아있고요. 18세기로 접어들어서는 이제 『잡기고담』, 『동패낙송』, 『삼교만록』, 『학산한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19세기가 되면 정말 19세기는 야담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계서잡록』, 『기리총화』, 『금계필담』, 『청구야담』, 『동야회집』 이제 이런 것들이 대거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담집은 17세기부터 해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19세기에 정점을 찍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는 야담에 등장하는 주요 모티브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기록했고 다양한 이야기가 지금 들어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돈 문제가 나오고요. 우리도 치부담을 살펴볼 거라고 아까 수업 개관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돈이 사람들을 사실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육체 인간의 몸과 관련된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이나 그래서 자살 소동이라든가 또 강간 사건 또 남녀 간의 은밀한 간통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아주 삶의 정말 리얼한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아기 찾기 모티브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 간의 우정 이런 모티브도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군도, 도적떼들, 이런 또 모티브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티브들을 쭉 개관해 보면 일단 부에 대한 관심은 인간 누구나 갖고 있겠지만 서민적의 성장 쪽으로도 연관이 되고요. 물질적인 부에 대한 태도가 좀 더 솔직해지고 좀 더 그에 대한 욕망이 더 직접적으로 확장된 그런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몰락 양반들이 또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양반층 내에서도 많은 분화가 이루어져서 상층 양반도 있지만 관료 진출에 실패하고 도태되고 그러다 보니까 몰락을 하게 된 양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몰락 양반들의 어떤 궁핍한 생활상, 삶의 전환을 해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 몰락 양반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전환하는 내용은 이제 좀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또 사회구조의 재편, 어떤 계층갈등 이런 등등을 포괄하고 반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밖에 사랑, 어떤 성애,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요. 사회적으로는 체제 모순에 대한 저항, 반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요 모티브와 연관되는 주제의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주제론적으로 야담의 내용들을 좀 범주화해 보면 일단 충노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노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충노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당시 양반 사대부 입장에서 볼 때 참 고마운 존재들이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신에 대한 충성을 잃지 않는 그런 노비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민중층의 환상보다는 지배층의 환상을 투영한 이야기 일 거고요 그 반대에 있는 게 추노담일 겁니다. 추노는 도망간 노비를 찾아낸다는 것인데요. 노비가 도망간다는 거는 그만큼 기존의 질서에 대한 저항심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도망 노비보다 더 적극적으로 체제 이탈한 사람들이 도둑들일 텐데요. 그런 도둑들이 뭔가 좀 명분을 내세워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의적이 되는데 그런 의적담들이 또 있고요. 여성 이야기들, 여성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강상, 윤리 강상과 효 이런 것들을 현양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를 외면화하는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상효녀담들도 있고 또 살펴볼 치부담, 부자 되기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그 밖에 좀 각종 기이한 이야기들을 담은 기이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반영한 이야기들이 많으면서도 좀 신기한 이야기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사실 중심이면서 판타지스러움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실성, 역사성 이런 것들이 있는 동시에 환상성, 기이성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이 점 또한 흥미를 자아냅니다. 원래 이제 야담이 처음 각광을 받고 연구가 많이 될 때에는 주로 야담의 현실성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판타지의 측면 또한 많이 이제 부각을 시키는 추세이고 아마 앞으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종합적으로 잘 보는 게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개관한 데서 여러분 느끼셨다시피 이 야담에 이제 들어 있는 가치지향은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민중층의 이야기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민중층은 피지배 계급들이 많고 그러면 그 당시 주류 질서에 대해서 피해의식이나 반감이나 저항감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많이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민중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저항적인 면모도 있지만 그 당시 통념에 비추어서 그 당시 통념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성공하기를 또 바라고 노력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기존의 질서에 들어있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나 윤리적 가치 같은 것을 내면화하는 것, 강상이나 효 이런 것들의 가치나 충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가 좋게 생각하는, 늘 이렇게 권장하는 윤리 덕목들이인데요. 이런 것들을 내면화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양반층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양반층 입장에서도 뭔가 기존의 지배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배층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더 대안적인 삶의 가치를 이렇게 진취적으로 모색하는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양반이라고 했는데도 사실상 농민만 못한 그렇게 몰락한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대단히 비열한 존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다양한 가치지향이 다 모여들어 있는 게 야담의 큰 특징이자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야담집이 이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제 분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 야담이 근대적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10년대를 보면은 전근대 야담을 활자화해서 활자본을 출간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있는데 그와 동시에 새로 엮은 야담본들도 많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920년대에 들어오면 적극적인 야담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1930년대에 접어들면 잡지 매체를 통해서 근대 야담이 적극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잡지 매체는 『월간야담』과 같은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야담은 활력을 근대 전환기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담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2. 치부담

그러면 이 야담의 세계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가, 여러분 좀 궁금해하셨나요. 그에 대해서 한번 하나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치부담, 부자 되기 이야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은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독자와 야담이 공명하고 뭔가 많은 흥미를 야담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치부담의 주인공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이겠죠. 그래야지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치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데 계층적으로는 다양해요. 아까 조선 후기 이제 몰락 양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양반도 있을 수 있는데요. 평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계층적으로 위에서 양반부터 밑에 평민까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부담은 치부 자체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든 욕망을 가장 있는 그대로, 날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 그 당시의 사회상, 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부담 중에 대표적인 걸 한번 하나 집어서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귀향」입니다. 『계서야담』이라는 야담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줄거리를 일단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같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을 짚어가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최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대요. 이 최생이라는 선비는 젊어서 문장을 잘하기로 아주 이름을 떨쳤대요. 그러면 이제 글 솜씨도 뛰어나고 실력도 있고 하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출세하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생이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을 합니다. 그 집도 점점 가난해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예를 들면 고시 낭인, 고시 되면 출세할 수 있는데 그전까지의 단계를 거치는 거는 참 괴롭잖아요. 그래서 자꾸 떨어지면은 포기할 것인가 그래도 성공할 것을 기약하면서 계속 버틸 것인가 기로에 서잖아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최생도 자기가 이게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포기하기에 아까웠을 텐데 집이 점점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일이 한 번 벌어져요.

그래도 최생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맹자』를 읽어요. 『맹자』를 읽다가 이런 구절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사지를 게을리하여 부모의 공양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의 불효다. 이걸 진짜 『맹자』에 있는 말이거든요. 이 구절을 읽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냐 하면 내가 이렇게 과거 시험 공부한다고 사지를 놀리지 않고 공부하느라고 부모님 돌보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은 불효구나, 내가 지금 불효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모를 돌본다는 것은 부모를 돌본다는 좁은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을 또 뜻해요. 옛날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의 중요한 목적이 자기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는 거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부모의 봉양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불효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글공부만 하느라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집이 가난해지는 것을 방치해 두는 것, 이것을 이제 『맹자』의 구절을 보고 내가 이런 게 바로 불효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아마 최생은 『맹자』를 여러 번 읽었을 텐데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본인 집이 자꾸 가난해지면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가난해진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 이런 반성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내가 정말 불효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깨닫고 나서 이 최생은 어떻게 하나면요, 붓과 벼루를 다 치워 버려요.

이거는 글공부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글공부를 포기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조선 후기 선비는 뭐 하는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 장사를 한다 이러면 양반 사대부로서의 체통이 사라지고 농부, 상인 이런 사람들하고 구분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집이 가난해져도 생계 활동에 직접 뛰어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 게 조선 후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생의 이런 설정은 사대부의 자리, 즉 사대부가 이 벼슬자리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벼슬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힘으로 정직하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실천을 서사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선 후기의 유식층의 증가 문제를 반영한 것인데요. 이 유식층은 놀고먹는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비들은 기본적으로 글공부를 해서 과거 급제한 다음에 관료로 진출하기를 기대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생업에 종사를 하지 않아요. 생업에 종사를 하면은 선비로서 체통을 잃은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박제가 같은 조선 후기 실학자의 경우는 조선 선비들이 농사짓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혼사도 끊어지고 집이 완전히 양반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업을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풍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기에 이르거든요. 이제 그런 사상의 동향을 그 뒤에 야담이 서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최생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다 벼루, 붓 이런 걸 다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 날 집을 팔아요. 500냥을 이제 마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또 자기 처자식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이 최생의 고향은 청주로 지금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청주가 고향인데 서울에 이제 유학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종의. 이제 내려가서는 노비를 불러놓고 이제 자신의 다짐을 얘기해요. 내가 이제 10년을 기약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100냥을 상으로 주겠다. 하지만 내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응당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노비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는 이제 글공부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할 테니 너희들이 내 명을 따라라. 그러면은 너희들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하는데 노비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주인은 행색이 피죤하잖아요. 몰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합니다. 노비들의 대답이 이래요. 복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생이 화와 복은 모두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설득을 해요.

여기에서 그 치부행위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 노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운명론이죠. 최생이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즉 운명론적 사고를 탈피하는 시각, 치부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뒤야 될 것은 노비와 주인의 차이예요. 노비의 경우는 아무리 예측적인 관계에 놓여있지만 주인이 카리스마가 없으면 별로 따르고 싶어 하지 않겠죠. 왜냐면 노비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벼슬 없는 사람이고 몰락했다 보니까 뭔가 카리스마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비들이 갖게 되는 어떤 주인에 대한 좀 깔보는 마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식의 약간의 갈등, 알력 관계도 암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이거를 이제 주인은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앞으로 보상을 해줄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뭔가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생은 이제 적극적으로 치부행위에 나섭니다. 곡식도 사들이고 그래서 비축을 해놓고 직접 농사를 막 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소설은 직접 농사짓는 사대부를 등장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생업에 뛰어든 첫 두 해 동안에는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곡식값이 싸지거든요. 그래서 곡식을 싼값에 다 사들이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 곡식을 가지고 더 비싸게 팔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치부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곡식을 무료로 풀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도와줘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게 드러나냐면요, 최생이 과거 공부에 골몰할 때에는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 생업에 뛰어들고 보니까는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지능적이죠. 그러니까 돈 버는 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예요. 곡식값이 쌀 때 사들이어가지고 많이 해서 저장해 놓고 농사도 경영을 하고 이런 역량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가 본인이 공부를 포기하고 생활에 뛰어들고 나니까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사람이 성실해요.

그리고 이 곡식을 흉년이 들 때 곡식을 무료로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 최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돈을 벌려고 하지만 아주 무자비하게 일종의 수전노 비슷하게 남을 막 짓밟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대가로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치부의 어떤 적절한 윤리적인 선이 있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다음 이야기를 좀 더 보고 다시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흉년이 들 때 자기가 이제 비축했었던 곡식을 무료로 풀어서 농민을 도와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농민들이 그냥 받아먹는 게 아니예요. 이에 농민들이 감명을 받아요. 그렇겠죠.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도와준 거 아니예요. 인간적인 호의를 갖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빌린 곡식을 두 배로 되갚아요. 그리고 이 최생은 그렇게 해서 받은 곡식을 다시 사고팔아서 그 이익을 얻어서 부자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생은 어떤 호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최생의 호의가 농민들을 감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무자비한, 아주 경쟁적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하는 이런 형태의 치부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공생, 나하고 너는 같이 더불어서 살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공생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치부행위를 했다는 것이 대단히 주목이 돼요. 즉 윤리적인 치부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

과 도움받은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우호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즉 내가 먼저 베풀었을 때 그것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의 형성으로 이게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예요. 이게 사실 우리는 내가 잘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나 혼자 잘 살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도 잘살 수 있는 사회여야지 나도 잘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가 많이 잇기가 쉬운데 최생은 이런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말 몸소 적극적으로 형성하고자 노력한 것이죠. 이 점에서 치부행위가 갖고 있는 사회성, 공공성, 공동체성, 윤리성,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지금 시대에 봐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 정도 시간이 이제 흘러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노비에게 한 약속의 시간이 된 거죠. 내가 10년을 기약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대로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생은 보니까 사람이 착한 것 같죠. 노비들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노비들에게 각각 100냥씩을 막 줘요. 이 점에서도 최생이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선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선의가 있는 사람 하면 좀 나이브하고 무능력하고 사람이 착하긴 하지만 좀 뉘가 안 좋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착한데 나이브하지가 않고 유능하고 아주 현실적인 계산도 잘하는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 이것 또한 주목되는 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최생 이야기를 봤는데요. 보편은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료 진출하는 것을 포기한 대신에 최생은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마을 사람들을 구제 활동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실은 이 마을의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최생은 과거 시험을 단념함으로써 그냥 나 혼자, 내 몸 하나, 내 가정 하나 건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을의 일종의 유지가 된 거죠. 어떤 새로운 방식의 리더로 탄생하게 된 것,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상승담

이렇게 해서 치부담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는 신분상승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상승담은 노비가 도망을 가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비가 도망을 간 것이 또 주요 모티브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면 도망 노비를 찾아다니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는 추노담과 겹치기도 하는데요. 노비가 도망간 것에서 이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시피 이 이야기들은 조선후기 신분질서의 동요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분질서의 동요와 이제 연계되는 것은 이제 도망간 노비들의 욕망, 왜 도망을 가겠습니까. 예측적인 삶을 벗어던지고 좀 더 자기다운 삶을 개척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점에서 조선 후기 피지배계급의 어떤 욕망 어떤 결단력 그리고 그런 신분 상승에 성공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신분상승담에 아주 잘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이야기로 「옛 종 막동」, 옛날에 이제 「구북 막동」이라고 많이 불렀던 작품인데요. 구

복이 이제 옛날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 종 막동」으로 이제 고쳐 부르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3대 야담집이라고 했던 그 『청구야담』에 수록되어 전하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 송씨 가문이 있었어요. 이제 이 송씨 가문이 몰락 양반 집안이에요. 이 집안에 막동이라고 하는 호노가 있었어요. 호노는 뭐냐 하면은 노비 중에서 양반 집안의 대소사를 맡는 아주 노비 중에 뛰어난 노비예요. 집안의 대소사는 어떤 것까지 들어가냐 하면은 예를 들면 집을 살 때 가옥 매매 문서 작성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 호노들이 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문자 지식이 있어요. 보통 노비들과 달리 실무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아주 잘 알아요. 그리고 양반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보통 노비가 아닌 그런 아주 뛰어난 노비입니다. 이런 호노인 막동이 이제 도망을 쳐요.

그런데 세월이 이제 흐릅니다. 도망을 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가 이제 끊겨 있고요. 세월이 이제 흘러 흘러 몰락한 양반가 송씨 집안은 여전히 곤궁합니다. 여전히 곤궁한 송씨 집안에 이제 막동이 도망치고 나서 그 집 손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송씨니까 송생이라고 이제 작품 내에서 불러요. 이 송생이 먹고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아는 사람에게 이제 의지하려고 강원도를 향해 갑니다. 이제 여기서도 몰락 양반의 무능함이 드러났죠.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거나 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망했으니 내 아는 사람에게 빌붙어서 좀 버텨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귀향」의 최생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몰락 양반의 무능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송생이 이제 지인을 찾아가다가 고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고성에서 최승지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게 돼요. 최승지라고 하는 사람이 송생을 객으로 맞아들이고 나서 송생에게 이제 말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넣었냐면은 이제 손님하고 이야기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을 해요. 그러니까는 송생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네 좋습니다. 하고 이제 최승지가 있는 방으로 초대를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송생이 이제 들어가서 최승지하고 막 대화를 나누는데 이리다가 이제 밤이 막 깊어져요. 대화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딱 이제 밤이 깊어지다 보니까 최승지가 이제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면요, 송생 앞에서 딱 꿇어서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주십시오 하고 죄를 청한다는 거예요. 죄를 청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무슨 일이지 이제 이런 의문을 자아내죠.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제 사연이 있구나 하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밤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남들을 보지 않을 때 이 타이밍을 이제 기다린 것이죠 최승지가. 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송생 앞에서 이렇게 절하면서 사죄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승지가 자기 입으로 자기 사연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 하나면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당신 집안의 종인 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솔직하게 밝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송생이 그럼 네가 우리 집 종놈이었구나, 그래 어찌 감히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사느냐, 이런 식으로 꾸지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송생은 오히려 막 송구한 마음을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그냥 이야기나 우리 나눴시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이거 이제 인상적인데요. 이게 몰락 양반의 처지를 너무나 잘 서사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 상대방이 과거에 중 신분이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인 행세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런 주인 행세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질 정도조차도 못 될 만큼 사람이 못났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송생이 그러니까 굉장히 또 유약하기도 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게 이런 복잡한 면모들이 이제 이 간단한 이야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이 송생은 되게 무능한 존재로 그려지는데 여기서도 역시 무능한 존재인 것으로 밝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송생은 이 막동에게 아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하고 그 성공 비결을 물어요. 이것도 참 못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막동이 자기 입으로 자기 이제 사연을 짚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막동이는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삶의 내력을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돼요. 이제 보니까 젊어서 내가 이제 종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송씨 집에서.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상전택이 다시는 이게 일어날 가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집에 그냥 종노릇 하고 살면 내가 평생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겠구나, 이제 이런 판단이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있으면 내가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온다 해서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집에 예속이 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방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이 막동이 주인집은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할 수 있는 이 안목,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도망을 겨냥할 수 있는 결단력,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간파하는 안목, 결단력, 이게 막동이 성공하게 되는 비결에 다 속하는 것인데요.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동이 도망을 쳤죠. 그래서 일단은 거짓말로 최씨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최씨 행세를 했느냐 보니까 양반집 중에 자손이 끊어진 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최씨였대요. 그래서 이제 최씨 집을 사칭을 하면은 문제 삼을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자손이 다 끊겼으니까. 그래서 일단 막동이 자기 신분을 숨길 때 필요했던 게 성씨라는 것이 드러나요. 노비 신분을 숨길 때 그 신분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양반 성을 사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킬 염려가 없도록 자손이 끊어진 집을 선택한 거에서 또 막동이의 지능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최씨 행세를 하면서 이제 막동이 서울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막 돈을 빌려가지고 몇 년 사이에 몇천 냥을 모았어요. 이걸 역시 주인집에 이제 노비로 살 때에는 이제 본인이 주도적으로 못하니까 이런 경제 능력을 발휘를 못했는데 이제 내가 쓸 돈을 모으니까 자기 능력을 막 마음껏 펼쳤을 거 아니에요. 돈을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분 상승에 필요한 경제적 밑천을 장만합니다.

이것으로 막동이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면요. 양평으로 가요. 지금 이제 경기도 포천시 쪽인데요. 여기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뭘 하나면요. 막동이가 두문불출하고 글을 읽는 선비가 돼요. 글을 읽으면서 몸가짐도 이제 조신하게 해가지고 선비의 행실을 닦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이 사람은 사대부의 행실이 아주 분명하다, 완전히 명실상부 사대부다 이런 평판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게 또 양반 되기에 중요한 이제 국면인데요. 이 막동이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서 양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 양반 사대부들이 갖춰야

될 지식, 교양, 사대부 특유의 매너, 행실, 그리고 이것을 갖춘 다음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대부답다는 마을 사람들의 평판, 인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씨가 필요했죠, 돈이 필요했죠, 그다음에 방금 말한 사대부의 행실, 교양, 그리고 그런 것을 갖추었다는 평판, 이런 것은 일종의 문화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씨, 경제력, 문화자본, 이것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갖추가면서 본인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 거예요. 막동이가 보통 사람이었으면은 그냥 돈만 열심히 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동이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막동이가 호노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노는 양반 사대부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거든요.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도 들은 풍월이 있어요. 글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하는지, 어떤 말씨를 쓰고 뭘 하는지, 어떤 교양을 쌓는지 약간 대충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자본을 축적하는데 나름 유리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느냐, 아까 평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아예 재물을 나누어가지고 빈민들하고 부호들에게 다 나눠줘요. 부호들에게 주는 것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뇌물성의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이죠. 빈민들에게 주는 거는 빈민에게 구호 활동을 해서 일종의 지역 유지로서 이미지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의 인심을 얻고 호감을 사는 것이예요. 이것도 신분 세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용의주도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한편 또 이제 무엇을 하느냐, 이거 참 막동이가 똑똑합니다. 서울에 이제 협객을 동원을 해요. 이제 돈을 주고 서울에 있는 협객들에게 내 돈 얼마 줄 테니 이렇게 하시오라고 이제 시켰을 텐데요. 화려하게 꾸미게 해요.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을 사칭하게 해요. 그다음에 자기 집을 드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가짜 인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인맥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서울 사람들하고 인맥이 넓다라고 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과시하는 거예요. 인맥 또한 양반의 중요한 문화자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정말 서울에 끈이 있고 그렇네, 진짜 양반이구나, 양반인 것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용의주도하게 정말 한 땀 한 땀 노력을 해서 본인을 양반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막동이가 4~5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계속 살면 좋잖아요, 이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붙어살지 않아요. 철원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양평에서 했던 그대로를 다시 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한곳에 오래 살다 보면은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한 번 가서 확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철원으로 이사 가서 다시 노력을 한 끝에 이제 이 막동이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무인의 딸과 결혼해요. 노비 출신인데 무인이면 그 양반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문인보다는 못하지만 무인의 딸과 결혼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무인의 딸도 당연히 막동이가 노비 출신인 걸 모르고 결혼을 했겠죠. 이제 이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막동이는 이제 나이가 꽤 들었을 거 아니예요. 늦게 결혼을 했을 텐데 이게 늦게 결혼을 할 때는 이게 초혼이 되면 이제 의심스러워요. 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왜 저 나이에 결혼을 하지? 왜 그전까지 결혼을

못했지, 양반인데? 이렇게 되면 또 정체가 탄로가 날 수 있겠죠, 그런 의심에 의심이 쌓이다 보면은. 그래서 밖에다가는 내가 재혼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엄청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재혼을 표방해서 무인의 딸과 결혼을 하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혹시나 또 발각이 될까 싶어서 다시 회양으로 또 이사를 가요. 이사를 지금 세 번째 거처를 옮긴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또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고성으로 옮겨요. 이제 고성이 이제 있을 때 바로 송생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이만하면은 나를 이제 내 정체를 발각당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하는 안심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좋은 평판이 완전히 확고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막동이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시험에도 합격을 해요. 이거는 이제 소설적인 설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벼슬도 얻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막동이가 참 똑똑한 게 나오는데요. 벼슬을 했다고 해서 한세월하다 보면 또 꼬리가 길어서 잡히면 밟히면 어떡합니까, 이거 사형당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벼슬을 오래 하다가 정체가 탄로날 수가 있기 때문에 벼슬을 좀 하다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버려요. 이만큼 내가 누려봤으면 됐다고 이제 물러나서 재야에 있으면서 부기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동이는 나이가 이제 칠십이 됐어요. 그래서 재산을 막대한 재산을 형성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막동이만 성공한 게 아니라 또 큰아들도 문과 급제를 했대요. 그래서 신분 세탁에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동이가 송생에게 들려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동이가 송생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막동이의 이제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건데요. 어떤 제안을 했나 한번 보시죠.

송생한테 몇 달 동안 잘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주인님 손자니까요. 제가 잘 모시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완전 땡큐죠. 그런데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길손을 너무 후하게 대우해 주면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봅시다. 그러니까 낮에는 제 인척으로 행세를 해 주십시오.” 친인척이면은 몇 달 머물러두고 잘 해주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제 친인척 행세를 해주시고 대신에 밤에는 주인과의 관계로 돌아가서 당신이 주인 내가 노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는 겉보기에는 막동이가 자기 주인집 자손을 정성껏 섬기는 것의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아주 교묘한 계책이예요. 뭐냐면 자신이 양반이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남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막동이가 진짜 양반을 내 인맥으로 끌어들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송생은 진짜 양반이잖아요. 진짜 양반이 내 인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양반인 것이죠. 그런데 이 또 몰락 양반인 송생은 이런 꿍꿍이속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동이의 양반 행세를 위한 들러리를 서는지를 자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면서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막동이라고 하는 존재의 용의주도함과 똑똑함과 몰락 양반의 무능력이 대비가 되죠.

이렇게 돼서 한 달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송생은 이제 뭐 이만큼 대접받을 만큼도 받았고 이제 집에도 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십시오라고 하면

서 송생에게 최승지 즉 막동이죠. 최승지로 지금 신분 세탁을 한 막동이 대가로 돈 만 냥을 챙겨줍니다. 그런데 이게 또 송생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논밭도 사고 집도 장만하고 해서 부자가 돼요. 돈 만 냥은 뭘니까? 내 인척 행세해 준 거에 대한 대가인 것이죠 송생 입장에서는 몰락 양반이었으니까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본인도 완전히 이거는 좋은 일이죠. 이게 서로 다 윈윈하는 식의 거래입니다. 이제 이런 거래를 하는 것도 이 막동이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송생이 이제 원래 정말 볼품없는 몰락 양반이었다가 어디 좀 다녀왔더니 막 엄청난 부자가 됐더라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가우뚱거리는데 하필이면 송생의 사촌 동생 하나가 아주 집요하게 막 캐물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냐 사실 궁금하겠죠. 왜? 나도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사촌 동생은 원래는 어떤 존재냐면은 부랑아예요. 아주 거친 사람이에요. 부랑아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송생이 결국은 하도 다그치니까 사실대로 이제 이실직고를 해요.

이 말을 들은 그 사촌, 부랑아인 그 사촌이 완전히 이제 열을 받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꼴랑 노비 출신한테 그런 치욕을 받고 게다가 그 더러운 뇌물까지 받아서 챙겼단 말이나, 이 윤리 강상을 어긴 그 막동이라는 놈의 패륜상을 내가 폭로하고 치욕을 씻어야 되겠다. 이걸 뭐냐 하면 내가 그 동네에 가서 막동이의 정체를 다 까발리고 이놈을 내가 징치하고 돌아오겠다, 이 주인을 씹 싸 먹은 놈,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발끈 화를 내요. 그래서 송생하고 지금 송생의 사촌 동생이 이 막동이에 대한 반응이 상반되죠. 송생은 되게 무기력한 체념적인 반응인데 이 사촌 동생의 반응은 그 당시 지배질서에 입각한 아주 전형적인 지배층의 폭력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막동이 하지는 대로 따른 송생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또 흥미로운데 사실은 스스로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신분질서 하나에 입각해서 여전히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또 그 알량한 신분 차이를 이용해서 막동이를 겁박하고 그 재산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또 고약한 속셈을 또 품었던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부랑자입니다. 이 부랑아가 이제 막동이에게 가려고 이제 길을 나섰어요.

이제 송생은 또 이게 사람이 착해서, 받은 돈도 많잖아요. 서둘러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막동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부랑자인 내 사촌 동생에게 이런 얘길 하필 해버렸는데 찾아갈 거니까 조심하시오”, 이런 식의 편지를 이제 보냈겠죠. 다행히 이 편지가 부랑아인 사촌 동생보다 먼저 막동이에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도착한 시점에 막동이는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장기를 두면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편지를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 나서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꺾꺾꺾 막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참 젊어서 하찮은 기술 하나를 배운 게 참 후회막급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송씨 조카”, 송씨 조카가 바로 본인의 주인집 손자의 그 송씨입니다. “그 지난번 송씨 조카가 왔을 때 내가 침술에 약간 좀 소양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조카가 반가워 하면서 자기 사촌 동생인 광증이 있으니까 내려보내서 좀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래서 내가 괜히 침술할 줄 안다는 말을 해가지고 귀찮게 됐다.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정말 그 사촌 동생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광증을 앓고 있는 미친놈이 오니까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문 꼭꼭 닫고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자마자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한 또 교묘한 방법을 단시간에 강구를 하고 그에 맞게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이예요. 이 방법의 문제는 좀 이따가 밝혀집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고 지능적이고 용의주도하고 또 굉장히 대담하고 담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태연한 모습인데요. 태연함을 잃지 않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대담한 엄청난 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연기력인 면도 있어요. 만약 이때 편지를 받고 막 벌벌 떨거나 안색이 바뀌어 봐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일이지 다 궁금해할 거 아니예요. 그러고 나서 안색이 바뀌고 나더니 웬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은 우리 집 노비 출신이었다. 막 떠들어 대면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안색이 완전히 질렸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안색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또 연기력이 또 있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생의 사촌 동생이 과연 당도를 합니다, 이 부랑자가.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막 이제 얘기를 해요. 이 막동이라는 놈이 우리 집 하인이다라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고향을 질러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나면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단단히 미쳤구나, 최씨가 미친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정말 미쳐도 미쳐도 저렇게 미쳤구나, 최씨 인척은 송씨 양반인데 무슨 저런 헛소리를 하나, 이제 이런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동이 굉장히 대처를 잘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문제를 하나 해결한 것 같지만 지금 부랑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더 중요한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이제 막동이는 전혀 동요를 하지 않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그 부랑아를 잡아오게 해요. 뽕뽕 묶어가지고 자기 집 뒤의 공간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밤이 됩니다. 이 밤이 중요해요. 남들의 이목이 미치지 않는 시간이죠. 이 밤이 되니까 이제 막동이 대침을 들고 이제 공간으로 탁 들어옵니다. 아까 자기가 침술을 할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침을 딱 들고 가요. 이 침은 치료해 주기 위한 침이 아닙니다. 요 침으로 부랑자를 막 사정없이 찔러대요. 테러를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꾸짖어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지만 내 말을 안 들으면 널 죽여버릴 거다. 너를 죽여봐야 나는 침을 놓다가 실수로 사람 죽인 것밖에 안 된다.” 나는 끄떡 없다. 너 어느 쪽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의 협박이죠. 너 죽으면은 제대로 목숨값도 못 받을, 난 아무 타격이 없으니, 사실상 내 말 들으라는 거잖아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겁니다. 이에 그 부랑자는 완전히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고분고분해져요. 이거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송생이 얘기를 했더니 완전히 길길이 뛰었잖아요. 어떻게 노비가 감히 하다가 이 압도적인 힘의 차이 앞에서는 굴복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인정세태의 실상이 드러나요. 겉으로는 내가 신분이 우월하니까 뭔가 좀 우세에 있는 것 같고 노비 깔보고 능멸하고 내가 노비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힘이 센 사람이 장땡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동이는 그 부랑아를 5~6개월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게 만

들어줘요. 이게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아까 그 송생의 이렇게 사촌 동생이잖아요. 본인의 또 인맥이 거든요. 그 사촌 동생을 잘 대우해 주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막동이는 내가 이런 양반 출신이야라고 하는 걸 마을 사람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막동이는 부랑아를 큰돈을 쥐여서 돌려보내요.

그런데 여기로 끝나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을 텐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붙으면서 끝나요. 뭐냐하면은 막동이가 임종에 도달했을 때 자식들에게 자신의 내막을 다 얘기해 줘요. 실은 내가 노비 출신이란다. 그리고 “내가 내 옛날 상전을 괴롭힌 그 죄값을 갚도록 해라”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겨요. 여기서 자신의 신분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았는데 왜 굳이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신분의 정체를 밝혀야 했을까, 그리고 왜 주인집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을까, 이런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까가 이제 문제입니다. 일단은 막동이가 결국은 신분 상승에 성공했지만 그 당시 지배적인 신분질서, 지배이념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막동이는 복잡한 인간이 되죠. 한편으로는 지배질서를 벗어나서 적극적인 자기 행위 주체성을 발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배이념에 사로잡힌 면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막동이의 모습은 이야기를 기록으로 정착한 사대부층의 환상을 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막동이가 죽고 나서 막동이의 자식들은 자신의 신분의 정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신분 정체가 탄로나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막동이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분의 정체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마지막 장면조차도 막동이의 굉장한 용의주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이 있다, 이 점을 덧붙여주고 싶습니다.

4. 군도담

자 이렇게 해서 치부담을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재밌지요. 이 치부담 말고 또 적극적으로 그 당시 지배체제에서 이탈한 존재들이 있어요, 바로 도둑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야기, 군도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도둑 이야기는 조선후기 군도의 발생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럼 이어서는 군도담을 보겠습니다. 이 군도담은 도둑 이야기인데요. 이 도둑은 앞에서 살펴본 막동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배 체제를 이탈한 존재들이에요. 그래도 막동이는 지배질서 안에서 신분 세탁을 한 것인데 도둑은 완전히 그걸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의 이야기인데 이 군도담은 당연히 조선후기 군도의 발생을 배경으로 성립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이제 피지배 계층에게 조세의 부담, 공역의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부여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중층이 여러 가지 이제 저항을 해

왔어요. 그 저항 중에 하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은 조세와 공역의 부담이 사라지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와 공역을 징수할 수가 없게 되고 본인은 자유로워지니까 도망은 굉장히 적극적인 저항의 방식인데 도망가는 방식도 여러 가지예요. 그냥 산속에 숨어들어가는 방식도 있고 바닷가 마을로 숨어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아니면 유랑민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유랑민으로 떠돌아다니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식의 도망은 사실은 아니죠. 왜냐면 본인의 삶이 거의 이제 거지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거 말고 적극적으로 되는 게 이제 아예 도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적극적인 체제 이탈의 방식입니다. 이 도둑은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군도는 도적 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집단을 형성하게 돼요. 반국가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소설적으로 발전이 되면 나중에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 이런 것으로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도적 이야기에는 지배질서에 대한 민중층의 반감, 저항심 이제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또 도둑으로 표상되는 민중영웅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작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작품 제목은 「월출도」입니다. 이 「월출도」는 역시 『청구야담』에 실려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낙동강 영변에 이제 강벽리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그곳에 이제 부자가 있었는데 군도, 도적떼에게 재물을 탈취당하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확인하면 이제 재미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줄거리 진행 순서대로 쪽 보면 이렇습니다. 영남에 이제 한 사족이 있었어요. 되게 부자예요. 백여만 금의 재물을 축적했어요. 그런데 부자이긴 한데 이 사람에게도 뭔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콤플렉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사족은 여러 대를 걸쳐서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인척 까지도 모두 향반이에요. 향반은 이제 벼슬 없이 대대로 시골에 이제 사는 양반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쪽에는 인맥이 없어요. 즉 지역 유지이긴 하지만은 그 지역을 벗어나면은 내세울 게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양반의, 이 사족의 로망은 서울 쪽에 유력 인사하고 끈이 닿아가지고 더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서울 쪽 사람하고 서울 쪽에 좀 힘 있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한번 좀 끈이 닿아볼까,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울산 수령이 상을 당해요. 초상을 당했던 말이에요. 옛날에는 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예요. 초상을 치르려고 하면은 상주도 있지만 상주를 도와서 상례 전반의 일을 도와주는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있기 마련인데요. 이때 그 일을 주관한 사람으로 된 사람이 수령의 생질인 박교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당연히 양반층이죠. 서울 사람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와서 상례 관련된 일 전반을 주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남의 사족, 나중에 도둑질을 당할 이 사족의 집에 어떤 준마를 타고 노비를 거느린 되게 화려한 행차가 그 부잣집 때문에 당도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 손님을 맞아들여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찾아온 사람은 내가 울산

수령의 생질인 박교리요라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박교리가 자기 울산 수령의 상례를 주관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머물 곳이 없으니 당신 집에서 좀 머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부잣집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내가 양반집하고 좀 연을 만들고 싶었는데 잘됐죠. 게다가 울산 수령의 생질이라니 유력 가문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은 이제 얼씨구나 이제 좋아가지고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손님맞이 준비를 아주 세세하게 지시를 해요. 그래서 아주 잘 준비를 해서 손님을 맞이했어요. 그날 초저녁에 이제 행차가 감도를 했는데 아주 이제 그럴싸하게 보였어요. 누가 봐도 아주 있는 집안의 행차인 것으로 보였던 말이에요.

서로 이제 인사를 마치고 나니까 주인의 아내가 막 큰일 났다면서 막 말을 해요. 남편한테 여기에서 이제 뭔가 분위기가 싹 전환이 되는데요. 그 주인집 아내가 하는 말인즉슨 이런 겁니다. “상여라는 것이 봤더니 애초에 관은 실려 있지 않고 모두 병장기가 실려 있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도적이 왔다는 거예요. 도적이 부잣집을 노리고 박교리의 행차로 위장을 한 것이죠. 여기서 이 위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이 도둑들은 되게 용의주도한 변신의 귀재들이예요. 물론 이제 강제적으로 재물을 약탈하는 경우도 많지만 되도록이면 쉽게 쉽게 지능적으로 재물을 뺏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장에 능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예를 들면 『임꺽정』 소설에도 보시면은 임꺽정 집단들이 여러 가지 변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 도적은 무력으로 강탈을 하는 대신 지략을 쓰는 전략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본인에게도 되게 경제적인 방법이지만 또 굳이 인명을 살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 또 그런 마음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조용하게 일을 끝내는 게 도둑들에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시끄러우면 관아에 알려지고 추격받을 거 아니예요. 조용조용하게 끝나는 게 아주 제일 좋단 말입니다. 이게 도둑질을 당하는 입장에서든 마찬가지예요. 흔히 흔한 말로 맞고 줄래 그냥 줄래라고 하잖아요. 맞고 주면은 빼앗기지만 맞기까지 하는데 그냥 주면은 맞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의 계산이 이 변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이 드러나는데요. 이 도둑이 얼마나 지능적이냐 하면은 이 털려고 하는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나 원하는 것,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그 걸 딱 건드리기만 하면은 바로 속아 넘어가는 거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걸 간파해서 바로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그에 비해서 그 주인택인 그 사람은 굉장히 나이브하고 무능력한 것이죠. 부잣집의 허위의식이 또 같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이게 부잣집의 허위의식이 도적의 지능과 대비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까 주인이 이제 아차 싶습니다. 이거 내가 당했네.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미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도리가 없구나 해서 이제 손님을 만납니다. 이제 손님이 도적의 두령이죠. 그래서 손님, 즉 도적의 우두머리가 주인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심시키는 투로 이제 협박을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가져갈 것은 실어갈 수 있는 가벼운 재물밖에 없다. 즉 우리가 너희 집 훔치고 도둑질해도 땅, 가축, 집, 곡식 이런 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잃

어버린 재물이 아마 적지는 않겠지만 너 정도 수준이면 몇 년 지나면은 다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은 공변된 것이다.” 이제 이 말이 되게 재미있는 말인데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재물은 쌓아둔 사람이 있으면 또 쓰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줄어들면 자라고 차면 기우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주인장 당신은 이런 자연의 섭리를 모르고 그냥 돈 욕심이나 있고 말이야,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느냐. 너도 자연의 섭리에 속해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둑이 자신의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재물이 공변된 것이라는 자세인데요. 결국은 소수가 재물을 독점하는 것, 그래서 과도한 부를 향유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반감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불균형을 조정하는 행위이다. 즉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구현하는 일이다, 너가 그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부를 독점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이 단순히 불법이 아니라 그 나름의 명분이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는 어떤 도둑이 집단화될 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자각하는 그런 도둑으로서의 자의식, 좀 말은 이상합니다만 이런 자의식을 형성한 단계에 도달한 것을 이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도적은 기왕 이렇게 됐으니 괜히 인명을 해칠 것이 없지 않느냐, 도둑질에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장이 안으로 들어가서 부녀자를 한 방에 모여 있게 하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인장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 뭔지 말해라, 왜? 그 물건만큼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나름의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최근에 700냥 주고 청노새 하나 샀는데 이것만큼은 좀 훔쳐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도둑들이 이제 변장한 거 다 풀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도둑질을 굉장히 신속하게 해요.

도둑의 이제 대장이 지시를 내리는데 “부녀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군벌의 군율에 따라 처벌하겠다”, 이거는 사형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청노새는 절대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도둑은 단순히 남의 것을 약탈하는 범법자 집단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법과 윤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윤리의식이 있고 그래서 아녀자들은 건드리지도 않고 딱 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둑질을 당하는 사람이 겪어야 될 어떤 박탈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심 같은 거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다 훔쳐 가진 않고 네가 아끼는 물건만큼은 남겨줄게, 이 정도 도둑질을 하되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면요, 이 도둑들이 재물을 살살이 찾아내서 다 이제 쓸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강을 건너서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객으로 있었던 그 도둑의 대장은 이제 주인을 위로해 주고 작별 인사를 고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나 같은 사람 한 번 보면 됐지 뭐 두 번 만날 필요 있냐. 한 번 만나는 것도 큰 불행이다. 너도 나를 다시 보고 싶진 않겠지. 이제 헤어지고 나면 우리는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 주인장은 이제 순리대로 살고 만복을 그래서 받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 사대부와 교제할 생각일랑 아예 마음에도 두지 마라. 이번에 이른바 박교리라는 인물에게 네가 무슨 덕을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도적이 오히려 부자에게

타이르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은 탈이 나기 마련이다. 서울 쪽에 인맥을 만들겠다고 하는 허황된 욕심 때문에 너는 오히려 화를 입지 않았느냐. 그런 허황된 욕심을 버려라. 이런 가르침까지 이제 주기까지 이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도적은 주인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나를 추격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너 후회막급일 거다”,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도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인들이 이제 막 나서는 거예요. 막 분노를 하면서 도적을 추격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자 갑자기 집 뒤 소나무 대밭 사이에서 천여 명이 되는 그 도적떼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막 뛰어나와요. 이때 하인의 규모가 한 600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서술됐는데요. 이 600명의 하인들이 모두 완전히 당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도적들이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튿날 보니까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 마구간의 청노새까지 사라졌어요. 내가 너를 배려해 주는데 너가 내 말을 어겼잖아 하고 벌을 내린 것이죠. 이 도적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요. 도적이 자신의 말을 어긴 것에 대한 보복을 했다는 것, 그다음 또 이제 보니까 그런데 청노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안장에 편지가 있는데 도둑 당한 그 부잣집을 위로해 주고 탈취한 재물은 고맙게 잘 쓰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서술을 또 보면은 도둑이 얼마나 용의주도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도 있고요. 굉장히 도둑이 굉장히 용의주도한 것이 잘 드러나고 이제까지 이야기 검토한 걸 보면 재물은 공변된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 도둑의 입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도둑이 살생을 자제하고 부녀자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 나름의 윤리성을 발휘하고자 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부자의 허위의식을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나를 추격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해놓고도 믿지 못해가지고 숨어놓고 있다가 내 말 안 듣고 추격하니까 바로 손 봐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남의 행동 패턴을 잘 개선하고 예측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대비해 놓는 거, 이런 거에서 굉장한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비되는 부자의 탐욕, 무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대비가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5. 더 생각해볼 문제

이렇게 해서 야담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이제까지의 공부를 토대로 더 생각해볼 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면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담에는 이제 조선 피지배 계급의 다양한 행위 전략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다양한 행위 전략에는 또 이제 그들의 욕망이 다 개입이 되어 있겠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위 전략을 짜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야담에서 나타난 이 민중층의 욕망은 어떤 다양한 층위들이 있고 어떤 다양한 욕망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

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야담에는 이제 또 조선 피지배계급뿐 아니라 지배계급의 모습 또한 다양하게 드러나잖아요. 몰락 양반이 과거 시험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을 포기한 대신에 생업에 투신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몰락한 채 아주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야담의 지배계급이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형상화되고 있고 그 다양한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며 우리가 야담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고 야담에 대한 공부를 토대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선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도 물론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오늘 강의에서는 ‘민의 욕망과 행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야담의 세계를 탐색했습니다. 야담은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한문으로 기록되어 정착된 단형서사입니다. 야담은 부에 대한 관심, 서민의식의 성장, 몰락양반의 궁핍상과 삶의 전환, 사회구조의 재편과 계층갈등의 심화, 사랑과 성, 체제모순에 대한 저항 등 조선후기의 현실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치부담, 신분상승담, 군도담 등 야담의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치부담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야기로, 당시 사회상과 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서야담』에 수록된 「귀향」은 몰락양반 최생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최생이 윤리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를 타인과 나눔으로써 호혜적인 관계망을 구축하는 모습을 통해 치부행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분상승담은 노비가 도망가서 신분 세탁에 성공하는 이야기로, 조선후기 신분질서의 동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조선후기 피지배 계급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청구야담』에 수록된 「옛 종 막동」은 노비 출신 막동이 용의주도하게 신분을 세탁하여 양반으로 행세하게 되는 과정과 자신의 정체성을 폭로하려는 양반을 오히려 궁지에 몰아넣어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도담은 도둑 이야기로, 조선 후기 군도의 발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구야담』에 실려 있는 「월출도」에서, 군도는 도둑질에 대한 명분과 논리, 나름의 윤리성, 지능성을 보여주며 독자로서 하여금 통쾌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도적 이야기에는 지배질서에 대한 민중층의 반감과 민중 영웅에 대한 갈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야담은 지배질서에 순응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며, 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법에 구속되기도 하며, 속물적으로 행동하기도 하는 등 조선조 민의 다양한 행위 전략을 서사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 전략에 개입된 다양한 욕망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줍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야담은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한 것이다. (O/X)

정답: X

2. 『계서야담』, 『청구야담』, 『동야취집』은 편찬자가 직접 듣고 정리한 3대 야담집이다. (O/X)

정답: X

3. 1920년대에는 야담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O/X)

정답: O

4. 치부담의 주인공으로는 가난한 평민만 등장한다. (O/X)

정답: X

5. 신분상승담은 조선후기 신분질서의 동요를 반영한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귀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생은 『맹자』의 한 구절을 읽고 가난 때문에 불효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여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다.
- ② 최생은 곡식을 사들여 비축했다가 흉년에 무료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③ 최생은 치부에 대해 능동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정답: ①

2. 다음 중 「옛 종 막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막동이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 봐 평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송생을 만나게 되었다.
- ② 최승지는 몰락양반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을 하게 되었다.
- ③ 막동이는 자신이 양반 출신이란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송생과 송생의 사촌동생이 자기 집에서 편하게 지내게 했다.

정답: ③

3. 다음 중 「월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군도는 서울에 있는 부잣집의 재물을 탈취했다.
- ② 군도는 자신들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들의 말을 어긴 부자의 청노새를 훔쳤다.
- ③ 도둑은 재물이 공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답: ①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이야기를 노래로 구연하는 사람을 ○○○라고 부른다.

정답: 강창사

2. 「귀향」은 ○○○○에 수록된 치부담이다.

정답: 계서야담

3. ○○○은 도둑에 대한 이야기이다.

정답: 군도담

나. 토의(45분)

1) 야담에는 조선조 피지배계급의 다양한 행위 전략이 서사화되어 있다. 그 이야기에서 조선조 피지배계급은 지배질서에 저항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하고 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법에 구속되기도 하고 속물근성에 사로잡히는 등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행위 전략에는 그들의 욕망이 개입되어 있다. 그렇다면 야담에 나타난 민중층의 욕망은 어떤 다양한 층위가 있으며 그런 다양한 면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전통적인 야담 연구에서 민중층은 변혁의 주체로 상정된 감이 있다. 하지만 조선조 피지배층은 변혁의 가능성을 담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면, 예를 들면 속물근성이나 출세욕 같은 것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야담에 나타난 조선조 피지배층의 행위 전략을 단순화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2) 야담에는 조선조 피지배계급 뿐 아니라 지배계급의 모습도 다양하게 드러난다. 몰락양반이 과거 시험을 포기하는 대신 생업에 투신하여 성공하기도 하고 몰락한 채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야담에는 지배계급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으며 그 다양한 형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야담에서는 지배계급의 면모 또한 다채롭게 드러나는데, 신의를 지키는 존재도 있고 비정한 존재도 있으며, 몰락하여 가난에 시달리는 존재도 있고 몰락했지만 적극적으로 치부행위에 나서서 성공한 존재도 있다. 야담 작품을 읽어가면서 이런 다양한 면면을 확인하고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분류하고 유형화하면 야담 내 지배계급의 형상화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 다양한 지배계급의 면면은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지배층

의 환상을 투영한 것일 수도 있고 피지배층의 비판의식이나 선망의식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품 분석을 하도록 한다.)

다. 과제(45분)

이 강의에서 살펴본 작품의 주인공 중 흥미가 가는 인물을 한 사람 택하여 그 인물이 어떤 점에서 흥미로운지 서술해 보십시오.

(「귀향」의 최생, 최생의 노비, 「옛 종 막동」의 막동이, 송생, 송생의 사촌동생, 「월출도」의 영남 사족, 도적의 우두머리, 영남 사족의 노비 등이 각각 흥미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중 한 명을 선정하여 논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을 선정하여 비교 논의를 할 수 있다.)

〈제8강〉

일본에의 시선

「해유록」과 「일동장유가」

학습 목표

1. 전근대의 조일 관계와 통신사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일본과의 통신사 교류가 한국 문학과 한국 지식인들의 일본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다.
2. 「해유록」에 나타난 일본 사회와 문화, 조일 관계의 여러 면모, 그리고 일본에 대한 신유한의 인식 태도에 대해 살펴본다.
3. 「일동장유가」에서 작가는 일본 사회의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강의 핵심 요약

‘일본에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해유록」과 「일동장유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조일 관계와 통신사에 대해 개관하고, 이어 「해유록」의 작가 신유한과 「일동장유가」의 작가 김인겸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유한은 1719년에 통신사의 제술관으로서 일본에 다녀와 「해유록」을 썼다. 「해유록」에는 이국 체험, 일본 문화와 사회, 외교 현장의 긴장, 일본인과의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인겸은 1763년에 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와 장편 가사 「일동장유가」를 지었다. 「일동장유가」에는 여행 과정,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적개심, 일본의 도시 경관과 문물에 대한 찬탄, 일본의 배울 점에 대한 고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서 「해유록」에 나타난, 일본과 일본 문화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살펴보았다. 신유한은 후지산의 아름다움, 가부키를 구경한 경험, 음식 문화, 정교하고 정결한 집, 일본 서민의 모습, 꿍어앉는 매너 등 일본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있다. 특히 꿍어앉는 풍습 이면에 있는 일본의

무가사회적 특징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군사체제와 상명하복이 체질화된 군사문화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오사카와 나가사키 등 대도시의 번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기도 한다. 외교 현장의 갈등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는 것 역시 「해유록」의 중요한 점이다. 쓰시마 태수에 대한 의례를 둘러싼 갈등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위패를 모신 절에서 연회를 여는 것 때문에 통신사들이 분노한 일에 대한 기록은 당시 일본과의 외교적 긴장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어 「일동장유가」의 일본 인식을 살펴보았다. 김인겸은 일본의 문화와 풍습을 멸시하기도 하지만, 일본의 번영상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일본 인식을 보여준다. 일본에 비해 조선이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 역시 김인겸의 일본 인식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 강의 내용 전문 ◆

강의 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국 문학의 외연을 넓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창작된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 몇 편을 뽑아서 보려고 하는데 「해유록」이라고 하는 여행 기록물하고 「일동장유가」라고 하는 장편 시가 이 두 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선 수업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작품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전근대 시대에 어떻게 그리고 그때 조선에서 통신사를 파견하는데 이 통신사행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이것 간단하게 배경적인 검토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각각 「해유록」과 「일동장유가」의 작가인 신유한과 김인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유록」을 먼저 살펴봐서, 「해유록」 내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그중에 일본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일본 문화에 대한 관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글로 표현되고 있는가 이런 걸 먼저 요모조모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좀 더 파고들어서 일본 사회에 대한 좀 예리한 분석들 이런 것들이 「해유록」에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또 「해유록」이라고 하는 게 곧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통신사라고 하는 일종의 외교사절을 계기로 산생이 된 것이어서 외교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또 지금도 한일 관계가 많은 긴장이 있지만 조선시대에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교 현상이 이 「해유록」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고요. 「해유록」을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보고 「일동장유가」는 상대적으로 내용이 좀 「해유록」만큼 풍부하지 않아서 「일동장유가」는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에 조선 지식인이 다녀오고 나서 쓴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 본격적인 여행 기록물하고 장르가 다른 시가 이런 거를 좀 비교해서 골고루 공부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오늘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걸 토대로 더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볼 만한 점이 뭔지 간단하게 짚어 보면서 수업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강의 순서

1. 조일 관계와 통신사
2. 「해유록」과 「일동장유가」의 작가
3. 「해유록」 내 일본 및 일본 문화에 대한 관찰
4. 「해유록」 내 일본 사회에 대한 분석
5. 「해유록」에 나타난 외교 현장
6. 「일동장유가」의 일본 인식
7. 더 생각해볼 문제
8. 강의 내용 정리 및 요약

1. 조일 관계와 통신사

자, 먼저 배경이 되는 것부터 짚어보죠. 조일 관계와 통신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선 통신사의 외교 활동이 어땠는가부터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통신사라고 하는 말부터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조선에서 일본에 정기적으로 파견한 외교 사절단을 통신사라고 합니다.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는 주로 사대, 교린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사대는 동아시아 책봉 체제의 중심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를 뜻하고요. 우리 조선에서는 명나라 혹은 청나라 이런 중국에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린은 중국이 아닌 나라들과의 관계, 우리로는 일본과의 관계죠. 이런 교린 관계 차원에서 통신사를 파견한 것입니다. 파견 횟수는 조선 전기부터 이 통신사를 파견해서 조선 전기에 8회를 파견했으니까 꽤 주기적으로 적지 않은 횟수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임진왜란을 통해서 국교가 단절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임진왜란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조선을 엄청나게 피폐하게 만들었고 명나라 멸망에도 작용을 했으니까 동아시아에 엄청난 폐를 끼친 전쟁인데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으니까 국교 단절을 하다가 조선 후기에 다시 1607년부터 외교 관계가 재개가 돼서 12회 동안 통신사를 보내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죠.

통신사가 다시 재개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해요. 외교이기 때문에 양국,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이 다 걸려 있겠죠. 조선의 경우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일본 사회가 혹시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지 좀 파악을 하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일본으로서는 이게 또 여러 가지 필요

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주로 통신사를 국내용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 다시피 조선 입장에서는 교린 관계 즉 일본하고 조선이 동등한 관계 이를 전제로 통신사를 파견했던 거였는데 물론 조선 사람은 일본을 문화적으로 알보기는 했죠. 알보기는 했지만 외교 격식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본인에게 조선이 조공사, 중국과 같은 위치로 자신을 높여서 조선이 일본에 조공사를 파견한 것이라 하고 국내용으로 선전을 해요, 왜곡을 해서. 그러니까 국내 용으로도 통신사가 필요해지기도 하고 또 한일 외교 관계와 관련해서 쓰시마 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외교 관계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쓰시마 쪽에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돼요. 쓰시마 쪽에서의 어떤 노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통신사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어쨌든 조선과 일본 각각의 계산이 서로 맞아 떨어져서 외교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이 통신사 파견은 기간이 좀 길어요. 대체로 10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일단 지금과 달리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한양에서 부산까지 가서 배를 타고 오사카로 들어가서 이제 도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긴 여정입니다. 대체로 한양, 부산, 쓰시마를 거쳐서 오사카, 그다음 에도, 지금 도쿄라고 부르는, 까지 가게 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통신사 구성은 대체로 한 500명 정도의 규모로 구성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삼사, 정사, 부사, 종사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제술관, 그다음에 이 삼사를 보조하는 세 서기가 딸리고요. 제술관과 삼 서기들은 대체로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에게 시도 지어주고 글씨도 써주고 하는 일종의 문화사절단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그 밖에도 실무진들, 역관이 딸려야 되겠죠. 통역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화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붙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치면 사진 찍는 거죠.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대동하고요. 악공, 배를 몰아야 되니까 선장 등등, 이렇게 해서 대규모 인원들이 결국은 파견이 됩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했어요.

2. 「해유록」과 「일동장유가」의 작가

• 「해유록」의 작가 신유한

이렇게 해서 통신사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해유록」의 작가 신유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호는 청천이라고 호를 썼고요. 조선후기 서얼 문인입니다. 서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서얼 하면 흔히 신분적인 불우 의식을 가졌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통신사행은 서얼 지식인들에게 좀 새로운 기회가 많이 됐어요. 서얼 지식인 중에 문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서얼이라고 하는 신분적인 제약이 역시 작용을 했는데 일본 통신사에 따라가게 되면 가서 주로 서기나 제술관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뽑내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그것을 굉장히 인정해 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열 지식인들이 많이 차출이 되기도 했고 또 일본 통신사, 일본에 통신사 가는 것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신유한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일본 다녀와서 쓴 「해유록」이 신유한의 대표작으로 결국 남게 되거든요. 신유한은 문집을 신유한의 문집으로는 『청천집』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 「해유록」의 성립 배경

이어서 그런 「해유록」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앞에서 통신사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기해통신사, 1719년의 통신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조선 후기의 제9차 사행이 되는 건데요. 이때 파견 목적은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쇼군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그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기해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파견 기간은 1719년 4월 11일에 출발을 해서요. 1720년 1월 24일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해를 넘기게 된 거죠. 이 기해통신사는 여러모로 주목이 되는데요. 그전에 임술 통신사, 1682년에 파견된 통신사인데요. 이 임술 통신사를 기점으로 해서 요 제술관의 역할이 많이 증대돼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일종의 문화사절로서의 역할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으로 신유한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밖에 사행 문학의 전통이 또 「해유록」의 성립 배경으로 작용을 합니다. 일본에 다녀오면 여러 가지 기록물이 산생이 되기 마련이예요. 공식적인 국왕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 나오고요. 그밖에도 다녀온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행 일기, 사행시 그리고 일본 사람들과 주고받은 창화시 그리고 일본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일본 사람들과하고 붓으로 대화를 나눈 필담 모음 이런 것들이 다 발생이 되게 되고 「해유록」은 이렇게 사행일기, 사행시, 창화시, 필담집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작성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유한 자신의 필담 자료도 현재 일본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 필담집은 일본의 경우 조선 사람들이 다녀오고 나면 거의 실시간으로 상업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필담집이 지금 남아 있고 그게 지금 국내에도 많이 번역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행 문학의 전통과 상응하는 건데 조선 내에서도 일본에 대한 관심이 증대를 해요. 단순히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일본을 문화적으로 깔보고 이런 데에서 탈피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살피고 일본의 학술의 동향, 문학 문단의 동향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자극도 받고 일본의 좋은 점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자꾸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해유록」이 성립이 되고 또 「해유록」을 통해서 또 일본에 대한 더 진전된 인식이 정립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해유록」의 주요 내용

자, 이렇게 「해유록」의 성립 배경을 살펴봤고요, 「해유록」을 살펴보기 전에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개관을 한번 해볼게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약간 이국적인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지금도 보면 일본이 동아시아 내에서는 좀 이질적인 느낌이 여전히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많이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국 풍경을 담은 글들이 「해유록」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을 매개로 해서 조선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서양을 접한 기록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그때 들어갔던 네덜란드 상인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보입니다. 일본 문화와 관련해서는 성 풍속과 관련된 글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사카에는 그 당시 대규모 유곽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기록이라든가 신유한에게 충격을 줬던 남창과 관련된 시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일본의 공연 문화에 대한 관찰이 또 보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또 지금도 우리 일본 하면 음식, 기호품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음식이나 일본의 기호품인 차, 담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보이고요. 또 우리 일본 하면 또 일본 특유의 매너, 인사도 공손하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매너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찰이 이미 「해유록」에도 보입니다. 생활 매너에 대한 관찰들이 또 있고요. 또 이제 지식인으로서 일본 사회의 심층을 좀 파고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또 보여요. 그래서 일본이 병영국가로서 갖는 면모라든가 일본의 정치경제 중심부에 대한 어떤 관찰이라든가 예를 들면 일본의 정치 중심지는 도쿄잖아요. 군사 도시적인 면모도 갖고 그다음에 오사카 이거는 경제특구였거든요. 그다음에 상징권력인 천왕이 있는 곳은 교토였거든요. 그래서 도쿄, 오사카, 교토 이런 등등을 관찰하면서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조직 원리나 경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또 관찰을 하는 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인들 특유의 여러 가지 또 생사에 대한 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사도적인 면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도 보이고요. 또 외교 현장에서의 긴장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전 문제인데요. 의전 문제라든가 뭔가 일본 측의 저의가 수상한 어떤 행사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또 그런 게 있고요. 이런 거 외에 일본 사람들과의 아주 우호적인 문화 교류라는 게 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한글을 적어주고 알려준다든가 정들었던 일본 사람들과 눈물 흘리면서 이별을 한다든가 일본 사람이 아주 간곡한 뜻을 표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다든가 이런 어떤 인간미 넘치는 기록들이 또 「해유록」에 보입니다.

• 「일동장유가」의 작가 김인겸

이렇게 해서 「해유록」에 대한 개관을 마치고 그다음 「일동장유가」에 대한 개관으로 넘어갈게요. 「일동장유가」의 작가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는 사안이라는 자를 썼고요. 호는 퇴석이라는 호를 썼고요. 재미사행단의 종사관으로 이제 참여를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동장유가」라고 하는 장편 시가를 지었고요. 그 당시에 재미사행단의 서기가 김상익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재미사행단의 종사관이 김상익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김상익이라고 하는 종사관의 서기 신분으로 김인겸이 재미사행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57세여서 꽤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사행 후에 국문 장편 가사인 「일동장유가」를 창작을 했습니다. 이 재미통신사는 1763년에 파견이 됐고요.

• 「일동장유가」의 주요 내용

「일동장유가」의 주요 내용은 장편 기행가사로서 한양에서부터 출발해서 도쿄에 이르는 과정이 노래가 되고요. 도쿄에서 한양으로 복귀하는 과정도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쪽 가면서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나 내가 일본으로 일본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착잡한 마음 이런 게 토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는 일본을 관찰하는 게 많이 보이겠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적개심 당연히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일본의 도시 경관이나 일본의 문물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하고 또 그런 내용들도 보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일본의 배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관찰을 하고 그것을 시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 필담 자료에 나타난 김인겸의 일본 인식

이제 이렇게 해서 「일동장유가」의 주요 내용을 개관해 봤고요. 그러면 김인겸은 어떤 배경에서 「일동장유가」를 지었는가와 관련해서 김인겸의 어떤 일본 인식이라 그럴까, 일본에서의 일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게 김인겸의 필담 자료입니다. 필담 자료를 통해서 김인겸이 일본에서 실제로 어땠는가를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계단앵명』이라고 하는 필담집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필담집은 오사카의 의사이자 시인인 키츠안이 통신사들하고 주고받은 필담과 시문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계단앵명』은 조선에서 온 통신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시문을 창수하고 필담을 나누었다는 뜻을 한자로 한자식 표현으로 말한 거예요. 필담을 한 장소는 오사카입니다. 니시혼간지라고 하는 사찰을 통신사의 숙소로 활용했는데요. 이 오사카의 니시혼간지에서 필담이 이루어졌어요. 통신사가 그때 있었던 인물들은 남옥, 성대중, 원중거 이런 사람 등등이었고요. 김인겸은 보면 좀 약간 보수적인 면모를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일단은 이 필담 중에 보면 책과 관련된, 김인겸도 지식인이니까 책에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명나라 역사책이나 『삼재도회』라고 하는 백과전서적인 책이나 『본초강목』 같은 또 본초학 서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를 해요. 키츠안이 대답을 하는데 『명사』는 어떻게 『삼재도회』는 어떻게 『본초강목』

은 어떻고 그래서 어떤 책을 얼마를 주고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일종의 문화 교류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서적을 입수하고 이런 서적 출판과 관련된 소상한 정보를 뭔가 김인겸이 일본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됐구나, 일본에서 김인겸이 좋은 책을 사가지고 가려고 알아보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과 연관되는 건데 학술과 관련된 필담이 이어져요. 이런 거예요. 키츠안의 경우는 조선 사람하고 학술적인 토론을 많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성리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여러 가지 중요한 성리학자들 이야기를 막 해요. 그에 대해서 김인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래서 키츠안이 주로 일본의 성리학자들을 언급하면서 학술 토론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면서 성리학자만 얘기를 하지 않고 이토 진사이나 오규 소라이같이 성리학을 비판한 고학파들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인겸의 태도는 성리학을 정통 학문으로 두고 성리학을 정통 학문으로 두는 입장이어가지고 성리학을 비판한 고학파들, 이토 진사이나 오규 소라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좀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김인겸이 좀 보수적인 성리학 위주의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게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김인겸은 일본 사람에게 우리 조선이 얼마나 문물이 찬란하고 훌륭한지,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자부심을 표현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키츠안은 좀 자기 나름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필담이 마무리가 되는 데요.

보시면 김인겸이 일본에서는 좀 더 정통 성리학을 중심에 두면서 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서적을 구한 걸로 봐서는 아주 100% 문화적으로 멸시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선을 우위에 두고 일본의 일본 지식인에게 조선의 우월함, 유교 문명이 더 발달했다는 측면에서의 우월함을 좀 더 강조하는 입장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이면서 일본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조선인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거를 또 잃지 않는 것이 「일동장유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해유록」 내 일본 및 일본 문화에 대한 관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배경적인 설명은 마무리 짓고요. 다시 「해유록」, 「일동장유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해유록」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해유록」 중에서 여러 내용 중에서 일본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일본 문화에 대한 관찰 이거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일본 딱 가면 후지산이 딱 보이기 때문에 후지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을 했는가를 한 대목 보겠습니다.

• 후지산

9월 19일자 기록인데요. 이렇게 신유한이 서술합니다.

날이 밝자 출발하여 40리 가서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 고개 이름은 ‘시오미’(潮見)이다. ‘시오미자카’(鹽見坂)라고도 한다. 지금까지 사신들이 온 길은 모두 남쪽으로 큰 바다를 끼고 있었지만 여러 산에 가려져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바다를 따라갔다.

시라스(白須)라는 마을을 지나는데 가마꾼들이 동쪽으로 구름가를 가리키며 ‘후지산이다!’ 하고 떠들썩하게 외쳤다. 가마를 멈추게 하고 바라보니 한 줄기 봉우리가 솟아난 것이 마치 흰 옥잡화가 푸른 하늘에 꽃혀 있는 듯했고,

표현이 절묘하죠.

산 중턱 아래가 자욱한 구름과 안개에 가려진 것은 마치 중국 화산(華山)의 연못에 하얀 연꽃이 피어난 듯했으니,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멋진 광경이었다는 얘기죠.

만일 진시황이 낭야대(琅琊臺)에서 이 광경을 보았더라면 바다를 건너 신선을 찾았을 것이다. 여기서 산 아래까지의 거리가 4백여 리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산이 눈에 들어오니, 일본의 여러 산 가운데 후지산과 견줄 만한 것은 없을 듯하다.

낭야대는 이제 중국 산둥성에 있는데 진시황이 천하 통일한 곳에 천하 통일을 한 다음에 여기에 와서 비석을 세웠다고 해요. 여기서 보면 바다가 보이는데 쪽 시선이 가면 일본까지 닿는다는 상상을 한 거죠. 다시 보면요.

만일 진시황이 낭야대(琅琊臺)에서 이 광경을 보았더라면 바다를 건너 신선을 찾았을 것이다. 여기

서 산 아래까지의 거리가 4백여 리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산이 눈에 들어오니, 일본의 여러 산 가운데 후지산과 견줄 만한 것은 없을 듯하다.

이렇게 해서 후지산을 처음 본 소감을 신유한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만년설이 봉우리를 덮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우면서 신령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데 지금 생략한 부분에서는 이런 신령스러운 느낌과 관련된 약간 미신적인 이야기들도 소개가 되고 신유한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배척하지 않고 이렇게 긍정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후지산은 일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후지산을 보고 묘사를 한, 신유한이 이런 글을 남긴 거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후지산이 더 좋느냐 금강산이 더 좋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일본 사람들하고 많이 논쟁도 하기는 했어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후지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서술한 거는 조선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에도에서의 가부키 구경

자, 그다음 산 한번 봤으니깐요. 도쿄의 좀 문화적인 활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에도에서 신유한이 가부키 공연을, 가부키를 구경했는데요. 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자 기록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쓰시마 태수가 사신에게 편한 옷을 입고 별관에 나가서 공연을 구경할 것을 청하기에 우리는 걸어서 바깥채로 나갔다. 다른 수행원들도 모두 따라왔다. 바깥채 앞 예닐곱 걸음 떨어진 곳에 화려하고 탁 트인 작은 행랑채가 있었는데, 악공 대여섯 명이 비파, 피리, 장구 등을 들고 줄지어 앉아있었고, 노래하는 사람이 또 몇 명 있었다.

이렇게 가부키초 묘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공연에 대한 서술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악보를 앞에 놓고 한 장씩 넘겨가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마치 책을 읽는 것 같았다. 노랫소리는 절에서 부르는 범패와 비슷했다. 춤은 예닐곱 살쯤 되는 미소년 열 명이 났다. 모두들

눈썹을 그리고 분홍색 분을 바르고, 검고 윤기 나는 머릿결에 무늬가 있는 오색의 비단옷을 입은 것이, 멀리서 보면 요염하기 그지없는 여인 같았다. 밖에서 옷을 갖추어 입고 들어와 주변을 돌면서 어지러이 걸어나다니며 음악 소리에 맞추지 않고 몸을 낮추었다가 솟구치는 것이 우리나라 기녀들이 추는 오방신무(五方神舞)와 흡사했다.

춤추는 사람들이 잠시 뒤에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왔는데 옷차림이 더욱 농염했다. 머리에 쓴 누런 두건이 높이는 한 자 가량이나 되었지만 둥글고 곧아 기울어지지 않았다.

그다음 생략하고요.

한참 만에 춤추는 사람들이 또 나가더니 열 사람 중에 다섯 사람은 기녀 차림을 하고 나오는 것이 완연히 유곽에서 교태를 부리는 모습이었다. 나머지 다섯은 소년 협객처럼 꾸미고 나오는 것이 또한 방탕한 오입쟁이의 모습이었다. 무리를 나누어 들어올 적에 화려한 옷이 햇빛에 아롱거렸다.

그다음 좀 생략하고요.

이윽고 구경거리가 점점 외설스러워지자 사신이 음란한 유희는 보고 싶지 않다고 분부했다. 그러자 일본 측에서는 춤추는 사람들에게 즉시 명령하여 춤을 멈추고 물러나게 했다.

이런 기록인데요. 일본에서 구경한 연극을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죠. 이 방금 읽은 부분은 다른 통신사 기록에는 잘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더욱 소중한게 느껴지는데요. 신유한이 구경한 희극은 가부키입니다. 가부키는 에도시대의 상인 계층인 죠닌 사이에서 성행한 악극이라고 알려져 있죠. 유곽에서의 치정을 다룬 세속적인 내용이 화려하고 감각적인 연출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읽은 부분에도 보면 유곽, 치정 살인 이런 것이 막 공연이 된 것처럼 서술되고 있잖아요. 이게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가부키에는 여배우가 출연을 했대요. 근데 음란하다는 이유로 막부에서 이걸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중반부터는 미소년을 여인으로 분장을 시켜서 공연을 했대요. 그래서 방금 신유한이 본 것도 미소년들이었죠. 이런 배경에서 미소년들이 여배우 대신 등장한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연을 보니까 너무 음란해서 끝까지 보지 못했죠, 조선 사람들이. 여기에서 조선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음식 문화

자, 그다음 공연 구경했으니까요. 음식 문화에 대한 관찰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해유록」 중에 보면 「해유록」이 날짜별로 기록한 것도 있지만 「문견잡록」이라고 해서 일종의 부록 부분인데요. 일본의 풍속, 문물, 역사, 인물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정리한 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록된 음식 문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통신사 접대를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통신사가 오면 일본 쪽에 재정적인 부담이 될 정도로 비용을 많이 썼는데요. 1711년 통신사 접대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한 100만 냥 정도,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00만 엔 정도 된다고 해요. 아 100억 엔 정도가 된다고 해요. 어쨌든 굉장한 지출을 했는데 그 많은 돈이 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 접대였죠. 통신사가 머무는 각 지역마다 연회를 베풀어줘요. 연회를 베풀 때 당연히 음식도 나오겠죠. 그 음식을 최상급 수준으로 대체로는 접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연회를 할 때 반찬 가짓수가 7개, 5개, 3개짜리인 상차림이 있는데 이걸 한 번만 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도합 7번을 내줬대요. 그리고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남긴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유한도 많은 음식을 대접을 받았는데요.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유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에서 음식 차리는 것을 살펴보면 밥은 두어 흡을 넘지 않고 반찬도 두어 가지에 지나지 않아 몹시 간소하다.

지금도 일본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이 당시 18세기에 이미 그랬던 거네요.

다 먹으면 다시 떨어져 먹기 때문에 남기는 일이 없다. 밥을 먹은 뒤에는 청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는 과일을 먹은 다음 차를 마시고 나서야 식사가 끝난다.

이렇게 쭉 생략을 한번 하고요. 그다음 만주, 지금도 만주, 일본 만주 먹잖아요. 그 만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만쥬우(饅頭)는 우리나라의 상화병(霜花餅)과 비슷한데 겉은 희고 안은 검으며 맛이 달다. 면에는 시

멘(絲麵)과 소오멘(素麵)이 있는데, 약간 가는 것을 소오멘이라고 하고 매우 가는 것을 시멘이라고 한다. 찹가루에 메밀을 섞어서 면발이 길어도 끊어지지 않으며 긴 면발을 집어서 포개어 사리를 만든다.

이 사리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지금도 익숙한 모습이죠.

찍어 먹는 국물은 흰색인데 맛이 아주 좋다.

그다음 떡국 얘기네요.

떡국은 둥글고 두터운 찹쌀떡을 두 개 넣어 물과 장을 탄 것인데 신맛이 조금 나지만 먹을 만했다.

면 요리와 떡국 요리를 떡국을 얘기했구요. 그다음에 좀 더 이어서 보면요.

반찬으로는 스키야키(杉煮)라는 것이 맛있다.

스키야키 얘기를 하네요. 이 스키야키는 조선 후기에 들어옵니다, 조선으로도.

생선, 고기, 야채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섞은 다음 술과 장을 타서 오래 끓인 것인데 우리나라의 잡탕과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옛날에 일본인들이 삼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다가 배가 고파지자 각기 가지고 있던 재료를 하나씩 내어 한 냄비에 넣고 삼나무로 불을 지펴 끓여 먹었는데 맛이 매우 좋았다. 그 후로 이 요리를 ‘삼나무로 끓인 음식’이라고했다고 한다. 일본말로 삼나무를 ‘스기’라고하므로 일본에서 이 음식을 ‘스키야키’라고한다. ‘야키’는굽는다는 뜻인데 끓인다는 뜻의 ‘자’(煮)를 잘못 읽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스키야키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꽤 일본어나 일본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죠. 자, 그다음 음식 담은 그릇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음식을 담은 그릇 중에 스키쥬우(杉重)란 것이 있는데 삼나무 판으로 만든 찬합 세 개를 포개어 한 조로 삼는다. 제일 위에는 떡 등을 넣고 가운데 함에는 과일과 나물을 넣고 아래에는 생선과 육류를 넣은 다음 여러 색이 들어간 끈으로 묶어서 허리에 맨다. (...)

지금도 일본 도시락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포장 문화가 많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유한이 관찰한 18세기 일본이 이미 그랬네요. 이런 등등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관찰을 하는데 또 이제 조선에는 먹지 않는 일본의 아주 특이한 거에 대한 또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인들은 고래회를 가장 귀중하게 여겨서 비싼 값으로 사들여 손님을 접대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먹어보니 부드럽고 미끄러우며 기름지기만 할 뿐 별다른 맛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고래회가 일본에서는 최고로 치는데 신유한은 막상 먹어보니 맛이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이어지는 부분을 볼게요.

나는 통역에게 물었다.

“듣자 하니 일본에서는 큰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

고래잡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통역이 이렇게 대답해요.

“부유한 게 어찌 한평생뿐이겠습니까? 후손까지 부유할 수 있습니다. 지체 높은 집안에서는 고래회, 고래 젓갈을 최고의 명품으로 여겨 천금을 아끼지 않고 사들입니다. 또 일본의 등잔은 모두 고래 기름을 쓰는데 주먹만 한 고래 고기 한 덩어리에서 기름 한 사발은 족히 얻을 수 있으니 기름을 팔아 벌 수 있는 것만 해도 당장 만 금이나 됩니다. 게다가 고래 이빨, 기름, 등지느러미, 수염 등도 다 물건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으니 그 이익이 막대합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전문적으로 고래를 잡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을 모으고 재물을 쏟아부어 그물과 기구를 설치하지만 그중에 고래를 잡아 부자가 된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래잡이와 관련된 소상한 정보를 신유한이 통역을 통해서 입수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조선에 알리게 되는 건데요. 이 내용들이 나중에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게 계승이 돼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식으로 고래 잡는 기술이 발달했고 고래가 쓸 것도 많고 굉장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조선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일본의 고래 잡는 기술을 소개하거나 그런 등등이 보입니다. 신유한의 기록은 시초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교하고 정결한 집: 「문견잡록」

자, 그다음에 또 일본 문화의 관찰들 중에 보면 일본 문화, 일본 음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본 하면 또 아주 정갈한 집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 정교하고 정갈한 집에 대한 관찰을 어떻게 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기록을 읽어보면 이렇게입니다.

일본에서 궁궐과 집을 만드는 제도를 보면 정갈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에 힘을 가장 많이 쏟는다. 건물에는 단청을 사용하지 않고, 기둥과 들보는 섬세하며, 기와는 가벼운 대신 꼼꼼하게 이었고, 지붕 마루는 넓게, 처마는 나직하게 만든다.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일본이 아주 정갈하고 정교하게 집을 만든다는 거에 대한 관찰을 지금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충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 보통 서민의 모습 포착-지노시마의 어느 노부부의 초가집

이거 외에도 또 「해유록」에서 느껴지는 참 이게 정취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일본 문화의 걸로 드려난 면 그런 거 말고 일반 서민의 어떤 생활 모습, 이런 걸 잘 포착해서 아주 정감 있게 이렇게 서술한 글이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뭐냐면 지노시마라는 곳에서 어느 노부부의 초가집에 가게 되는 건데요. 지노시마라고 하는 데는 도쿄니 교토니 오사카 이런 데만큼 큰 데도 아니고 유명한 데도 아니죠. 큐슈 북쪽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쓰시마하고 일본 본토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유한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노시마의 서민의 삶이 과연 조선에서 기록으로 남았을까 싶은데요. 언제 기록이냐 4월 10일 기록입니다.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항구에서 절로 돌아가려는데통역관 한 사람이 나를 따라왔다. 길가에 두어 칸 되는 초가집이 깨끗하게 나 있는 통역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세.”

통역관은 곧 나를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주인은 꽤 늙어 보였는데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자식은 있습니까?” 내가 묻자 노인은 “자식은 없고 저희 둘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라고 청하니 노인은 아내를 돌아보며 “차를 좀 내오시오”라고 했다. 그의 아내가 부엌에 들어가 찻잔을 씻어서 푸른빛이 도는 차를 따라 통역관에게 주자 통역관이 다시 내게 건네주었다. 좌우의 항아리에는 햇곡식이 담겨 있었고 마당에는 명석을 깔고 나락 몇 말을 벌레에 말리는 중이었다. 부엌 아궁이 위에 놓인 그릇들은 몇 개 되지 않아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지만 이들 부부가 사는 모습은 펍 즐거워 보였다.

여기까지 보면요. 일단 이곳이 물산이 그리 풍부하지 않은 곳이지만 어촌의 평화로운 풍경 그리고 그 속에 노부부의 소박한 일상이 아주 푸근한 정감을 자아내고요. 누추한 인가를 찾아가서 일반 서민의 생활 모습을 관찰하는 신유한의 모습 또한 아주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시간의 차이를 건너뛰어서 지금도 우리가 이 노부부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 꿰어앉는 매너

이렇게 해서 보통 서민의 삶을 어떤 식으로 신유한이 관찰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의 매너에 대한 신유한의 분석, 관찰 이런 걸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문견잡록」에 있는 한 대목입니다. 이어서 일본 사람의 어떤 매너에 대한 관찰을 살펴볼 텐데요. 꿰어앉는 풍습, 습속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신기하게 보였나 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이
래요.

앉을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일본의 풍속이다. 남녀노소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앉을 때면
반드시 꿇어앉는다. 길가에서 술을 파는 여자건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건 반드시 두 무릎을
땅에 대고 옷을 여미고 앉는다. 그들의 법도를 살펴보건대 예의를 차리느라 그러는 것은 아닌 듯하
다.

이 말이 좀 재미있습니다. 살펴보건대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입는 옷에는 썩이 없고 아래에는 바지나 잠방이가 없다. 그러니 꿇어앉지 않으면 은밀한 곳
을 가리기 힘들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꿇어앉는 법도가 생겨났고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 버린 것이니
몹시 우스운 일이라 하겠다.

일반 보통 사람들의 생활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좀 약간 정치적인 쪽으로 넘어갑니다.

관백의 성에서 정무를 담당하는 신하들과 관백의 측근들은 공복(公服)을 입는다. 나무판을 댄 바지
를 입었는데 바지가 짧아 꿇어앉기 불편하므로 두 다리 사이에 흰 베를 두어 자 늘어뜨렸다. 긴 바지
를 입었을 때에는 그 길이가 발을 지나 한 자 남짓 나올 정도여서 땅에 질질 끌고 다녔다. 이들이 움
직일 때마다 스승 소리가 나고 자리에 앉으면 옷 때문에 어지러운데도 일본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
이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각 주 태수의 집에서도 섭정 이하의 신하들이 모두 이와 같
은 복장을 하고 있다. 그 법도를 보건대 일본인들이 날래서 흥기로 사람을 찌르는 데 능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무슨 변을 당할까 염려하여 신하로 하여금 걸어다니기 불편하게 하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대면한 자리에서 감히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요. 일본은 지금도 꿇어앉아서 손님을 맞는 풍습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신유한은 이
런 풍습의 이면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 공손한 행동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 이면도 그러냐라고 하는 접근법이 중요하죠. 이런 풍습 이면에는 보면 일본의 무가사회적인 특징이

있다, 이런 걸 예리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꿰어얕는 예절을 발전시킨 것은 어떤 마음의 진정을 대하고 친절하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무가사회의 어떤 복식 문화에서 생겨난 관습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긴 바지를 입고 다니게 한 것은 부하의 하극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암살 시도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복식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식의 관찰도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꿰어얕는 어떤 일본인의 모습을 보고 그 이면을 보고자 하는 태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분석이 맞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논평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관점, 걸으로 드러난 이면을 보고자 하는 관점만큼은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4. 「해유록」 내 일본 사회에 대한 분석

• 병영국가로서의 면모

자, 이런 예리한 시각은 일본 사회에 대한 분석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일단 이 신유한은 일본 사회가 굉장히 정리정돈도 잘 돼 있고 질서가 정연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병영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다, 군사 체제로 인해서 이런 일사불란함이 초래된 것이다라는 식의 관찰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해당 글을 한번 읽어보면요.

일본의 군사 제도는 몹시 치밀하고 강고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일본의 군사 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쪽 생략하고 넘어가면요.

신분이 귀한 자는 아무리 변변치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웃지 못한다.

이거는 또 강한 신분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얼굴에 칼이나 창에 맞은 상처가 있으면 용감한 사나이로 하여 녹봉을 받고, 상처가 귀 뒤에 있으면

잘 도망치는 사람으로 몰려 배척받는다.

이거는 역시 무가사회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그 법령이 사람을 이처럼 가혹하게 몰아넣지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달리 없다. 그러니 그들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의로움을 숭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타고난 성질이 그러하기 때문도 아니다. 사실은 자기 몸 하나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도 무가사회적인 분석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군사 제도가 뛰어나고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 사람들이 의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천성적으로 용맹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도록 사회 구조가 되어 있으니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분석인 것이죠. 그래서 좀 보면요.

그러므로 군졸들은 평상시에 복종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전쟁터에 나가면 마치 이무기가 몸부림치고 멧돼지가 돌진하듯 사납고, 적병을 보면 등불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과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사마귀처럼 무모하게 달려든다. 그러니 장수가 아무리 노둔하더라도 군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병졸이 나약하더라도 용감하게 전쟁터로 돌진한다. 이는 비록 오랑캐 종족의 습속이긴 하나

이렇게 해서 오랑캐라고 멸시하는 건 들어있고요.

이는 비록 오랑캐 종족의 습속이긴 하나 군사를 양성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어지는 글에서 신유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읽고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일본의 풍속은 본래 상하의 위계질서가 없어서 가옥, 가마, 말, 의복, 기물 등을 분수에 맞지 않게 써도 규제가 없다. 그러나 상하 관계가 한 번 정해지면 위아래의 차별이 엄격하여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두렵게 여기며, 복종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내가 길을 오가며 보니 태수와 봉행 이하 접대하는 신하들 가운데 어리석고 용렬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있어도 그 부하들은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옆드려 기면서 시키는 일을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받들어 행했다. 아랫사람이 칼을 차고 문을 지킬 때에는 문 안에 깨끗하게 앉아서 밤새도록 한눈파는 일이 없고, 차를 끊어 올릴 때에는 화로 옆에 앉아 숯불을 피우는데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다가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하니 매질을 하지 않아도 일마다 잘 처리된다.

자, 그다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길가에서 통신사 행렬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모두 길 밖에 앉았는데, 작은 사람이 앞에 서고 조금 큰 사람이 두 번째 줄에 서며 더 큰 사람은 그 뒤에 서 있었다. 질서정연하게 모여서는 엄숙한 분위기라 떠드는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인파가 수천 리 길에 이르렀는데 단 한 명도 제멋대로 행동하여 행렬을 방해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듯 인심과 습속이 모두 엄격히 통제된 군사 같았으니 예법과 교화로써 그리된 것이 아니었다. 관백과 각 주의 태수가 다스리는 법이 한결같이 군사 제도에서 나왔으므로 백성들이 보고 배운 것 역시 모두 군대의 법도와 같은 것이다.

통신사 행렬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논평인데요. 마지막 부분이 이게 통신사 행렬은 그 당시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구경거리였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일본 막부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자기 막부의 권위를 위시하는 것이기도 한데 일반 서민들 감각에서 보면 흔히 보기 힘든 외국 사절단이 오니까 그 자체가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기록화들 보면 돗자리 같은 거 깔고 앉아서 음식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구경도 하고 일종의 페스티벌 같은 것으로 이게 받아들여졌는데요. 보면 아주 질서 정연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한의 관찰은 흥미로운 게 질서 정연하니 좋더라가 아니라 이거 뭔가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데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군사를 통제하듯이 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는데요. 그러면서 대조하는 말이 교화입니다. 이거는 유교적인 어떤 발상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법과 교화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지적은 원래 유교적인 이념에서는 사람을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소프트한 형태의 문화적인 이데올로기, 예를 내면화시킴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아주 자율적이면서도 스스로 이 법도에 맞게 만드는 것이 최상이고 법에 맞춰

서 억지로 통제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통치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교 지식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교 이념을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치고 주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교화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강제적인 수법이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뭔가 인간의 행동을 길들이고자 했던 그게 바로 예법에 의한 교화입니다. 그게 아니라 일본 사회는 보니까 인간의 내면 수양을 통해서 인간의 자발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질서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강제적인 법도에 사람들을 맞춰서 그 법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형벌을 내리거나 이런 어떤 두려움에 호소하는 식의 통제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지 않느냐, 이것은 굉장히 좀 좋지 않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긴 글을 좀 봤는데요. 우선 일본 군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죠. 일본 군사들이 용맹한 것은 이게 그 사람들이 정말 용맹무쌍하고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다, 생계를 위해서는 윗사람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종이 체질화가 돼서 용맹한 것이다. 이것을 군사 양성법의 차원에서는 신유한이 긍정을 합니다. 이게 약간 이중적인 것이죠. 일반 서민이 사는 일반 생활 세계의 어떤 운영 방식으로는 이거는 안 되는데 군사는 특수하고 다른 거니까 군사들을 양성할 때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다고 긍정하면서도 이제 생활 현장으로 넘어가면서 논리가 바뀝니다. 일본의 지배 계급들은 보면 무사들이고 문인은 낮은 계급에 속하며 문인들이 무사들의 통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사 계급들, 지배 계급이 군사 문화에 익숙한 것도 당연하지만 그 지배를 받은 문인 이하 피지배 계급이 군사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 또한 일본 사회의 특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속, 복종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석을 토대로 아까 방금 자세하게 말씀드린 통신사 행렬을 구경하는 백성의 모습의 클로즈업을 마칩니다.

너무나 질서정연하지만 그 이면에는 군사 문화가 작동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신유한은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를 아주 속속들이 군사 문화가 침투해 들어 있는 병영국가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사회 분위기상으로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주의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침략주의로 언제든지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게 언제든지 군인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 윗사람이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어도 절대 복종을 한다는 것, 이런 데에서 일종의 전체주의적이고 침략주의적인 어떤 위험성이 암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신유한이 일본의 긍정적인 점을 파악하고 또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일본의 서민 생활에까지도 눈길을 미치는, 이런 이리면서도 일본 사회의 이면을 예리하게 해부하려고 하는 아주 지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도시에 대한 관찰

자, 그다음 일본의 대도시에 대한 관찰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개관할 때 오사카, 도쿄, 교토 다 글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오사카에 대한 글이에요. 오사카에 대한 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는 그 당시 경제특구였는데요.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오오사카는 셋쓰주(攝津州)에 있는데 옛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읍으로 삼았던 곳이다. 강의 이름을 ‘나니와’(浪華) 혹은 ‘난바’(難波)라고 하므로 오오사카 지역을 ‘나니와’ 또는 ‘난바’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오사카의 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을 했고요. 중간에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오사카를 거점으로 삼아 전쟁을 일삼았으며 백성의 뼈를 깔고 기름을 짜내어 자신의 끝없는 욕심을 채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번영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백성에 대한 가렴주구를 일삼은 대가다, 이런 걸 폭로하는 거죠.

그래서 정원의 초목에까지도 금을 입혀 구경거리로 만들었으며, 여러 번(藩)의 번주(藩主)가 모이는 곳에는 동산, 가옥, 배, 수레 등의 오락거리를 만들어 너도나도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을 숭상했다. 강물을 끌어와 연못을 만들어서 굽이굽이 돌게 했다. 잘 다듬은 돌을 쌓아 만든 제방은 술병, 병풍, 경대(鏡臺) 같은 모양인데, 그 위에 다리를 세워 왕래하게 했다. 황금으로 장식하거나 그림을 그려 넣은 배가 잇달아 다리 밑으로 물을 따라 흘러, 꽃밭을 지나 이곳저곳의 아름다운 경치 속을 돌아다녔다.

이런 식으로 오사카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요.

일본의 풍속이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예쁜 것을 숭상하여 저잣거리의 남녀도 모두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 학문을 업으로 삼은 사람은 더러 학식이 많고 문장을 지을 줄 알아 각지의 번국을 돌아다니며 제후에게 등용되기도 했다. 의술과 검술을 배워 벼슬하는 자가 가장 많다. 혹 유도를 배워 사람을 썩 싸게 추격하고 불시에 남을 치고 찌르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사들이 그런 사람을 중시했다. 그 밖에도 온갖 부류의 공인과 장사치, 거간꾼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으며 해외의 여러 오랑캐와도 교역했다. 이와 같이 변화하고 풍족하며 기이한 볼거리가 많기로 가히 천하에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으니, 옛 기록에 전하는 계빈(麗賓: 아프가니스탄 카피사지역)이나 페르시아도 이보다 더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사카에 대한 서술을 했는데요. 에도 시대에 일본은 도시가 발달을 하고 상업 자본이 축적을 한 결과 사치 풍조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현상을 잘 기록으로 담고 있고요. 특히 오사카의 경우는 항구 도시여서 항구 도시고 산하 특구여서 일본 국내외 물산이 집결하고 번영을 이룬 곳이었습니다. 술집도 많고 유곽도 있었고 지금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유곽의 규모를 통해서 오사카의 유동 인구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음식점도 있었고 서점도 있었고 약방도 있었고 그래서 큰 가게들이 아주 즐비한 번영상을 보여주고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죠. 대도시다 보니까 장사꾼도 있고 장인도 있고 무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 신유한의 경우 평소 오랑캐로 멸시해왔던 일본의 번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일본을 통해서 신유한은 일본 자체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서양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기록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면요.

나가사키는 히젠 주(肥前州)에 속한다. 사신 행차가 지나가는 곳이 아니므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 신유한이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해외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 중국 남경(南京)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상인들 가운데 혹 일본 여인과 정을 통하여 자식을 낳고 자주 왕래하는 자들이 있다.

중국 남쪽의 상인들이 일본에 현지처를 둔 거죠.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중국의 사정을 잘 알고, 또 그 중에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다.

생략하고요.

그 가운데 아란타(阿蘭陀: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장 이상했다. 그들은 길지도 얇은 머리털을 뒤로 묶고 붉은 비단 모자를 썼으며 구슬로 장식한 신발을 신었다. 옷은 기이한 비단으로 되어 있는데 품이 좁아 몸이 겨우 들어갈 정도였으며 바지도 꼭 끼어 두 다리가 겨우 들어갈 정도이니, 이런 옷을 입고서는 무릎을 구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조그만 의자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다가, 앉을 일이 있으면 의자에 걸터앉아 다리를 폈다.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기호를 사용하여 모든 일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 온갖 물건이 모두 사치스럽고 옷에는 얼룩 한 점 없었다. 음란한 것을 몹시 좋아하여 오기만 하면 일본 여자와 어울려 밤낮으로 희롱하고 즐기니, 나가사키의 유곽에서는 이들을 대할 때마다 진기한 보물을 얻는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에도 막부의 경우는 쇄국 정책을 고수했는데요. 오직 나가사키 한 곳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중국 남경과 같은 남부 지역의 상인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상인들 그리고 서양 사람들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했죠. 그런데 에도 막부의 경우는 나가사키의 데지마에 네덜란드인이 머물 수 있는 상관을 따로 설치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으로 신유한이 기록한 네덜란드인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양의 문물, 의학, 과학, 천문학 등이 유입이 돼서 18세기에 일본에서 난학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신유한은 그런 서양 사람을 나가사키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나가사키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리이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조선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 「해유록」에 나타난 외교 현장

자 이렇게 해서 신유한이 일본 사회를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는 신유한이 살벌한 외교 현장을 어떤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6월 30일 쓰시마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각국의 이해를 위해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는 장이 외교의 장인데요. 우선 보시면 2월 30일 쓰시마에 있을 때 외교 격식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져요. 거기에서 신유한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데요. 해당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쓰시마 태수가 옛 의례에 의거하여 우리를 자신의 관아에 초청하겠다고 하자 사신이 나더러가라고 했다. 내가 통역관에게 물었다.

“전례(前例)가 어떠한가?”

통역관이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의 문장을 사모하기 때문에 벌이는 연회일 뿐입니다. 태수가 한가한 날이면 개인적으로 학사(學士)를 관아로 초청하여 쓰시마의 문사(文士)들과 함께 글을 짓거나 필담을 나누게 하고 옆에서 그것을 봅니다.”

“태수는 글을 지을 줄 아는가?”

“모릅니다.”

“서로 만날 때 어떤 예를 취하는가?”

“제술관이 앞에 나아가 절을 하면 태수가 앉아서 읊을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따를 수 없었고 전례라는 것도 믿을 것이 못 됨을 알았다. 그러나 저들이 호의로 와서 초청한 일이고 사신들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권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 가서 따지더라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갔다. 함께 간 사람은 통역관 세 사람에게 글씨 쓰는 사람과 그림 그리는 사람 각기 한 사람씩이었다.

쪽 생략하고요.

한 사람이 붉은 담요를 가지고 나오면서 태수가 곧 도착한다고 하니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났다. 내가 용모를 단정히 하고 이렇게 말했다.

“청컨대 여러분은 편히 앉아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아메노모리 호오슈우가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기어이 나로 하여금 태수에게 절하게 하고, 태수는 앉은 채로 소매만 들었다 말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자 호오슈우는 전례가 그렇다고 했다. 그때 내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섬은 조선으로 치자면 주(州)나 현(縣)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곳 태수는 조정의 임명을 받아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명령을 받아 행하니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관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조참의나 동래부사와 동등한 예로 외교 문서를 주고받으니 그 등급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는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방관과 더불어 한자리에 앉아 서로 경의를 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문신으로서 저작랑(著作郎) 겸 전한(典翰)의 직함을 띠고 여기에 왔습니다. 설령 직급이 사신보다 낮더라도 태수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태수가 주인이 되고 내가 손님이 되는 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태수가 남쪽을 향하여 서고 나는 그의 앞에 나아가 서로 마주 서서 나는 두 번 읍을 하고 태수는 한 번 읍을 하기로 한다면, 비록 태수를 약간 높이는 일이 되기는 하지만 사신을 위하여 내가 특별히 한 등급을 낮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태수가 앉아있는데 내가 절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 끝내 그대로 한다면 이는 임금의 지방관을 대하는 예법과도 어긋납니다.”

꽤 길게 봤는데요.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유한의 강경한 태도가 드러나는데요.

내가 이런 말을 하자 통역관의 얼굴에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였다. 나는 통역관에게 말했다.

“일이 급박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조정의 기강에 관계되는 일이니 잘 말해서 조정의 수치가 되지

않게 해 주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아메노모리 호오슈우만이 내 말을 알아듣고 발끈 성을 내며 말했다.

“우리들도 태수께 군신의 의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대의 말대로 감히 전례를 고칠 것을 여쭙 수가 없습니다. 두 나라가 우호를 맺은 이래 줄곧 이와 같은 예법이 있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폐지하려고 하니, 우리를 업신여겨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유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답했다.

“예(禮)는 공경하는 데서 생기고 거만한 데서 사라지는 법입니다. 내가 귀국(貴國)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귀국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죠.

그러자 아메노모리 호오슈우가 몹시 교활한 얼굴을 하고 일본어로 통역관에게 따졌는데, 개가 으르렁거리는 듯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외교적 현장이라 겉으로는 우호적으로 보이고 이 통신사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초빙을 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취하지만 굉장한 신경전이 많이 있고요. 물밑에는 치열한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대체로 상대방에 대한 의전이나 외교 문구, 이런 외교 문서의 문구, 이런 걸로 많이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 방금 본 글에서는 의전의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신유한은 쓰시마 태수가 조선으로 치면 일개 지방관에 불과한 존재인데 자신은 임금의 명을 받고 온 사신이어서 자신이 이렇게 임금의 명을 받은 입장에서 지방관에 불과한 존재에게 절을 하는 게 외교상의 의전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치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국가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냥 전례가 그렇다는 말을 그냥 적당히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으면 국가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손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교라고 하는 게 그런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유한이 그런 의전 문제를 정확하게 따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오토에서 11월 1일과 2일에 걸쳐 일어난 일

그다음에 요 방금 본 것 못지않게 또 경악스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볼 게 좀 더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오토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11월 1일에서 2일에 걸쳐서 벌어진 일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존재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니까 우리 조선으로서는 불구대천의 원수잖아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10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위패를 모신 절 다이부쓰지에서 연회를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통신사들에게. 이에 통신사들이 굉장히 분노를 해요. 우리 조선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을 모신 절에서 조선 사람을 대접하겠다는 것 자체가 요즘으로 치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행동인 건데 이렇게 조선통신사들이 막 분노를 하니깐 일본 측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이부쓰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위해 지은 절이 아니다라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문서로 글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게 바로 『일본연대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 문헌인데요. 여기 봐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셔져 있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거든요. 근데 이 『일본연대기』라고 하는 게 위조된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모욕하려고 책을 위조한 책을 가지고 조선 사신들을 속여가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셔진 절에서 조선통신사들이 연회를 하도록 조선통신사들에게 연회를 베풀려고 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상당히 불쾌한 일인데 또 어쩌냐 하면 요 절 근처에 이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충은 귀 이자 무덤 총자 쓰는 건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이 조선 사람들의 시신에서 귀를 베갔어요. 그 귀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걸 이충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조선통신사들의 연회를 베풀겠다는 저의가 뭐겠습니까.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해유록」을 통해서 지금 알려지게 되는 거죠.

6. 「일동장유가」의 일본 인식

이렇게 해서 「해유록」에 나타난 외교 현장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해유록」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두루두루 본 셈이 되는데요. 이어서는 「해유록」과 달리 장편 시가로 일본 인식을 보여주는 작품인 「일동장유가」를 간단하게 살펴면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드시피 김인겸도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좀 복잡한데요.

우선 일본을 멸시하는 태도가 일단 보여요. 일본의 의복 문화가 조선하고 많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문화적으로 깔보는 태도로 서술하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노래하냐면요.

제 나라 귀가 부녀
결집에 다닐 때에
바지 아니 입었기에
서서 오줌 누게 되면,
제 수종 그 뒤에서
명주 수건 가졌다가
손으로 씻겨 주니,
들으매 해연하다.

이렇게 해서 의복 제도가 아주 야만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일본 풍속 중에 조선 사람으로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풍속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 하면 일본에서 형제 중에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조선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걸 노래한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형이 죽은 뒤에
형수를 계집 삼아
데리고 살게 되면,

하고 쪽 나가는 거예요.

“착다!”하고 기리는데,
“제 아운 길렀다고,
제수는 못한다.”네
예법이 전혀 없어
금수와 일반이다.

조선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전혀 예법에 맞지 않는 짐승과 다름없는 풍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입장에서는 왜 일본 문화를 내재적으로 문화 상대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더 그 당시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껌이 큰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일본을 한편으로 문화적으로 멸시하면서도 일본의 번영상을 또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미농수의 숙소 곁에
높은 난간 위에 앉아
사면을 바라보니
지형도 기절하고
인호(人戶)도 많을시고
백만이나 되어 뵈다.
우리나라 도성 안은
동에서 서에 오기
십리라 하지마는
채 십리가 못되는데
부귀한 재상들도
백간집이 금법이요
다 모두 흠기와를
이었어도 장타는데
장할손 왜놈들은
천간이나 지었으며
그 중 호부한 늑
구리기와 이어놓고
황금으로 집을 꾸며
사치키 이상하고
남에서 북에 오기
백리나 거의 되되
여염이 빈틈없이
백백이 들었으며
한가운데 낭화강이
남북으로 흘러가니
천하에 이런 경
또 어디 있단 말고.

그래서 오사카의 번영한 모습을 노래로 하고 있는데요. 오사카가 한양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가옥도 많고 여러 가지 문물들도 훨씬 더 잘 정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일본을 왜놈이라고 한다든가 일본에 대한 멸시는 완전히 청산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면서도 일본의 번영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훌륭한 점을 또 칭찬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일본에 대비해서 조선은 그렇게 좀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반성의 기미 또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상당히 주목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동장유가」에서 보이는 김인겸의 일본 인식이 갖는 좀 다층적인 면모, 한편으로는 일본을 깔보고 멸시하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도 있으면서도 일본의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비해서 조선의 낙후된 면에 대해서는 또 냉정하게 인식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개진된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죠.

7. 더 생각해볼 문제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수업에서는 신유한의 「해유록」, 김인겸의 「일동장유가」를 공부했고 이를 통해서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인식 태도를 취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공부 내용을 토대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유한은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면서도 또 냉철한 태도를 잃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태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참 복잡한 생각이 여전히 많고 일본과의 관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늘 긍정이나 부정이나라고 하는 이분법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신유한이 갖는 입체적인 인식 태도가 어떤 시사점을 갖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신유한과 김인겸의 사례를 보면요. 일본에 대한 태도가 일본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사례에서 일본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뭔가 그리고 그런 정당한 인식을 더 방해하는 요인이 뭔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좀 반성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반성적인 고찰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볼 수도 있겠죠. 신유한과 김인겸의 경우는 이러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일본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하게 됐고 또 이러한 것이 장애물이 돼서 정당한 인식을 못 하게 됐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과 연관되는 건데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는 동아시아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혼자 잘 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죠. 이 세계 속에 사는 거고 동아시아 차

원에서의 평화가 구축이 안 되면 한국 혼자 잘 살 수는 없거든요. 이런 화두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신유한과 김인겸의 사례는 어떤 미래적인 가치를 가질까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강의 내용 정리 및 요약

오늘 강의에서는 ‘일본에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해유록」과 「일동장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조일 관계와 통신사에 대해 개관하고, 이어 「해유록」의 작가 신유한과 「일동장유가」의 작가 김인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유한은 1719년에 통신사의 제술관으로서 일본에 다녀와 「해유록」을 썼습니다. 「해유록」에는 이국 체험, 일본 문화와 사회, 외교 현장의 긴장, 일본인과의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인겸은 1763년에 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와 장편 가사 「일동장유가」를 지었습니다. 「일동장유가」에는 여행 과정,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적개심, 일본의 도시 경관과 문물에 대한 찬탄, 일본의 배울 점에 대한 고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해유록」에 나타난, 일본과 일본 문화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유한은 후지산의 아름다움, 가부키를 구경한 경험, 음식 문화, 정교하고 정결한 집, 일본 서민의 모습, 꿍어앉는 매너 등 일본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꿍어앉는 풍습 이면에 있는 일본의 무가사회적 특징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군사체제와 상명하복이 체질화된 군사문화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오사카와 나가사키 등 대도시의 번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외교 현장의 갈등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는 것 역시 「해유록」의 중요한 점입니다. 쓰시마 태수에 대한 의례를 둘러싼 갈등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위패를 모신 절에서 연회를 여는 것 때문에 통신사들이 분노한 일에 대한 기록은 당시 일본과의 외교적 긴장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이어 「일동장유가」의 일본 인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김인겸은 일본의 문화와 풍습을 멸시하기도 하지만, 일본의 번영상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일본 인식을 보여줍니다. 일본에 비해 조선이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 역시 김인겸의 일본 인식에서 주목되는 점입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단절되었다. (O/X)

정답: O

2. 「해유록」은 사행일기, 사행시, 창화시, 서신, 필담집 등 사행문학의 전통 속에서 성립되었다. (O/X)

정답: O

3. 신유한은 일본의 여러 산 가운데 후지산과 견줄 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했다. (O/X)

정답: O

4. 다이부쓰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위패를 모신 절이 아니라는 일본 측의 해명은 사실과 부합한다. (O/X)

정답: X

5. 「일동장유가」에는 네덜란드 상인이 등장한다. (O/X)

정답: X

선택형(5분)

1. 다음 중 「해유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은 섬인 지노시마 서민의 생활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 ② 신유한은 통신사행을 구경하는 백성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고 일본이 군사 문화가 체질화된 병영국가라고 파악하고 있다.
- ③ 신유한은 전례에 따라 쓰시마 태수에게 순순히 절을 했다.

정답: ③

2. 다음 중 「해유록」에 나타난 일본 문화 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식 문화를 기록하면서 음식과 음식을 담는 그릇까지 자세히 관찰하여 기술하고 있다.
- ② 꿇어앉는 풍속을 보고 예의가 바르다고 찬탄하고 있다.
- ③ 다른 통신사 기록에 비해 가부키 공연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정답: ②

3. 다음 중 「일동장유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양에서 출발하고 에도에 이르는 과정과 에도에서 한양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 ② 일본을 문화적으로 멸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발전상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 ③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다.

정답: ②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는 조선에서 일본에 정기적으로 파견한 외교 사절단이다.

정답: 통신사

2. 「일동장유가」는 김인겸이 지은 장편 ○○○○이다.

정답: 기행가사

3. 「○○○○」은 「해유록」의 부록으로, 일본의 풍속, 문물, 역사, 인물 등을 항목별로 정리한 글이다.

정답: 문견잡록

나. 토의(45분)

- 1) 신유한은 일본에 대해 긍정할 것은 긍정하면서도 냉정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어떤 의의를 갖는가.

(일단 일본에 대한 신유한의 인식 태도가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유록」에서 이런 복합적인 인식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피고, 신유한 이전 조선 지식인의 일본 인식 및 신유한 동시대 조선 지식인의 일본 인식과 비교 검토하면 신유한의 인식 태도가 갖는 의의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아울러 한일 관계는 현재적·미래적 의미 또한 가지므로, 신유한의 인식 태도가 현재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볼 만하다.)

- 2) 신유한과 김인겸의 사례에서, 일본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요인,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3)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화두에 비추어 볼 때, 신유한과 김인겸의 사례는 어떤 시의적 의의를 갖는가.

(2, 3번 공통: 일본에 대한 '정당한 인식'이란 일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을 넘어서 일본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뜻할 것이다. 일본의 실상을 관찰하고 인정하는 데 가장 큰 인식론적 장애물로 작용했던 것으

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꼭 장애 요인으로만 작용했던 것은 아니다.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감을 형성하는 데도 작용했을 수 있다.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으므로 조선 사람으로서는 일본에 대해 완전히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일본에 대해 개방적이되 비판의식과 주체의식을 잃지 않고, 일본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의식을 견지하면서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다. 과제(45분)

신유한의 「해유록」과 김인겸의 「일동장유가」를 통해 임진왜란 후 조선인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서술하십시오.

(일단 일본에 대한 신유한과 김인겸의 인식태도를 작품에 근거하여 몇 가지로 적절하게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런 인식태도에 대해 당시 조선사회적 맥락에서 평가해 보고 현재적 관점에서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9강〉

대청제국에 대한 변방지식인의 시선

『열하일기』

학습 목표

1. 『열하일기』에서 작가가 청나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인식론적·방법론적 모색을 했으며 어떠한 관심사를 갖고 청나라를 관찰하고 있는지 이해한다.
2. 『열하일기』에 나타난 자타인식과 문명의식의 복합성을 단순화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3. 작가가 변방 지식인으로서 어떤 자의식과 감정을 드러내는지 살펴본다.

강의 핵심 요약

‘대청제국에 대한 변방지식인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살펴보았다. 특히 『열하일기』에 나타난 복합적인 중국 인식에 주목하여, 박지원이 어떤 시각으로 청나라를 관찰하고 있으며 대청제국을 바라보는 변방 지식인의 면모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검토했다.

박지원은 몇 가지 인식론적·방법론적 전제를 가지고 청나라를 관찰하고 있다. 박지원은 ‘평등안’을 가져야 하며 오만하고 편협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청나라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적 제약에 유의해야 하고, 청나라 선비들과 필담을 나눌 때 그들이 그동안 억눌렀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인식론적·방법론적 토대 위에서, 박지원은 최전성기 대청제국의 번영뿐 아니라 그 이면의 문제점까지 파악하고 있다. 또 이용후생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청나라의 문물제도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백성에게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청 왕조/중화 문물 분리론’은 그 논리적 근거로 기능한다. 기와 조각과 뚝거름이 중국 최고의 장관이라는 ‘장관론’은 박지원의 이용후생

론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열하일기』에는 박지원의 복합적인 자타인식과 문명의식이 나타나 있다. 만주족의 중원 지배에 대한 박지원의 시선에는 긍정과 부정이 착종되어 있다. 박지원은 ‘중화’와 ‘오랑캐’의 구분이 인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만주족이 중원을 지배하는 현재를 ‘암흑기’로 보면서 중화 중심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하지만 조선의 보수적인 지식인들이 주장하던 북벌론은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한편, 박지원의 문명인식에서 주목되는 점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소설 「호질」 중 호랑이의 입장에서 인간을 비판하는 부분에는 박지원의 문명비판적 사유가 잘 드러나 있다. 또 『열하일기』에는 대제국을 처음 경험하는 변방 지식인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나기도 한다. 박지원은 요동 별관에서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북경 유리창에서는 천하를 찾아보아도 참된 벼를 얻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고독감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고북구를 나오며 느낀 감회를 서술한 부분에는 놀라움, 자조,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감정 등 복잡한 심리가 나타나 있다. 이처럼 청나라에 대한 관찰, 조선에 대한 비판, 문명비판, 변방지식인으로서 감회 등 『열하일기』의 다양한 면모들을 살펴봄으로써 박지원과 『열하일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 시도했다.

◆ 강의 내용 전문 ◆

강의 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을 공부할 글은 박지원의 『열하일기』입니다. 박지원은 잘 알려져 있는 조선 후기의 대문호이고요.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청나라에 다녀와서 지은 글로 이것도 굳이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고전이라고 하는 함정이 있어서 너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읽지 않고도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시현상이 빚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열하일기』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점으로 두는 것은 그 당시 대청제국에 대한 조선이라고 하는 변방의 지식인인 박지원이 어떤 시선을 갖고 어떤 관찰을 하는가, 여기에 주로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일단 『열하일기』를 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를 좀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는 이 『열하일기』라고 하는 텍스트가 어떤 배경에서 성립이 됐는가 그 성립 배경을 좀 점검해 보고요. 그다음에 『열하일기』의 주요 내용 중에 주로 청나라에 대한 인식과 관찰된 것들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청나라에 대한 관찰 이걸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다음에 청나라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타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타자이죠. 그래서 외부에 대한 인식이 이 조선 내부에 대한 인식과 연관이 되고 박지원 자신의 어떤 주체 인식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돼서 외부에 대한 시선과 내부에 대한 시선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상호 순환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에 착안해서 자아의식과 타자 인식이 결합되는 거를 여기에서는 자타 인식이라고 불러서 그런 복합적인 자타 인식의 면모를 좀 살펴보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박지원의 문명 의식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본 뒤에는 역시 박지원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즉 변방 지식인으로서의 면모가 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열하일기』를 검토한 뒤에는 이런 수업 시간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생각해볼 만한 문제가 뭔가 이런 거를 좀 짚고 넘어가면서 수업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강의 순서

1. 『열하일기』를 보는 시각
2. 『열하일기』의 성립 배경
3. 청나라에 대한 관찰
4. 복합적인 자타인식과 문명의식
5. 변방지식인의 면모
6. 더 생각해볼 문제
7.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1. 『열하일기』를 보는 시각

먼저 『열하일기』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건데요. 그에 앞서 박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다 아시겠지만 1737년에 태어나서 1805년에 별세했구요. 본관은 반남 박씨, 그 당시 노론 명문가 자제 출신이고요. 자는 중미라는 자를 썼고 호는 많이 알려져 있는 연암입니다. 그래서 연암 뭐 박지원, 박지원의 작품을 연암 산문 이런 등등으로 많이 불러 왔고요. 문학론은 법고창신론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법고창신론은 나중에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법고창신론을 주장한 조선 후기의 대문호, 조선 후기 문학사라고 하면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작가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열하일기』를 보는 시각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열하일기』는 연구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체로 통상적인 이해 방식이라고 할까요. 기존에 일반화된 시각을 보면 대체로는 북학을 중심에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하일기』가 북학을 주장하는 텍스트이고 그런 텍스트를 지은 박지원은 북학과 지식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통념입니다. 이런 통념은 당연히 정당성이 있고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이 북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조선 후기에 이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할까, 배타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청나라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선진 문물인 청나라의 문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낙후된 조선을 개선시키자 이런 거를 모토로 내세운 게 북학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조선 후기 지성사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맞습니다.

그전에 그때까지 조선조 지배 엘리트들이 명칭 교체기를 통과하면서 청나라에 병자호란에 패배하면서 청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데 청나라는 그전에 조선이 관계를 맺었던 명나라를 멸망시켰고

이 명나라는 한족 왕조고 청나라는 만주족 국가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명나라는 조선으로서는 임진왜란 때 원군 지원을 받은 고마운 나라인 면도 있어서 그런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입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거를 재조지은이라고 하고요.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라는 뜻인데 그런 재조지은을 입은 명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된다,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는 오랑캐 국가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져야 되고 언젠가는 이 복수를 갚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조선 지배층들이 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유포를 함으로써 전후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요. 일종의 이데올로기 작업이죠. 그런 걸 북벌론이라고 합니다. 북쪽으로 청나라를 정벌하겠다고 하는 논의인데요. 현실성은 없습니다. 청나라와 조선은 국력 차이가 너무 크고 군사력 차이도 너무 크고 현실성은 없지만 어떤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에 호소해서 전후 복구를 하고 지배층의 패전 책임을 은폐하고자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작업의 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의 실상을 자주 인정하지 않고 하는 문제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북학과 지식인들은 그런 북벌론에서 북학론으로의 전환이라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면서도 『열하일기』의 다양한 면모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청나라에 대한 박지원의 태도가 단순히 선진 문물을 배우자 이거 하나로 단순화될 수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박지원은 명나라, 청나라 등에 대해서 좀 복잡한 인식을 갖고 있었고 청나라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개방적이고 그 실상을 인정하면서도 또 적개심이라고 할까 비판적인 시각을 또 견지하고 있었고요. 명나라에 대해서도 명나라에 대한 의리 같은 거를 중시하는 면모 또한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너무 고수하는 보수적인 조선 지배층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심지어는 풍자적인 태도, 풍자적인 글을 쓰기까지 해서 좀 다양합니다, 그 인식의 층위가. 근데 이거를 북학으로 요약하면 굉장히 단순화하게 되는 거죠, 이 복합성을. 그래서 최근 학계에서는 이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박지원의 중국 인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복잡다단한 면이 있다, 그 실상을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문제 제기가 있고 그에 호응하는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수업에도 그런 최근 학계의 동향을 감안해서 박지원의 중국 인식의 복합성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제적으로 최근 학계에 보면 『열하일기』가 워낙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말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청나라와 관련해서는 중국사 청나라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분쟁 지역으로 꼽히는 티베트니 이런 쪽 관련된 연구에서 『열하일기』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중국에서 박지원이 마술쇼 같은 거 구경하고 글 쓴 것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공연 예술사라고 할까요. 그쪽으로도 연구가 가능하고 생활사, 그리고 문학 작품으로서의 특징이 있으니까 문학적인 연구도 가능하고 그래서 정리하면 역사, 문학, 철학 그리고 예술 등등을 가로지르는 학제적 연구, 종합적 연구가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수업에는 그런 쪽까지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중국 인식의 복합적인 면,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2. 『열하일기』의 성립 배경

자, 그러면 『열하일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북학으로만 한정 지을 수 없다. 북학이라고 한정 짓는 것은 박지원의 생각을 단순화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열하일기』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치외교적 배경

우선 『열하일기』는 청나라에 다녀온 거 박지원이 박지원이 청나라에 다녀와서 성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청나라에 가게 된 계기부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종의 정치 외교적인 배경이 놓여 있습니다. 조선은 1637년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이후로 청나라와 외교적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박지원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니죠. 그 이후 조선시대 내내 조선 후기 내내 500회 이상 청나라에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방금 조선 지배층은 청나라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그걸 이데올로기화 하지 않았느냐라고 여러분이 떠올리면 현실 정치 세계에서는 또 이렇게 청나라에 사절단을 자주 많이 파견했고 청나라와의 외교 관계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박지원이 참여한 사행 즉 『열하일기』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그 사행은 1780년에 진하겸사은별사입니다. 그래서 ‘진하’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에 찾아가 축하드린다라는 뜻인데요. 청나라 그 당시 황제 건륭제가 70세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때. 굉장히 황제가 70세까지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 사절단을 파견한 거였는데 건륭제의 70세 생신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진하’이고요. ‘사은’은 황제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라는 뜻인데 1780년 사행 이전에 직전에 파견된 동지사라는 명목의 사절단에게 황제가 답을 내리는 조서를 내린 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의미고요.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요. 그 당시 직전 사절단이 파견되었을 때 북경 숙소에 실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실수로 불을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나라 측에서는 조선 사신의 책임을 면제해줬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 뜻 즉 황제가 조서를 내린 것에 대한 감사 하나, 실화 책임을 면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하나,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 1780년이라고 하는 또 시점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명나라 멸망이 1644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 멸망 이후 100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이 100년 이상 왜 중요하냐면 조선 지식인 조선 지배층은 기본적으로 명나라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청나라는 오랑캐 국가라고 좀 깔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청 교체기에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데 그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된 면이 있었는데 청나라가 들어서고 명나라가 멸망한 뒤에도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고 했죠. 그걸 ‘대명의리론’이라고 하는데 그때 청나라가 들어섰을 때 조선 지식인들이 다 생각했던 거는 오랑캐 국가가 오래 갈 리가 없다 100년이 안 가서 반드시 망할 거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청나라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희망인 것인데 대대로 100년 동안 오랑캐 운은 100년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가 이제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청나라는 건륭제 때 최고 전성기를 누리거든요. 영토도 제일 확장되고. 그 영토는 지금 현재 중국이 계승했죠.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오랑캐 운이 100년이 안 간다라고 하는 관념이 더이상 현실적으로 지지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나라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도록 태도 변경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의 시점이 됐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그럼 1780년대 사행은 어떤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일정으로 움직였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행단 구성은 일단 삼사라고 해서 정사, 부사, 서장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정사가 최고 책임자고 그 당시 박명원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박지원하고 인척 관계였습니다. 그다음에 역관, 의원 글씨 쓰는 사자관, 화원, 군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자잘한 실무를 맡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대동입니다. 그래서 1740년대 그 사행은 총 270명 정도가 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공식 인원은 이 중에 35명입니다. 말은 총 194필, 그러니까 꽤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중요한 이벤트는 대체로 청나라 사행은 북경까지를 가게 돼 있는데 이때는 건륭제가 열하라고 하는 곳에 열하 산장에 머물면서 열하에서 열하 산장에서 공식적인 70세 생일 파티를 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열하까지 다시 갔어야 했습니다. 북경에서 북경에서 아주 멀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목도 『열하일기』라고 지은 거예요. 이 열하까지 간 조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열하에는 총 이 중에 74명이 가게 되는데 이 중에 박지원이 낀다.

사행 일정을 간단하게 좀 점검해보면 1780년 5월 25일에 사절단들이 한양에서 출발을 하고요. 『열하일기』는 한양에서 출발하는 걸 시작하지 않고 6월 24일에 압록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점이 또 재미있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북경 도착을 8월 1일에 하게 됩니다. 꽤 오래 걸렸죠.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한 2시간이면 가는데 이 당시에는 육로로 갔기 때문에 참 오래 걸렸습니다. 8월 9일에서 14일에는 열하에서 머물고요. 그다음에 사신단의 업무를 다 마친 다음에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것이 바로 10월 27일입니다. 이런 사행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한양에 도착해서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바로 집필하게 되고요.

• 지성사적 배경

자, 그다음에는 『열하일기』 성립 배경 중에 지성사적인 배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성사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제일 주목할 것은 연행록이라고 하는 것의 전통입니다. 연행록은 청나라 북경 사행을 다

녀오고 나서 나온 기록물이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많습시다. 그중에 박지윈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거는 김창업이라고 하는 인물의 연행일기, 흔히 『노가재일기』, 『노가재연행일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박지윈과 교우했던, 박지윈에게 약간 선배격인 지식인 홍대용의 『연기』와 『을병연행록』 이 두 가지가 또 중요합니다. 이 홍대용이 박지윈에 앞서서 청나라를 다녀오고 그걸 본 박지윈도 청나라에 다녀오고 싶은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연기』는 한문으로 된 기록물이고 『을병연행록』은 주로 여성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만든 한글 기록물입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현재 알려진 연행록은 대략 한 500여 종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좀 더 좁혀서 박지윈이 교우했던 지식인 그룹의 중국 체험, 연행 경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일단 방금 설명드렸던 홍대용, 홍대용이 1765년에 청나라를 다녀오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서얼 지식인인 유금, 박지윈 이른바 박지윈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그룹을 연암 그룹이라고 하고요. 홍대용까지 넣어서 하면 담연 그룹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담연 그룹 혹은 연암 그룹에 속하는 지식인입니다. 유금은. 유금이라고 하는 인물이 1776년에 중국을 다녀오고요. 그다음에 1778년에 이덕무, 박제가가 3월에 청나라를 가게 되고 같은 해 가을에는 유득공에 또 중국 사행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암 그룹에 속하는 지식인들이 전반적으로 청나라 경험을 해 왔고 지식인들의 연행 경험을 박지윈도 공유하고 이 사람들의 관련된 기록도 익히 봤겠죠. 이런 것들이 『열하일기』의 성립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 문학사적 배경

『열하일기』는 문학 텍스트니까요, 문학사적인 배경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박지윈의 문예론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박지윈의 문예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법고창신론’입니다. 법고창신은 법고와 창신의 변증법적인 종합을 추구한 문예론인데요. ‘법고’는 옛날의 모범이 되는 거를 본받는다는 뜻이고 전통적인 상고주의적인 태도를 개념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범이 되는 거를 자꾸 따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죠. 그리고 뭔가 표절 비속하게 보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명나라 중계 이후로 좀 ‘창신파’라고 할 수 있는, 옛날 옛날의 고전의 무게로부터 좀 해방돼서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이 유로하는 참신한 글을 좀 써보자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취지는 또 나쁘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좀 함량 미달의, 우량한 전통과의 관계가 좀 미약한 그런 글을 창작하는 대로 좀 귀결된 면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박지윈이 법고파의 장점과 단점, 창신파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고민하면서 이 법고와 창신을 변증법적으로 통일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이런 걸 테제화해서 법고창신을 주장하고 그 자신이 작품 창작을 통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 실천의 산물이 바로 『열하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법고창신하고 표리를 이루는 박지윈의 문예관이 지금 눈앞의 현실을 제일 중시하는, 즉 삼라

만상 이 자체가 가장 근원적인 텍스트고 이 현실 세계 자체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생동하게 작품으로 구현할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작가들이 그렇게 할 때 제일 참신하면서 뭔가 뛰어난 작품을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박지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완정 기문」이라는 글에서는 “천지의 사이에 있는 것이 모두 책의 정수”이다. 즉 책을 지식 책의 차원에서만 사고하면 안 되고 이 세상, 현실, 자연, 이런 책을 초과하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사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경지에게 보낸 답장>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의 정신과 뜻이 천지 사방에 펼쳐 있고 만물에 들어 있으니 천지 사방과 만물은 ‘글자로 쓰지 않은 글자이고 문장으로 적지 않은 문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글자로 쓰지 않은 글자, 문장으로 쓰지 않은 문장,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이게 곧 천지자연, 만물, 생동하는 이 현상계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근원적인 문학이라고 박지원은 설파한 것입니다. 이게 이런 식의 사고가 청나라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청나라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아주 이면까지 꿰뚫어보고 관찰하고 하는 쪽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열하일기』의 문체적인 특징이 전통 고문체와 백화체를 혼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법고창신론의 실천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소설적인 형상화가 아주 뚜렷한데 이것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실주의 사실주의적인 관찰과 묘사 이런 거 등등도 이런 박지원의 문예론의 실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적 배경

자, 그다음에 끝으로 박지원 자신의 개인사적인 또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하일기』를 창작하기 까지 박지원의 삶과 창작 활동을 한번 쪽 따라가 보지요. 박지원이 30세 되던 때 보면 홍대용의 『간정동 회우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붙인 서문, 「『회우록』 서문」을 짓게 됩니다. 『간정동 회우록』은 어떤 텍스트냐 하면요. 홍대용이 북경에 갔을 때 중국 강남 지역의 지식인들과 친구가 됩니다. 아주 정말 인격적인 교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필담, 붓으로 한문으로 적어서 대화를 나누는 거, 필담을 나누었는데 그 필담을 정리한 책이 바로 『간정동 회우록』입니다. 이게 조선 지식인이 청나라 지식인과 교우를 하게 된, 아주 조선 후기 지성사에 아주 기념비적인 현상인데요. 거기에 서문을 붙였고 그다음에 32세 때 되면 백담 부근, 지금의 종로의 파고다 공원 쪽인데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이덕무, 유금, 박제가, 이서구, 유득공 이런 인물들과 교우를 하게 되고요. 또 법고창신론도 이즈음에 개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5살 때에는 과거 응시를 아예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황해도 금천군 연암 협에 답사한 다음에 여기에 은둔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연암이라는 호도 여기서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42살 때에는 이제 북경으로 떠나는 이덕무와 박제가를 전별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금천 연암협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뒤로 44살 때는 그 자신이 서울로 돌아오고 나서 박명원의 권유로 자제군관 자격으로 중국 사행에 자신이 참여하게 됩니다. 44살 때 되면 연

암협에 있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삼종형인 박명원의 권유로 중국 사행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제군관 자격으로 참여하는데요. 자제군관은 민간인 자격으로 일종에 데려올 수 있게 되는 사람입니다.

3. 청나라에 대한 관찰

이렇게 해서 개인사적 배경을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연암 박지원이 구체적으로 청나라에 대한 어떤 관찰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 인식론적 · 방법론적 전제

우선 청나라 관찰의 전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식론적인, 방법론적인 전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청나라를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문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박지원은 이 관찰의 문제, 봄의 문제, 파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여러 글에서 풀어내는데요. 박지원 자신이 표명한 인식론적인 태도라고 할까, 청나라에 대한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평등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눈이라는 뜻인데요. 번역을 해보면, 『열하일기』의 해당 구절을 읽어보면서 이 평등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이 압록강을 건너서 도착한 데가 책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종의 울타리처럼 되어 있는 곳이고 지금으로 치면 출입국 사무소 비슷한 역할을 했던 중국 변방 지역인데요. 이 책문을 통해서 접한 중국의 실상에 가서 박지원이 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찍이 나의 벗 홍덕보(洪德保)가

홍덕보가 홍대용인데요,

‘대규모(大規模) 세심법(細心法)’이라고 한 바 있는데,

‘대규모 세심법’은 규모는 크고 아주 정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규모가 크면 정밀성이 떨어지고 정밀성을 추구하면 규모가 큰 걸 추구하기 어렵게 되는데 그 당시 청나라 문물은 이 규모와 정밀성을 겸했다라는 뜻입니다.

책문은 중국 동쪽의 가장 끝인데도 오히려 이와 같았다.

이와 같았다는 건 생략된 부분인데요. 중국에 보니까 아주 정비가 마을이 정비가 잘 돼 있고 건물도 깔끔하고 잘 만들어져 있고 이렇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유람하려니

이제 중국을 막 넘어온 시점이니까요.

홀연 기가 죽어,

이 부분이 재미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더니 나도 모르게 배와 등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자, 좀 더 읽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맹렬히 반성하며 말했다.

“이것은 질투심이다. 내 평소에 심성이 답박하여 무얼 부러워하거나 시샘하고 질투하는 것을 마음에서 끊어버렸는데, 지금 남의 나라 국경에 한번 발을 들여놓고 본 것이 만분의 일에 불과할 터인데 이제 다시 망령된 생각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은 어째서인가? 나의 전문이 좁은 탓이다. 만약 석가여래의 혜안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본다면 평등하지 않은 게 없으니, 만사가 평등하다면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절로 없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열하일기』에서 많이 알려진 부분인데요. 대체로는 북학의 메시지를 좀 읽느라고 박지원의 심리적인 추이는 좀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번 유심히 보시면요. 청나라의 실상을 그것도 북경과 같은 중심부도 아니고 아주 변방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조그만 마을을 봤는데도 굉장하더라는 말이에요. 조선보다 더 낮고.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이 보고 북학을 주장하자 역시 청나라 문물이 대단하니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조선의 낙후성을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까. 보세요. 먼저 어떤 마음이 들죠? 기가 꺾입니다. 앞으로 나 중국 여행 가려고 하니 기가 꺾이는데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부글부글하고 막 속이 끓어오릅니다. 이걸 정체가 뭐였습니까? 바로 질투심입니다.

박지원이 청나라의 실상을 사실 보기 전에 홍대용이나 박제가나 이덕무나 먼저 다녀온 사람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그래 역시 청나라 실상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배울 건 배워야 돼 이런 주장을 같이 했겠죠. 실상을 보고 나니까 먼저 드는 마음은 질투심입니다. 이 질투심의 정체는 뭘까요. 박지원의 마음속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 청나라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의식의 차원에서는 청나라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돼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마음 속 깊이 있었던 것은 청나라 실상을 볼 때 비로소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박지원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를 끌어내서 직면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질투심을 스스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아 이거는 질투심이다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이 본 것이 아직 중국에 대해서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것인데도 이 질투심에 벌써 사로잡히다니 하면서 그런 마음을 스스로 다잡아가고 뭔가 가라앉히고 성찰하고 통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평등하게 봐야 된다, 석가여래의 혜안이라고 하는 게 바로 평등안이거든요. 이것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스스로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던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뭔가 끄집어내는 계기가 됐다는 거, 이게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스로는 이제 그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평등안, 청나라에 대해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하는 깨달음에 도달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재미나는 에피소드를 붙여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른 방식으로 서술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복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장복이”는 박지원이 데리고 다니는 하인입니다. 장복이를 돌아보며 박지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중국에 태어나면 어떻겠느냐?”

이거는 여러분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청나라가 훨씬 좋잖아요, 지금 목도하니까. 아 그럼 너무 좋겠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법하죠. 장복이의 반응이 다릅니다. 장복이가 이렇게 말해요.

장복이가 말했다. “중국은 오랑캐인걸요, 소인은 싫습니다요.”

이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이 반응이 보여주는 것은 뭔지 좀 더 읽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한 맹인이 어깨에 비단주머니를 걸치고 손으로 월금(月琴)을 타며 갔다. 나는 크게 깨달아 이렇게 말했다.

“저것이야말로 평등안(平等眼)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3명의 캐릭터가 등장하죠. 박지원, 장복이, 맹인. 박지원은 청나라의 실상을 보고 질투심을 느낀 다음에 그 질투심을 스스로 통찰하면서 평등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장복이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눈앞의 중국의 실상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눈뜯장님이 된 건데요. 인식론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는 바로 ‘중국은 오랑캐인걸요’라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즉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멸시하는 태도, 이 태도가 인

식론적인 장애가 돼서 눈앞에 뻔히 중국을 보고도 중국의 실상을 관찰하고 부러워할 줄조차도 모르는 눈뜬장님이라는 겁니다. 이 장복이가 바로 이 청나라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던 조선 지배층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마지막 캐릭터가 맹인이죠. 맹인은 물리적으로 눈이, 시력이 없는,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 점을 역설적으로 보이는 게 비단 주머니를 걸치고 있는 것인데요. 맹인에게는 비단 주머니가 사실 의미가 없죠, 보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 맹인을 보고 깨달았다는 게 저것이야말로 평등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맹인은 보지를 못하지만 여기서 보지 못한다는 게 실상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장복이와 대비가 되는 거죠. 장복이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존재고 맹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을 통해서 박지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생각을 다 잊어버려라, 원점에서부터 다시 아무런 편견과 선입견 없이 청나라를 있는 그대로 보라, 이런 근본적인 태도 변경을 맹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촉구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야말로 평등안을 가진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박지원이 청나라를 보는 시각을 평등안이라고 명명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박지원은 또 중국을 어떻게 관찰하냐를 아주 많이 고민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논한 바 있습니다. 이게 ‘오망육불가론’인데요. ‘오망’은 5가지 망령된 것이라는 뜻이고 ‘육불가’는 6가지 안 되는 것이라는 뜻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망’은 조선 지식인이 청나라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는 5가지 망령된 태도를 뜻하는 거고요. ‘육불가’는 조선 지식인이 청나라를 제대로 관찰하기에 어려운 6가지 제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 6가지로 나눠서 고찰할 정도로 청나라를 관찰하는 문제를 너무나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박지원이.

자, 오망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조선 지식인이 자신의 하찮은 문벌을 내세워서 중국의 유서 깊은 가문을 능멸한다는 겁니다. 중국 별거 없어 내가 더 팬찮아, 이런 식으로. 그럼 중국을 제대로 관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겠죠. 또 청나라 지식인들 보니까는 만주식 의관, 예를 들면 변발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주식 의관을 하더라. 나는 참 이거 오랑캐의 문물에 절어 있다. 이런 식으로 청나라 문화 수준은 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청나라를 관찰을 못하겠죠. 청나라 관료들을 보고 오랑캐 조정의 신하다라고 해서 무례하게 군다는 겁니다. 또 이 청나라는 오랑캐 국가니까 불 만한 문장이 없어라고 미리 속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춘추의리, 오랑캐와 오랑캐 아닌 중화 민족을 구분 엄격하게 구분해서 중화 민족을 높이고 오랑캐를 이렇게 낮추는, 구체적으로는 명나라를 높이고 청나라를 멸시하는 게 춘추의리인데요. 이 춘추의리가 쇠퇴했다라고 비분강개하는 거. 이렇게 비분강개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청나라 이런 태도들이 청나라를 관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5가지 명령된 태도다라고 했고요.

6가지 제약은 그러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노상에서 행인을 만나서 행인을 상대로 중요한 일을 물어보면 요즘 같은 밑바닥의 민심을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공식 사절

단으로 갔으니깐. 이게 첫 번째 제약, 두 번째 제약은 언어가 다르니까 조선 사람은 한문을 쓸 수 있지만 중국어는 자유롭지 않잖아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즉석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제약이고요. 세 번째 제약은 어쨌든 조선 사람은 외국인이니깐 행동을 잘못하면 의심을 받기 쉽다는 거죠. 자세하게 물으면 염탐하는 것 같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제약은 청나라 사람에게 슬쩍 물어봐서는 아주 핵심에 도달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막 캐어묻자니 뭔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게 제약이라는 겁니다. 또 그다음 제약은 물어서 안 되는 거, 민감한 문제,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궁금한 것이기도 하고, 물어서 안 되는 금기 같은 사항 같은 거를 물어보면 저 사람 정탐하는가, 염탐하는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다음에 금령 아예 이거는 해선 안 된다 이런 식의 금령에 저촉이 되는 건 아예 물어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지원은 중국 인식을 방해하는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아주 세분화해서 파악할 정도로 중국 관찰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말 이 청나라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청나라의 실상을 파악하고 청나라 사람들의 진심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런 11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요. 그래서 박지원이 고민한 게 필담의 기술입니다. 한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청나라 사람들이 속내를 더 털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합니다. 청나라 선비들의 환심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청나라를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대국은 위엄이 있고 교화력이 아주 있고 이렇게 막 아낌없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나라와 조선은 일체다, 외교 관계가 있고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해서 청나라 선비들의 방어 기제를 이렇게 느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기를 꺼낼 때도 민감한 문제를 바로 꺼내는 게 아니라 정치와 무관한 이슈, 뭐 예학이나 그런 유교 문명과 관련된 거,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할 거,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점차 점차 정치적인 화제로 어느 순간 하도록 슬금슬금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정치 얘기도 직접 하면은 부담되니까 과거의 역사를 빌려가지고 우회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라든가 또 상대방이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는 잘 모릅니다, 좀 알려주세요, 하는 식으로 겸손과 무지를 자처해서 상대방의 어떤 발언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박지원이 굉장히 인간 심리를 아주 잘 파악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청나라 사람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필담들이 『열하일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 최전성기 대청제국의 번영과 그 이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박지원은 청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요. 우선 박지원이 관찰한 청나라는 최전성기의 세계 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영상이 있고요, 하지만 그 번영상만 보는 것도 일면적이죠. 그 번영의 이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것에서 박지원의 입체적인 시각이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우선 박지원은 청나라의 경제적 번영, 이걸 인정하고 잘 관찰합니다. 행정체계의 어떤 효율성, 안정성, 이런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잘 또 높이 평가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보니까 황제에 대해서 아침 풍조가 있더라는 거, 그다음에 총신들 그 화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인데요. 총신의 어떤 탐학이 있고 그것이 청나라 멸망의 조짐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보니까 일종의 바닥 민심이죠. 한쪽 지식인들의 반감과 저항심이 보니까 있더라, 청나라 만주족 통치자들이 사상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번영의 이면까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북학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거죠.

• 이용후생에의 관심

그다음에 박지원은 청나라 선진 문물을 도입해서 조선의 낙후성을 극복하고자 했는데 이런 논의를 학계에서는 ‘이용후생론’이라고 합니다. 청나라에 대한 관찰을 보면 이런 이용후생론적인 관심이 당연히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중국 문물제도 중에 벽돌이니 수레니 여러 가지 난방 장치니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조선의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논하고 있습니다.

또 더 주목되는 것은 ‘장관론’인데요. 장관론은 뭐냐, 청나라의 가장 불거리가 무엇이나에 대한 논의입니다. 『열하일기』 중에 「일신수필」에 보이는데요. 상사, 중사, 하사. 상사는 최고 수준 높은 선비, 중사는 중간 등급의 선비, 하사는 제일 낮은 수준의 선비라는 뜻인데 상사, 중사, 하사의 구조 속에서 중국의 장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 구도가 역설적이예요. 상사가 말하는 것이 통념적으로 조선 지배층들의 태도에 가깝지만은 사실상은 제일 수준이 낮은 거고 하사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말은 하사지만 제일 수준이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상사의 입장은 이거예요. 청나라는 오랑캐 국가이므로 도대체 불만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장관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전형적인 조선 지식인들의 태도예요. 중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주족을 소탕한 뒤에야 장관은 말할 수 있다. 북벌론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이 상사, 중사는 모두 청나라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를 고수한 조선의 보수 지배층을 대변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요. “존주는 존주이고 이적은 이적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명나라에 대한 의리, 중화에 대한 의리를 생각하는 거는 그거대로 청나라 문물을 도입하는 것 그것과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걸 흔히 흔히 학계에서는 ‘청왕조/중화 문물 분리론’이라고 합니다. 이 논리가 있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한 태도 변경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지원이.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만약 백성에게 이롭고 나라에 보탬이 된다면 아무리 그 말이 혹

시라도 오랑캐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진실로 채택해서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청왕조/중화 문물 분리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아무리 오랑캐 제도라도 당연히 도입해야 된다는 아주 인상적인 주장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사는 박지원 자신의 생각을 대변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사로서 이렇게 말한다. 중국의 장관은 깨진 기와 조각에 있고, 중국의 장관은 똥거름에 있다.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깨진 기와 조각,’ 여기에 그 누가 장관이라고 하겠습니까? ‘똥거름’, 누구도 쳐다보지 않죠. 이런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보지 않는 더럽고 비천한 것에서 가장 불만한 거리, 가장 고민해서 관찰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대저 깨진 기와 조각은 천하 사람들이 버리는 물건이다. 하지만 민가의 담을 쌓을 적에 깨진 기와 조각을 어깨 높이 위로 두 장씩 마주놓아 물결무늬를 만든다. (중략) 깨진 기와 조각을 내버리지 않으면 천하의 문체가 있는 셈이다. (중략)

똥오줌은 지극히 더러운 물건이지만 밭에 거름으로 쓰면 금싸라기처럼 아낀다. 길에는 버린 재가 없고, 말똥 줍는 자가 오쟁이를 둘러메고 말 끄무늬를 따라다닌다. 이렇게 모은 똥을 네모 반듯하게 쌓아 두는데, 팔각형이나 육각형으로도 쌓고 누각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 똥거름을 보매 천하의 문물제도가 확립된 셈이다.

그래서 이 청나라라는 대제국을 볼 때 가장 뭔가 미천하고 뭔가 남들이 관찰하지 않을 법한 데에서 이 청나라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세세한 데 이런 데서 보면 인간의 진면목이 드러날 수 있듯이 이 청나라를 관찰하는 지점은 바로 이 작은 데 사소한 데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잡은 겁니다. 여기에서 연암 박지원의 탁월한 어떤 안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박지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와 조각과 조약돌과 똥거름이 모두 장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굳이 성곽과궁실, 누각과 점포, 사찰과 목축, 드넓은 벌판, 기이한 연수(烟樹) 정도 되어야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4. 복합적인 자타인식과 문명의식

• 만주족의 중원 지배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착종

자, 그다음 이어서 복합적인 인식과 문명 인식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주족의 중원 지배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 그리고 부정적인 시선이 착종되는 면인데요. 이런 착종된 시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 「호질」에 붙인 연암 자신의 평입니다. 이 「호질」에 대해서 연암이 스스로 평을 붙이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운세가 긴 밤으로 접어들어 오랑캐의 재앙이 맹수보다 심하다.

여기서 보면 박지원은 이 대청제국의 시대 즉 만주족의 중원 지배의 시대를 암흑기라고 진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북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다음 봅시다.

(상략) 사람이 처한 곳을 가지고 보면 중화와 오랑캐는 진실로 구분이 있지만, 하늘이 명한 것을 가지고 보면 은나라의 후관(鬲冠)과

은나라 제도입니다.

주나라의 면류관은

이건 주나라의 갓이고요.

각각 당시의 제도를 따른 것이니, 어찌 유독 청나라의 붉은 모자에 대해서만 의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

자, 여기서는 또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는데요. 중화냐 오랑캐냐라고 하는 구분은 인위적인 것이고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왕족 각각의 나라는 각각의 문물이고 그것은 꼭 hierarchy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다 존중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중화 문명이 됐든 청나라 문명이 됐든 다 인정할 수 있다. 그거를 오랑캐냐 중화냐라고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인 구분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만주족의 중원 지배가 암흑기라고 하는 거와는 또 다른 면이죠. 그다음 또 봅시다.

명나라의 왕택(王澤)이 이미 말라버렸고 중국의 선비가 변발을 따른 지 이제 100년이나 되었는데도 자나깨나 가슴을 치며 명나라 왕실을 생각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중국을 잊지 않아서다

또 이렇게 해서 이 청나라가 이미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청나라가 들어선 지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를 도저히 잊지 못한다, 그것은 중화 문명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또 중화 중심, 명나라 중심의 또 문명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북벌론 풍자

이렇게 박지원은 중국에 대해서, 청나라에 대해서, 만주족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착종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선 후기 지배층들이 갖고 있었던 북벌론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에 대해선 또 굉장히 비판적이고 심지어는 풍자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풍자적인 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내정사」에 실려 있는 이른바 ‘백이숙제 소동’에 관련된 글입니다. 굉장히 정말 유머러스한 글인데요. 이 사절단이 이제요, 백이숙제를 모신 사당입니다. 이 이제요에 가서는 백이숙제가 절의의 화신이거든요. 그래서 고사리 캐 먹다 죽었다는 인물이어서 이 사람들을 기리면서 조선 사절단들이 고사리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관례적으로. 그것과 관련한 에피소드입니다. 백이숙제가 고사리를 먹는 백이숙제를 기린다는 거 고사리를 먹으면서 기리는 것은 청나라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 명나라에 대한 의리, 이런 것들을 계속 되새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묘(夷齊廟)에서 점심을 먹을 때 고사리 닭찜이 나왔는데 맛이 매우 좋았다.

하고 쪽 서술이 되면서요. 박지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물었다. “한창 가을이라 제철이 아니거늘 주방(廚房)의 고사리를 어디서 구해 왔는가?”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좌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묘에서는 관례상 점심으로 반드시 고사리를 올리기 때문에 사철을 막론하고 주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말린 고사리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 이르러 국을 만들어 일행에게 제공하니, 이것이 관례입니다.

“이제묘에서 관례상 점심으로 반드시 고사리를 올리기 때문에” 조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수 년 전에 간량청이”, 간량청은 이제 사신들의 식량을 조달하는 곳이거든요. “깜빡하고 고사리를 갖고 오지 않아서” 아주 큰일 났죠. “그래서 이곳에 이르러 고사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대요. 그 당시 간량관이 서장관에게 곤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네 이놈 고사리를 준비해서 이제묘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깜빡했겠다 하고 곤장을 맞았다는, 그래서 물가에 가서 통곡을 했대요, 맞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백이숙제야, 백이숙제야, 나하고 무슨 원수를 졌느냐, 나하고 무슨 원수를 졌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소인(小人)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고사리는 물고기나 고기만 못한데

그렇죠. 고기 요리가 당연히 더 맛있죠, 고사리는 풀떼기고.

듣자 하니 백이 등은 고사리를 캐어 먹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고 하니, 고사리는 참으로 사람 죽이는 독물인가 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빵 터져서 크게 웃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선 사신들은 이제묘에 가서 백이숙체의 의리를 기리면서 고사리 음식을 먹었지만 알고 봤더니 고사리 먹고 죽는 거 아니냐, 그래 나 고사리 준비 못 했다고 언어맞기나 하고 이 원수다, 사람 죽이는 독극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청나라의 실상을 인정하지 못하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고수하는 청나라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조선 지식인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풍자가 계속 이어집니다.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태휘(太輝)는 노 참봉의 마두(馬頭)이다. 초행이고, 사람됨이 경망스럽다. 조장(棗庄)을 지나다가 대추나무가 비바람에 꺾여서 담 밖에 늘어진 것을 보고, 태휘가 그 풋열매를 따서 먹고 복통이 생겨 설사가 멎지 않았다. 한창 허열이 뜨고 목이 말랐는데 급기야 고사리 독이 사람 죽인다는 말을 듣고는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백이숙채가 사람 죽이네(伯夷熟菜殺人)! 백이숙채가 사람 죽이네!”라고 했다. 숙제(叔齊)와 숙채(熟菜)가 음이 서로 비슷하기에 일행이 모두 깔깔 웃었다.

우리가 지금은 이거 보고 웃음이 잘 안 나오는데 옛날 사람들의 유머 코드에는 이게 정말 빵 터지는 부분이었나 봅니다. 사연인즉슨 이런 겁니다. 태휘라고 하는 사람이 길 가다가 설익은 열매를 먹고 복통이 생겨서 설사를 했대요. 그런데 고사리 독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 아까 고사리가 사람 죽이네 하는 고사리 독이 사람 죽인다는 그 얘기 있었죠. 듣고는 백이숙채가 사람 죽이네 사람 잡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숙채는 뭐냐 하면요. 익힌 야채라는 뜻이어서 고사리 열매, 고사리 요리를 여기서 뜻하는 겁니다. 백이숙제라고 해야 될 것을 이 사람이 백이숙체인지 뭔지 모르니까 백이숙채라고 한 건데 그래서 묘한 느낌을 자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겁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는 것이 사실은 너희들한테 독이 된다. 그리고 이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일하는 너희들은 바로 이 백이숙채 먹고 사람 죽는다고 하는 이 태휘처럼 우스꽝스러운 것에 불과하다. 청나라에 대해 배격하고 자꾸 명나라를 떠올리는 것은 이런 태휘 같은 바보스러운 일이다, 웃기는 일이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어지는 글을 또 계속 볼까요. 이 글이 굉장히 긴데요.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또 시점이 달라져서 박지원이 어렸을 때 또 서울에 있을 때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서대문에 살 적에”, 이게 어떤 의종 열황제가 죽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명나라 마지막 황제거든요. 그래서 시골 글방 선생님이 마을에 관례 치른 젊은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서쪽에 송씨의 셋방살이 집을 가서 우암 송시열 선생의 유상에 절을 했대요. 초구를 꺼내서 어루만지면서 비분강개해서 눈물을 흘렸대요. 우암 송시열은 이게 보수 지식인들의 아이콘이거든요. 북벌론의 이데올로기이고 북벌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어서 대명의리론을 또 표상하는 존재인데요. 그 사람을 기리고 초구는 뭐냐면 효종이 북벌을 할 때 추울 테니 입을라고 내려준 가죽옷입니다. 그것도 그 북벌의 어떤 유품인 거죠, 북벌론의. 이걸 꺼내서 비분강개했다는 건 당연히 북벌론을 잊지 않고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잊지 않는 이런 어떤 퍼포먼스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서 이제 ‘되놈!’하고 욕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의리를 잊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머물러서 이제 제사를 마치고 음복도 하고 하면서 시를 같이 지었대요. 근데 한 동자 아이가 이렇게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왕이 만약 패배했다면

천 년 뒤에 은나라 주의 역적이 되었으리.

여망은 백이를 부축하여 떠나보냈으니

어찌 역적 옹호가 아니더냐.

오늘날의 춘추 의리는

되놈이 보기에는 되놈의 역적이지.

이거는 정말 대명 의리론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명의리라고 얘기하지만 청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반역 행위 아니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춘추의리는 되놈이 보기엔 되놈의 역적이다라고 하는 풍자를 하는 것이고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깔깔 웃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풍자적인 서술입니다. 이 향선생, 시골 서당 선생님은 또 보수적인 지식인을 또 대변하는 존재죠. 머쓱한 표정으로 “아이들이 춘추를 읽지 않으니까 안 되겠구나, 일찌감치 춘추의리를 분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괴상한 소리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른 시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이 하나가 이런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보면,

고사리 캐어 먹은들 진짜로 배부르지는 않기에
백이도 결국은 굶어 죽었네.

이 백이숙제를 의리의 화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지금.

꿀물의 단맛이 술보다 나으니
이거 마시고 죽으면 원통하리라.

이렇게 해서 의리가 의리를 지키는 고결한 게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고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걸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향선생이 또 눈썹을 찌푸리면서 “또 괴상한 소리를 하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중이 크게 웃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실제 일이라기보다는 박지원이 지어낸 얘기였을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북벌론을 고수하는, 대명의리를 고수하는 이 행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시대착오적인지가 아주 날카롭게 풍자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간중심주의 비판

자, 이렇게 해서 주로 북벌론을 어떤 식으로 풍자했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다음부터는 약간 시각을 바꿔서 좀 포괄적인 어떤 문명의식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게 「호질」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나오는데요. 「호질」은 호랑이의 입을 통해서 주로 지식인의 위선을 폭로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호랑이의 입을 통해서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해당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데 가져가는 것을 ‘도’(盜)라고 하고 다른 존재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적’(賊)이라고 한다. 너희는 밤낮으로

‘너희’는 인간입니다.

너희는 밤낮으로 분주하게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노략질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심지어는 돈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돈을 공방이니 공형이니 그렇게 부르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장수가 되겠다고 아내를 죽이기까지 하니,

이것도 고사가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인륜의 도리를 논할 수 없다.

즉 인간은 본인들이 동물에 비해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동물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은 동물만 못하다는 겁니다. 방금 말한 이유로. 남의 생명을 해치고 온갖 아부를 하고 심지어 출세를 위해서 아내를 죽이는 일도 있고 노략질을 하고 등등 행태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게다가 메뚜기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고, 누에에게서 옷을 빼앗고, 벌을 막아 꿀을 훔치고, 심지어는 개미알로 젓갈을 담가 자기 조상에게 제사 음식으로 바치기까지 한다. 그러니 잔인무도하기로 말하면 그 누가 너희보다 심하겠느냐? 너희는 이치를 말하고 본성을 논할 때면 번번이 하늘을 일컫지만, 하늘이 명한 바로부터 보면 범이건 인간이건 만물의 하나일 뿐이다.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천지가 만물을 낳는 인(仁)으로부터 논하면 범이건 메뚜기, 누에, 벌, 개미이건 인간과 더불어 길러져 서로 어긋남이 없다. 선악의 관점에서 분별해 보자면, 벌과 개미의 집에 대해 공공연히 노략질을 하는 것은 유독 천지간의 큰 도둑이 되지 않는단 말이나? 메뚜기와 누에의 밀천을 함부로 약탈하는 것은 유독 인의(仁義)를 해치는 큰 도적이 되지 않는단 말이나?

이렇게 해서 호랑이의 입을 통해서 인간은 동물보다 우위에 있고 인간은 동물과 달리 고상한 예의 범절도 논하고 철학도 논하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연 세계에서부터 모든 걸 약탈해서 살지 않는가,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 점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이나 자연에 비해서 우월성을 느끼는 것은 기만적이고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자연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인간이 더 오히려 수준이 낮고 도둑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가 갖추고 있다는 윤리 덕목도 동물의 세계에서는 동물 나름대로 잘 구현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이 윤리 도덕을 여기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범죄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동물의 세계는 잘 안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인간 사회 현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 중심주의가 갖고 있는 사고를 뒤집어서 오히려 인간 중심주의의 허약함, 취약함, 약점, 맹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문명 비판적인 사고가 개진된다고 할 수 있고요.

5. 변방지식인의 면모

자, 이렇게 해서 『열하일기』 나타나는 아주 복합적인 중국 인식, 자타 인식 그다음에 문명 인식을 살펴봤는데요. 끝으로는 좀 변방 지식인의 면모를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답답하고 좁은 나라를 벗어난 해방감

먼저 이 조선이라고 하는 좁은 나라에 있다가 중국을 통해서 드넓은 세계에 나간다는 이 해방감, 답답하고 좁은 나라를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드러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강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이는데요. 이렇게 박지원이 얘기를 해요.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사람이 태어나 본래 의지할 데가 없으며 그저 하늘을 이고 땅을 밟으며 갈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보다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를 짚고 말했다. “통곡하기 좋은 곳이다! 통곡할 만하다.”

이제 만주 별판을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 요동 별판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선 사신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갈 때 요동 별판을 지나면서 이 드넓은 광활한 곳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이 탁 트인 곳을 보게 되면서 박지원이 해방감을 느끼는데 뭔가 이 무한한 이 드넓은 공간에서 이 감격스러운 것을 뭐라고 해요. 통곡한다고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는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곡은 좀 슬픈 쪽이잖아요. 그래서 통곡을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약간 좀 노림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통곡이라고 얘기를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만 칠정 중에 오직 슬픔이 통곡을 유발하는 줄만 알고 칠정이 모두 통곡할 수 있다는 것은 모른다. 기쁨이 지극하면 통곡할 수 있고” 등등등 해서 모든 감정이 지극하면 통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요동 별판에 나온 이 감격도 기쁨의 극에 도달해서 통곡을 하고 싶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다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꽉 막힌 것을 풀어내기로 소리보다 빠른 것이 없으니, 통곡은 천지에 있어서 우뢰에 비할 만하지.”(중략)

“갓난아이에게 물어보게.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느낀 것은 무슨 감정이었을까?”

“꽉 막힌 것을 풀어내기로 소리보다 빠른 것이 없으니 통곡은 천지에 있어서 우뢰에 비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갓난아이에 자기를 비유해요. 한번 봐봅시다. “갓난아이에게 한번 물어보게.” 이것도 엉뚱한 얘기죠. 갓난아이에게 물어봐서 어떡하겠습니까?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적에 느낀 것은 무슨 감정이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자, 중략하고 넘어갑시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적엔 꽉 막혀서 어두컴컴했고 좁은 곳에 뽕뽕 싸매여 있었다가 하루아침에 탁 트인 곳으로 나와 손과 발을 펴고 마음이 뽕 뚫리니 어떻게 참된 소리를 내어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략)”

이렇게 해서 박지원은 이 요동 별판을 보고 이 좁은 조선을 벗어난 이 해방감에 들며 있는 자신의 마음을 태중에서 벗어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 갓 태어난 아이가 우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요동 별판에서 통곡하고 싶은 마음과 같고 이 통곡하고 싶은 마음은 극도의 해방감이라는 건데요. 갓난아이가 뱃속에 태중에 있었던 것은 아주 답답하고 이것은 자신이 조선이라고 하는 좁은 나라에 갇혀 있었던 것을 비유하는 거고요. 갓난아이가 좁은 태중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자신이 조선에서 벗어나서 드넓은 세계 요동 별판으로 대변되는 이 넓은 세계에 드디어 내가 진출한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방감을 아주 감격스럽게 얘기하고 또 흥미로운 것은 아주 기발한 비유를 통해서 통곡을 할 만하다라는 등 갓난아이가 우는 이유는 너무 기뻐서라는 등 뭐 이런 아주 의표를 찌르는 발상을 통해서 자신의 해방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방 지식인이 세계를 접할 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고요.

• 북경 유리창에서의 고독

이런 해방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변방 지식인은 세계 중심지에 왔을 때 고독도 느낍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이 북경에서 있을 때 북경에 유리창이라고 하는 서화 골동품을 많이 파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으로 치면 뉴욕이나 파리 베를린 같은 어떤 세계적인 도시에서 자신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건 「관내정사」에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천하에서 지기(知己) 한 명만 얻으면 여한이 없을 것이다. 아! 스스로를 보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 이지만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벗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중략을 하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유리창 가운데 홀로 서 있다. 내 옷과 갓은 천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반남 박씨는 천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내가 이에 성인도 되고 부처도 되고 현자와 호걸도 되고 기자(箕子)와 접여(接輿)처럼 미치광이가 된들 누구와 더불어 그 지극한 즐거움을 논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내가 드디어 중국에서 중국의 중심지 북경에서 안목을 트이고 그랬지만 이 무수한 사람 속에서 결국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 내 진심을 터놓고 이 내 기쁨을 공유할 만한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 이런 고독감을 느끼는 게 또 하나 변방 지식인의 면모가 드러나고요.

• 고북구를 나오며 느낀 감회

또 하나는 고북구라고 해서 만리장성이 변경지역, 옛날에 격전 지역이었는데 이 고북구를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이 감회에서 변방 지식인의 면모가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야출고북구기」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명청 교체기의 격전지였던 곳인데 여기를 지날 때의 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조선 사람 최초의 일이거든요. 열하에 가기 위해서 이 고북구를 지나서 쪽 가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령산을 따라 배로 광형하를 건너 밤중에 고북구(古北口)를 빠져나갔다. 그때 밤이 벌써 삼경(三更)이었다. 중관(重關)을 나와 장성 아래에 말을 세우고 그 높이를 헤아려보니 10여 길쯤 되었다. 붓과 벼루를 꺼내 술을 부어 먹을 갈고 성을 어루만지고 이렇게 썼다. “건륭 45년 경자년 8월 8일 밤 삼경에 조선 박지원이 이곳을 지나다.” 그리고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서생(書生)일 뿐인데 백발이 되어서야 한 번 장성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구나!”

여기서 보시면 박지원은 조선 사람 최초로 고북구를 빠져나간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밤에 이 보니까는 건물이 굉장히 높고 뭔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밤이기 때문에 뭔가 그로테스크한 느낌도 같이 있고요. 이곳을 지나가는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박지원은 붓과 벼루를 꺼내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술을 부어서 먹을 간 다음에 글씨를 써요. 건륭 45년 언제 언제 박지원이 지나다라고 적습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죠. 뭔가 기념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박지원의 마음이 좀 복잡해요. 크게 웃는다는 말에서 이게 드러나는데요. 웃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조적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게 막 섞여 있는 독특한 어떤 반응입니다. “나는 서생일 뿐”인데라고 했죠. 서생일 뿐인데 이곳을 지나다니 이것은 되게 기쁜 일이고 자부할 만한 일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마냥 기뻐할 일만이 아니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백발이 되어서야 겨우 한 번 지나가는구나”, 이 역사적인 격전지 이 현장에서 박지원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뭔가 자부심도 있고 기쁘면서도 초라해지기도 하고 뭔가 쓸쓸해지기도 하는 이중 심리 이런 게 느껴지는 것이고 이게 이게 변방 지식인이 갖게 되는 또 마음일 것입니다. 아, 내가 드디어 이곳을 한번 지나가는구나, 조선에 가면 나처럼 이런 경험 쌓은 사람 없을 것이야, 내가 책으로만 봤던 곳이 이런 데구나, 바로 여기에서 그 무수한 격전이 있었구나 하면서도 뭔가 본인이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6. 더 생각해볼 문제

자, 이렇게 해서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주로 청나라에 대한 관찰, 중국 인식이 어떤 거고 내부적으로 조선 지식인의 위선적이고 비현실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적이었고 그리고 또 문명 비판적인 시각은 어떤 식으로 개진을 했고 또 변방 지식인으로서 어떤 감회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세계 제국을 접할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이렇게 보니까 박지원은 굉장히 좀 복잡한 인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학으로 가두지 말고 그런 복잡한 모습을 두루두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더 생각해볼 점이 해볼 문제가 뭔지를 짚어봅시다. 우선 조선 후기 여러 지식인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대청 인식과 비교해 볼 때 박지원의 대청 인식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우리가 더 심화된 공부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질서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대청제국에 대해서 주변국 변방 지식인은 어떤 비판적인 긴장과 거리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을 사상적으로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질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박지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갖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는 강대국 사이에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강대국의 장점도 흡수하고 하면서도 또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박지원의 문제의식은 살아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 대한 박지원의 입체적인 시각이 어떤 현재적 가치를 갖는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면 더 『열하일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오늘 강의에서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열하일기』에 나타난 복합적인 중국 인식에 주목하여, 박지원이 어떤 시각으로 청나라를 관찰하고 있으며 대청제국을 바라보는 변방 지식인의 면모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박지원은 몇 가지 인식론적·방법론적 전제를 가지고 청나라를 관찰합니다. 박지원은 ‘평등안’을 가져야 하며 오만하고 편협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청나라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적 제약에 유의해야 하고, 청나라 선비들과 필담을 나눌 때 그들이 그동안 억눌렀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인식론적·방법론적 토대 위에

서, 박지원은 최전성기 대청제국의 번영뿐 아니라 그 이면의 문제점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후생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청나라의 문물제도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백성에게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 왕조/중화 문물 분리론’은 그 논리적 근거로 기능합니다. 기와 조각과 뚝거름이 중국 최고의 장관이라는 ‘장관론’은 박지원의 이용후생론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열하일기』에는 박지원의 복합적인 자타인식과 문명의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주족의 중원 지배에 대한 박지원의 시선에는 긍정과 부정이 착종되어 있습니다. 박지원은 ‘중화’와 ‘오랑캐’의 구분이 인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만주족이 중원을 지배하는 현재를 ‘암흑기’로 보면서 중화 중심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조선의 보수적인 지식인들이 주장하던 북벌론은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지원의 문명인식에서 주목되는 점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소설 「호질」 중 호랑이의 입장에서 인간을 비판하는 부분에는 박지원의 문명비판적 사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열하일기』에는 대제국을 처음 경험하는 변방 지식인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박지원은 요동 별관에서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북경 유리창에서는 천하를 찾아보아도 참된 벼를 얻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고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고북구를 나오며 느낀 감회를 서술한 부분에는 놀라움, 자조,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감정 등 복잡한 심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청나라에 대한 관찰, 조선에 대한 비판, 문명비판, 변방지식인으로서 감회 등 『열하일기』의 다양한 면모들을 살펴봄으로써 박지원과 『열하일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박지원은 정사(正使)의 자격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O/X)

정답: X

2. 『열하일기』에는 정통 고문체와 백화체가 혼용되어 있다. (O/X)

정답: O

3. 『열하일기』는 한양을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O/X)

정답: X

4. 박지원은 '평등안'으로 중국을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O/X)

정답: O

5. 박지원은 북경 유리창에서 마음이 맞는 벼를 발견했다. (O/X)

정답: X

선택형(5분)

1. 다음 중 『열하일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열하일기』는 당대의 정치외교적 배경 및 박지원의 개인사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다.
- ② 박지원은 드넓은 요동벌판을 보고 한바탕 웃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
- ③ 박지원이 통과한 고북구는 명청교체기의 격전지이다.

정답: ②

2. 다음 중 박지원의 이용후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지원은 이용후생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청나라의 문물제도를 관찰하고 있다.
- ② 박지원은 깨진 기와와 똥이 중국의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 ③ 박지원은 청 왕조와 청나라의 문물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③

3. 다음 중 박지원의 복합적인 자타인식과 문명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박지원은 만주족의 중원 지배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다.
- ② 백이숙제에 관해 서술한 부분에는 북벌론에 대한 풍자가 나타나 있다.
- ③ 「도강록」에서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홍대용은 청나라의 문물에 관해 ‘○○○ ○○○’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박지원은 청나라 문물을 직접 보고 홍대용의 말을 실감하게 되었다.

정답: 대규모 세심법

2. ○○은 당시 조선 지식인의 다섯 가지 망령된 태도, ○○○는 청나라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여섯 가지 제약을 뜻한다.

정답: 오망-육불가

3. 박지원의 인간중심주의 비판은 단편소설인 「○○」에 나타나 있다.

정답: 호질

나. 토의(45분)

- 1) 조선 후기 여타 지식인들의 대청인식과 비교해볼 때 박지원의 대청인식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가?

(대청인식과 관련하여 박지원과 비교해 볼만한 조선 후기 지식인으로 홍양호, 홍대용, 이덕무, 박제가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박지원 이전 및 이후 시대 인물들을 조사하여 비교해볼 수 있다. 일단 청나라에 대해 배타적이고 적대적이었는가 아니면 개방적이고 유연했는가에 유의할 수 있다. 하지만 박지원의 예에서 확인되듯, 청나라에 대한 인식 태도는 단순히 긍정과 부정 어느 한 쪽으로 단순화하기 힘든 면도 있을 수 있다. 청나라에 대한 인식은 명나라에 대한 인식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국제 질서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대청제국에 대해 주변부 변방 지식인은 어떤 비판적 긴장과 거리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사상적으로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는가?

(흔히 조선후기 실학사에서 이른바 북학파는 ‘북벌론에서 북학론으로의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부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청나라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한계를 갖는다 하여 청나라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변방성을 자각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강대국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의 장점은 장점으로 인정하면서 강대국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두게 할 수도 있어서 양면성을 갖는데, 이런 양면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청나라에 대한 박지원의 입체적 시각은 어떤 현재적 가치를 갖는가?

(한국은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데, 청나라라는 그 당시 세계제국에 대한 박지원의 인식 태도가 오늘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현명한 자기 정립의 길을 모색해야 할 한국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

다. 과제(45분)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을 비교 연구할 때 박지원의 시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해 보십시오.

(박지원은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의 낙후성을 직시하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했으며 중국의 실상을 인정하려 들지 않은 태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장점은 장점으로 인정하되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여 중국의 문제점 또한 직시했다. 이렇듯 박지원은 자기 비판적이면서도 선진국 콤플렉스나 자기 비하로 흐르지는 않았고 주체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선 밖의 세계에 대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이런 인식 태도는 비교 문학을 연구할 때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제10강〉

동서 문명의 충돌과 융합

한국 고전문학과 서학

학습 목표

1. 서학의 동아시아 유입 과정 및 조선으로 들어온 한역 서학서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2. 서학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조선후기의 주요 작품들을 읽으며 서학과 서양 세계관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다양한 반응 양상을 살펴본다.
3. 조선후기 지식인이 단지 서양의 문명과 사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 비판적인 시좌에서 어떤 문명사적 대화를 시도했는지 살펴본다.

강의 핵심 요약

‘동서 문명의 충돌과 융합’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서학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서학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과 일본으로 가져온 한역 서학서를 통해 조선에 유입되었다. 조선 지식인들은 이 책들을 통해 서양의 우정론, 천주교 교리, 수학, 지리학 등을 접하게 되었다.

이어 서학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글을 몇 편 살펴보았다. 이익의 「애체경명」에는 서양 문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타나 있다. 이 글은 안경에 부친 기물명으로, 서양 사람이 안경을 제작함으로써 ‘하늘을 대신하여 인을 행했다’라고 극찬하고 있다. 서유구의 「기하실 기문」은 서양 기하학에 심취하여 자기 집을 ‘기하실’이라고 명명한 유금의 초상을 그리고 있다. 이 글에서 서유구는 기하학을 공부하면서 행복해하는 유금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의 사람됨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유금이 기하학을 좋아하는 것은 천성에서 나왔으니, 기하학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학문이라는 통념과 달리 유금의 기하학 공부는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한편, 마

테오 리치의 『교우론』은 조선후기 우정론에 큰 영향을 미친 서학서이다. 이 강의에서는 박지원의 「『회성원집』 발문」과 「어떤 사람에게 준 편지」를 살펴보았다. 박지원의 글에서는 유교적 전통, 당대 조선의 현실, 서학의 충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박지원 나름의 우정론으로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편 조선 지식인들은 서구의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에 공명하기도 하고 인간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천주실의』에는, 만물은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니 잘 이용해야 한다면서 불교의 살생계를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세계관에 공명한 예로는 이언진의 『호동거실』 제 74수가 있다. 이와 달리 『천주실의』의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사상 정립을 한 예로 이익의 『성호사설』 중 「육식에 대하여」를 들 수 있다. 이 글은 『천주실의』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육식을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더라도 욕심을 부려 약육강식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에서 서양의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삶과 문명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의 내용 전문 ◆

강의 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별 작품이라기보다는 좀 큰 주제를 다루게 될 건데요. 크게 동서 문명의 충돌과 융합이라고 하는 주제하에서 서학과 우리 고전문학의 관계, 우리의 고전문학 작품에 서학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근대 전환 전에 동서 문명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거나 융합을 하거나 긴장 관계를 형성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우선 수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접했던 서학서가 주로 한문으로 번역된 것들이고 이걸 한역 서학서라고 하는데요. 한역 서학서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 그리고 한역 서학서를 개관하려면 한역 서학서들의 주요 저자들인 예수회 선교사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리고 서양 문물이 조선에 전래가 되는 과정이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등등을 개관적으로 처음에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 서학과 관련된 인식이 이 고전 작품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를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볼까 해요. 우선 문물에 대한 서양 문물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 서양 문물에 대한 태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서학, 서양 학문 중에서 그 당시에 좀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기하학에 탐닉을 한 지식인의 모습을 굉장히 흥미롭게 또 담아낸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서학에 탐닉한 지식인이 어떤 존재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작품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조선 후기에 보면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새로운 감수성의 우정론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조선 후기 우정론이 서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우정론을 서학과의 연관 속에서 살펴보고 합니다. 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예수회 신부가 『교우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조선시대에도 들어와서 많은 또 반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런 측면을 하나 살펴볼 거고요. 어떻게 보면 문예론적이기도 하고 사상사적이기도 한 사상사적이기도 한 고찰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본격적인 사상사적인 고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서학서 중에 천주교 교리와 관련된

『천주실의』도 조선시대 지식인 중에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되게 다양한데 그걸 통해서 접하게 된 서구적인 인간 중심주의적인 면모, 인간주의적인 사상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것과 공명하는 작품을 창작한 작가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대응하면서 인간 중심주의와는 약간 거리가, 비판적인 거리를 두는 사상을 또 모색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를 쭉 하고 나서 끝으로는 이런 공부를 토대로 더 생각해볼 만한 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

1. 한역 서학서 개관
2. 서양 문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
3. 기하학을 탐닉한 지식인의 초상
4. 「교우론」과 조선후기 우정론
5. 서구적 인간중심주의 비판
6. 더 생각해볼 문제
7.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1. 한역 서학서 개관

• 서학(西學)이란?

그럼 방금 설명드린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이 뭔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볼까요. 전근대 동아시아에 소개된 서양의 학문과 사상을 서학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회 신부의 한역 서학서 즉 한문으로 번역한 서학 서적 이 한역 서학서를 통해 소개된 서양의 학문과 사상, 지식 이런 것들도 들어갈 테고요. 예수회 신부의 역할이 주목이 되는데 예수회는 기본적으로 적응주의 선교 전략을 폈거든요. 적응주의는 뭐냐면 선교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해서 그 문화에 맞추어서 선교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문명의 새로운 융합의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뭐냐 하면 적응주의적인 방침에 따라 동아시아로 온 예수회 신부 마테오 리치 이런 사람들이 동양의 유교사상, 불교사상, 노장사상 이런 거를 공부하고 그런 자신의 서양의 사상을 동아시아적으로 코드화시키는, 동아시아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데서부터 이미 전대미문의 동서양의 융합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회 신부들이 자꾸 등장을 하게 되

는 겁니다. 이런 책들이 또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문을 할 줄 아는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다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동아시아적인 파급력을 또 갖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 서학이라고 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포괄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 예수회 신부들이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천주교 관련된 게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업 개관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우정론 관련된 게 하나 있고, 우정론은 어떻게 보면 이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이 정도가 되는 거겠죠. 폭넓은 인문학적인 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주교는 종교 담론이지만 여기에도 철학적인 담론이라고 할까 이런 게 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종교량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지금의 과학, 자연과학 이쪽에 가까운 영역들이 있는데요. 기하학 이런 게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천문학 이런 게 있고 또 세계지도, 이걸 지리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종교, 사상, 수학, 자연과학, 지리학 이런 등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관을 해보면 서학을 소개한 예수회 신부가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선교사의 측면이 있지만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라 사상가로서의 면모가 있어요. 그렇죠? 우정론을 소개한다든가 유교사상을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교사상과 연관 지어서 천주교 교리를 설명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상가적인 면모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하학을 소개해 주고 천문학을 소개해 주고 이런 것들은 과학자적인 또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학을 소개한 예수회 신부는 선교사, 사상가, 과학자 이런 삼중의 면모를 동시에 갖는 굉장히 흥미로운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동아시아 내 서학의 유입-예수회 선교사의 입국

자, 그럼 동아시아 내에 서학이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회 신부들이 동아시아 나라에 입국한 경로를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좀 일찍 들어왔는데요. 1549년에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신부가 일본에 들어온 적이 있고요. 중국의 경우는 중요한 게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지금 중국에 마테오 리치 묘소도 있는데요. 중국 이름은 이마두입니다. 여기에서도 벌써 적응주의적인 면모가 드러나죠. 서양 이름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름도 중국식으로 짓고 중국어도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 사대부들도 늘 이마두 이렇게 불렀습니다. 생몰년은 1552년~1610년이고요. 마테오 리치는 좀 고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일단 중국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일단 마카오에 1582년에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먼저 와 있었던 루제리 신부를 따라서 광동성 조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1583년 일이고요. 이 조경에서 6년간 체류를 합니다. 중국 내지에 들어오기 전에 상당히 긴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6년간에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체류를 허가를 받지 못해서 다른 데 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

다. 그 과정은 지금 다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것은 과연 중국 내지, 북경엔 언제 왔는가인데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1601년에 드디어 북경으로 들어오게 되고 북경에서 정식 영주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9년간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1610년에 북경에서 사망을 하고 지금 북경 외곽에 있는 묘소에 지금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열하일기』에도 이마두 묘소에 대한 언급이 보입니다. 이렇게 마테오 리치가 들어와서 활동을 했고요. 마테오 리치 활동에 대해서 중국 지식인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 중국 학자들하고 굉장히 토론도 열심히 하고 그런 성실한 태도가 또 중국 지식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하고 그랬던 거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일본, 중국에는 예수회 신부가 전근대 시대에 들어오고 활동한 게 확인이 됐는데 조선의 경우는 예수회 신부가 전근대 시대에 직접 들어와서 한 경우는 없고요. 중국을 통해서 한역 서학서가 들어와서 주로 학문적인 차원에서 많이 자극을 주고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수용이 되고 그랬습니다.

• 동아시아 내 서학의 유입-조선과 서양의 만남

자, 그러면 조선의 경우는 조선과 서양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까 서양 선교사가 바로 중국과 일본처럼 들어오진 않았지만 우리 조선 사람도 중국에서 서양 사람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 대한 기록이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에 보입니다. 『성호사설』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임진년(1592) 뒤에 정두원(鄭斗源)이 연경(燕京)에 갔을 적에 서양사람 육약한(陸若漢)를 만났는데, 그는 나이가 97세였는데도 정신이 뛰어나고 표표하여 마치 신선 같았다고 한다.

“임진년 뒤에”, 정두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연경에 갔을 적에 사신으로 간 거거든요. 이때는 해로로 즉 바닷길로 중국에 갔습니다. “서양사람 육약한”, 한자로 이름을 썼는데요. 서양 이름은 로드리게스입니다. “육약한을 만났는데” 이게 바로 조선 사람과 서양 선교사의 최초의 만남입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그때 육약한 신부님은 나이가 97세였대요. 그런데도 “정신이 뛰어나고”, 정신이 또랑또랑하단 말입니다. “표표해서 마치 신선 같았다고 한다.” 여기서 보면 흥미로운 게 서양 사람에 대한 인상이 뭐냐 하면 반감을 갖거나 오랑캐로 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신선 같았다고 해서 꽤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뭔가 깨끗하고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런 느낌이죠.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중국에 왔을 때 ‘홍이’(紅夷)와 ‘모이’(毛夷)’의 왕래가 막혔던 것을 없애고,

육약한이 중국에 왔을 때 “홍이”, 홍이는 머리가 빨간 오랑캐라고 하는 뜻이고요. 포르투갈계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넓게 서양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홍이와 모이”, 모이는 온몸에 털이 많은 오랑캐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서양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도 보면 흥미롭긴 하죠. 지금 입장에서 약간 좀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동아시아 사람이 서양 사람을 봤을 때 바로 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뭐였는지가 이런 명명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광둥(廣東)에 이르러 홍이포(紅夷砲: 네덜란드 대포)를 바치니, 천자가 가상하게 여겨 특별한 손님으로 대우했고, 등주(登州)로 보내어 중국과 협력하여 요동(遼東)을 회복하게 했다.

다시 보면요. 홍이와 “홍이와 모이의 왕래가 막혔던 것을 없애고”, 즉 육약한 신부가 옴으로써 동양과 서양 사이의 교통이 활발해졌다는 뜻이죠. “광둥에 이르러 홍이포”, 이걸 네덜란드 대포고요. 이 홍이포가 명청 교체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 “홍이포를 바치니 천자가 가상하게 여겨 특별한 손님으로 대우했고 등주”, 이 등주도 명청 교체기의 격전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등주로 보내어 중국과 협력하여 요동을 회복하게 했다.” 즉 명청 교체기에 서양식 대포 군사 무기를 제공해서 명나라 측에 협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또한 정두원에게 대포를 주어 우리나라 국왕에게 알리도록 했고. 또 『치력연기』(治曆緣起) 1권, 『천문략』(天問畧) 1권, 『원경설』(遠鏡說) 1권, 『직방외기』(職方外紀) 1권, 『서양공헌신위대경소』(西洋貢獻神威大鏡疏) 1권과 천리경(千里鏡: 망원경)、자명종(自鳴鍾)、조총(鳥銃)、약통(藥筒) 등의 물건을 주었다.

“그는 또한 정두원에게 대포를 주어 우리나라 국왕에게 알리도록 했고 또 『치력연기』”, 이거는 천문학 관련 책입니다. “『천문략』” 이것도 천문학 책이고요. “『원경설』” 이거는 망원경에 관한 글이니깐 이것도 자연과학에 대한 글이고요. “『직방외기』” 이거는 지리 세계 지리에 관련된 책이고요. “『서양국공헌신위대경소』” 그리고 “천리경”, 이런 책들을 주고 “천리경” 이걸 망원경이고요. “자명종, 조총, 약

통 등의 물건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성호 이익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두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행길에 이 육약한 신부를 만났고 육약한 신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과학 서적, 종교 관련 서적 등등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서양의 문물 즉 자명종 그리고 망원경 같은 측량기구, 조총·대포 같은 군사 무기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아서 조선에 가져왔고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호 이익의 기록을 좀 더 보면요. 부연 설명인데요.

‘원경’(遠鏡)이란 것은 백 리 밖에서도 적진(敵陣)을 바라보면서 미세한 것까지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은 망원경 같은 거를 당연히 여기지만 이 조선시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경이로운 물건이었겠습니까? 그다음 조총에 대해서도 얘기하네요.

‘조총’이란 것은 화승(火繩)을 쓰지 않고도 석화(石火)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니,

즉 무기의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화승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붙게 하는 노끈이어서 전통적인 화승총에 쓰는 것이고요. 석화는 지금으로 치면 부싯돌식 점화 장치를 뜻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옛날식 총의 발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총에 있어서. 다시 이제 보면요, 조총이란 것은 화승(火繩)을 쓰지 않고도 석화(石火)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니,

탄환을 쏘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나라 조총이 두 번 쏘 동안에 네다섯 번을 쏠 수 있을 정도로 짧다.

이건 획기적인 것이죠, 군사적으로. 총이라고 하는 게 불을 그다음 연속 발사를 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는 게 큰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옛날식 조총은 이거 획기적으로 시간을 짧게 해서 공격력을 높인다 는 거, 이거는 전근대 시대의 테크놀로지로서는 상당한 진일보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이포’란 것은 포탄 하나가 말[斗]만큼 큰데 80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육약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서술을 성호 이익이 합니다.

육약한은 이마두(利瑪竇)와 같은 시기에 온 사람인데, 그가 우리에게 준 것들은 모두 없앨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 육약한을 통해서 선물 받은 서적, 문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호 이익 본인의 경험이 들어가는데요.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천문략』과 『직방외기』 등 여러 종류의 서적들이었고 그 나머지는 남아 있는 게 없었다.

성호 이익이 육약한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이때 들어왔던 서양 서적, 문물 나도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 수 있지 하고 찾아봤더니 책은 입수해서 몇 개 봤는데 그 외에는 결국은 확인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본인이. 그래서 이것 통해서 또 성호 이익이라고 하는 지식인이 이 서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좀 열성적으로 연구에 임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부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약한과의 기록이 성호 이익이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사료를 확인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정두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국 사행을 가서 육약한을 만난 시기는 1630년 혹은 31년인 것 같은데 아직 이 둘 중에 하나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두원이 1630년에 중국에 갔다가 1631년까지 사행을 하고 다시 귀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30년 때 만난 건지 31년 때 만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에 만난 것은 확실합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님은 이름은 주앙 호드리게스 추주,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과 서양의 첫 만남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로드리게스 신부는 정두원에게 천리경, 서양 대포 등등 아까 읽은 이런 서적, 무기류, 관측 기구류 등을 선물한 것이 확인이 되고 그런데 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활동 구역이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호 이익이 이 로드리게스는 이마두와 함께 중국에 들어왔다고 하는 건 사실 부정확한 서술인 것이죠.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사실은 이게 유명한 인물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일본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구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성서 번역을 일본어로 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성서

번역이라고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보다는 서양의 언어를 일본어로 번역을 한다는 점에 주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서양의 언어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해서 일본어 문법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일종의 언어학적인 성과까지 낸 건데요. 그 결과물이 『일본 대문전』, 『일본 소문전』 이런 문법서들입니다. 그 밖에도 『일본 교회사』라고 하는 저술을 집필했다고 하는데 이건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로드리게스가 이런 인물인데 그러면 일본에서 주로 활동한 사람을 정두원은 중국에서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 여러분 이런 게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그건 사정이 이렇게 됩니다. 명나라가 명칭 교체기 때,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청나라하고 청나라가 이기느냐, 명나라가 망하느냐, 명나라가 수비에 성공하느냐 이런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명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마카오에 그때 있었던 곤잘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대포 10문에다가 약간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마카오에서 북쪽으로 중문 외지로 들어가서 명나라군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로드리게스 신부가 통역자로 지명을 받아서 함께 따라가게 된 겁니다. 아까 언어에 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자 신분으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정두원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때 곤잘베스의 도움은 크게 유효하지 않아서 청나라군이 대대적으로 승리를 하고 많이 몰살을 당합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가까스로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로드리게스 신부는 결국은 타계하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조선 사신이 로드리게스에게 받은 인상은 어땠느냐? 아까 성호 이익 글에서도 보면 신선 같았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정두원이 그 당시 국왕인 인조에게 한 말입니다. 국왕 인조가 정두원을 접견을 했어요. 명나라 사신 행렬 잘 다녀와서 정두원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임금이 묻습니다. 그래서 정두원이 서양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니까 신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냐라고 했더니 신선 같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약한 로드리게스는 뭔가 도를 지닌 사람처럼 보였습니 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 서양과 조선의 첫 만남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람은 정두원이 대동한 인물 중에 이영후라고 하는 역관이 있습니다. 일종의 통역관이죠, 요즘으로 치면. 이 이영후라고 하는 인물도 이 로드리게스 신부와 접촉을 했고 관련된 문건이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정두원이 이영후를 시켜서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서양의 무기, 천문역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영후가 로드리게스하고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직접 말은 안 통하니까 한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배울 거는 배우고 궁금증은 해결하고 그러려고 했던 것이죠. 그 편지가 지금 남아 있고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 그런데요. 그 편지에서 이영후는 다양한 말을 하는데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조선하고 당신 나라, “귀국”, 높여서. “우리나라와 귀국 사이는 하늘 끝이요 땅의 모서리인데”, 서양하고 조선은 엄청나게 멀단 말입니다. “지금 뜻밖에 만나 정신을 교류하니 이는 천고에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라고 해서 정말 만나기 너무나 힘든 서양 사람과의 조우를 굉장히 기뻐하고 환영하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후는 서양의 천문학이 굉장히 심오하고 아주 특출하다라고 로드리게스에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중국 대륙 바깥에 이런 인물이 있고 이런 교화가 펼쳐졌다니.”라고 해서 그 당시 동아시아 내에서는 중국이 문명의 중심지이고 중국에서 유교에서의 모범으로 삼는 성인 공자니, 요 · 순 · 우 · 탕 · 문무니 이런 사람들이 다 중국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 바깥에 중국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더 뛰어난 과학적인 성과를 거둔 게 있었던 말이죠. 거기에 대한 감탄인 겁니다. “아니, 중국 바깥에 이런 인물이 다 있다니, 그리고 이런 제작을 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이영후가 로드리게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감탄을 합니다. 이영후는 로드리게스에게서 받은 책을 보고 책의 내용에 대한 질문도 해요. 천문학, 지리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드리게스에게 질문을 하고 특히 충격을 준 거는 세계 지도입니다. 이 세계 지도라고 하는 게 이 조선시대 지식인들에게 중국 중심의 문명관을 뒤흔들게 하는 굉장히 큰 임팩트로 작용을 했는데요. 세계 지도를 보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드리게스 신부가 이영후에게 보낸 답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만국전도”, 이거 세계 지도인데요. “명나라가 가운데 그려진 것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고 지구를 논하면 나라마다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뭘까, 중국이 세계 중심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중심을 따지면. 왜? 지구는 둥그니까.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중심으로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중국 중심주의가 지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뒤흔들 만한 임팩트가 있는 정보가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과 서양의 첫 만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더 하나 또 보면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중국 중심적인 세계관이 지리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지적하면서 또 동양과 서양의 학문을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후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국은 오로지 고인, 옛사람을 믿어서 착오를 일으키고 잘못 영합하게 되는데 서양 나라의 학문은 학문하는 태도는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항상 참작 검토하여 그 근원에 도달하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동아시아 특유의 상고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동양 상고주의적 옛날 성인이 최고고 거기에 늘 맞춰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이 나오고 특히 자연과학의 경우는 발전을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맹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와 달리 서양 학문은 꼭 옛날 거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실험, 실측을 통해서 그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한다, 이런 지식이 더 우위에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양의 관점에서 동양의 학문의 맹점을 지적한 것을 또 이영후가 접한 것이 됩니다.

• 동아시아 내 서학의 유입-조선에 유입된 서양 문물

이렇게 해서 조선 사람과 서양 사람의 첫 만남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는 동아시아 내 서학의 유입과 관련해서 조선에는 어떤 서양 문물이 유입됐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건 안경입니다. 저도 안경을 썼고 안경들 많이 쓰는데 조선시대로서는 이게 또 조선시대도 많이 썼지만 이게 서양 문물로 인지가 됐고 안경에 대한 글로서는 가장 처음 지금 확인이 되는 건 이호민이라고 하는 인물의 「안경명」이라는 글이고요. 안경에 붙인 글은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살펴볼 겁니다. 물론 이호민의 글은 아닌데요. 자, 그 밖에도 앞에 나왔던 망원경이니 자명종이니 이런 것들이 조선에 유입된 서양 문물입니다.

• 동아시아 내 서학의 유입-조선에 유입된 한역 서학서

더 중요한 건 조선에 유입이 된 한역 서학서인데요. 마테오 리치의 저술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선 마테오 리치 저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마테오 리치는 일단 『교우론』을 먼저 저술했어요. 이게 1595년에 공간이 되는데 마테오 리치 최초의 한문 저술입니다. 이거는 문명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서양 사람 최초의 한문 저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전대미문의 행위예요. 서양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서양적인 지적 전통, 서양적인 사상을 동아시아적인 코드에 맞춰서 다시 풀어낸 거거든요. 굉장히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일입니다. 이 『교우론』은 우정에 대한 서양의 격언, 일화 이런 것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조선, 일본 모두에서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십오언」이라고 하는 또 짤막한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1599년에 공간이 됐는데 에피테토스의 『엔케리디온』을 발췌 번역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천주실의』입니다. 이걸 1603년에 공간이 되는데 집필은 그전부터 진행이 돼서 1595년부터 집필을 구상을 해서 1603년에 출판에 이르게 되는데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문답 형식으로 서술을 해놓은 겁니다. 주로 중국의 유교적인 전통을 존중하면서 천주교 교리를 설파한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마테오 리치가 어떤 식의 전략을 짜냐면 유교에서 이단 사상으로 취급하는 불교, 노장 사상을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유교 경전에서 상제라고 부르는 인물이 천주교에서 말한 천주랑 같다, 우리가 말하는 천주는 유교에서 말하는 상제에 해당한다라는 식의 설명을 합니다. 즉 유교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노력 때문에 우리 조선 지식인들도 유교 소양이 있으면서도 이 천주교 책을 보면서 아주 큰 거부 반응을 없이, 물론 또 유교와 달라지는 지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지만 또 유교와 통하는 점에 대해서는 거부감 없이 볼 수 있게 되는 또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적응주의 선교의 전략에 따라서 유교적인 전통 속에 이 천주교 교리를 설명한 것은 서양 내에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른바 ‘전례논쟁’이라고 하는 게 벌어져서 크게 좀 문제시되긴 되는데요. 그것과 서양에서의 그런 사정과는 별개로 문명의 충돌과 융합이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주실의』가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책은 『기하원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1607년에 나왔는데 서양의 수학 서적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고 이것도 꽤 관심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기인십편』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

는데 이거는 세상의 통념을 벗어난 인물을 기인이라고 명명하고 세상의 통념에 벗어난 깨달음을 10가지를 잠언 형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패러독스 모음이고요.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테오 리치 외에 또 중요한 인물이 디에고 데 판토하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중국명은 방적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비슷한 것 같죠. 생몰년은 1571년~ 1618년에 이르는데요. 『칠극』이라고 하는 천주교 교리서를 냈습니다. 이 인물은.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이것도 성호 이익 같은 사람이 꽤 높이 평가했다기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책입니다. 또 중요한 인물은 줄리오 알레니라고 하는 인물인데 중국명은 애유락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도 나왔던 『직방외기』를 지은 사람이예요. 세계 지리서인데 세계 5대주 42개국의 지리, 풍토, 기후, 명승지 이런 등등을 다룬 책입니다.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동아시아 내에 유입된 한역 서학서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책 중에는 지금 번역이 돼 있어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도 꽤 있습니다. 『교우론』, 『천주실의』, 『직방외기』, 『칠극』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 서양 문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

자, 그다음 그러면 이 서학이 우리 고전문학 작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서양 문물에 대한 태도, 평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나왔던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의 글을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애체경명」입니다. 이 애체경은 안경의 다른 이름입니다. 즉 「애체경명」은 안경에 붙인 기물명인데요. 기물명은 뭐냐 하면 평소애 쓰는 물건들, 거울이나 붓이나 벼루나 빗이나 이런 것에 간단한 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이 짧은데 이 사물에 대한 인식 태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호 이익은 조선 후기 실학자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서학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애체경명」은 조선 후기 실학자가 일상생활에서 안경을 사용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글을 한번 봐볼게요. 재밌는 글입니다.

내게 두 눈의 살핌이 있으니

余有夫兩目之察

하늘이 부여한 게 실로 많았는데

天所賦者實多

그렇죠. 인간은 눈을 타고 났는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이게 하늘이 부여해 준 시력이라고 성호 이익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부여해준 이 시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다음으로 넘어갔는데요.

기력이 쇠하여 어두워졌으니
하늘도 어쩔 수 없었지.

氣漸而昏
天亦不能奈何

자, 이게 인간의 노쇠의 특징이죠. 한 번 신체 능력을 부여받으면 노쇠를 인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시력도 쇠하죠. 특히 성호 이익처럼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더 눈이 빨리 쇠해질 겁니다. 인간에게 하늘이 시력을 줬으면서 시력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이 어떻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인 것이죠, 노화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또 이렇게 밝고 통쾌한 물건을 길러

又養此晶晶洞快之物

안경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가져다 사용하게 했네.

俾人取以爲資

하늘은 어찌 해주지 못하는데 대신 하늘이 해주지 못하는 어떤 대체 물건이 발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경이죠. 그래서 이 안경을 썼더니 어떻게 됐느냐? 성호 이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의 눈이 되어
털끝만큼 작은 것도 볼 수 있으니

非老伊少
細可入於毫釐

이게 바로 안경의 효과죠. 안경을 보면 시력이 잘 보인단 말입니다. 작은 것까지 잘 보인다는 거에

요. 자, 그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누가 이런 이치를 알아내었나

誰識此理

이 이치라는 말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이 이치는 뭐냐 하면 그다음에 읽고 나서 다시 얘기할까요.

누가 이런 이치를 알아내었나

誰識此理

바로 구라파 사람일세.

有歐巴之人

저 구라파 사람이여

彼歐巴兮

하늘을 대신하여 인을 행했구나.

代天爲仁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호 이익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안경을 발명한 사람은 서양 사람이고 이 서양사람 덕분에 시력이 약한 사람이 시력을 보정하고 마음껏 볼 수 있게 됐으니 하늘도 해주지 못하는 일을 하늘 대신 해준 것이다. 그것을 ‘인’이라고 개념을 표현하는데요. 어질 인자는 무엇을 뜻한다면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하늘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길러내게 하는 생명의 작용이 하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고 그 하늘의 마음이 인간의 덕성으로 표현하면은 ‘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하늘의 인’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인간에게 시력을 부여해주고 인간을 태어나게 한 것이죠. 인간이 태어나서 만물을 보게 만든 것, 이게 하늘의 인입니다. 근데 하늘은 인간이 시력이 쇠해지는 것은 어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면 시력이 다시 회복되죠. 그러니까 하늘을 대신해서 인을 행한 것이라고 성호 이익은 이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이 안경의 발명을 극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인간의 작위,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발명품을 통해서 자연의 작용, 천연의 작용을 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아프거나 할 때 자연 상태의 몸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개입을 하죠. 예를 들면 이가 썩은 충치가 생기면 보철물을 넣는다든가 이게 다 바로 하늘을 대신해서 인을 행하는 행위들이죠. 어떤 인간이 인위적인 물건을 통해서 뭔가 보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체 활동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게 되죠. 그런 어떤 발상의 초기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하늘을 대신해서 인을 행한다라는 말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호 이익의 단계에서는 과학 기술이, 인간의 인위적인 과학적인 발명품이 자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이 못 해준 것을 보완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라과 사람을 지적한 것도 중요합니다.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것의 공로를 정확하게 서양 사람의 공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서양 문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건데요. 여기서 이치라고 하는 말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서양 사람이 서양의 자연과학의 성과에 힘입어서 이 시력과 관련된 연구를 했고 그 광학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런 문물을 발견하게 됐다, 그런 거를 바로 이치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서양의 자연과학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성호 이익이라고 하는 지식인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안경에 대한 글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성호 이익은 안경에 대한 고증을 또 했고요. 그 밖에도 서양의 자연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남겼습니다. 이 안경에 대한 고증을 한 글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요. “에체라는 것은 세상에서 안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전에는 ‘서양에서 나왔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증을 하고 있고요. “내가 지난번에 서울에 갔더니 이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안경을 끼면 작은 글자까지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 이익이 한편으로는 그런 문예적인 글도 쓰고 이런 식으로 고증적인 글도 썼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수업에 소개해 드리지 못했지만 또 시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안경의 노래」라고 하는 시도 성호 이익이 지은 바 있습니다. 이 안경에 대한 고증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눈으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어서 다른 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서학 관련해서 성호 이익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걸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성호 이익은 서학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했는데 그런 태도가 방금 살펴본 안경에 부친 명에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호 이익은 『천주실의』와 같은 책에 대해서는 교리 내용 중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주교 교리를 완전히 배척하는 게 아니라 유교 입장에서 천주교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유교의 가르침을 천주교도 보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천주교의 가치를 긍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유훈, 유교를 보충해 준다고 하는 뜻인데요. 보유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판토하 신부의 『칠극』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논평에서 이런 보유훈적인 입장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호 이익이. “『칠극』은 서양 사람 방적아의 저술이니 곧 우리 유교의 극기설과 같다.” 이렇게 해서 판토하가 칠극, 7가지, 인간이 악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7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유교에서 말한 극기복례, 자신의 사욕을 이기고 예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극기복례의 가르침하고 크게 보면 통한다. 그리고 이런 극기복례의 가르침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태도죠. 나중에 좀 보수적인 지배 엘리트들이 서학을 이단으로 내몰고 서학에 대해 탄압을 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호 이익이 『칠극』

의 내용 중에 일부를 인용한 게 있는데요. 인용된 게 있는 김에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온갖 일은 악을 없애고 선을 쌓는 두 가지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칠극』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당연히 이거는 천주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차원과는 무관하게 인간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윤리적인 얘기죠. 이 점에 성호 이익이 주목합니다. 주목한 겁니다.

그래서 성현의 훈계가 모두 악을 없애고 선을 쌓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무릇 악이 욕심에서 생겨나기는 하나 욕심이 본래부터 악인 것은 아니다. 이 몸을 보호하고 영혼과 정신을 도와주는 것도 욕심인데, 사람이 오직 사욕에 빠질 때 비로소 죄가 되고 온갖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칠극』에서 서술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인간의 본성으로 긍정하면서 어떤 윤리성을 도모한다는 거 이런 건 사상적으로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게 사욕에 빠질 때 비로소 나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교의 ‘극기’라고 하는 관념하고 통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점을 성호 이익이 강조한 것입니다.

3. 기하학을 탐닉한 지식인의 초상

자, 이런 식으로 성호 이익은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유교를 중심에 두는 토대 위에 유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성호 이익이 천주교 사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서양 문물에 대한 태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어서 기하학이라고 하는 서양 학문에 탐닉한 지식인의 모습을 그린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글은 서유구라고 하는 인물의 「기하실 기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기하실’이라고 하는 건 유금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지식인의 방, 공부방 이름인데요. 기하학을 공부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기하학이라고 하는 말을 전면에 내세운 것에서 이미 그 기하학에 대한 탐닉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학문적인 변화의 기류, 서학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변화의 기류도 확인이 되는데요.

우선 작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이 서유구라고 하는 인물은 조선 후기 실학자고요. 주로 농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학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주로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또 연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서유구라고 하는 인물의 어린 시절 가정교사가 바로 이 유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금은 신분은 서얼인데 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연암 일파 지식인들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유금은 자기 집 이름을 '기하실'이라고 할 정도로 기하학에 탐닉을 했는데 그런 유금을 위해서 지어준 글이 바로 「기하실 기문」입니다. '기하실'은 기하학을 공부하는 집 혹은 기하학 서적을 갖춰 놓은 집이라는 뜻이어서 유금이 기하학에 얼마나 심취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과연 글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글의 전반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이 유금의 기하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지에 대한 서술을 하기 전에 그 전제에 해당하는 학문론을 개진하는 부분입니다. 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소활한 자와 통달한 자는 그 학문이 크고, 정밀하고 자세하게 살피는 자는 그 학문이 작다. 이는 자신의 천성에 가까운 것을 따른 것이다.

즉 사람이 꼼꼼한 성격의 사람이 있고 대범한 성격의 사람이 있는데 대범한 성격의 사람은 스케일이 큰 학문을 막 하고 꼼꼼한 성격의 사람은 아주 정밀하게 따지는 쪽의 학문을 하게 된다, 이런 학문론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어지는 서술을 보면요.

성인께서 가르치신 것도 오직 그 천성을 따랐을 뿐이니,

정밀하게 살피는 것,

정심(精審)한 것을 억눌러서 억지로 크게 할 수 있는 자는 있지 않았다.

즉 꼼꼼한 걸 따지는 사람한테 너 뭐 그렇게 잔다랗게 하느냐, 스케일 큰 학문 하라라고 억지로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학문을 보면 그 천성을 알 수 있고 그 천성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배우는 자는 그렇지 않아서 오직 자신의 학문이 크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천성에 가까운 것을 따르지 못한다. 그래서 정심한 자는 자신의 천성을 거슬러 억지로 힘써 크게 하려고 한다. 이에 자신의 본심과 어긋나는 행실이 있고 자신의 본뜻을 어기는 말이 있고 속으로 부끄러운 명성이 있어서, 그 학문을 보더라도 그 천성을 알 수 없고 그 천성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알 수 없으니 어찌 미혹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나는 일찍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공자의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일찍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공씨(孔氏)의 학문은 그 위대함이 지극하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은 단일하지 않았다.

즉 제자들의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각각 개성에 따라서 일종의 맞춤형 가르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연(顔淵)과 민자건(閔子騫)은 덕행을 잘 말했고 재아(宰我)와 자공(子貢)은 말을 잘했고 염구(冉求)와 계로(季路)는 정사(政事)를 잘 보았고 자유(子游)와 자하(子夏)는 문학을 잘했으니 배워서 터득한 것이 큼이 있고 작음이 있으며 전체가 있고 부분이 있다. 대저 공자의 제자들이 성인을 얻어 사사(師事)한 것이 그토록 전일(專一)하고 그 문하에 노닌 것이 그토록 오래되었는데도 혹 그 큰 것을 다하지 못했으니, 그 천성에 가까운 것을 따르던 것이어서 그 학문을 보면 그 천성을 알 수 있고 그 천성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어찌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공자의 학문을 끌어들이면서까지 그 사람의 학문, 천성, 인간됨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과 학문의 일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 통상적으로는 많은 지식인들은, 유교 지식인들은 특히, 지행합일 같은 거를 말을 하긴 합니다. 이 서유구가 말하는 이 인간과 학문의 합치는 통상적인 지행합일 같은 것과는 좀 다릅니다. 즉 학문을 하는 사람의 성격과 인간됨에 부합하는 학문이 있고 그런 부합되는 학문에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 논리 구조는 어떻게 짜냐면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구분, 이거를 도입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여러분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큰 게 좋죠, 뭔가 거창하고 멋있는 것. 자잘한 것은 좀 폼도 안 나고 그런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통념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큰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통념인데 이 큰 것은 주류적인 학문, 대체로는 조선시대적인 맥락에서는 성리학, 이기심성론 그리고 이 세상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경제학, 이런 것들이 이제 서유구가 말한 큰 것 큰 학문에 속할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단의 기예로 치부되는 학문들, 수학이라든가 이런 실용 학문들이라든가 서학에서 커버하는 수학, 자연과학, 지리학 이런 것들은 다 작은 것에 아마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유구라고 하는 작가는 큰 것, 작은 것이라고 하는 구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게 바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공부를 하는가 아닌가 여부라는 겁니다. 큰 공부를 하는데 내가 원래 작은 공부를 더 잘하고 작은 공부를 좋아할 사람이 단순히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내가 헛된 명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관심을 버리고 큰 학문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남들이 선망하는 것이냐,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냐, 세상에서 더 큰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이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간 됨됨이, 내 성격, 내 흥미와 잘 부합하는 공부를 내가 진실되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공부를 보면 나라고 하는 인간을 알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데요.

이런 학문관은 그러면 왜 개진하는 걸까요? 보면 작은 것의 가치를 지금 더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하학에 탐닉한 이 유금이라고 하는 인물을 옹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포석 같은 것을 깔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글의 후반부를 한번 보면요. 이제 드디어 이 글의 주인공인 유금이 등장하고요. 유금이 기하학 및 서양의 자연과학에 심취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심취된 유금이라고 하는 인간의 인간 됨됨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자 해당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일찍부터 유금(柳琴) 탄소(彈素: 유금의 자字)와 더불어 친근하게 지냈다. 그 사람됨이 전일하고 상밀(詳密)하고 차분하고 치밀하여,

아주 꼼꼼한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배웠는데 알지 못하거든 그만두지 않고 생각했는데 터득하지 못하거든 그만두지 않으니, 정밀하고 자세하게 살피는 자에 가까울 것이다.

즉 생각의 생각을 거듭하는 파고드는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딱 자연과학 공부하기에 좋겠죠. 정밀하고 자세하게 살피는 자에 가까울 것이다. 아까 전반부에 살펴본 학문론에 따르면 작은 학문을 해야 되는 그런 쪽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일찍이 남산 기슭에 있는 그의 집에 들렀는데, 그 편액을 보니

편액은 집에 걸어놓은, 그 집 이름을 지어놓은 그 적어놓은 액자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하실’(幾何室)이라고 되어 있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따져 물었다.

처음에 서유구가 기하실이라고 하는 편액을 보고 들어가서 하는 반응이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서유구의 태도가 암시됐는데요. 일단 좀 더 읽어봅시다.

“그대는 듣지 못했습니까? 육예(六藝)는 도(道)의 말단이고 수(數)는 육예 중에 또 말단이니, 그대의 학문이 이처럼 작군요.”

“그대는 듣지 못했습니까?” “육예”는 좀 자잘한 기예를 뜻해요. “육예는 도의 말단이고”, 수학인데 이 육예의 하나입니다, 이 수학이. “수는 육예 중에서 또 말단이니”, 말단 중에 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의 학문이 이처럼 작군요.” 자, 이렇게 따져버리면 보통 사람 어땠겠어요. 그러면 내가 괜히 이런 거 했나? 그럼 내가 좀 폼 나는 거 한번 해볼까라든가 아니면 왜 이렇게 비난하냐라고 반박하거나

여러 가지 가능할 텐데 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색을 살펴보니 겸연(歉然)한 기색이라곤 없었고 좌우에 있는 것이 온통 천문역수(天文曆數) 책이었는데 흡족하여 만족스러운 듯한 게 그 천성이 원래 그런 것이었다.

여기서 “흡족하여 만족스러운 것이 천성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따라서 사과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 앞에서 따져 물었다고 했는데 사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대는 평판 때문에 자신의 천성을 바꾸는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군요. 게다가 온 세상이 큰 것만 힘쓰는 시대를 당하여 그대 홀로 작은 것을 겸연하게 여기지 않으니 역시 세상에 우뚝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탄소가 나를 지기(知己)로 여겨 드디어 기분을 청하니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대저 그대는 천성을 그대로 따르고 명성을 쫓지 않기 때문에 비록 그대를 대면하지 않더라도 그대의 학문을 들으면 모두 그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그대와 친근하게 지낸 지 오래되었으니 도리어 어찌 잠자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이 글을 적어 주어 후대에 이 사람에 대해 알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여기서 취(取)하도록 하는 바이다.

이렇게 작품이 마무리되는데요. 아까 말한 육예는 예, 악, 사, 어, 서, 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기하학, 수, 이거는 특히 말단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작가가 처음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따져 물었다고 했습니다. 따져 물은 것은 통념에 사로잡힌 반응이죠. 아니 기하학 같은 이런 잔다란 걸 가지고 집 이름을 짓다니, 이런 반응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천문역법의 서적에 둘러싸여 있어서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거에서 유금의 천성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작가는 알아차리고 반응이 바뀝니다. 아, 이 사람은 천성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진실한 학문을 하는구나. 그래서 사과함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의 풍조,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전혀 개의치 않고 기하학에 탐닉한 유금의 모습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헤아린 서유구를 두고 유금은 지기, 내 마음을 아는 벗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글을 지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글을 지으면서 서유구는 단순히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금이라고 하는 인간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기하학 기문」이라고 하는 글은 서학에 탐닉한 서얼 지식인 유금의 마음을 잘 아는 지기의 입장에서 그려보인 유금의 초상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교우론』과 조선후기 우정론

이런 글을 통해서 기하학에 탐닉한 지식인의 초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어서 『교우론』과 조선 후기 우정론을 살펴보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간단하게 이 『교우론』이 동아시아 사회 전반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시대 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일단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의 한 대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우론』 탁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의 벗은 남이 아니라 곧 나의 반쪽이니 바로 제2의 나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벗을 자기처럼 여겨야 한다.” 아주 아름다운 명구죠. 여기서 보면 제2의 나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는 ‘제이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제이오’, 나 오자로 해서 약간의 변주가 되면서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벗은 나의 반쪽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이런 데서 확인이 되는 관념입니다. 그다음에 “벗은 제2의 나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키케로의 『우정론』이나 이런 등등에서 확인이 됩니다. 마테오 리치는 어렸을 때 서양의 고전을 다 외우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우론』을 쓸 때 본인이 외우고 있는 서양의 명구들을 옆 두에 두면서 한문 문장으로 썼겠죠. 자, 그래서 방금 읽은 “나의 벗은 남이 아니라 나의 반쪽이다”, “제2의 나이다”, “벗을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자기에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연장선에서 벗과의

우정을 사고하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식의 접근법이 유교 경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낯설면서도 참신한 이런 발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논어』, 『맹자』 이런 데서도 우정 자체는 중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법은 참신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는가 박지원의 글을 한번 봐볼게요. 「『회성원집』 발문」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회성원집』이라고 하는 건 중국 청나라 지식인의 문집인데 여기에 붙인 글이예요. 이렇게 이 글이 시작해요. 보면,

옛날에 벗에 대해 말한 사람은 벗을 ‘제2의 나’(第二吾)라고 일컫기도 했고

원문에는 이게 ‘제이오’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 마테오 리치의 ‘제이아’에서 한 글자만 바꾼 겁니다.

옛날에 벗에 대해 말한 사람은 벗을 ‘제2의 나’(第二吾)라고 일컫기도 했고 ‘주선인’(周旋人)이라고 일컫기도 했다.

주선인, 이거는 나와 더불어 교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선하는 사람. 나와 더불어 노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주선인’(周旋人)이라고 일컫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문자를 만든 사람은 ‘羽’(깃 우) 자를 빌려 ‘朋’(벗 붕) 자를 만들었고, ‘手’(손 수) 자와 ‘又’(또 우) 자를 합쳐서 ‘友’(벗 우) 자를 만들었으니, 벗이란 마치 새에게 두 날개가 있고 사람에게 두 손이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여기까지 이제 벗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게 아까 읽은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이랑 상당히 지금 통하죠? 자 그다음 이어지는 말을 봅시다.

하지만 교우를 논하는 사람은 “천고의 옛사람을 벗 삼는다”(尙友千古)

한문 원문은 ‘상우천고’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고의 사람은 이미 휘날리는 먼지와 싸늘한 바람으로 변해 버렸으니,

죽은 지 오래됐죠.

그렇다면 누가 장차 ‘제2의 나’가 될 것이며, 누가 나의 주선인이 되겠는가?

이 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의 흔적이 확인이 됩니다.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은 아까 “벗은 제2의 나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다음에 이 벗이 나랑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벗으로 통해서 내가 완전해지고 이런 등등의 관념이 문자학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깃 우자라든가 벗 우자가 만들어진 과정 이런 걸 설명하는 부분도 이게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자, 그런데 이렇게 “벗은 제2의 나이다”라고 하는 관념은 무엇과 대비시키고 있죠. 그 대비되는 것이 바로 우정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인 ‘상우천고’라고 하는 관념입니다. 천고의 옛사람을 벗 삼는다 이거는 너무 답답한 말이고 그게 아니라 벗은 제2의 나이고 바로 현세에 있는 눈앞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박지원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상우천고’라고 하는 건 『맹자』에 보이는 말입니다. 굉장히 상고주의적인 관점이고요. 지금 시대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다, 내 뜻을 나누고 나를 인정해 주고 내 진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성에 차는 사람은 없다, 내 성에 차는 사람은 옛날에 훌륭한 성인들 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관념 속에서 그래서 지금 사람 중에는 친구가 없으니 옛날 사람 중에 나의 벗을 삼겠다, 내 뜻이 맞는 사람을 발견하겠다, 이게 바로 상우천고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비판하면서 벗은 옛날에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나와 동시대를 호흡하고 있는 이런 동시대 사람 중에서 진정한 벗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서학과의 접점 속에서 우정론

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서학의 영향을 일면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박지원이 개진한 우정론에는 유교적인 전통도 없을 수가 없고요. 또 당대 조선의 현실도 개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서학의 충격이라고 하는 게 덧붙여진 거기 때문에 이 박지원의 우정론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번 수업에서는 서양과 동양의 문명적인 충돌이 우리 문학사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가를 보기 때문에 서학의 영역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이 박지원의 이런 우정론은 좀 더 낭만적인 형태라고 할까 좀 더 아름다운 형태로 더 드러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준 편지」에서 박지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벗을 잃는다면 행여 내게 눈이 있다 한들 내가 보는 것을 누구와 함께 볼 것이며, 행여 내게 귀가 있다 한들 내가 듣는 것을 누구와 함께 들을 것이며, 행여 내게 입이 있다 한들 내가 맛보는 것을 누구와 함께 맛볼 것이며, 행여 내게 코가 있다 한들 내가 맡는 향기를 누구와 함께 맡을 것이며, 행여 내게 마음이 있다 한들 장차 나의 지혜와 깨달음을 누구와 함께 하겠는가?

즉 벗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공유하는 존재이고 이 벗이 사라지면 공유할 존재가 사라지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감각으로 치면 거의 연인에 대한 서술같이 보일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데요. “벗은 제2의 나이다”라고 한 관념이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5. 서구적 인간중심주의 비판

이렇게 해서 우정론과 서학의 관계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좀 더 사상사적으로 서구적인 인간 중심주의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이 잘 드러나는 게 『천주실의』 중에 살생계를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이 살생계는 뭐냐면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이 살생계를 『천주실의』에서는 비판합니다, 잘못된 교리라고. 어떤 취지로 비판하나면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천주실의』 제5편인데,

천주께서 이 천지 및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한번 보면, 그것들을 생기게 하여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쪽 내려갔어요. 보시면,

오색(五色)은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하고, 오음(五音)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며, 온갖 맛있고 향기로운 것들은 우리의 입과 코를 기분 좋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

갓가지 부드럽고 따뜻한 물건들은 우리의 사지(四肢)를 편안하게 해준다. 갓가지 약재들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니 밖으로는 우리의 몸을 기르고 안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조절한다.

그다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늘 천주의 높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때때로 그것을 삼가 사용해야 한다. 새와 짐승 중에 털이나 깃이나 가죽이 있는 것으로는 외투나 신발을 만들 수 있고, 보배로운 상아나 뿔이나 껍질이 있는 것으로는 기이한 기물을 만들 수 있으며, 신묘한 약재가 있는 것은 질병을 잘 치료하고, 맛있는 것은 우리의 노인이나 어린이를 잘 기를 수 있으니, 우리가 어찌 이것을 취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천주께서 사람들에게 가죽의 도살을 허용하지 않았으면서 가죽에게 좋은 맛을 부여했다면, 어찌 헛되이 부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살생계는 잘못된 거고 가죽을 도살해서 그 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은혜이고 이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이라는 것이죠, 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그런 것인데 이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하느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테오 리치가. 그래서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의 눈으로, 초월자의 눈으로 인간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감이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이 종교 서적에서 강해졌을까 어떻게 많이 설명하나면 천주교 교리도 단일하지가 않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떤 면이 강화되고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마테오 리치가 피력한 이 천주교 교리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발전한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상이 덧붙여진 천주교 사상이라는 겁니다. 즉 르네상스 시기의 천주교 교리라는 거 그런 걸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주실의』를 매개로 해서 서양의 르네상스 시기에 발전했던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상이 동아시아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이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과 공명을 한 조선 후기 문학 작품의 예가 있습니다. 이언진이라고 하는 중인층의 시인이 있는데요. 요절을 한 굉장히 문제적인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호동거실』이라고 하는 연작시를 썼었어요. 그 『호동거실』이라고 하는 여러 편의 연작시 중에 한 편을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번역문만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조물주께서 나를 총애하여 인간으로 만드셨으니
거듭 절하며 하늘과 땅에 감사드리네.

하느님의 은혜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늘과 땅에 기도드리고 인사할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시구를 봅시다.

온갖 형상을 내어 내 눈을 즐겁게 하고
온갖 소리를 두어 내 귀를 즐겁게 하네.

즉 모든 이 세상 삼라만상은 다 인간으로 태어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이런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해 준 조물주께 나는 감사하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게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를 피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외적인 존재는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사고를 지금 시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물주의 은총이라고 얘

기하는 거고요. 이게 앞에서 살펴본 『천주실의』의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하고 사실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주실의』의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과 공명하는 시가 있는 한편으로 또 이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고찰한 또 글이 있어요. 자, 성호 이익의 글이 대표적입니다. 성호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실린 글 중에 육식에 대해서 고찰한 글이 있습니다. 「육식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육식의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천주실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성호 이익의 주장은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따져보면 할 것이 못 되지만 또 육식을 대변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불가피하게 고기를 먹긴 먹어야 되겠지만 미안한 마음을 갖고 부득이한 마음을 갖고 육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육식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글입니다.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나의 동포이고 만물은 나의 동반자이다.

벌써 만물에 대한 관점이 다르죠. 나와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이용하고 착취하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초목은 지각이 없으므로 피와 살을 가진 동물과 구별되니 그것을 취하여 먹고 살아도 괜찮다.

즉 채식 정도는 크게 죄책감 가지지 않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에요. 하지만 육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금수(禽獸)로 말하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사람과 똑같은데 또 어찌 차마 해칠 수 있겠는가?

동물을 잡아먹으려면 생명을 해쳐야 되는데 인간도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그런 공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죽이는 게 마음이 안쓰럽고 육식을 하기가 인간으로서 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 중에서 사람을 해치는 동물은 이치상 응당 사로잡거나 죽여야 할 것이고,

이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죠.

사람을 위해 길러지는 동물은 곧 나의 도움으로 성장한 것이니 나에게 의탁한 점이 있다.

즉 사육한 동물은 좀 부득이하게 잡아먹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산 위나 물속에서 절로 태어나 절로 자란 것들이 모두 사냥과 고기잡이의 해침을 당하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

즉 멀쩡하게 자연 세계에서 성장하는 동물을 잡아 잡는 것은 좀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다음 글이 넘어가서요.

어떤 사람이 “만물이 모두 사람을 위해 생겨났으니 사람에게 먹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는데,

아까 방금 읽은 『천주실의』의 논리랑 거의 비슷하죠.

정자(程子)가 이 말을 듣고

정자, 송나라 때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한 어떤 사람은 마테오 리치는 아니긴 한 거죠.

“이[蟲]는 사람을 물어뜯는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를 위해 생겨난 것인가?”라고 말했으니, 그 변론이 분명하다.

즉 만물이 사람을 위해 생겨났다고 하는 논리는 따지고 보면 인간에게 유리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물어뜯는 거는 그러면 인간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논리적으로 파탄이라는 겁니다. 육식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천주실의』에도 사실 적용할 수 있는 반론입니다. 자, 그다음 보지요.

어떤 사람이 서양 사람에게

자, 여기서 서양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양 사람에게 “만물이 생겨난 것이 모두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자, 앞에서 말한 『천주실의』의 그 내용이에요.

저 벌레가 생겨난 것은 어째서요?”라고 묻자 그 서양 사람이 “참새가 벌레를 먹고 살찌는데 인간은 참새를 잡아먹으니 이것이 곧 인간을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으니, 이 또한 궁색하게 들러댄 말이다.

굉장히 구차한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다시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 육식과 관련된 고민을 하면서 성호 이익은 이런 생각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자기 생각을 피력합니다.

내가 매양 생각하기에, 불가(佛家)의 가르침 중에서 자비(慈悲) 한 가지 일은 아무래도 옳은 듯하다.

『천주실의』랑 반대죠. 『천주실의』에서 마테오 리치는 불교의 살생계는 잘못됐다,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할 게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먹는 것을 천주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당연한 천주의 은총을 누리려는 권리로 생각해야 된다, 동물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은 천주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불교가 맞다, 자비심을 가져서 생명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는 슬퍼해야 되고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논리를 뒤집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호 이익이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해요. 육식을 하기에는 마음이 꺼림칙하지만 그럼 육식을 대변에 없앨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 전반에 퍼진 풍속은 아무리 성인(聖人)일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즉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육식을 해온 역사가 너무 오래되니까 육식이 논리적으로 따져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변에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봅시다.

대저 인간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동물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힘닿는 대로 동물을 잡아먹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풍습으로 되어버렸다. 앞에서 이미 이렇게 했으니 뒤에서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노인을 봉양할 때도 고기를 쓰고 제사 지낼 때도 쓰고 손님을 접대할 때도 쓰고 병이 들었을 때도 쓰니, 한 개인의 견해로 갑자기 폐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즉 육식을 폐지하는 것을 갑자기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인간 사회의 관행에 너무 크게 어긋나는 것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고려죠. 그다음 문단,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성인이 일찌감치 오곡(五穀)을 경작해서 먹고 누에 치고 삼을 삼아 옷을 해 입는 시대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아예 고기 먹는 풍습이 없었더라면 틀림없이 지금처럼 많은 살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육식을 하는 풍습이라고 하는 게 자연 발생적이지만은 않고 인간이 어떻게 문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가변적인 면이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군자가 부득이해서 하는 일이니, 역시 부득이한 마음으로 먹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멋대로 탐욕을 부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생을 자행한다면, 약육강식으로 귀결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호 이익의 결론은 다소 애매할 수 있겠는데요. 육식에 수반되는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식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은 또 불가능하니 육식의 불가피성을 인정은 하되 마음대로 살생을 자행하지는 않고 부득이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절제하고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육식을 줄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명쾌하고 급진적인 거를 기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하고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육식의 문제점을 직시하면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 사회 관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고도 있겠죠.

근데 이 육식의 문제에 대한 성호 이익의 생각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수업에서 포인트는 그것보다는 이 육식의 문제를 사고하면서 『천주실의』로 대변되는 서양의 생명관, 서양의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명관이 비판적으로 음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육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이지만 크게 고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으레 먹는 것이겠거니 그냥 맛있는 것이겠거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면서 즉 인간 문명 전체를 떠받드는 육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서양과의 관계 속에서 서양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꼭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문명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러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우리 동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연민의 마음을 또 배신하는 것이기도 하고 만물은 우리의 동반자인데 동반자와 함께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육식의 문제를 사고해야 된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 서양의 사상이 소환이 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6. 더 생각해볼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서학이 우리 고전 문학에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서구화가 된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서양적인 것을 내면화하고 발전시키면서 또 우리 나름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모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선시대부터 단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서양 문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경만 살펴보았는데 안경 외에도 조선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진 서양 문물이 무엇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글들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박지원의 우정론을 살펴보았는데 박지원의 우정론을 형성하는데 서학 외에도 유교적인 전통도 있고 조선 후기 사상사의 전개 과정도 있고 조선 후기 사회 현실도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박지원의 교우 관계나 인간 자세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서학 이외의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공부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천주실의』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성호 이익의 비판적인 입장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요. 그리고 그 비판적인 입장을 토대로 자기 나름의 대안적인 사고를 개진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사상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냐 육식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생태 위기 속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를 저 옛날에 실학자가 벌써 고민을 했는데 지금의 맥락에서 시의성을 갖는 방향으로 고전의 유산을 새롭게 음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강의 내용 요약 및 정리

오늘 강의에서는 ‘동서 문명의 충돌과 융합’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서학의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서학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과 일본으로 가져온 한역 서학서를 통해 조선에 유입되었습니다. 조선 지식인들은 이 책들을 통해 서양의 우정론, 천주교 교리, 수학, 지리학 등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서학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글을 몇 편 살펴보았습니다. 이익의 「애제명」에는 서양 문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글은 안경에 부친 기물명으로, 서양 사람이 안경을 제작함으로써 ‘하늘을 대신하여 인을 행했다’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서유구의 「기하실

기문」은 서양 기하학에 심취하여 자기 집을 ‘기하실’이라고 명명한 유금의 초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서유구는 기하학을 공부하면서 행복해하는 유금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의 사람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금이 기하학을 좋아하는 것은 천성에서 나왔으니, 기하학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학문이라는 통념과 달리 유금의 기하학 공부는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은 조선후기 우정론에 큰 영향을 미친 서학서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박지원의 「『회성원집』 발문」과 「어떤 사람에게 준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박지원의 글에서는 유교적 전통, 당대 조선의 현실, 서학의 충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박지원 나름의 우정론으로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조선 지식인들은 서구의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에 공명하기도 하고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천주실의』에는, 만물은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니 잘 이용해야 한다면서 불교의 살생계를 비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에 공명한 예로는 이언진의 『호동거실』 제 74수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천주실의』의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사상 정립을 한 예로 이익의 『성호사설』 중 「육식에 대하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천주실의』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육식을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더라도 욕심을 부려 약육강식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서 서양의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삶과 문명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습활동 ◆

(총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서학(西學)은 사대부들이 저술한 한역 서학서(漢譯西學書)를 통해 소개되었다. (O/X)

정답: X

2. 마테오 리치는 『교우론』을 한문으로 저술했다. (O/X)

정답: O

3. 「기하실 기문」에서 서유구는 ‘큰 학문’과 ‘작은 학문’의 구분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공부를 하느냐’의 여부라고 보았다. (O/X)

정답: O

4. 『천주실의』에서는 살생계를 비판하면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을 피력하고 있다. (O/X)

정답: O

5. 『성호사설』의 「육식에 대하여」(食肉)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 천주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X)

정답: X

선택형(5분)

1. 다음 중 조선 내 서학의 유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조선 사람과 서양 사람이 한양에서 처음 만난 일이 기록되어 있다.
- ② 『기하원본』은 서양의 수학을 한문으로 번역한 서적이다.
- ③ 『교우론』은 에픽테토스가 저술한 한역 서학서이다.

정답: ②

2. 다음은 조선 지식인이 서양 문물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설명한 것이다. 이 중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이익은 시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안경을 두고 ‘하늘을 대신하여 인을 행했다’고 찬탄하고 있다.
- ② 서유구의 「기하실 기문」은 기하학에 심취한 유금의 사람됨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이익은 천주교를 배척하는 입장을 취했다.

정답: ③

3. 다음 중 『교우론』과 조선후기 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박지원은 『맹자』에 나온 “친고의 옛사람을 벗 삼는다”(尙友千古)는 말에 공감하고 있다.
- ② 박지원은 「어떤 사람에게 준 편지(與人)」에서 벗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공유하는 존재이자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 ③ 『교우론』에서는 자기애에서 출발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벗과 우정을 사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는 유교 경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조선시대에 안경의 다른 이름은 ○○○이다.

정답: 애체경

2. 『○○○○』은 세상의 통념을 벗어난 열 가지 깨달음에 대한 책이다.

정답: 기인십편

3. 이언진의 연작시 『○○○○』중 제74수에는 인간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이 드러나 있다.

정답: 호동거실

나. 토의(45분)

1) 안경 외에 조선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진 서양 문물은 무엇이며 그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가.

(망원경, 자명종 등에 대해 조선 지식인이 지은 글들을 조사해 본다. 중국 체험을 담은 연행록에서 천주당을 통해 접한 서양 문물이 어떻게 서술되었는지 살펴본다.)

2) 박지원의 우정론이 형성된 데 서학 외 유교적 전통, 조선 후기 사상사의 전개, 조선 후기의 사회 현실, 박지원의 교유 관계와 인간 자세 등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논어』, 『맹자』 등 유교 경전에서 벗에 대한 언급을 찾아본다. 주희 등 성리학자들이 우정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고 그 언급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살펴본다. 박지원 이전에 조선 사회에서 우정과 관련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전개되었는지 살펴본다. 조선 후기 정치사 및 당쟁사의 전개가 조선 후기 노론계 지식인의 우정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해 본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박지원의 우정론에 미친 서학의 영향은 인정하되 그 영향을 과도하게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대신 그 복합적인 형성 배경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3) 『천주실의』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성호 이익의 비판적 입장과 그에 입각한 대안적 사고는 어떤 사상사적, 문명사적 의의를 갖는가.

(이익이 서학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은 조선후기 사상사적 맥락에서 주목되는 점인데, 이익이 단지 서학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 아니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합리적 태도를 취한 것에 유의한다. 이익이 『천주실의』의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비판한 것은 육식의 문제 혹은 생명 존중의 문제와 관련하여 동양과 서양의 문명적 충돌 혹은 서양에 대한 동양의 사상적 대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상사적 문명사적 평가를 할 수 있다.)

다. 과제(45분)

오늘 강의에서는 조선 지식인들이 서학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서학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의에서 다룬 작품들을 활용하여 이러한 비판적 수용 양상에 대해 간단히 서술해 보십시오.

(이익의 「애체경명」(愛體鏡銘), 이언진의 「호동거실」 제74수, 박지원의 「회성원집」 발문(繪聲園集跋)은 서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익의 「육식에 대하여」(食肉)는 서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유구의 「기하실」(幾何室) 기문(幾何室記)은 기하학을 ‘작은 학문’으로 간주하는 그 당시 통념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서학 자체에 대한 긍부정을 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서학에 탐닉한 지식인의 모습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서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비판적으로 생각한 것을 유형화하고, 같은 주제나 대상에 대해 인물별로 인식 태도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 그런 차이가 초래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참고자료

〈제1강〉

- 김완진, 『항가와 고려가요』, 서울대출판부, 2000.
- 서철원, 『고전시가수업』, 지식의날개, 2022.
- 서철원, 『항가의 유산과 고려시가의 단서』, 새문사, 2013.
- 일연, 『삼국유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원문 보기)
- 박재민, 「삼국유사 소재 항가의 원전비평과 차자·어휘 변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원문 보기)

〈제2강〉

- 김시습, 『금오신화』, 김경미 옮김, 북큐브네트웍스, 2012. (원문 보기)
-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 박희병·정길수 편역, 『끝나지 않은 사랑』, 돌베개, 2010.
- 「남염부주지」: 박희병·정길수 편역, 『이상한 나라의 꿈』, 돌베개, 2013.
- 『전등신화』: 최용철 옮김, 『전등삼종』 상·하, 소명출판, 2005.
- 『전기만록』: 박희병 역, 『베트남의 기이한 옛이야기』, 돌베개, 2000.
- 박희병, 「한국, 중국, 베트남 전기소설의 미적 특질 연구: 『금오신화』, 『전등신화』, 『전기만록』을 대상으로」, 『대동문화연구』 3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 임형택, 「매월당의 방외인적 성격과 사상」,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제3강〉

- 「최척전」: 박희병·정길수 편역,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 「김영철전」: 박희병·정길수 편역,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 박희병, 「16·1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 이산」,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적 지평』, 알렙, 2019.
- 박희병, 「1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민중의 삶」,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적 지평』, 알렙, 2019.
- 정길수, 「문제적 개인의 등장과 새로운 전망」, 『17세기 한국소설사』, 알렙, 2016.
- 정환국, 「전근대 동아시아와 전란, 그리고 변경인」, 『민족문학사연구』 44, 2010.
- 권혁래, 「17세기 동아시아 전란의 소설적 수용 양상」,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제4강〉

- 임형택 편역, 『이조시대 서사시』 1·2, 창비, 2013.
- 김수영, 「김려의 〈심씨를 위해 지은 시〉 연구」, 『국문학연구』18, 국문학회, 2008. (원문 내려받기)
- 박혜숙, 「담정 김여-새로운 감수성과 평등의식」, 『부령을 그리며』, 돌베개, 1996.
- 박혜숙,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현실」, 『민족문학사연구』 9, 1996. (박혜숙, 『한국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에 재수록)

〈제5강〉

- 정약용 시 선집: 최지녀 편역, 『다산의 풍경』, 돌베개, 2008.
- 정약용 산문 선집: 박혜숙 편역, 『다산의 마음』, 돌베개, 2008.
- 정약용의 현실비판시들: 임형택 편역, 『이조시대 서사시』 1·2, 창비, 2013.
- 『다산시문집』 번역문 전체 (한국고전종합DB 원문 보기)
- 박혜숙, 「정약용의 「노인일패사」와 노년의 양식」, 『민족문학사연구』 41, 2009.
- 임형택, 「정약용의 민주적 정치사상의 이론적·현실적 근거」,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 송재소, 『다산시연구』, 창작과비평사, 1986.

〈제6강〉

-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 돌베개, 2011.
- 박혜숙, 「주해 〈덴동어미화전가〉」, 『국문학연구』 24, 국문학회, 2011. (원문 내려받기)
- 박혜숙, 『한국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
-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와 여성의 연대」, 『여성문학연구』 14,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원문 내려받기)

〈제7강〉

-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 한문 단편집』 1~3, 창비, 2018.
- 전경목, 「‘양반되기’ 서사를 통해 본 조선시대 양반의 조건」, 『한국한문학연구』 81, 2021.(원문 내려받기)
- 박희병, 「『청구야담』 연구」,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적 지평』, 알렙, 2019.
- 이강옥, 『한국 야담의 서사세계』, 돌베개, 2018.
- 정하영, 「치부담에 나타난 윤리관」, 『이화어문논집』 9, 1987.

〈제8강〉

- 『해유록』 선집: 이효원 편역, 『조선 문인의 일본견문록』, 돌베개, 2011.
- 『해유록』 전문 (한국고전종합DB 원문 보기)
- 「일동장유가」: 최강현 역주, 『일동장유가』, 보고서, 2007.
- 「일동장유가」: 이민수 교주, 『일동장유가』, 탐구당, 1976.
- 박희병·이효원, 『18세기 통신사 필담』 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이효원, 「『해유록』의 글쓰기 특징과 일본 인식」, 서울대 박사논문, 2015. (원문 보기)
- 이해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 최재남, 「〈일동장유가〉의 표현과 내포」, 『진단학보』 126, 진단학회, 2016. (원문 내려받기)

〈제9강〉

- 박지원, 김철조 옮김, 『열하일기』, 돌베개, 2009.
- 이가원 번역 (한국고전종합DB 원문 보기)
-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돌베개, 2022.
- 구범진, 『1780년, 열하로 간 정조의 사신들』, 21세기북스, 2021.
- 박수밀, 『열하일기 첫걸음』, 돌베개, 2020.
- 박희병, 『범애와 평등』, 돌베개, 2013.
- 임형택, 「박지원의 주체의식과 세계인식」,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제10강〉

- 마테오 리치, 송영배 외 옮김, 『천주실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마테오 리치, 송영배 역주, 『교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이익, 「안경에 대한 명」(靛隸鏡銘) (한국고전종합DB 원문 보기)
- 이익, 「『천주실의』 발문」(跋天主實義) (한국고전종합DB 원문 보기)
- 박지원, 「회성원집 발문」(繪聲園集跋), 김명호·신호열 옮김, 『연암집』, 돌베개, 2007. (한국고전종합DB 원문 보기)
- 서유구, 「기하실 기문」: 김대중, 『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돌베개, 2018)의 인용문
- 이연진, 「호동거실」: 박희병, 『저항과 아만』, 돌베개, 2009.
- 히라카와 스케히로, 노영희 옮김, 『마테오 리치』, 동아시아, 2002.
- 김대중, 『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 돌베개, 2018.
- 김수진, 「18세기 노론계 지식인의 우정론」, 『한국한문학연구』 52, 2013. (원문 내려받기)
- 김명호, 「연암의 실학사상에 미친 서학의 영향」,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 이홍식, 「조선후기 우정론과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 『한국실학연구』 202, 2010.
- 김대중, 「‘작은 존재’에 대한 성호 이익의 ‘감성적 인식」, 『대동문화연구』 65, 2009.
- 임형택, 「박연암의 윤리의식과 우정론의 성격」,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